

국역 醫學入門 食治門

醫學入門內集卷又二上下

食治門・附食治方

저자 이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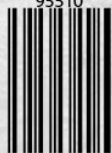
국역 임진석

해제 임진석

비매품
95510



9 788959 703630



ISBN 978-89-5970-363-0 (EPUB3)

ISBN 978-89-5970-364-7 (PDF)

ISBN 978-89-5970-365-4 (MOBI)



한국한의학연구원

「食治篇」

Table of Contents

원문·국역

식치문 상 食治門上	1.1
미곡부 米穀部	1.1.1
채부 菜部	1.1.2
식치문 하 食治門下	1.2
과부 果部	1.2.1
수부 獸部	1.2.2
금부 禽部	1.2.3
충어부 蟲魚部	1.2.4
부록. 식치방 食治方	1.3
풍 風	1.3.1
한 寒	1.3.2
서 暑	1.3.3
습 濕	1.3.4
조 燥	1.3.5
화 火	1.3.6
내상비위 內傷脾胃	1.3.7
기 氣	1.3.8
혈 血	1.3.9

담 痰	1.3.10
열 熱	1.3.11
음허 陰虛	1.3.12
양허 陽虛	1.3.13
제허 諸虛	1.3.14

해제·출판

해제	2.1
일러두기	2.2
출판사항	2.3

- 本草分類 三 본초분류 3

1.1. 食治門上 | 식치문 상

- [○人知藥之藥人하고 而不知食之藥人이라 世有誤食一毒而宿疾이 遂愈者하니 天이 生萬物은 以養人也니 豈爲口腹計哉아 孫眞人이 謂 醫者는 先曉病源하야 知其所犯이어든 以食治之하고 食療不愈 然後에 命藥이니 不特老人小兒에 相宜라 凡驕養과 及久病厭藥과 窮乏하야 無資貨藥者도 俱宜以飲食으로 調治라하니 故로 采食鑑本草와 及大觀、集韻하야 爲歌하고 更附各門方法於 後하노니 中有鱉肉、龜肉、麥芽之類를 本門에 不載者는 已采入五品正藥일새니 目錄을 可查라 凡言食某物에 忌某物者는 養生家 法也니 脾盛善食者라 면 不拘니라.]

[○사람들은 약이 사람에게 약이 되는지는 알지만 음식이 사람에게 약이 되는 줄은 모른다. 세상에는 독을 한 가지 잘못 먹고 도리어 묵은 질병이 낫는 경우가 있다. 이로써 보자면 하늘이 만물을 생육하는 이유는 이것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을 보양하려고 하기 때문이니, 어떻게 입과 배만을 위해 계획한 것이겠는가? 손진인(孫眞人)이 다음처럼 말했다. 의사는 먼저 질병의 근원을 명확하게 밝혀서 그 침범한 원인을 알게 되면, 음식으로 치료해 보아야 한다. 음식으로 치료해도 낫지 않은 다음에야 약 쓰기를 명해야 한다. 이는 노인과 소아에게만 적합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 만성환자로서 약을 혐오하는 사람, 그리고 가난해서 약을 살 돈이 없는 사람 모두가 음식으로 조리하여 치료하는 것이 적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감본초(食鑑本草)》, 《대관본초(大觀本草)》, 《집운(集韻)》 등을 채록하여 노래로 만들고, 각 분류 뒤에 음식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붙인 것이다. 이 중에 자라 고기, 거북이 고기, 맥아(麥芽) 종류가 들어가 있으며, 본 치식문(治食門)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앞서 오

품정약(五品正藥) 중에 채록해 두었기 때문이며, 본초목록(本草目錄)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에는 어떤 물질을 금해야 한다는 말은 양생가(養生家)의 방법을 말한 것이니, 만약 비위(脾胃)가 강성하여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라면 구매받지 않는다.)

1.1.1. 米穀部 | 미곡부

- 〔麴、紅麴、麥芽、油麻、食塩、扁豆、赤小豆 已上은 俱見前卷하니라.〕

〔신국(神麴), 홍국(紅麴), 맥아(麥芽), 유마(油麻), 식염(食塩), 편두(扁豆), 적소두(赤小豆). 이상은 모두 전권(前卷)에 나와 있다.〕

粳米 | 갱미

粳米無毒 甘平味니 能和五臟 補脾胃를! 長肌堅骨 止泄煩이오 强志益精 又益氣를!
蘗米溫中 宿食消요 杵糠下噎 取其義를.

갱미(粳米)는 독이 없고 맛이 달며 약성이 평이하니, 오장(五臟)을 조화롭게 만들고 비위(脾胃)를 보한다. 살을 찌우고 뼈를 강화하며 설사와 번갈(煩渴)을 멎게 하고, 뜻을 강화하며 정기(精氣)를 보익한다. 얼미(藥米)는 속을 데우고 숙식(宿食)을 소화시키고, 저강(杵糠)은 목이 메는 증상을 내려주는 작용이 있어서 절구로 찧는다는 의미를 취한 것이다.

- 〔粳은 硬也니 堅硬於糯米也라 卽今의 白晩米與早米는 赤白 大小 異族이로대 惟白晩米가 爲最라 入手太陰 少陰經이라 平和五臟、補益胃氣하야 長肌肉、壯筋骨、止煩渴、泄痢하며 强心志、益腎精、益肺氣라 養生書에 云 氣精이 皆從米하야 變化而生 故로 字皆從米하니 有病者는 煮粥食之하고 不雜一物이라도 其病이 自愈니 造飯에 過熟則佳라 食乾飯이면 止瀉요 若常食乾飯이면 令人으로 熱中하야 唇口乾하고 和蒼耳食이면 令卒心痛이니 燒陳倉米하야 和蜜漿하야 解之요 和馬肉 同食이면 發痼疾하고 新熟者는 動氣하고 經再年者

는 發病이라 液에 云 白虎湯에 用之하야 入肺는 以陽明이 爲胃之經으로 色爲西方之白也(앨)새요 少陰證 桃花湯에 用此는 甘以補正氣요 竹葉湯에 用此는 甘以益不足이라하니라.)

(갱(粳)은 단단하다는 뜻으로서 찹쌀보다 더 단단하다는 뜻이다. 지금의 백만미(白晩米)와 조숙미(早熟米)는, 빛깔이 붉은 색과 흰 색으로 다르고, 크기 역시 다른데, 오직 백만미가 가장 좋다. 수태음(手太陰)과 소음경(少陰經)으로 들어간다. 오장(五臟)을 평화롭게 하고, 위기(胃氣)를 보익하며, 기육(肌肉)을 성장시키고, 근골(筋骨)을 강화하며, 번갈(煩渴)과 설리(泄痢)를 멎게 하고, 심지(心志)를 강화하며, 신정(腎精)과 폐기(肺氣)를 보익한다. 양생서(養生書)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기(氣)와 정(精)은 모두 미(米)를 따라 이것에서 변화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글자가 모두 미(米)자를 따르는 것이다. 환자들이 죽을 썬어서 먹으면, 다른 물질을 전혀 섞지 않아도 병이 저절로 낫게 된다. 밥을 지을 때에는 꼭 익히는 게 좋다. 마른 밥을 먹으면 설사가 멎게 된다. 다만 마른 밥을 늘 먹으면 중초(中焦)에 열이 생겨서 입술과 입이 마르게 되고, 창이자(蒼耳子)와 섞어 먹으면 급성 심통(心痛)을 유발한다. 이러한 증상에는 창고에서 묵은 쌀을 태워 꿀물에 탄 것으로 해독한다. 말고기와 같이 먹으면 고질(痼疾)이 재발한다. 새로 익은 것은 불필요한 기(氣)를 움직이게 하고, 2년 묵은 것을 먹으면 발병한다. 《탕액본초(湯液本草)》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백호탕(白虎湯)에 멍쌀을 넣으면 폐로 들어가게 되는데, 양명(陽明)은 위(胃)의 경(經)으로, 색이 서방(西方)의 백색이기 때문이다. 소음증(少陰症)에 있어 도화탕(桃花湯)에 이것을 쓰는 이유는 단 맛으로 정기(精氣)를 보하려는 것이고, 죽엽탕(竹葉湯)에 이것을 쓰는 이유는 단 맛으로 원기의 부족을 보하고자 해서이다.)

- (○ 孽米는 卽穀芽也니 去殼하고 止取蘖中之米니 故로 曰蘖米라 味苦溫하고 無毒이라 主寒中、下氣、開胃、消食하며 除煩熱하며 性溫於麥芽니라.)

(○ 열미(孽米)는 바로 곡아(穀芽)를 말한다. 껍질을 없애고 열(藥) 속 쌀만 쓰는 것이므로, 열미(孽米)라고 부른다. 맛이 쓰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없다. 속의 한기(寒氣)를 치료하며, 기를 내리고, 위(胃)를 열며, 음식을 소화시키고, 번열(煩熱)을 없앤다. 약성은 맥아(麥芽)보다 따뜻하다.)

- (○ 杵糠은 卽舂杵頭의 細糠也니 性平이라 主卒噎不下와 及反胃不止하니 刮取하여 含之면 卽去니 亦取其舂搗之義耳라 又燒末하여 服之면 令易産이오 以糠作枕이면 損人眼目이니라.)

(○ 저강(杵糠)은 절구 공이에 묻은 자잘한 쌀겨를 말하는 것이니, 약성이 평이하다. 갑자기 목이 메어 내려가지 않거나 그치지 않는 반위(反胃)를 치료하니, 굽어서 모아 입에 머금으면 바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도 절구질하는 데에서 약리(藥理)의 의미를 취한 것이다. 또 태워서 분말하여 먹으면 출산을 쉽게 하도록 만들어준다. 쌀겨로 베개를 만들어 쓰면 눈을 손상시킨다.)

陳倉米 | 진창미

陳倉米鹹 酸澁溫하니 調胃能止 洩如奔을! 寬中下氣 除煩渴이오 更消蠱腫 封瘡痕을.

진창미(陳倉米)는 맛이 짜고 시며 덩고 약성은 따뜻하니, 위(胃)를 조절하고 폭주하는 설사를 멎게 한다. 속을 완화시키고 기를 내리며 번갈(煩渴)을 없애고, 또 수고(水蠱)와 독종(毒腫)을 사라지게 하며 창상(瘡傷)으로 생긴 흉터를 메운다.

- (倉은 廩也니 卽粳米로 以廩軍人者라 陳久者가 良이니 無毒이라 調胃、緩脾하며 寬中、下氣하며 除煩、止渴、消食、澁腸하며 止洩痢하고 食之면 易飢라 炊作乾飯이면 止痢하며 補中、益氣하며 堅筋骨、通血脈、起陽道라 北人

은 炊之하야 於瓮中에 水浸令酸하야 食之하니 煖五臟六腑之氣라 凡熱食이면 卽熱하고 冷食이면 卽冷하니 假以火氣면 體自溫平이니라.)

(창(倉)은 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맵쌀을 군인들에게 제공하는 곳이다. 오래 묵은 것이 좋다. 독이 없다. 위(胃)를 조절하고, 비(脾)를 완화시키며, 중초(中焦)를 부드럽게 하여 기를 내리고, 번(煩)과 갈증을 없애고 그치게 하며, 음식을 소화시키고, 장을 삼(澁)하게 하며, 설리(泄痢)를 멎게 하는데, 먹으면 쉽게 배가 고프게 된다. 불을 때서 마른 밥을 만들어 먹으면 이질(痢疾)이 그치고, 보중익기(補中益氣)하며, 근골(筋骨)을 강화하고, 혈맥(血脈)을 소통시키며, 양기(陽氣)를 일으킨다. 북쪽 사람들은 밥을 지어 옹기 속에 넣고 물에 넣어 신맛이 나게 해서 먹는다. 이렇게 하면 오장육부(五臟六腑)의 기가 데워진다. 대개 뜨겁게 먹으면 뜨겁게 되고, 차게 먹으면 차갑게 되니, 화기(火氣)를 빌리면 신체가 저절로 따뜻하고 평온하게 된다.)

- [○ 黃米丸이라 治水蠱하나니 用乾絲瓜 一捧을 去皮剪碎하야 和巴豆 十四粒 同炒하야 以巴豆色黃으로 爲度하야 去巴豆하고 入陳倉米를 如絲瓜之多少하야 同炒하야 米黃色이 어든 去絲瓜하고 爲末 水丸 梧子大하야 每湯下百이면 丸數服에 卽愈니 蓋絲瓜는 如人之脈絡然하고 引巴豆之氣하야 入皮膚也(엘) 새니라.)

(○황미환(黃米丸)은 다음과 같다. 수고(水蠱)를 치료하는 것이니, 마른 수세미 한 개의 껍질을 벗겨내고 잘라 부수어, 파두(巴豆) 14알을 넣고 같이 볶되, 파두가 노랗게 될 때까지 한다. 그런 다음 파두를 없애고, 수세미 양만큼 묵은 창고의 쌀을 넣고 같이 볶는다. 쌀이 노랗게 되면 수세미를 없애고 분말로 만들어 물로 오동나무의 씨만 한 크기로 제한한다. 한 번에 끓인 물로 100알씩 먹기를 몇 번 하면 바로 나을 것이다. 대개 수세미는 사람의 맥락(脈絡)과 그 형상이 비슷한 데다 파두의 기를 끌고 피부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 〔○ 又蒸作餅하야 和醋하야 封毒腫、惡瘡이면 立差니라.〕

〔○ 또 찌서 떡을 만들어 식초를 섞어서 독종(毒腫)과 악창(惡瘡)에 메우면 바로 낫는다.〕

糯米 | 나미

糯米甘溫 主溫中이오 止吐瀉亂 安胎宮을! 炒黑敷瘡 黃止衄이오 多食熱壅 氣不通을! 稗又退黃 并蠱毒이오 煮汁飲之 立見功을.

나미(糯米)는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며 속을 데우니, 토사(吐瀉)와 객란(霍亂)을 그치게 하고 태동한 자궁을 안정시킨다. 검게 태워서 창(瘡)에 붙이고 노랗게 구워서 코피를 멎게 한다. 많이 먹으면 열이 발생하여 기를 응체(壅滯)하게 만든다. 벼짚은 황달(黃疸)과 고독(蠱毒)을 물리치니, 달여서 즙을 마시면 효능이 나타날 것이다.

- 〔糯는 稷也니 其米가 軟而粘하니 卽稻米也니 今人이 用之하야 作酒하며 煮糖者니 無毒이라 溫中、益氣하며 實腸、止洩하며 定霍亂、養下元、縮小便하며 治婦人胎動腹痛하야 下黃水하니 和氣血藥中하야 服之요 若雜肉同進이면 則不利其子니라 炒黑水調하야 傳癰疽、金瘡、水毒、竹木刺하고 炒黃爲末하야 新汲水로 下二錢이면 治鼻衄不止요 多食이면 生熱하야 壅諸經絡氣하야 令人으로 神昏、噯酸、脹悶이라가 久則動風、發瘡、緩筋하며 身軟不能行 하나니 諸家가 因見食者 多病此證하고 遂以糯性으로 爲寒하니 不知其性是 實溫이로대 而體質이 粘滯難化하야 脾胃弱者는 濕熱이 生而氣窒不通하니 觀之造酒건대 其熱을 可見이라 作糜粥하야 食之면 止消渴하고 合酒同食이면 醉難醒이니라.〕

〔나(糯)는 부드럽다는 뜻이니, 그 쌀이 부드럽고 차진 것으로, 바로 도미(稻米)이다. 요즘 사람들은 이것으로 술을 빚거나 고아서 엿이나 사탕을 만든다. 독이 없다. 중초(中焦)를 데우고 기를 보익한다. 장(臟)을 실하게

하여 설사를 멎게 하고, 객란(霍亂)을 안정시키며, 하초(下焦)의 근원을 보양하고, 잦은 소변의 횡수를 줄여주고, 부인의 태동(胎動)으로 인한 복통(腹痛)으로 황수(黃水)가 나오는 증상을 치료하니, 기혈약(氣血藥)과 섞어서 먹는다. 만약 육류(肉類)와 같이 먹으면 태아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 검게 볶아서 물에 개어 웅저(癰疽), 금창(金瘡), 수독(水毒), 대나무에 찢린 곳에 붙이고, 노랗게 볶아서 분말로 만들어 새로 길은 물로 2돈 먹으면 그치지 않는 코피를 치료할 것이다. 다만 많이 먹으면 열이 생겨 제반 경락(經絡)의 기를 막아서, 의식이 혼미해지고, 신물이 올라오며, 속을 더 부룩하고 답답하게 만드는데, 오래 되면 풍(風)을 동하게 하고, 창(瘡)을 유발하며, 근육을 이완시키고, 몸을 연약하게 하여 걷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을 먹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증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미(糯米)의 약성이 차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나미의 약성은 따뜻한 것이지만 바탕이 끈끈하고 정체하여 소화시키기 어려워서, 비위(脾胃)가 약한 사람들에게 습열(濕熱)이 생겨서 기가 막히고 소통하지 못하게 된다는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술을 빚을 때 보면 그 뜨거운 성질을 볼 수 있다. 죽을 쑤어 먹으면 소갈(消渴)을 그치게 하고, 술과 같이 먹으면 취해서 깨기 어렵게 될 것이다.)

- [○ 稻稈은 治黃病通身과 及蠱毒하니 煮汁飲之면 効니라.]

[○ 찰벼의 줄기는 전신의 황달(黃疸)과 고독(蠱毒)을 치료하니, 달여서 즙을 마시면 효과적이다.]

- [○ 按五穀컨대 稻、黍、稷、麥、菽이오 早米、晚米、糯米도 皆稻也어늘 舊說에 獨以糯米 爲稻하니 則誤也라 陶隱居가 云 詩에 黍、稷、稻、粱、禾、麻、菽、麥은 八穀也로대 俗人이 莫能證辨이온 而況芝英乎아라하니라 然이나 陶는 以禾로 卽是粟이라하고 朱子는 詩註에 明言하되 禾者는 穀連藁秸之

總名이라하시니 但八穀에 有粟이라야 則是니 盖言梁則包粟在中이오 但諸穀은 皆以各方風土의 所宜와 人事早晚으로 有異爲名하며 其種類도 最多로대 此엔 識其入藥者耳니라.)

(○ 생각하건대 오곡(五穀)은 도(稻), 서(黍), 직(稷), 맥(麥), 속(菽)이다. 조미(早米), 만미(晩米), 나미(糯米)는 모두 버인데도, 옛날에는 나(糯)만을 도(稻)라고 했으니, 이것은 틀린 말이다. 도은거(陶隱居)는 다음처럼 말했다. 《시경(詩經)》에서, 서(黍), 직(稷), 도(稻), 량(梁), 화(禾), 마(麻), 속(菽), 맥(麥)을 팔곡(八穀)이라고 했지만, 속인들은 구별하지 못하거늘, 더욱이 지영(芝英)을 감별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도홍경(陶弘景)은 화(禾)라는 것이 속(粟)을 말한다고 하였고, 주자는 《시경집주(詩經集註)》에서, 화(禾)는 곡(穀)에서 호갈(蒿秸)까지의 총칭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하니 팔곡에는 속(粟)이 있는 것이 옳다. 대개 량(梁)을 말하였으니, 속(粟)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여러 곡식은 모두 각 지방 풍토의 적합함과 사람들이 일하는 시기에 따라 각각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종류 역시 가장 많지만, 여기서는 약에 들어가는 것만 기록할 뿐이다.)

黍米 | 서미

黍米益氣味甘溫하니 肺病相宜 多則煩을! 赤者微苦 止咳嗽요 霍亂洩痢 作粥飡을!
秫米能潤 大腸燥요 釀酒踰急 自然伸을.

서미(黍米)는 기를 보익하는 것으로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니, 폐병(肺病)에 적합하나 많이 먹으면 번민(煩悶)과 번열(煩熱)과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 붉은 것은 약간 쓰고 기침을 그치게 하며, 학란(霍亂)과 설사에는 죽으로 먹는다. 출미(秫米)는 대장(大腸)의 메마름을 윤택하게 하고, 술을 빚어 먹으면 근육의 쥐를 저절로 이완시킨다.

- 〔性이 宜高燥而寒 故로 北地에 有似粟而非粟하니 穀之類也라 似蘆하야 高丈餘로 穗는 黑色이오 實은 圓重하니 大槩有二種이라 米粘者는 爲秠이오 不粘者는 爲黍요 黍는 又有丹、赤、黑의 數種하며 無毒이라 肺之穀也니 肺病에 宜食이오 益氣、安中、補不足、宜脈이라 不可久食이니 多熱하야 令人으로 煩悶하며 昏五臟、好睡하며 發宿疾、緩筋骨、絶血脈이오 合葵菜食이면 成瘡疾하고 合牛肉、白酒食이면 生寸白蟲이니라.〕

〔성질이 높고 건조하며 추운 데에 적합하니, 북쪽 땅에서 나고, 좁쌀과 비슷하지만 좁쌀은 아니고, 곡식 종류이다. 갈대와 유사하여 높이는 1장이 넘는다. 이삭은 검고, 열매는 둥글고 무겁다. 대략 두 종이 있는데, 끈끈한 것이 출미(秠米)며, 끈끈하지 않는 것이 서(黍)다. 서(黍)는 또 단(丹), 적(赤), 흑(黑)의 몇 종이 있다. 독이 없다. 폐에 유익한 곡식이니, 폐병에 먹는 것이 좋다. 기를 보익하고, 중초(中焦)를 안정시키며, 부족한 것을 보하고, 혈액순환에 좋다. 오랫동안 먹는 것은 불가하니, 열이 많아서 사람을 번민(煩悶)하게 만들고, 오장(五臟)을 혼탁하게 하며, 졸음이 많게 하고, 목은 질병을 유발시키며, 근골(筋骨)을 이완시키고, 혈맥을 끊기 때문이다. 아욱 나물과 같이 먹으면 고질(瘡疾)이 되고, 쇠고기나 백주(白酒)와 같이 먹으면 촌백충(寸白蟲)을 발생시킨다.〕

- 〔○ 赤黍米는 皮赤 米黃하며 味苦、微溫하고 無毒이라 主咳嗽、欬逆、霍亂하며 止洩痢하며 除熱、止渴、下氣라 衍義에 云 但可爲糜요 不堪爲飯이니 粘着難脫이오 然亦動風이라하니라.〕

〔○ 붉은 서미(黍米)는 껍질이 붉고 낱알이 노랗다. 맛은 쓰고, 약성은 약간 따뜻하며, 독이 없다. 해수(咳嗽), 해역(咳逆), 광란(霍亂)을 치료하며, 설사와 이질(痢疾)을 그치게 하고, 열을 없애며, 갈증을 멎게 하고, 기를 내린다. 《연의(衍義)》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죽은 쑤어 먹을 수 있지만, 밥으로 먹기에는 부적합하니, 끈끈하여 붙어서 떨어뜨리기 어렵고, 또 풍(風)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 〔○ 稬米는 似黍米而粒小하니 卽詩之所謂稬也라 性宜下濕而暑 故로 東南에 皆有之하니 宜作酒라 肥軟易消 故로 謂之軟粟이오 又謂糯粟이라 味甘微寒하고 無毒이라 止寒熱、利大腸하며 能壅五臟氣하야 動風하니 不可常食이라 又 和茵陳、地黃하야 釀酒服이면 治筋骨攣急하고 嚼爛하야 塗瘡疥、漆瘡、凍瘡、犬咬요 又爲末하야 雞子白으로 調塗腫毒이니라.〕

〔○ 출미(稬米)는 서미(黍米)와 유사한데, 낱알이 작은 것이니, 곧 《시경(詩經)》에서 말한 도(稬)라는 것이다. 성질이 낮고 축축하며 더운 곳에 적합하므로, 동남쪽에서 모두 자라는 것이다. 술을 빚기에 적당하다. 통통하고 부드러워 잘 소화되므로 연속(軟粟)이라고도 하고, 나속(糯粟)이라고도 한다. 맛이 달고, 약성이 약간 차며, 독이 없다. 한열(寒熱)을 멎게 하고, 대장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나, 오장(五臟)의 기를 응체(壅滯)시켜서 풍(風)을 유발하므로 상용식으로 먹으면 안 된다. 또 인진(鄰珍) 및 지황(地黃)과 같이 술을 담아 먹으면 근골(筋骨)의 경직과 경련을 치료하고, 씹어 으깨어 창개(瘡疥), 칠창(漆瘡), 동상(凍傷), 개에 물린 상처에 바른다. 또 분말로 만들어 달걀흰자에 개어서 종독(腫毒)에 바른다.〕

稬米 | 직미

稬米本是 五穀長이니 甘芳可愛 供祭饗을! 利脾胃解 毒苦瓠요 多食令人 發瘡冷을.

직미(稬米)는 본래 오곡(五穀) 중 으뜸이니, 맛이 달고 향기로워 아꼐 만하며 제사에 써서 흠향한다. 비위(脾胃)에 유익하고 고훈(苦瓠)의 독을 풀어주지만, 많이 먹으면 고냉(瘡冷)을 유발한다.

- 〔稬은 亦穀之類라 似黍而小하니 卽今之稬米로 又謂之粢니 爲五穀之長이오 米熟이면 芳香을 可愛 故로 取以供祭祀요 其莖穗는 人家用作掃帚라 性冷하고 無毒이라 主益氣、安中、補不足하며 利脾、宜胃하며 治熱하며 解苦瓠、丹石毒이오 多食이면 發三十六種冷病이라 八穀之中에 最爲下니 苗黍로 乃作酒요 此乃作飯에 用之라 不可與附子和 同食이니라.〕

(직(稷) 역시 곡물(穀物)의 종류다. 서(黍)와 비슷하지만 작은 것이니, 곧 지금의 제미(稷米)이며, 자(粢)라고도 부르는데 오곡의 으뜸이다. 낱알이 익으면 향기로워 아꼐 만하므로 제사에 바치는 것이다. 줄기와 이삭은 민가에서 빗자루를 만든다. 약성은 차고, 독이 없다. 기를 보익하고, 중초(中焦)를 안정시키며, 부족한 부분을 보한다. 비(脾)에 적합하고, 위(胃)에 이로우며, 열을 치료하고, 고향(苦瓠)과 단석(丹石)의 독을 해독한다. 다만 과식하면 36종 냉병(冷病)을 유발한다. 팔곡(八穀) 중 가장 낮으며, 묘서(苗黍)로는 술을 빚고, 이것으로는 밥을 짓는다. 부자(附子)와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穬麥 | 광맥

穬麥除熱 味甘寒하니 令人輕健 氣力完을! 大麥鹹溫 止消渴이오 調中益氣 可常飡을.

광맥(穬麥)은 열을 제거하며 맛이 달고 약성이 차니, 사람의 몸을 가볍고 튼튼하게 하며 기력을 온전하게 만든다. 대맥(大麥)은 맛이 짜고 약성이 따듯하니, 중초(中焦)를 조절하고 기를 보익하니 늘 먹을 수 있다.

- [麥에 有穬麥、大麥、小麥、蕎麥이라 穬是麥之皮號니 猶稻爲穀之通名也라 穬麥도 亦大麥也로대 但大麥은 皮稍薄하고 小麥은 皮又更薄耳라 故로 作藥이면 皆溫中、消穀이니라.]

(맥(麥)에는 광맥(穬麥), 대맥(大麥), 소맥(小麥), 교맥(蕎麥)이 있다. 광(穬)은 맥의 껍질을 말하는데, 마치 도(稻)가 곡물의 통칭이 되는 것과 같다. 광맥도 역시 대맥이지만, 대맥은 껍질이 약간 얇고, 소맥은 더 얇다. 그래서 싹이 트게 하면 모두 중초(中焦)를 데우고 곡물을 소화시킨다.)

- [○穬麥은 無毒이라 主輕身、除熱하며 久食이면 令人으로 多力、健行、不動疾이로대 惟先患冷氣人이면 不宜니라.]

〔○ 광맥(穰麥)은 독이 없다. 몸을 가볍게 하고, 열을 없앤다. 오래 먹으면 사람이 힘이 세지고, 힘차게 다니게 되며,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냉기를 앓아오던 사람에게만은 적합하지 못하다.〕

- 〔○ 大麥도 無毒이라 主消渴하며 除熱、調中、益氣하며 補虛劣、壯血脈、實五臟、肥肌膚、益顏色、化穀食하며 療脹止泄하며 頭不白하며 不動風氣로 대 暴食之면 稍似脚弱하니 爲下氣하야 及腎腰 故也니 久면 甚宜人하고 熟卽 益人이오 帶生이면 卽冷하야 損人이오 作麪이면 無熱躁하야 勝於小麥이라 蜜을 爲之使라 丹溪가 云 初熟時에 人多炒食之하니 此等은 有火하야 能生熱病 이어늘 人不知之라하니라 又和針砂、沒石하야 染鬚면 甚黑이니라.〕

〔○ 대맥(大麥)은 독이 없다. 소갈(消渴)을 치료하며, 열을 없애고, 중초(中焦)를 조절하며, 기를 보익하고, 허로(虛勞)를 보하며, 혈맥(血脈)을 왕성하게 하고, 오장(五臟)을 실하게 하며, 기부(肌膚)를 살찌게 하고, 안색을 좋게 하며, 곡식을 소화시키고, 창만(漲滿)을 치료하며, 설사를 그치게 하고, 머리가 새지 않게 하며, 풍기(風氣)를 동하게 하지 않지만, 폭식하면 종아리가 약간 약해질 것이다. 이것은 기를 내려서 신장과 허리에 미치기 때문이다. 오래 먹기에는 사람에게 아주 적합하다. 익혀 먹으면 사람에게 유익한 반면, 덜 익어서 선 것은 약성이 차서 사람을 손상시킨다. 국수를 만들면 열조성(熱躁性)이 없어져서 소맥(小麥)보다 낫다. 꿀을 사약(使藥)으로 한다. 주단계(朱丹溪)가 다음처럼 말했다. 처음 익을 때 사람들이 많이 볶아 먹는데, 이렇게 하면 화기(火氣)가 있게 되어서 열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또 침사(針砂)와 몰석(沒石)과 섞어서 수염을 염색하면, 아주 검게 된다.〕

小麥 | 소맥

小麥甘涼 養心肝이오 除煩止渴 利便難을! 潤咽更止 漏唾血이오 浮者盜汗 卽時乾을! 麥苗退熱 消酒疸이오 麥奴治疫 解金丹을.

소맥(小麥)은 맛이 달고 약성이 서늘하며 심장과 간을 보양하니, 번(煩)을 없애고 갈증을 멎게 하며 번비를 부드럽게 소통시킨다. 목구멍을 윤택하게 하고 자궁의 하혈과 타혈(唾血)을 멎게 하고, 물에 뜨는 것은 도한(盜汗)을 바로 그치게 한다. 싹은 열을 물리치고 술로 인한 황달(黃疸)을 없애고, 맥노(麥奴)는 전염병을 치료하며 금단(金丹)의 독을 해독한다.

- [小는 形이 小也요 麥은 脉也니 以繼續穀米하야 續民命脈이라 卽今人의 所磨爲麪食者니 無毒이라 主養心肝氣하며 除熱하며 止煩渴、咽乾하며 利小便하며 止漏血、唾血、暴淋하며 殺虵蟲이라 合湯에 皆完用之는 熱家療也니라.]

[소(小)는 형태가 작다는 뜻이고, 맥(麥)은 맥(脉)이라는 의미이니, 곡미(穀米)를 계승하여 사람들의 목숨을 이어준다는 뜻이다. 현재 사람들이 빵아서 밀가루를 만들어 먹는 것이다. 독이 없다. 심기(心氣)와 간기(肝氣)를 보양하며, 열을 없애고, 번갈(煩渴)과 목이 건조한 증상을 멎게 하고, 이뇨(利尿) 작용을 하며, 자궁의 출혈과 타혈(唾血), 급성 임질(淋疾)을 그치게 하고, 회충(虵蟲)을 죽인다. 탕에 넣을 때 모두 그대로 다 쓰는 것은, 열이 나는 사람을 치료하기 때문이다.]

- [○ 浮小麥은 止盜汗하며 治大人小兒骨蒸肌熱과 婦人勞熱하니 入藥에 微炒니라.]

[○ 부소맥(浮小麥)은 도한(盜汗)을 그치게 하고, 대인과 소아의 골증(骨蒸)과 살결의 열, 여성들의 과로로 인한 발열을 치료한다. 약에 넣을 때 약간 볶아서 쓴다.]

- [○ 麥苗는 味辛寒하니 退胃中邪熱하며 消酒毒、除黃疸、利小便하니 絞汁하야 服之니라.]

[○ 밀의 싹은 맛이 맵고, 약성이 차다. 가슴 속 사열(邪熱)을 물리치고, 술의 독과 황달을 없애며, 이뇨(利尿) 작용을 하니, 짜서 즙을 먹는다.]

- [○ 麥奴는 卽苗上의 黑黴라 主煩熱하며 解丹石과 天行熱毒이니라.]

(○ 맥노(麥奴)는 곧 싹 위에 있는 감부기를 말한다. 번열(煩熱)을 주치하고, 단석(丹石)의 독과 유행성 열독(熱毒)을 해독한다.)

麴 | 면

麴性甘溫 能補虛요 强氣厚腸 實肌膚를! 麴凉調中 仍去熱이오 麴筋益氣 腹 舒를!
蕎麥甘平 去滓穢요 食久風動 脫眉鬚를.

면(麴)은 맛이 달고 약성이 따하니, 허(虛)를 보하고, 기를 강화시키며 장(腸)을 강하고 두텁게 하며 살결을 실하게 한다. 밀기울은 약성이 서늘하니 중초(中焦)를 조절하며 열을 없애고, 면근(麴筋)은 기를 보익하고 배를 편안하게 한다. 교맥(蕎麥)은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니 찌꺼기를 없애지만, 오래 먹으면 풍(風)을 유발시켜 눈썹과 수염을 빠지게 한다.

- [即小麥麴이니 性溫하야 不能消熱、止煩하고 惟養氣、補不足、助五臟、調經絡、續氣脉、實膚體、厚腸胃、强氣力하나니 其有濕熱이면 能發諸病하며 壅熱하야 小動風氣하니 不可常食이라 丹溪가云 麴은 熱而麴는 凉하니 須晒令燥하야 以少潤之하야 舂去皮하고 煮爲飯하야 食之면 無麴熱之後患이라하니 圖經에云 凡麥은 秋種 冬長 春秀 夏實하야 具四時中和之氣 故로 爲五穀之貴요 大小麥은 地煖處에 亦可春種之하야 至夏에 便收나 然이나 比秋種者면 四氣가 不足 故로 有毒이라하고 又云 磨中石末이 在內라 所以有毒이니 但杵로 作粉食之면 補中氣、和五臟이라하니라 凡麴食은 熟則益人하고 生則有損이라 古方에 治婦人乳癰不消에 用白麴 半斤을 炒黃하야 醋調塗上하고 內又水煮服之요 又炒食之하야 止痢하고 醋蒸하야 罨折傷하면 卽定이라하니라.]

(바로 소맥면(小麥麵)이다. 약성이 따듯하니, 열을 없애거나 갑갑함을 그치게 하지는 못하고, 오직 기를 보양하고 부족한 것을 보하며, 오장(五臟)을 돕고, 경락(經絡)을 조절하며, 기맥(氣脈)을 지속시켜주고, 부체(膚體)를 실하게 하며, 장위(腸胃)를 강하고 두텁게 만들어 주고, 기력(氣力)을

강화시켜준다. 습열(濕熱)이 있는 경우에 쓰면 여러 질병을 유발하고, 열을 막아서 풍기(風氣)를 약간 동하게 하니, 늘 먹어서는 안 된다. 주단계(朱丹溪)가 다음처럼 말했다. 밀가루는 성질이 뜨겁고, 밀기울은 서늘하다. 반드시 햇볕에 쬔어 말리고, 약간 적셔서 찢어 껍질을 없앤 다음 밥을 지어 먹어야 밀의 성질이 뜨거워서 생기는 후환이 없게 된다. 《본초도경(本草圖經)》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모든 맥(麥)은 가을에 심어 겨울에 자라며, 봄에 무성하여 여름에 열매를 맺으니, 사계절의 중화(中和)한 기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오곡(五穀) 중 귀한 것이다. 대맥(大麥)과 소맥(小麥)은 땅이 따뜻한 곳에서는 봄에 심어서 여름에 바로 수확하기도 하지만, 가을에 심은 것에 비하여 사기(四氣)가 부족하므로, 독이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가는 도구에 있는 돌가루가 밀가루 속에 섞여서 유독한 것이다. 다만 절구로 분말하여 먹으면, 속을 보하고 기를 증익해서, 오장(五臟)을 조화롭게 만든다. 대개 밀가루 음식은 익히면 사람에게 유익하지만, 날 것은 손상시킨다. 옛 사람들은 여성의 유옹(乳癰)이 없어지지 않을 때 흰 밀가루 반 근을 누렇게 볶아서 식초에 개어 바르고, 또 물에 끓여서 내복(內服)하였다. 또 이것을 볶아서 먹으면 이질(痢疾)을 그치게 하고, 식초로 찌서 부러진 손상에 덮으면 안정시킨다.)

- [○ 麥麩는 凉하니 調中、去熱하며 止洩痢、治時疾하고 熱瘡、湯火瘡爛、撲損折傷、瘀血에 醋炒罫之라 第三磨者는 凉이라하니 謂其近麩也니라.]

[○ 밀기울은 약성이 서늘하니, 중초(中焦)를 조절하고, 열을 없애며, 설사와 이질을 그치게 하고, 유행성 질환을 치료하며, 열창(熱瘡), 화상으로 문드러진 증상, 타박상과 부러진 손상, 어혈(瘀血)에 식초로 볶아서 덮는다. 세 번 갈면 약성이 서늘해진다고 하는 것은 약성이 서늘한 밀기울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 [○ 麴은 溫하니 消穀과 及諸生物하며 止痢、消痔하며 主小兒癰이니라.]

[○ 국(麴)은 약성이 따뜻하니, 곡물과 여러 가지 날 음식을 소화하고, 이질(痢疾)을 그치게 하며, 치질(痔疾)을 없애고, 소아의 간질(癎疾)을 치료한다.]

- [○蕎麥은 慳寒하고 無毒이라 實腸胃、益氣力하나 久食이면 動風하야 令人頭眩이오 和猪羊肉하야 食之면 患熱風、癩하야 脫人眉鬚하나니 雖動諸病이나 猶挫丹石하며 能鍊五臟滓穢하야 續精神이라 小兒赤丹에 醋和 敷之하고 杖瘡에 雞子白으로 調塗면 有効요 其葉은 作茹食之면 下氣、利耳目하되 多食이면 卽微洩이오 其穰은 燒灰淋汁하야 洗六畜瘡이니라.]

[○ 메밀은 약성이 차고, 독이 없다. 장위(腸胃)를 실하게 하고, 기력을 보익하지만, 오래 먹으면 풍(風)을 유발하여 사람의 머리를 어지럽게 한다. 돼지나 양고기와 같이 먹으면 열풍(熱風)과 문둥병을 앓게 하여 눈썹과 수염이 빠지게 한다. 비록 여러 질병을 유발하지만, 오히려 단석(丹石)의 독을 꺾으며 오장(五臟)의 더러운 찌끼를 녹여서 정신을 지속시킨다. 소아의 단독(丹毒)에는 식초로 개어 붙이고, 매 맞은 창(瘡)에는 달걀흰자에 개어 바르면 효과가 있다. 옹은 나물로 먹으면, 기를 내리고, 귀와 눈을 원활하게 하지만, 많이 먹으면 약간 설사가 나기도 한다. 그 짚을 태워서 낸 즙은 가축의 창(瘡)을 씻는 데 쓴다.]

大豆 | 대두

大豆甘平 除胃熱이오 逐水通淋 散積結을! 破瘀治風 及癰瘡이오 消穀 膨 炒作屑을!
豆腐 中 脾胃和요 大腸濁氣 能淸別을.

대두(大豆)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니 위열(胃熱)을 없애고, 물을 몰아내며 임질(淋疾)을 통하게 하고 쌓인 응결을 흘린다. 어혈(瘀血)을 부수고 풍(風)과 옹창(癰瘡)을 치료하며, 곡식을 소화시키고 팽만(膨滿)을 완화하니 볶아서 가루를 만들어 쓴다. 두부(豆腐)는 중초(中焦)를 완화시키고 비위(脾胃)를 조화롭게 만들고, 대장(大腸)의 탁기(濁氣)를 맑게 해준다.

- 〔豆는 卽菽也니 無毒이라 除胃中熱痺하며 逐水脹、傷中淋露하며 散五臟結積、下瘀血이라 炒令烟未斷에 乘熱投酒中하야 治風痺 癰瘡 口噤、頭風과 及産後風虛、血病이오 和飯搗하야 塗一切癰瘡、腫毒、小兒豌豆瘡이오 炒爲屑은 主胃熱하며 去腫、除痺消穀、止腹脹이오 煮汁은 甚凉하니 可以壓丹石毒하며 解 頭 諸藥毒하며 殺牛馬瘟毒하며 兼能調中、下氣、止痛하며 通關脉、殺鬼毒、治喉痺요 食罷에 生服半兩이면 去心胃煩熱、熱風恍惚하며 明目、鎮心、溫補요 又醋煮服이면 治子死腹中、胎衣不下라 炒食이면 極熱하고 煮食及作豉면 極冷하고 作腐則寒而動氣하며 黃卷及醬은 平이로대 牛食이면 溫하고 馬食이면 冷이니 一體之中에 用之數等이니 大抵 宜作藥使耳라 但有 黑白二種하니 黑者是 入藥하고 白者是 不用이오 其緊小者是 爲雄豆니 入藥에 尤佳라 惡五參、龍膽하고 得前胡、烏喙、杏仁、牡蠣면 良이니라.)

(두(豆)는 콩을 말한다. 독이 없다. 위(胃) 속의 열비(熱痺)를 없애고, 수창(水脹)과 중초(中焦) 손상 및 임로(淋露)를 몰아낸다. 오장(五臟)에 쌓인 적(積)을 흘리고, 어혈(瘀血)을 나가게 한다. 볶아서 연기가 끊어지지 않고 뜨거울 때 술 속에 넣은 것으로, 풍비(風痺), 탄탄(癰瘡), 구금(口噤), 두풍(頭風), 산후의(産後) 풍허(風虛)와 혈병(血病)을 치료한다. 밥과 같이 찢어서 모든 웅창(癰瘡) 및 종독(腫毒)과 소아의 완두창(豌豆瘡)에 바른다. 볶아서 가루로 만든 것은 위열(胃熱)을 주치하고, 종(腫)과 비(痺)를 없애며, 곡식을 소화하고, 복창(腹脹)을 멎게 한다. 달인 즙은 약성이 아주 서늘하니, 단석(丹石)의 독을 누를 수 있으며, 오두(烏頭)와 여러 약의 독을 해독하고, 소와 말의 온독(瘟毒)을 죽이고, 아울러 중초(中焦)를 조절하며, 기를 내리고, 진통하고, 관맥(關脈)을 소통시키며, 귀독(鬼毒)을 죽이고, 후비(喉痺)를 치료한다. 식사 후 날 것을 반 냥 먹으면 심흉(心胸)의 번열(煩熱)과 열풍(熱風)으로 황홀해지는 증상 없애주고, 눈을 밝히며, 심장을 진정시켜주고, 따뜻하게 보하는 작용을 한다. 또 식초로 달여서 먹으면 뱃속에서 사산한 태아와 태반이 나오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볶아서 먹으면 약성이 아주 뜨겁게 되고, 삶아서 먹거나 두시(豆豉)를 만들면 아주

차갑게 된다. 두부로 만들면 약성이 차게 되어 기를 움직이게 한다. 콩나물과 장으로 만들면, 약성이 평이하지만, 소가 먹으면 따뜻하게 되고, 말이 먹으면 차갑게 된다. 한 가지 본체에 여러 개의 작용이 있는 것이니, 대체로 사약(使藥)으로만 쓸 뿐이다. 다만 검은 색과 흰 색 2종류가 있는데, 검은 것은 약에 넣고, 흰 것은 약으로 쓰지 않는다. 단단하고 작은 것은 솜콩으로 약에 넣으면 더욱 좋다. 오삼(五參)과 용담(龍膽)을 싫어하고, 전호(前胡), 오웁(烏喙), 행인(杏仁), 모려(牡蠣)와 같이 쓰면 좋다.)

- (○ 黃豆는味甘溫하니 中、下氣하며 利大腸、消水脹、腫毒이니라.)

(○ 황두(黃豆)는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니, 중초(中焦)를 완화하고, 기를 내리며, 대장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수창(水脹)과 종독(腫毒)을 없앤다.)

- (○ 白豆는 卽今之飯豆니 味鹹平이라 腎之穀이니 腎病에 宜食이요 補五臟、煖腸胃하며 調和十二經脈이오 其嫩葉은 謂之藿이니 可作菜食이니 利五臟하며 下氣니라.)

(○ 백두(白豆)는 곧 지금 밥을 지어먹는 콩이니, 맛이 짜고, 약성이 평이하다. 신장(腎臟)에 이로운 곡식이므로, 신장병에 먹는 것이 적합하다. 오장(五臟)을 보하고, 위장(胃腸)을 데우며, 십이경맥(十二經脈)을 조화롭게 만든다. 어린잎은 곽(藿)이라고 하며, 나물로 먹는데, 오장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기를 내린다.)

- (○ 豆腐는 味甘平하니 寬中、益氣하며 和脾胃、下大腸濁氣하며 消脹滿이라 中寒하야 多泄、多屁者면 忌食이니라.)

(○ 두부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니, 중초(中焦)를 완화하고, 기를 보익하며, 비위(脾胃)를 고르게 하고, 대장(大腸)의 탁기를 내리게 하며, 창만(脹滿)을 없앤다. 중초(中焦)가 차가워서 설사가 많고 방귀가 많은 환자에게는 금한다.)

大豆黃卷 | 대두황권

【大豆黃卷】味甘平하니 濕痺筋攣 膝痛疼을! 更除氣聚 并積結이오 蓴婦瘀血 即時行을! 菉豆作者 堪爲茹요 解熱醒酒 心自清을.

【대두황권(大豆黃卷)】은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니, 습비(濕痺)와 근육 경련 및 무릎의 통증을 치료한다. 또 기가 모이거나 응결한 적(積)을 없애고, 출산 회복기의 어혈(瘀血)을 바로 순행하게 해준다. 녹두로 만든 것은 나물로 먹을 만하니, 해열(解熱)하고 술을 깨게 하며 심장이 저절로 맑아지게 한다.

- 〔即豆芽也라 以生豆로 爲之니 芽出에 便晒乾하야 名爲黃卷이니 無毒이라 主 濕痺筋攣 膝痛하며 破婦人惡血하며 及蓴婦藥中에 多用之라 又除五臟胃氣結 積하며 去黑痣、面黯하며 潤皮毛하며 益氣、解毒이라 入藥에 微炒니라.〕

(바로 콩의 싹이다. 날 콩으로 만드는 것으로, 싹이 나오면 바로 햇볕에 말리기에 이름을 황권(黃卷)이라고 한 것이다. 독이 없다. 습비(濕痺), 근육 경련, 무릎의 통증을 치료한다. 여성의 악혈(惡血)을 부수며 산후 회복기 약에 많이 쓴다. 또 오장(五臟)과 위기(胃氣)의 결적(結積)을 없애고, 검은 사마귀와 주근깨를 제거하며, 살결과 털을 윤택하게 하고, 기를 보익하며 해독한다. 약에 넣을 때에는 약하게 볶아서 쓴다.)

菉豆 | 녹두

菉豆甘寒 解諸毒이오 熱風消渴 研汁服을! 更治霍亂 消腫浮요 作枕清頭 明眼目을! 粉糝痘瘡 不結痂요 脾胃虛人 難尅伏을.

녹두(菉豆)는 맛이 달고 약성이 차니 여러 가지 독을 해독하고, 열풍(熱風)과 소갈(消渴)에 날것을 갈아 즙을 먹는다. 또 곽란(霍亂)을 치료하고 부종(浮腫)을 없애며, 베개를 만들면 머리를 맑게 하고 귀와 눈을 밝게 한다. 가루는 딱지가 앉지 않은 두진(痘疹)에 뿌리나, 비위(脾胃)가 허한 환자는 소화흡수가 어렵다.

- [色綠 圓小者라야 佳라 皮寒肉平하고 無毒이라 解一切藥草 虫魚 牛馬 金石等 毒하며 除煩熱、風疹、消渴하니 生研汁하야 服之요 霍亂、吐逆、奔豚에 和 胡椒의 等分하야 爲末하야 冷水로 調服이오 又煮食이면 消腫、下氣、滲利小便하고 作枕이면 治頭風痛、明目이라 入藥에 須帶皮 用之니 去皮면 卽小有 壅氣하리라.]

(녹색이며 둥글고 작은 것이 좋다. 껍질은 성질이 찬 반면, 육질은 성질이 평이하다. 독이 없다. 모든 약초, 벌레, 물고기, 소와 말, 금석(金石) 등의 독을 해독한다. 번열(煩熱), 풍진(風疹), 소갈(消渴)을 없애니, 날것을 갈아서 즙을 내어 먹는다. 객란(霍亂), 토역(吐逆), 분돈(奔豚)에는 호초(胡椒)를 같은 양 넣어서 분말로 만들어 찬물에 타서 먹는다. 또 끓여서 먹으면 종기를 없애고, 기를 내리며, 이뇨(利尿) 작용을 한다. 베개를 만들면 두풍통(頭風痛)을 치료하고, 눈을 밝게 한다. 약에 넣을 때는 껍질째 쓸 것이니, 껍질을 벗겨내면 기를 약간 막게 될 것이다.)

- [○ 豆粉은 甘平하고 無毒이라 市中貨者는 多僞하니 入藥에 須用眞者라 治小兒痘瘡이 十餘日토록 濕爛不結痂者에 以粉糝之면 効요 又解諸熱이라 熟者는 膠粘難得尅化하니 脾胃虛弱人이 病者는 忌之니라.]

(○ 녹두 가루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가짜가 많으니, 약에 넣을 때는 반드시 진품을 써야 한다. 소아의 두창(頭瘡)이 10여일이 지나도 진물이 흐르며 딱지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가루를 뿌리면 효과적이다. 또 여러 열을 해열한다. 익힌 것은 끈적거려서 소화하기 어려우니, 비위(脾胃)가 허약한 환자에게는 금한다.)

- [○ 搗爛作餅하야 灸食之면 佳니 和五臟、安精神、行十二經脉하야 益氣力 潤皮肉하며 除熱毒風、厚腸胃하니 可常食之니라.]

(○ 곱게 찢어서 떡을 만들어 구워서 먹으면 좋다. 오장(五臟)을 조화롭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십이경맥(十二經脈)을 순환시키고, 기력을 보익하며, 기육(肌肉)을 윤택하게 하고, 열독(熱毒)을 제거하며, 장위(腸胃)

를 강하고 두텁게 하니, 늘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담두시 | 담두시

담두시(淡豆豉) 寒無毒하니 表汗吐煩 及勞復을! 定喘止痢 更安胎요 腳痛癰腫 敷且服을.

담두시(淡豆豉)는 맛이 쓰고 약성이 차며 독이 없으니, 체표(體表)의 땀과 구토 및 번갈(煩渴)과 노복(勞復)을 치료한다. 천식(喘息)을 안정시키고 이질(痢疾)을 그치게 하며 또 안태(安胎)하고, 종아리의 통증과 옹종(癰腫)에 붙이고 또 먹기도 한다.

- (即常用豆豉니 不入塩者라야 佳니 純陰이라 主傷寒頭痛 寒熱과 一切時行瘴毒하니 和葱白하야 服之면 發汗이 最速이오 又能吐 虛煩 躁悶、心中懊惱、勞復、食復하며 兼定 虛勞喘急、暴痢腹痛、血痢、胎動血下요 兩脚疼冷에 浸酒服之하며 以渣外敷요 作餅하야 灸發背、癰腫이오 又殺六畜 胎子諸毒과 中毒藥 蟲氣하며 毆跌로 瘀血聚腹、瘡疾、骨蒸、犬咬니라.)

(곧 상용하는 두시(豆豉)이다. 소금을 넣지 않은 게 좋다. 순수한 음(陰)이다. 상한병(傷寒病)으로 인한 두통과 한열(寒熱), 모든 유행성 질병과 장독(瘴毒)을 치료한다. 총백(蔥白)과 같이 달여 먹으면 가장 빠르게 땀이 나오게 한다. 또 허번(虛煩), 조민(躁悶), 심중오뇌(心中懊惱), 노복(勞復), 식복(食復)을 토하게 한다. 아울러 허로(虛勞)로 숨이 찬 증상, 급성 이질(痢疾)로 인한 복통(腹痛), 혈리(血痢), 태동(胎動)으로 인한 하혈(下血)을 안정시킨다. 두 종아리가 시리고 아픈 증상에는 술에 담갔다가 먹고, 찌꺼기를 겉에 붙인다. 떡을 만들어 발배(發背)와 옹종(癰腫)에 땀을 뚫는다. 또 여섯 가지 가축 태아의 여러 독, 독약과 충기(蟲氣)의 죽이고, 넘어져서 생긴 어혈(瘀血)이 배에 쌓인 증상, 학질(瘡疾), 골증(骨蒸), 개에 물린 상처를 치료한다.)

- (○ 單方이라 治陰莖瘡痛爛하니 豉 一分、蚯蚓濕泥 二分을 水研塗하되 乾則 易之요 又中 蝦蟆毒하야 便閉臍痛에 水煮服之요 頭風痛에 煎湯浴之면 卽瘥 니라.)

(○ 단방(單方)은 다음과 같다. 음경(陰莖)이 창(瘡)으로 아프고 헛었을 때, 두시(豆豉) 1푼, 지렁이의 축축한 진흙 2푼을 물에 갈아서 바르되, 마르면 새것으로 바꾸어준다. 두꺼비의 독에 중독되어 변이 막히고 배꼽이 아플 때에는 물에 달여서 먹는다. 두풍통(頭風痛)에는 달여서 목욕하면 바로 낫는다.)

粟米 | 속미

粟米 鹹寒 養腎氣요 胃虛嘔吐 作爲丸을! 若除胃熱 須陳者요 更治消中 利小便을.

속미(粟米)는 맛이 짜고 약성이 차니 신기(腎氣)를 보양하고, 위허(胃虛)로 인한 구토에는 한약을 만들어 쓴다. 만약 위열(胃熱)을 없앨 때는 반드시 묵은 것을 쓸 것이며, 또 소증(消中)을 치료하고 이뇨(利尿) 작용을 한다.

- (粟은 從鹵 從米하니 象形也니 卽今之小米로 山東에 最多요 五穀中에 最硬하야 謂之硬粟이니 得漿水면 卽易化하고 無毒이라 丹溪가 云 屬水與土하니 陳者는 難化라하고 衍義에 云 生者는 難化요 熟者는 滯氣隔食하야 生蟲이라하 니라 所謂養腎、補骨者는 味鹹 故也요 去脾胃虛熱과 氣弱食不消化、嘔逆、反胃、湯飲不下하니 用粟米粉을 作丸梧子大하야 煮熟에 入塩 少許하야 并汁食之면 和中、益氣하고 兼治腹痛、鼻衄하며 解諸毒이라 陳者는 味苦하니 除胃熱、消渴하며 利小便、止洩痢、壓丹石熱하나니 衍義에 云 利小便 故로 益脾胃라 하니라 又粟粉은 炒黑하야 雞子白으로 調貼癰腫이니라.)

(좁쌀은 노(鹵)와 미(米)를 따르니 상형자(象形字)이다. 요즘 소미(小米)라고 하는 것으로서, 산둥(山東) 지방에 가장 많고, 오곡(五穀) 중 가장 단해서 경속(硬粟)이라고도 부른다. 장수(漿水)에 잘 녹는다. 독이 없다.

주단계(朱丹溪)가 다음처럼 말했다. 수(水)와 화(火)에 속하는 것으로 묵은 것은 소화시키기 어렵다. 《본초연의(本草衍義)》에서는 다음처럼 말했다. 날것은 소화시키기 어렵고, 익힌 것은 기를 정체시켜 먹은 음식을 막아서 벌레를 생기게 한다. 신(腎)을 보양하고 뱀을 보한다는 말은 맛이 짜기 때문이다. 비위(脾胃)의 허열(虛熱)과 기가 약하여 음식을 소화하지 하는 증상, 구역질, 반위(反胃), 마신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증상을 없애니, 좁쌀을 가루로 만들어 오동나무씨앗의 크기로 제환(製丸)하여, 삶아서 익으면 소금을 조금 쳐서 좁과 같이 먹으면, 중초(中焦)를 조화롭게 만들고, 기를 복돋우며, 아물러 복통(腹痛)과 코피를 치료하고, 여러 가지 독을 해독한다. 묵은 것은 맛이 쓰니, 위열(胃熱)과 소갈(消渴)을 없애고, 이뇨(利尿) 작용을 하며, 설리(泄痢)를 그치게 하고, 단석(丹石)의 열을 진압한다. 《본초연의(衍義)》에서 소변을 잘 내보내므로 비위(脾胃)를 보익한다고 하였다. 또 좁쌀가루를 까맣게 태워서 달걀흰자에 개어 옹종(癰腫)에 붙인다.)

- (○ 泔汁은 主霍亂、轉筋、卒熱心煩하니 飲之立瘥나 胃冷者면 不宜多食이오 臭泔은 止消渴、五痔、疳痢하며 洗皮膚瘡疥요 下澱酸腳은 殺蟲하며 塗惡瘡이니라.)

(○ 뜨물의 좁은 곽란(霍亂), 전근(轉筋), 급성 열로 심번(心煩)한 증상에, 마시면 바로 낫지만, 위(胃)가 찬 환자는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취감(臭泔)은 소갈(消渴), 오치(五痔), 감리(疳痢)를 멎게 하며, 피부의 창개(瘡疥)에는 씻는다. 아래에 가라앉은 신 찌꺼기는 살충(殺蟲)하며, 악창(惡瘡)에는 바른다.)

梁米 | 양미

梁米 三種 粟之類니 靑黃白味 性相似를! 霍亂洩痢 總能除요 和中益氣養脾胃를! 黃去風痺 靑澁精이오 白治胃熱 多嘔噦을.

양미(梁米)는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좁쌀과 같은 부류인데, 푸르고 누렇게 흰 것으로 맛과 성질이 유사하다. 곽란(霍亂)과 설리(洩痢) 모두를 없애고, 중초(中焦)를 고르게 하며 기운을 북돋우고 비위(脾胃)를 보양한다. 노란 것은 풍비(風痺)를 없애고 푸른 것은 삽정(澁精) 작용을 하며, 흰 것은 위열(胃熱)로 구역질을 자주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 [梁米는 損地力而少收 故로 人多種粟而少種梁하나니 穗는 皆大而毛長하고 米比粟에 更壯大라 靑者는 襄陽에 出하고 黃者는 西洛에 出하고 白者는 東吳에 出하나니 作飯에 味甘而淡하고 性皆微寒하며 無毒이로대 惟黃梁은 得土中氣 故로 味甘而平이라 俱養五臟、補脾胃하며 和中、益氣하며 止霍亂、吐利、煩渴하며 利小便하며 實大腸이니라.)

(양미(梁米)는 지력을 소모하며 수확량이 적어서 사람들이 조를 많이 심지만 기장은 적게 심는다. 이삭은 모두 크면서 털이 길고, 낱알이 좁쌀에 비해 크다. 청량미(靑梁米)는 양양(襄陽)에서 나고, 황량미(黃梁米)는 서락(西洛)에서 나며, 백량미(白梁米)는 동오(東吳)에서 난다. 밥을 지으면 맛이 달고 담담하며, 약성은 모두 약간 차고, 독이 없다. 오직 황량미만 흙의 중기(中氣)를 받고 태어나서 맛이 달고 약성도 평이하다. 모두 오장(五臟)을 보양하고, 비위(脾胃)를 보하고, 중초(中焦)를 고르게 하며, 기운을 북돋운다. 곽란(霍亂), 토사(吐瀉), 번갈(煩渴)을 그치게 하고, 이뇨(利尿) 작용을 하며, 대장(大腸)을 실하게 한다.)

- [○ 黃梁米는 治當風 臥濕거나 遇冷所中하여 成肢體頑痺와 小兒面身生瘡하여 如火에 燒爲末하여 蜜水로 調敷니라.)

[○ 황량미(黃梁米)는 바람을 맞았거나 습지에서 자거나 하여 냉기에 맞아서 생긴 완고한 지체(肢體)의 비증(痺症)과 소아의 얼굴과 몸에 창(瘡)이 생겨 불같이 된 증상을 치료하니, 태워 분말하고 꿀물로 개어 붙인다.]

- [○ 靑梁米는 去胃痺熱하며 健脾、止洩精하고 醋拌 百蒸百晒하여 可作糲糧이니라.)

(○ 청량미(靑梁米)는 위비(胃痺)의 열을 없애고, 비장(脾腸)을 튼튼하게 하며, 설정(洩精)을 멎게 한다. 식초를 섞어서 찌고 햇볕에 말리기를 백 번 하여 구량(糗糧)을 만들 수 있다.)

- (○ 白梁米는 除胃虛熱嘔吐하며 又除胃中客熱하며 移五臟氣하야 續筋骨하나니 北人이 長食之라 夏月에 作粟食이라도 亦以除熱이니라.)

(○ 백량미(白梁米)는 위(胃)의 허열(虛熱)로 인한 구토를 없애고, 가슴 속 객열(客熱)을 제거 하며, 오장(五臟)의 기를 옮겨서 근골(筋骨)을 이어주니, 북쪽 사람들은 이것을 오래 먹는다. 여름철에 낱알을 먹어도 열을 없앤다.)

鬲粟 | 앵숙

鬲粟 甘平 除風熱이오 散胸痰滯 胃中飆을! 竹瀝作糜 令下食이오 過服動臟 及下元을.

앵숙(鬲粟)은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니 풍열(風熱)을 없애고, 가슴의 담체(痰滯)와 위 속이 뒤집어지는 증상을 흠는다. 죽력(竹瀝)으로 죽을 쑤어 먹으면 음식을 내려가게 해주고, 많이 먹으면 장기(臟氣)를 요동시켜 하초(下焦)의 근원에까지 이르게 한다.

- (其房이 如鬲하고 其子가 如粟하니 無毒이라 主行風氣하며 祛逐邪熱하며 散胃中痰滯하며 止翻胃와 及丹石發動이라 不下食에 和竹瀝하야 煮作粥 食之하면 極美나 然이나 性寒하며 利大小腸하니 不宜多食이오 過食則動膀胱氣耳라.)

(열매가 앵(鬲)과 같고, 씨는 속(粟)과 같다. 독이 없다. 풍기(風氣)를 순행시키고, 사열(邪熱)을 몰아내며, 가슴 속 담체(痰滯)를 흠고, 번위(翻胃)와 단석(丹石)의 발동을 멎게 한다. 음식이 내려가지 않을 때에는 죽력(竹瀝)

과 같이 끓여 죽을 쑤어 먹으면 아주 맛있지만, 성질이 차고 대소장을 매
고롭게 만들므로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많이 먹으면 방광(膀胱)의 기를 요
동하게 만든다.)

酒 | 주

酒 味苦甘 辛大熱하니 大扶肝胃 活氣血을! 破癥行藥 辟惡邪요 痰火病人 宜擲節을
糟性溫中 宿食消요 一切菜蔬 毒可殺을.

주(酒)는 맛이 쓰고 달며 맵고 성질은 아주 뜨거우니, 간(肝)과 위(胃)를 크게
돕고 기혈(氣血)을 활성화한다. 징(癥)을 부수고 약력(藥力)이 돌게 하며 악한
사기(邪氣)를 물리치나, 평소 담화(痰火)가 있는 환자는 절제해야 한다. 술지
게미는 약성이 온중(溫中)하며 묵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모든 채소의 독을 죽
일 수 있다.

- 〔酒는 酉也니 釀之米麴하야 酉醪이 久而味美也라 味辛者는 能散하니 爲導引
하면 可以通行一身之表하며 至極高之分하고 味苦者는 能下하고 甘者는 居中
而緩하고 淡者는 利小便而速下也라 陶隱居 云 大寒이 凝海로대 惟酒不冰하
니 性熱이 甚也라 大扶肝養脾하며 厚腸胃、潤皮膚、散胃中鬱氣、活肢體滯
血、破癥癖하며 行藥勢하야 引入諸經이 不止與附子로 同이라 殺百邪 惡毒氣
하며 禦風寒霧露하니 昔有三人이 觸霧晨行할새 空腹者는 死하고 食粥者는
病하고 飲酒者는 健하니 此酒之辟惡也요 東垣十書에 云 醇酒를 冷飲하면 有
三益하니 一得溫中之寒하야 以養肺요 二得寒中之溫하야 以養脾요 三則令人
으로 不得恣飲이니 惟好飲과 及中寒者는 不可라하고 丹溪가 云 本草에 止言
其大熱有毒하고 不言其濕中發熱이 近於相火하니 醉後惡寒戰慄로 可見矣라
其性이 善升하야 大傷肺氣하며 助火生痰하야 變爲諸病하니 病之淺者는 或
嘔吐、或自汗、或疹痒、或鼻鼾、或衄血、或泄痢、或心脾胃痛하니 尚可散
而出也어니와 病之深者면 爲消渴、爲內疽、爲肺痿、爲內痔、爲鼓脹、爲失
明、爲哮喘、爲勞嗽、爲癰瘤 爲痰膈、爲吐血하며 尤有爲難名之病이라 陶

隱居가云 多飲이면 傷神、損壽하니 可不擲節하야 以衛生乎아라하니라 諸米의 酒는 有毒하고 酒漿으로 照人無影者는 不可飲이오 合乳汁이면 令人으로 氣結하고 合牛肉食이면 令腹內 生蟲하고 酒後엔 不得臥라 凡酒는 忌諸甜物이요 酒毒엔 葛花、紅豆로 解之라 酒類甚多나 惟糯米를 麪麵으로 造者라야 可入藥用이니라.)

(‘술’은 ‘유(酉)’이니, 쌀과 누룩으로 빚는다. 빚은 술은 오래 되면 맛이 좋아진다. 맛이 매운 술은 잘 흡수하는 작용을 하니, 이끌고 가서 인경(引經)하는 약으로 쓰면, 전신의 겉으로 통행하게 하며 아주 높은 곳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맛이 쓴 술은 하강시키기를 잘하고, 맛이 단 술은 중간에 거쳐하고 완화하며, 맛이 담담한 술은 이뇨(利尿) 작용을 하여 빨리 내려가게 한다. 도은거(陶隱居)가 다음처럼 말했다. 대한(大寒)의 추위에 바다는 얼어도 술만은 얼지 않는데, 이것은 성질이 아주 뜨겁기 때문이다. 간(肝)을 크게 돕고 비(脾)를 보양하며, 위장(胃腸)을 강하고 두텁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며, 가슴 속 울체(鬱滯)한 기를 흘리고, 팔다리에 정체한 피를 활성화하며, 징벽(癥癖)을 부수고, 약력(藥力)을 여러 경(經)으로 끌고 들어가는 효력이 겨우 부자(附子)와 같은 수준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다. 백 가지 사기(邪氣)와 악독한 기를 죽이고, 풍한(風寒)의 안개와 이슬을 막는다. 예전에 세 사람이 안개를 맞으면서 새벽길에 올랐다. 그 중 공복인 사람은 죽었고, 죽을 먹은 사람은 병들었는데 반해, 술을 마신 사람만 건강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술이 악(惡)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동원십서(東垣十書)》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진한 술을 차게 마시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따뜻한 속의 차가움을 얻어 폐를 기를 수 있고, 둘째, 차가움 속의 따뜻함을 얻어서 비(脾)를 보양할 수 있으며, 셋째, 차서 사람이 함부로 과음을 하지 못하게 한다. 오로지 마시기를 좋아하거나 속이 차가운 사람에게만은 불가하다. 주단계(朱丹溪)가 다음처럼 말했다. 본초서(本草書)에서는 다만 술이 몹시 뜨겁고 유독하다고만 말하고, 습(濕) 속에서 열을 내는 것이 상화(相火)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으니, 그

이유는 술에 취한 후 오한(惡寒)하고 몸이 떨리는 증상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성질은 상승을 잘하여 폐기(肺氣)를 크게 손상시키고, 화(火)를 조장하여 담(痰)을 발생하게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변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된다. 병이 가벼운 경우는, 구토하거나, 자한(自汗)하거나, 아프고 가렵거나, 딸기코가 되거나, 코피를 흘리거나, 설사와 이질(痢疾)을 앓거나, 심비위(心脾胃)가 아픈 것 등인데, 오히려 이 정도는 흠어서 나오게 할 수 있다. 반면 병이 깊은 경우는, 소갈(消渴)하거나, 내저(內疽)하거나, 폐위(肺痿)하거나, 내치(內痔)하거나, 고창(蠱脹)하거나, 실명(失明)하게 되거나, 천식(喘息)을 하거나, 노수(勞嗽)하거나, 전간(癲癇)하거나, 담격(痰膈)하거나, 토혈(吐血)을 하게 되거나, 이름 짓기 어려운 병이 되기도 한다. 도은거(陶隱居)가 다음처럼 말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정신(精神)을 손상하고 수명이 줄어드니, 절제하여 생명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는가? 쌀로 빚은 각종 술은 유독하고, 걸러놓은 술에 사람을 비추어 보아 그림자가 없는 것은 마시면 안 된다. 젓과 같이 마시면 사람의 기를 응결하게 만들고, 소고기와 같이 먹으면 뱃속에서 벌레가 생기게 되니, 술을 마신 후 누우면 안 된다. 대개 모든 술은 단 것들을 금한다. 주독(酒毒)은 갈화(葛花)와 홍두(紅豆)로 해독한다. 술은 종류가 아주 많지만, 오직 찹쌀로 만든 누룩으로 양조한 것만을 약으로 쓴다.)

- (○甜糟는 味鹹溫하고 無毒이라 主溫中冷氣하며 消食、殺腥하며 去一切菜蔬毒하고 藏物에 不敗하며 揉物에 能軟하고 潤皮膚、調臟腑하나니 三年已下에 有酒어든 以物承之하야 摩風癢、止嘔噦、禦風寒하며 罨撲損瘀血하며 浸洗凍瘡과 及傳蛇蜂叮毒이니라.)

(○첨조(甜糟)는 맛이 짜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없다. 몸속의 냉기를 데우고, 음식을 소화하고, 비린내를 감소시키며, 모든 채소의 독을 없앤다. 온갖 사물을 술로 저장하면 썩지 않고, 물질을 비비면 부드럽게 만들며,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장부(臟腑)의 작용을 고르게 한다. 3년이 안 된

술에 침조가 있으면 그릇으로 받아서 풍소(風癰)에 문지르고, 구역질을 그치게 하며, 풍한(風寒)을 막고, 타박 손상한 어혈(瘀血)에 찜질하고, 동상에는 담가서 씻으며, 뱀과 벌에 물린 곳에 붙인다.)

- [○紅麴酒는 大熱하고 有毒하니 發脚氣、腸風、痰喘 諸疾이로대 惟破血、殺毒、辟山嵐寒氣하며 療打撲傷則尤妙也니라.]

[○홍곡주(紅麴酒)는 성질이 아주 뜨겁고 독이 있다. 각기(脚氣), 장풍(腸風), 담천(痰喘) 등 여러 질병을 유발하나, 피를 부수고 독을 감소시키며, 산람(山嵐)으로 인한 한기(寒氣)를 물리치고, 타박상을 치료하는 데에는 아주 오묘하다.]

醋 | 초

醋斂咽瘡 消癰腫이오 治疸散水 破食癥을! 産後血暈 堪熏鼻요 燒酒肉毒 吐如傾을.

초(醋)는 목구멍의 창(瘡)을 수렴시키고 응종(癰腫)을 없애며, 황달(黃疸)을 치료하고 수기(水氣)를 흡수하며 식징(食癥)을 부순다. 산후의 혈훈(血暈)에는 코를 훈증하고, 소주(燒酒)와 육독(肉毒)에 쓰면 쏟아내듯이 토할 것이다.

- [醋는 措也니 能措五味하야 以適中也니 味酸하고 無毒이라 主斂咽瘡하며 消癰腫、治黃疸、散水氣하며 消食、破癥塊、堅積하고 治婦人血氣心痛과 及産後血虛發暈하되 用炭燒紅하야 投入醋中하야 令鼻中으로 常得醋氣면 爲佳니 酸益血 故也라 過食燒酒、菜魚、肉毒하야 成病者는 卽飲醋一杯하야 吐之라 兼治傷損、金瘡하며 殺邪毒이라 磨雄黃하야 塗蜂蠆는 取其收而不散也라 多食하면 損顔色、傷肌臟、損齒와 及筋骨하며 不益男子니라.]

[초(醋)는 안배한다는 뜻이니, 오미(五味)를 안배하여 알맞게 잘 맞춘다는 뜻이다. 맛은 시고, 독이 없다. 목구멍의 창(瘡)을 수렴하고, 응종(癰腫)을 없애며, 황달(黃疸)을 치료하고, 수기(水氣)를 흡수하며, 음식을 소화하고, 징괴(癥塊)와 단단한 적(積)을 부순다. 여성의 혈기(血氣)로 인한 심통

(心痛)과 산후(産後)의 혈허(血虛)로 발생하는 현기증을 치료하는데, 붉게 달군 숯을 식초에 던져놓고 코로 항상 식초의 향기를 맡게 하면 좋으니, 신맛이 피를 보익하기 때문이다. 소주를 많이 먹었거나 채소와 생선 및 고기 독으로 병든 환자는 곧장 식초를 한 잔 마셔서 토하게 한다. 아울러 상연(傷損)과 금창(金瘡)을 치료하고, 사독(邪毒)을 감소시킨다. 식초로 응황(雄黃)을 갈아서 벌과 전갈의 독에 바르는 것은 수렴시키고 흠지 않는 원리를 취한 것이다. 많이 먹으면 안색이 나빠지고, 살과 내장을 손상시키며, 치아와 근골을 손상시킨다. 남성에게는 유익하지 않다.)

- [○ 有米醋、麥醋、棗醋나 入藥에 多用米醋는 穀氣全也니 陳久者라야 佳라 但南方에 炒米爲醋하야 最醞하니 入藥에 須以一分醋에 二分수로 和之라야 方可라 江北造醋는 用晚米一斗로 爲飯하야 靑蒿와 罨三日 出黃이어든 每飯一碗에 冷水二碗、燒酒麴 四兩과 入瓮하야 封固一七後에 用柳木棍으로 每早攪之하야 四十九日後에 去渣煮熟이면 其醋가 不甚醞이로대 初甚苦 故로 謂苦酒니라.]

[○ 쌀식초, 보리식초, 대추식초가 있지만, 약에는 쌀식초를 많이 쓰는데, 곡기(穀氣)가 온전하기 때문이다. 오래 묵은 것이 좋다. 다만 남방(南方)에서 쌀을 볶아 만든 식초는 가장 진하니, 약에 넣을 때 반드시 식초 1푼에 물 2푼을 섞어야 쓸 수 있다. 강북(江北)에서 만든 식초는 만미(晚米) 한 말로 밥을 짓고, 청호(靑蒿)를 3일 덮어서 누렇게 띄운다. 그런 뒤 밥 한 그릇에 냉수 2그릇과 소주국(燒酒麴) 4냥을 웅기에 넣고 봉한 지 7일 후, 버드나무 몽둥이로 매일 아침 휘젓고, 49일 후에 찌꺼기를 없애고 달여서 익히면, 이 식초는 심하게 진하지 않지만, 처음에 아주 쓰기 때문에, 고주(苦酒)라고 한다.]

醬 味鹹酸 雖冷利나 將和五臟 有名義를! 除熱止煩 解藥傷이오 火燒蜂螫 痛掣指를.

장(醬)은 맛이 짜고 시며 비록 성질이 냉리(冷利)하지만, 오장(五臟)을 고르게 한다는 데에서 이름의 의의가 생긴 것이다. 열을 없애고 번(煩)을 멎게 하며 약으로 인한 손상을 해독하고, 화상이나 벌과 전갈에 쏘여서 아프고 손가락이 당기는 증상을 치료한다.

- [醬은 將也니 將和五味하야 以安五臟 故로 聖人이 不得이면 不食하니 以豆作하야 陳久者라야 良이오 無毒이라 除熱、止煩滿하며 殺百藥과 湯火灼毒과 及一切蛇蟲 蜂螫 魚肉蔬菌毒發과 小兒無辜니라.)

(장(醬)은 거느린다는 뜻이니, 오미(五味)를 가지고 조화롭게 만들어 오장(五臟)을 안정시키므로, 성인도 장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았던 것이다. 콩으로 만들며, 오래 묵은 것이 좋다. 독이 없다. 열을 없애고, 번만(煩滿)을 멎게 하며, 온갖 약물과 화상으로 인한 독 및 뱀, 벌레, 벌, 전갈, 어육, 채소, 버섯 등의 독과 소아의 무고(無辜)한 감질(疳疾)을 감소시킨다.)

- [○ 又有肉醬、魚醬하야 皆呼爲醢나 不入藥用이오 楡仁醬도 亦辛美하야 殺諸蟲하며 利大小便、心腹惡氣나 不宜多食이오 蕪荑醬은 功力이 強於楡醬이로 대 多食이면 落 이라 孕婦가 鹵雀食이면 令兒로 面黑이니라.)

(○ 또 육장(肉醬)과 어장(魚醬)이 있는데 모두 것갈이라고 부르지만 약에는 쓰지 않는다. 유인장(楡仁醬)도 맵고 맛있으며, 각종 벌레를 죽이고, 대소변과 심복악기(心腹惡氣)를 원활하게 빠져나가도록 하나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무이장(蕪荑醬)은 효능이 유인장보다 강하지만, 많이 먹으면 털을 빠지게 한다. 임신부가 참새고기와 같이 먹으면 아이 얼굴이 까맣게 된다.)

飴糖 甘溫 補肺虛요 止渴消痰 咳自除를! 溫胃進食 更消痰요 脹嘔濕熱 休舍諸를.

이당(飴糖)은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니 폐허(肺虛)를 보하고, 갈증을 그치게 하며 담(痰)을 삭이고 기침을 저절로 없어지게 한다. 위(胃)를 데워서 음식을 먹게 하며 또 어혈(瘀血)을 없애는데, 창만(脹滿)과 구토 및 습열(濕熱)에는 먹지 말아야 한다.

- (以糯米로 煮粥 冷하야 入麥芽澄清者를 再熬하야 如琥珀紫色하야 軟者는 謂之膠飴니 建中湯에 多用之요 其牽白과 凝强者는 謂之飴糖이니 不入藥用이라 諸米로 皆可作飴나 惟糯米者라야 佳요 無毒이라 入足太陰經이라 補虛乏하며 潤肺、止渴、消痰、止嗽、欬汗하며 又補中氣하야 健脾胃 進飲食하며 去留血、止吐血하고 又打損瘀血에 熬焦和酒하야 服之면 能下惡血이오 骨鯁喉中과 及誤吞錢鏰에 服之면 便出이오 惟中滿과 及嘔吐에 忌之라 丹溪가 云 屬土而成於火하니 大發濕中之熱이라하고 衍義에 謂動脾風이라하니 是는 言其末也니라.)

(찹쌀을 끓여 죽을 만들고 식으면 맥아(麥芽)를 넣고, 가라앉혀 맑은 부분을 호박처럼 자색으로 졸인다. 이렇게 만든 것 중 부드러운 것을 교이(膠飴)라고 부르는데 건중탕(建中湯)에 많이 쓴다. 잡아당겨서 하얗게 된 것과 단단하게 응결한 것은 이당(飴糖)이라고 하는데 약에는 넣지 않는다. 모든 종류의 쌀로 엿을 만들 수 있지만 찹쌀로 만든 것이 가장 좋다. 독이 없다. 족태음경(足太陰經)으로 들어간다. 허핍(虛乏)을 보하고, 폐(肺)를 윤택하게 하며, 갈증을 멎게 하고, 담(痰)을 삭이며, 기침을 그치게 하고, 땀을 수렴한다. 또 중기(中氣)를 보하여 비위(脾胃)를 건강하게 하며, 음식을 먹게 하고, 머물러 있는 피를 없애고, 토혈(吐血)을 멎게 한다. 또 타박손상으로 생긴 어혈(瘀血)에는 태워서 술에 타서 먹으면 악혈(惡血)을 내린다. 목구멍 속에 생선가시가 걸린 경우나 동전을 잘못 삼켰을 때에 먹으면 바로 나온다. 중초(中焦)가 차올라서 구토하는 사람에게는 금한다.

주단계(朱丹溪)가 다음처럼 말했다. 토(土)에 속하며 화(火)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습(濕) 속의 열을 발양한다. 《본초연의(本草衍義)》에서는 비풍(脾風)을 발동시킨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말단의 증상을 말한 것이다.)

沙糖 | 사당

沙糖 經煉 性亦溫하니 心肺大腸 虛熱論을! 助胃和中 止煩渴이오 食過生蟲 損齒根을.

사당(沙糖)은 불에 가열하여 만들어서 성질도 따뜻하니, 심폐(心肺)와 대장(大腸)의 허열(虛熱) 치료에 관여한다. 위(胃)를 돕고 중초(中焦)를 고르게 하며 번갈(煩渴)을 멎게 하나, 많이 먹으면 기생충을 발생시켜 치아의 뿌리를 손상한다.

- [此卽甘蔗汁을 煎煉하여 成者니 味甘하고 無毒이라 潤心肺하며 去心肺大腸熱하며 助脾、和中、消煩、止渴하며 小兒가 多食이면 生蟻蟲하며 消肌、損齒、發疳 하나니 丹溪가 云 生胃之火하니 損齒之因也요 非土制水라 乃熱土가 生火熱也라하고 又云 甘生濕하고 濕生火也라하니 食棗多者의 齒病齲도 亦此意也요 中滿家에 不宜用도 以甘 故也라하니라 又與鯽魚와 同食이면 成疳蟲하고 與葵와 同食이면 生流澀하고 與笋과 同食이면 笋不消하여 成癥하며 身重 不能行也니라.]

(이것은 사당수수의 즙을 졸여 만든 것이다. 맛이 달고, 독이 없다. 심폐(心肺)를 윤택하게 하고, 심폐와 대장(大腸)의 열을 없앤다. 비장(脾腸)을 돕고, 중초(中焦)를 고르게 하며, 번갈(煩)을 없애고, 갈증을 멎게 한다. 소아가 많이 먹으면 요충(蟻蟲)이 생기며, 살이 빠지고, 치아를 손상시키며, 감닉(疳蠱)을 발생시킨다. 주단계(朱丹溪)가 다음처럼 말했다. 위(胃)에 화(火)를 발생시키므로, 이것이 치아를 손상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 토(土)가 수(水)를 억제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뜨거운 토에서 화열(火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또 다음처럼 말했다. 단 맛은 습(濕)을 발생

시키고, 습은 화(火)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니, 대추를 많이 먹는 사람에게 충치가 많은 것도 이런 뜻이다. 중초(中焦)가 그득한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도 맛이 달기 때문이다. 또 붕어와 같이 먹으면 감충(疰蟲)이 생기고, 아욱과 같이 먹으면 내장의 물이 흘러나오며, 죽순과 같이 먹으면 죽순이 소화되지 못하여 징(癥)이 생기고 몸이 무거워져서 잘 걷지 못한다.)

- [○乳糖은 出浙中하나니 用沙糖、牛乳를 相和하여 煎煉成塊니 可作餅이오 黃白色으로 又謂之捻糖이니 易消化라 味甘寒하며 性이 冷利하고 無毒이라 主心腹熱脹、口渴하며 明目하며 治目中熱膜하고 又和棗肉、巨勝子하여 爲丸하여 每食後에 含化一兩丸이면 潤肺氣하며 助五臟津이니라.]

(○ 유당(乳糖)은 절중(浙中)에서 나온다. 설탕과 우유를 섞어서 고아 덩어리를 만든 것으로, 떡으로 만들 수도 있다. 황백색(黃白色)을 띠는 것은 염당(捻糖)이라고도 부르는데 소화가 잘 된다. 맛이 달고, 약성이 차며, 냉리(冷利)하고, 독이 없다. 심복(心腹)의 열창(熱脹)과 구갈(口渴)을 치료하고, 눈을 밝히며, 눈 속의 뜨거운 막을 치료한다. 대추의 과육과 거승자(巨勝子)로 제환(製丸)하여, 식후마다 한 번에 한두 개의 환을 녹여 먹으면, 폐를 윤택하게 하고, 오장(五臟)의 진액(津液)을 돕는다.)

甘蔗甘平 能潤肺요 消痰下氣 和脾胃를! 利大小腸 解熱煩이오 沙乳諸糖 性相似를.

사탕수수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니 폐를 윤택하게 하고, 담(痰)을 삭이고 기를 내려주며 비위(脾胃)를 고르게 한다. 대소장(大小腸)에 이롭고 열번(熱煩)을 해소하는데, 설탕과 유당(乳糖) 같은 여러 당들은 성질이 비슷하다.

- [甘美하고 無毒이라 出江東者가 勝이라 潤肺、消痰、止咳、止渴하며 補脾和胃하고 主卒乾嘔하여 不息하니 取汁하여 溫熱服이오 又以生薑汁으로 和服은 主胃反으로 朝食暮吐커나 暮食朝吐하고 旋食旋吐에도 亦效라 日華에 云 冷利大小腸하며 除心煩熱하니 臘月 窩糞坑 中の 患天行熱狂人에 絞汁服이면 甚良이오 口瘡痛者도 亦搗汁하여 飲之요 又殺虫하며 解酒毒이니라.]

(맛이 달고 좋으며, 독이 없다. 강동(江東)에서 나는 것이 좋다. 폐(肺)를 윤택하게 하고, 담(痰)을 삭여주며, 기침과 갈증을 멎게 한다. 비(脾)를 보하고, 위(胃)를 고르게 한다. 갑작스런 헛구역질로 숨을 쉬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하니, 즙을 내서 뜨겁게 먹는다. 또 생강즙에 타서 먹으면 위반(胃反)으로 아침에 먹은 것을 저녁에 토하거나, 저녁에 먹은 것을 아침에 토하거나, 먹자마자 토하는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 《일화자(日華子)》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약성이 차서 대소장(大小腸)을 원활하게 해주고, 심장의 번열(煩熱)을 없애주니, 선달에 똥구덩이에서 유행성 열병으로 미친 사람에게 즙을 내어 먹이면 아주 좋다. 구창(口瘡)으로 아픈 환자도 찌워서 즙을 내어 마신다. 또 살충하며 주독(酒毒)을 풀어준다.)

- [○ 諸糖은 皆蔗汁煉成으로 味皆甘하고 性이 微溫이로대 惟乳糖은 冷利요 俱無毒이니라.]

(○ 여러 당(糖)들은 모두 사탕수수 즙을 고아서 만든 것으로, 맛은 모두 달고, 약성이 약간 따뜻한데, 유당(乳糖)만 냉리(冷利)하다. 모두 독이 없다.)

- [○ 白沙糖、冰糖은 俱能潤肺、補脾요 沙仁 八寶는 性更溫하니 不入藥이니라.]

(○ 백사당(白沙糖)과 빙당(冰糖)은 모두 폐(肺)를 윤택하게 하고 비(脾)를 보한다. 사인(沙仁)과 팔보(八寶)는 성질이 더욱 따뜻하니, 약으로는 쓰지 않는다.)

蜂蜜 | 봉밀

【蜂蜜】甘平 喜入脾요 補中止痛 痢癰奇를! 消煩除渴 潤便燥요 目赤口齒 諸瘡宜를.

【봉밀(蜂蜜)】은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니 비(脾)로 잘 들어가고, 중초(中焦)를 보하고 진통하며 이질(痢疾)과 간질(癰疾)에 기묘한 효과가 있다. 번(煩)을 없애고 갈증을 제거하며 대변이 마르는 것을 윤택하게 하고, 충혈된 눈과 입이나 치아의 질병 및 각종 창(瘡)에 적합하다.

- [有木中에 作者하고 有土中에 作者하고 有石上에 作者하고 有人家に 養者나 其蜜은 一也로대 但土蜜은 味酸하고 家養者는 取之數而氣味가 不足하나 山蜜은 多石中 古木中에 經一二年하야 得者니 氣味가 純厚라 衍義에 云 蠟取新하고 蜜取陳也니 新收者는 稀黃이로대 經久則白而砂라하니라 無毒이라 甘喜入脾 故로 能養脾氣하며 補中과 諸不足하며 止腹痛、治腸澼、赤白痢、諸驚、癰、瘰하며 除心煩悶、不能飲食하며 潤肺燥、消渴、便難과 及肛門腫塞하고 又治目生珠管、膚翳赤腫、口舌生瘡、牙齒疳、火燒、湯泡、熱油燒、丹毒、陰頭生瘡、諸惡瘡、癩에 俱外傳之요 兼和百藥、解諸毒、安五臟하고 久服하면 強志、不老로대 惟中寒有濕者라면 禁用이오 孫眞人이 云 七月에 勿食生蜜이니 令暴下하야 發霍亂이오 多食이면 亦生諸風이라 하니라.]

(나무에 만드는 것이 있고, 흙 속에 만드는 것이 있으며, 돌 위에 만드는 것이 있고, 사람들이 기른 것이 있지만, 꿀이라는 점에서 같다. 다만 흙에서 나는 꿀은 맛이 짜고, 사람들이 기른 꿀은 자주 채취하므로 기미(氣味)가 부족하다. 산에서 나는 꿀은 대부분 바위 사이나 고목에서 한두 해 지나서 얻은 것이라서 기미가 순수하고 진하다. 《본초연의(本草衍義)》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밀랍(蜜蠟)은 새 것을 따고, 꿀은 묵은 것을 취해야 한다. 새로 거둔 꿀은 묽고 노랗지만, 오래 묵은 것은 하얗고 모래의 형상이다. 독이 없다. 단맛은 비(脾)로 잘 들어가므로 비기(脾氣)를 보양하고, 중초(中焦)와 각종 부족한 것을 보하며, 복통을 멎게 한다. 장피(腸澼), 적백이질(赤白痢疾), 각종 경증(驚症), 간치(癰瘰)를 치료한다. 심장의 번민(煩悶)과 음식을 먹지 못하는 증상을 없애고, 폐가 마르는 증상, 소갈(消渴), 변비, 항문이 붓고 막히는 것을 윤택하게 해준다. 또 눈의 주관(珠管)과 예장(翳障) 및 적종(赤腫), 입과 혀의 창(瘡), 치아의 감닉(疳蠹), 화상,

끓는 물에 덴 상처, 뜨거운 기름에 의한 화상, 단독(丹毒), 귀두(龜頭)의 창(瘡), 각종 악창(惡瘡)과 나(癩) 등에는 모두 곁에 붙인다. 아울러 백약(百藥)을 조화시키고, 각종 독을 해독하며, 오장(五臟)을 안정시킨다. 장복하면 의지를 강화시켜 늙지 않게 만들지만, 평소 내한(內寒)으로 습(濕)이 있는 사람에게 써서는 안 된다. 손진인(孫眞人)이 다음처럼 말했다. 음력 7월에 생 꿀을 먹지 말 것이니, 급성 설사와 객란(霍亂)을 일으키기 때문이며, 많이 먹으면 또 각종 풍(風)을 유발한다.)

- [○ 凡煉蜜에 必須用火熬開하야 以紙覆 經宿하야 紙上에 去蠟盡이어든 再熬 變色이니 大約一斤에 只得十二兩이라야 爲佳요 不可過度니라.]

[○ 꿀을 정련할 때에는 반드시 불로 볶아서 열고, 종이로 하룻밤 덮어서, 종이가 밀랍을 다 흡수하였을 때, 다시 졸이면 색이 약간 변할 것이다. 대략 1근에서 12냥을 얻어야 좋고, 과도하면 안 된다.]

1.1.2. 菜部 | 채부

- 〔葵菜、韭菜、芥菜、蘿菔、生姜、紫蘊、薄荷、菖蒲 已上은 俱見前卷하니 라.〕

(구채(葵菜), 구채(韭菜), 개채(芥菜), 나복(蘿菔), 생강(生姜), 자소(紫蘊), 박하(薄荷), 창포(菖蒲) 등은 모두 앞 권에 보인다.)

葱白 | 총백

【葱白】辛平 發傷寒이오 陽明額痛 痢腸 을! 除風腫治 腹心痛이오 通腎和肝 胎自安 을! 實性辛溫 補中氣요 汁止衄溺 血相干을.

【총백(葱白)】은 맛이 맵고 약성이 평이하니 상한병(傷寒病)을 발산하고, 양명경(陽明經)의 이마 통증과 하리(下痢)를 완화한다. 풍종(風腫)을 없애고 심복통(心腹痛)을 치료하며, 신(腎)과 간(肝)을 소통하여 태아(胎兒)를 안정시킨다. 열매는 맛이 맵고 약성이 따뜻하니 중기(中氣)를 보하고, 좁은 코피와 소변의 피가 서로 간섭하는 증상을 멎게 한다.

- 〔葱은 空也라 其葉이 中空하니 惟虛라야 乃聰也라 一云호대 葱은 靑白色也라 하니라 葱白은 卽莖也니 無毒이라 氣厚味薄하고 升也며 陽也라 入手太陰、足陽明經이라 主傷寒傷風에 頭痛欲破 骨節痛 寒熱 出汗하니 東垣이 云 散傷風의 陽明頭痛之邪하며 止傷寒의 陽明下痢之苦라하니라 又治中風으로 面目浮腫、喉痺不通、霍亂 轉筋과 及奔豚、脚氣、心腹痛에 此藥이 利關節、通大小腸이오 又能通腎陽氣하야 俾陰證으로 回陽하며 除肝邪氣하야 明目、安胎、止血하며 和中하야 利五臟、殺百藥毒과 及一切魚肉毒이라 又莖葉을 用塩搗하야 罫射工、溪毒、蜈蚣、狐尿刺、蛇蟲傷과 并撲損、金瘡、水入鞍腫痛하니라 大抵發散으로 爲功이라 多食하면 昏人神하며 拔氣上衝하고 虛人이 正月에 食之면 發面上遊風하고 若燒葱을 和蜜食이면 殺人이니라.〕

(‘충(葱)’은 비었다는 뜻이니, 잎 가운데가 비어있는데, 오로지 비어 있어야 충명할 수 있다. 일설에 충(葱)은 청백색(靑白色)을 말한다고도 한다. 충백(蔥白)은 바로 줄기이다. 독이 없다. 기가 진하고 맛이 얹으며 성질이 상승하니, 양(陽)이다. 수태음(手太陰)과 족양명경(足陽明經)으로 들어간다. 상한(傷寒)과 상풍(傷風)으로 머리가 깨질듯 아프고, 뼈마디가 아픈 증상, 한열(寒熱), 발한(發汗) 등을 치료한다. 이동원(李東垣)이 다음처럼 말했다. 상풍병(傷風病)으로 인해 양명두통(陽明頭痛)이 된 사기(邪氣)를 발산하고, 상한(傷寒)으로 양명하리(陽明下痢)가 된 고통을 그치게 한다. 또 중풍(中風)으로 얼굴과 눈이 붓고, 후비(喉痺)로 통하지 않는 증상, 객란전근(霍亂轉筋)과 분돈(奔豚), 각기(脚氣), 심복통(心腹痛) 등을 치료하니, 이 약은 관절을 원활하게 하고, 대소장(大小腸)을 소통시키기 때문이다. 또 신장(腎腸)의 양기(陽氣)를 잘 소통시켜, 음증(陰證)이 양기(陽氣)를 회복하게 하고, 간(肝)의 사기(邪氣)를 제거하여, 눈을 밝히고, 안태(安胎)하며, 지혈(止血)하고, 중초(中焦)를 고르게 하며, 오장(五臟)을 원활하게 하고, 백약(百藥)의 독과 모든 어육독(魚肉毒)을 줄이고 죽인다. 또 줄기와 잎에 소금을 넣고 찢어서 사공독(射工毒), 계독(溪毒), 지네의 독, 호뇨자(弧尿刺), 뱀과 벌레에 물린 상처 등과 아울러 타박상, 금창(金瘡), 물에 들어갔다가 불어 터지고 붓고 아픈 곳을 덮는다. 대체로 발산하는 작용이 효능이 되는 것이다. 많이 먹으면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기가 치밀어 오르게 한다. 허한 사람이 정월에 먹으면 얼굴에 유풍(遊風)이 생기고, 만약 파를 구워서 꿀과 같이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

- [○ 葱實은 主明目、溫中、補不足、益精이니라.]

[○ 충실(葱實)은 눈을 밝게 하고, 중초(中焦)를 데우며, 부족한 기운을 보하고, 정(精)을 보익한다.]

- [○ 葱汁은 平하고 主吐衄、溺血하며 解藜蘆毒이니라 葱有數種이로대 惟經冬不死하며 分莖栽植而結子者라야 入藥에 最佳니라.]

(○ 파의 즙은 약성이 평이하다. 토혈(吐血)과 코피 및 혈뇨(血尿)를 치료하며, 여로(藜蘆)의 독을 해독한다. 파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겨울이 지나도록 말라 죽지 않고, 줄기를 나누어 심을 수 있으며, 종자를 맺지 않는 것이라야 약에 넣기 가장 좋다.)

大蒜 | 대산

大蒜 有毒 攻癰毒이오 辟惡散暑 止痛腹을! 化魚肉吐 疔瘰癧이오 過服傷臟 損人目을.

대산(大蒜)은 독이 있고 응독(癰毒)을 공격하며, 수악(水惡)을 물리치고 더위를 흠으며 복통(腹痛)을 그치게 한다. 어육(魚肉)을 소화시키며 헌벽(疔瘰)과 담(痰)을 토하게 하는데, 많이 먹으면 내장을 손상시키고 눈을 해친다.

- [食之면 白人鬚 하야 若多筭者之鬚가 易白也니 味辛溫이라 主癰腫、惡瘡이 疼痛하야 人所不識者하니 取獨頭蒜 三四枚를 搗爛하야 入麻油 和研하야 厚貼腫處하되 乾卽易之요 一切疥癬、丹毒 瘡、蛇蟲 蜈蚣咬에도 並搗貼之니 或隔蒜하야 用艾灸之라도 亦好라 辟水惡、瘴氣、疫氣、蠱毒、勞瘵과 中暑하야 霍亂 轉筋 腹痛하니 嚼爛하야 溫水로 送下니라 性이 屬火하야 善散하며 化肉食 故로 人喜食之하야 破冷氣하며 爛疔瘰하니 昔에 有患瘰과 及食雞子過多者하야 每日에 食三枚러니 口吐涎物하며 下部如火라가 卽効하니 此物은 氣味極葷이로대 煮爲羹臠이면 極俊美하며 熏氣도 亦微라 下氣、溫中、消食하니 傷肉食者는 喫一飡이면 最妙요 醋浸經年者가 良하고 熟食도 亦可라 若生食 久食이면 傷肝損目하며 傷肺引痰하며 傷腎竭精하며 傷心消血하며 傷脾損氣요 四八月에 食之하면 傷神하며 損膽腎氣요 又合青魚、鮓하야 食이면 令腹內生蟲커나 或腫 或成疝疾이오 有目疾者는 尤宜忌之니 損性伐命이 莫此爲甚이니라.)

(먹으면 궁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수염이 쉽게 새는 것처럼 사람의 수염과 머리카락을 희게 한다. 맛이 맵고, 약성이 따뜻하다. 옹종(癰腫)과 악창(惡瘡)으로 아픈데 사람이 알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하니, 머리가 하나인 마늘 3~4개를 곱게 찢어서 마유(麻油)를 넣고 갈아서 종기에 두텁게 붙이되, 마르면 바꿔준다. 모든 개선(疥癬), 단독(丹毒), 닥창(蠱瘡), 뱀과 벌레 및 지네 물린 데에 찢어서 붙인다. 혹은 마늘을 깔고 쑥으로 뜸을 떠도 역시 좋다. 수악(水惡), 장기(瘴氣), 역기(疫氣), 고독(蠱毒), 노학(勞瘡), 더위를 먹어서 발생한 곽란(霍亂), 전근(轉筋), 복통(腹痛)을 물리치니, 씹어서 따뜻한 물로 먹는다. 성질이 화(火)에 속하며 잘 흡어서 육식(肉食)을 잘 소화시키므로 사람들이 즐겨 먹는 동시에, 냉기(冷氣)를 부수고 헌벽(痃癖)을 무너뜨린다. 예전에 헌벽(痃癖) 및 달걀을 과식하여 앓는 사람이 있어서 매일 3개씩 먹었더니, 입에서 침 같은 것을 토하며 아래가 불처럼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다가 나았다. 이것은 맛과 향기가 아주 맵고 강하지만, 끓여서 국을 만들면 매우 맛이 좋아지고 쏘는 냄새도 완화된 다. 기를 내리고, 속을 데우며, 음식을 소화시키니, 육식으로 손상된 사람은 한 번만 먹어도 아주 좋다. 식초에 담가서 한 해를 묵힌 것이 좋고, 익혀서 먹어도 좋다. 만약 날것을 오래 먹으면, 간이 상하여 눈이 손상되고, 폐가 상하여 가래가 끓으며, 신(腎)이 상하여 정액(精液)이 고갈되고, 심장이 상하여 피가 소모되고, 비(脾)가 상하여 기가 손상된다. 음력 4월과 8월에 먹으면 정신(精神)을 손상시키고, 담기(膽氣)과 신기(腎氣)를 손상시킨다. 또 청어나 젓갈과 같이 먹으면 뱃속에 벌레가 생기거나 장(腸) 속이 붓거나 산질(疝疾)이 된다. 눈에 병이 있는 경우는 더욱 금한다. 사람의 성품을 손상시키며 생명을 해치는 작용이 이보다 심한 게 없다.)

小蒜 | 소산

小蒜 有毒 歸脾腎이오 下氣溫中 霍亂定을! 更消穀食 除痺風이오 多服損心 目亦病을.

소산(小蒜)은 독이 있고 비신(脾腎)으로 돌아가니, 기를 내리고 속을 데우며
곽란(霍亂)을 안정시킨다. 또 곡식을 소화하고 비풍(痺風)을 없애는데, 많이
먹으면 심장을 손상시키고 눈까지 병들게 한다.

- [氣味が似大蒜하나 其形이 小者가 是也라 歸脾腎하며 下氣、溫中하며 止霍
亂、腹中不安하며 消穀、和胃、除風邪 痺毒氣、諸蟲毒하며 傳疔腫、蛇蟲
、沙虱瘡이오 久服이면 損心力、損目하고 合生魚食이면 令人으로 奪氣니
라.]

(향기와 맛이 대산(大蒜)과 비슷하나, 형태만 작다. 비경(脾經)과 신경(腎
經)으로 돌아가며, 기를 내리고, 중초(中焦)를 데운다. 곽란(霍亂)과 뱃속
의 불안정함을 그치게 하고, 곡식을 소화하며, 위(胃)를 고르게 하고, 풍사
(風邪)로 인한 비(痺)와 독기(毒氣) 및 각종 고독(蠱毒)을 없앤다. 정종(疔
腫), 뱀과 벌레 물린 곳, 사슬창(沙虱瘡)에 붙인다. 장복하면 심력(心力)을
줄어들게 하고 눈을 손상시킨다. 날생선과 같이 먹으면 기를 빼앗는다.)

- [○ 又一種山蒜은 似大蒜而臭라 山人이 以治積塊와 及婦人血瘕에 醋磨服之
면 効니라.]

(○ 또 다른 한 종류인 산산(山蒜)은 대산(大蒜)과 비슷한데 냄새가 난다.
산사람들은 이것으로 적괴(積塊)와 여성의 혈가(血瘕)를 치료하니, 식초
에 갈아서 먹으면 효과적이다.)

薤 | 해

薤 味辛苦 止吐痢요 定喘散水 消結聚를! 外傳金瘡 湯火傷이오 瘡中風寒 水腫治
를.

해(薤)는 맛이 맵고 쓰니 구토와 이질(痢疾)을 그치게 하고, 천식(喘息)을 안정
시키며 수기(水氣)를 흘리고 결취(結聚)를 사라지게 한다. 금창(金瘡) 및 물과 불
에 덴 상처에 붙이고, 창(瘡) 속의 풍한(風寒)과 수종(水腫)을 치료한다.

- 〔薤는 解也며 能也니 薤雖辛이나 不葷五臟하고 乃能去腥이라 葉似韭而闊하며 多白無實하니 有赤白二種이라 赤者是 療瘡、生肌하고 白者是 冷補하나니 皆春分에 蒔之하며 至冬葉枯라 凡用葱薤에 皆去青留白이니 白冷而青熱也니 無毒이라 入手陽明經이라 止霍亂、乾嘔、久痢、冷瀉、産後諸痢、疝痢、婦人赤白帶下、胃膈卒痛、肺氣喘急에 俱搗汁飲之니 取其滑而泄滯氣也요 又能除水氣하며 溫中、散結、去寒熱하며 安魂、益氣、宜心、歸腎하며 續筋力하니 利病人의 藥芝也요 養生家 常食之라 煮羹、作齏、炒食이면 並得이로 대 惟生食이면 引涎唾하고 若合牛肉食이면 成瘕疾이라 單方으로 治金創、瘡敗와 諸瘡이 中風寒水하야 作腫하니 生搗熱하야 塗之요 與蜜同搗하야 塗火瘡이면 効니라.)

〔해(薤)는 푼다는 뜻이며 능하다는 뜻이다. 비록 맵기는 해도, 오장을 맵게 하지는 않고 비린내를 잘 없앤다. 잎은 부추와 비슷하지만 넓고, 흰 부분이 많으며, 열매가 없다. 적색과 백색 두 종이 있는데, 붉은 것은 창(瘡)을 치료하고 살을 재생시키며, 흰 것은 냉보(冷補)한다. 모두 춘분(春分)에 심으며, 겨울이 되면 잎이 시든다. 대개 파와 엽교를 쓸 때는, 모두 푸른 부위를 제거하고 흰 부분만 남겨서 쓸 것이니, 흰 부위는 성질이 차고, 푸른 부위는 뜨겁기 때문이다. 독이 없다. 수양명경(手陽明經)으로 들어간다. 광란(霍亂), 헛구역질, 만성 이질(痢疾), 찬 설사, 산후의 각종 이질(痢疾), 감리(疝痢) 등과 여성의 적백대하(赤白帶下), 흉격(胸膈)의 급성 통증, 폐기(肺氣)의 천급(喘急)을 멎게 하니, 모두 찢어서 즙을 마신다. 이러한 처방은 그것의 매끄러움과 정체한 기를 배설하는 작용을 취한 것이다. 또 수기(水氣)를 없애고, 속을 데우며, 응결을 흘리고, 한열(寒熱)을 제거하며, 혼백(魂魄)을 안정시키고, 기(氣)를 보익하며, 심장에 적합하고, 신(腎)으로 돌아가서 근력(筋力)을 지속시키니, 환자를 이롭게 하는 약지(藥芝)요, 양생가(養生家)가 늘 먹는 것이다. 국을 끓이거나, 버무리거나, 볶아서 먹는 모든 경우가 다 좋지만 날것으로 먹으면 침 같은 것이 나오고, 소고기와 같이 먹으면 가질(瘕疾)이 생기게 된다. 단방(單方)으로 금

창(金瘡), 창(瘡)이 썩는 증상, 각종 창(瘡)이 풍한(風寒)과 물에 침해되어 부은 증상을 치료하니, 날것을 찢어 뜨겁게 만들어서 바르고, 꿀과 같이 찢어서 화상의 창(瘡)에 바르면 효과적이다.)

菰菜 | 승채

菰菜 味甘 溫無毒하니 通利腸胃 解酒宿을! 更止熱嗽 除胸煩이오 中虛冷人 不可服을.

승채(菰菜)는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없으니, 장위(腸胃)를 원활하게 소통시키며 묵은 음식과 술을 해독한다. 또 열수(熱嗽)를 그치게 하고 흉번(胸煩)을 제거하지만, 중초(中焦)가 허한 냉병인(冷病人)은 먹을 수 없다.

- 〔主通利腸胃하며 解酒渴、消食、下氣하며 治瘴氣、止熱嗽、除胃中煩하며 殺魚腥이라 和羊肉이면 甚美나 中虛者 食之過多면 發冷病하니 惟生姜이 可解요 有熱者는 可常食之라 又葉은 晒令半乾하야 次早에 取入壚內하고 以熱飯飲으로 浸之三日이면 後則酸如醋니 謂之蠶水니 入藥하야 可吐痰涎이오 和五味하야 作湯食이면 益脾胃하며 解麪毒、酒毒이니라.〕

(장위(腸胃)를 소통시켜 원활하게 하고, 숙취로 인한 갈증을 풀어주며,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氣)를 내려주며, 장기(瘴氣)를 치료하고, 열성 해수(咳嗽)를 멎게 하며, 가슴 속 번(煩)을 없애고, 생선 비린내를 감소시킨다. 양고기와 같이 먹으면 맛이 매우 좋지만, 중초(中焦)가 허(虛)한 사람이 많이 먹으면 냉병(冷病)을 유발하는데, 오직 생강(生薑)만이 해독할 수 있다. 열이 있는 사람은 늘 먹을 수 있다. 또 앞은 햇볕에 반 정도 말린 다음, 다음날 아침에 술병에 넣고, 뜨거운 밥물에 3일 동안 담그면 식초처럼 되는데, 이것을 제수(蠶水)라고 부른다. 이것을 약에 넣으면 담연(痰涎)을 토하게 하고, 양념해서 탕으로 먹으면 비위(脾胃)를 보익하며, 밀가루의 독과 술독을 해독한다.)

莧實 | 현실

【莧實】甘寒 入血分이오 能除寒熱 利二便을! 散肝風熱 青盲翳요 葉補陰氣 益産前을.

【현실(莧實)】은 맛이 달고 약성이 차며 혈분(血分)으로 들어가니, 한열(寒熱)을 없애고 대소변을 잘 내보내게 한다. 간(肝)의 풍열(風熱)을 흘리고 청맹(靑盲)과 예막(翳膜)을 치료하는데, 옅은 음기(陰氣)를 보하니 출산 전에 좋다.

- (言其莖葉이 皆高大可見 故로 字從見하니 指事也요 或이 云 其子가 去翳膜하야 眼有所見也라하니라 莧有六種이로대 惟白莧을 入藥이오 無毒이라 丹溪가 云 下血而 又入血分하며 且善走라하니라 散寒熱、利大小便하니 性이 寒滑 故也라 治肝風客熱로 青盲、赤瞎、白翳、黑花하니 爲末하야 每夜에 茶下方寸匕요 又殺蛔蟲하며 益氣、益精이니라.)

(줄기와 잎이 높고 커서 잘 보이므로, 견(見)을 따른 것이니, 육서(六書) 중 지사(指事)에 해당한다. 혹자는 그 씨가 예막(翳膜)을 없애서 눈이 잘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라고도 한다. 현(莧)에는 6종이 있는데, 하얀 현(莧)만 약에 넣는다. 독이 없다. 주단계(朱丹溪)가 다음처럼 말했다. 피를 내리면서 또 혈분(血分)으로 들어가며, 잘 달리는 성질이 있다. 한열(寒熱)을 흘리고, 대소변을 잘 내보니, 성질이 차갑고 매끄럽기 때문이다. 간풍(肝風)과 객열(客熱)로 생긴 청맹(靑盲), 적할(赤瞎), 백예(白翳), 흑화(黑花)를 치료하니, 분말로 만들어 매일 밤 찻물로 1찻숟가락씩 먹는다. 또 회충(蛔蟲)을 죽이고, 기(氣)를 보익하고 정(精)을 채운다.)

- (○ 葉은 補陰分氣虛하며 除熱、通九竅하고 多食이면 動氣하야 令人으로 煩悶하며 冷中損腹이오 若與鰾과 同食이면 生鰾瘕라 又素難産者는 取莧하야 和馬齒莧하야 臨月常食이면 令滑胎하야 易産이니라.)

(○ 잎은 음분(陰分)의 기허(氣虛)를 보하고, 열을 없애며 구규(九竅)를 소통시킨다. 많이 먹으면 기(氣)가 동하여 사람이 번민하게 되고, 속이 식어서 복부가 손상된다. 자라와 같이 먹으면 별가(驚癰)가 생긴다. 또 본래 난산(難産)인 사람이 현(莧)과 마치현(馬齒莧)을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늘 먹으면, 태(胎)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쉽게 출산한다.)

- (○ 赤莧은 莖이 純紫하고 味辛寒하며 無毒이라 主赤痢、氣痢와 射工、砂虱、蟲毒이니라.)

(○ 적현(赤莧)은 줄기가 순수한 보라색이다. 맛이 맵고, 성질이 차며, 독이 없다. 적리(赤痢), 기리(氣痢), 사공(射工), 사슬(沙虱), 충독(蟲毒)을 치료한다.)

馬齒莧 | 마치현

馬齒莧 味酸大寒하니 散血凉肝 退翳漫을! 止渴利便 攻赤痢요 風熱癰瘡 搗汁飡을.

마치현(馬齒莧)은 맛이 시고 약성이 아주 차니, 피를 흘리고 간을 식히며 퍼지는 예막(翳膜)을 물리친다. 갈증을 멎게 하고 대소변을 잘 내보내주며 적리(赤痢)를 다스리고, 풍열(風熱)과 옹창(癰瘡)에 찢어서 즙을 먹는다.

- (形如馬齒하며 兼治馬疥 故로 名이니 無毒이라 能凉肝血하야 治目盲、白翳하며 退寒熱、止煩渴、破癰瘡、殺蟲、利大小便하며 治大人血痢、小兒疳痢、産後血痢요 又治諸淋、腳氣、心腹脹滿、頭面浮腫、反胃하며 治三十六種 風의 結瘡과 七十二等의 癰腫毒하니 生搗汁을 服一碗이면 卽下所積惡物과 細蟲이오 外又煎膏하야 塗之니 此藥은 雖寒滑이나 能行血、調氣肥腸하니 亦美劑也라 燒灰를 和陳醋渣하야 先灸疔腫하고 以封이면 卽根出이오 馬汗毒瘡有蟲에 內服外敷라 凡使에 勿用大葉者하고 當用葉小하며 節間에 有水銀者니 每乾之十斤中에 得水銀八兩者라야 佳나 然이나 至難燥하나 當搥碎하야 晒兩三日이면 卽乾이니 入藥에 去莖節이니라.)

(형태가 말의 이빨과 유사하고, 말의 옴을 치료하므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독이 없다. 간(肝)의 피를 식혀서 목맹(目盲)과 백예(白翳)를 치료한다. 한열(寒熱)을 물리치고, 번갈(煩渴)을 그치게 하며, 징가(癥瘕)를 부수고, 살충(殺蟲)하며,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한다. 대인의 혈리(血痢), 소아의 감리(疳痢), 산후 혈리(血痢)를 치료한다. 또 각종 임질(淋疾), 심복(心腹)의 창만(脹滿), 머리와 얼굴의 부종(浮腫), 반위(反胃)를 치료한다. 36종의 풍(風)이 응결한 창(瘡)과 72종류의 옹종독(癰腫毒)을 치료하니, 날로 찢어서 즙을 내어 한 그릇을 마시면, 쌓인 악물(惡物)과 자잘한 벌레가 바로 나올 것이다. 겉으로는 달인 고약을 바르기도 한다. 이 약은 비록 차갑고 매끄러우나, 피를 순환시키고 기(氣)를 고르게 하며 장(腸)을 살찌우니, 참으로 좋은 약제(藥劑)이다. 태운 재와 묵은 식초의 찌꺼기를 섞어서, 먼저 정종(疔腫)에 뜸을 뜨고 메우면 뿌리가 빠지게 된다. 마한독창(馬汗毒瘡)으로 벌레가 발생한 경우, 내복하고 겉에 붙인다. 사용할 때에는 잎이 큰 것은 쓰지 말고, 잎이 작고 마디 사이에 수은(水銀)이 있는 것을 쓴다. 10근을 말리는 경우, 그 속에서 수은 8냥을 얻게 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아주 말리기 어려운데, 두드려서 부수어 햇볕에 2~3일 쪼이면 마르게 될 것이다. 약에 넣을 때에는 줄기와 마디를 제거한다.)

- [○ 子는 主靑盲、白翳하며 明目하며 除邪氣、去寒熱하니 爲末하여 每一錢을 煮葱豉五味粥하여 和食之면 効니라.]

(○ 씨는 청맹(靑盲)과 백예(白翳)를 치료하며, 눈을 밝히고, 사기(邪氣)를 제거하며, 한열(寒熱)을 없앤다. 분말하여 한 번에 1돈씩을, 파와 두시(豆豉)를 넣고 끓여서 양념하여 만든 죽과 함께 먹으면 좋다.)

葛苳 | 와거

葛苳 根寒 治骨蒸이오 更醫二痢 面黃凝을! 疔腫用汁 莖中取요 欲治蛇傷 葉止疼을.

와거(葛苳)는 뿌리가 차니 골증(骨蒸)을 치료하고, 또 두 가지 이질과 얼굴에 생긴 노란 응결을 치료한다. 정종(疔腫)에는 즙을 쓰되 줄기에서 채취하고, 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하려는 경우 앞에서 채취한 즙이 통증을 멎게 한다.

- (芎는 大也니 莖葉이 大而味苦하야 又名은 苦芎니 卽野芎也라 人家常食者는 爲白芎니 江外의 嶺南、吳人은 無白芎하니 常植野芎하야 以供廚饌이라 無毒이라 根은 主骨蒸、赤白痢하니 並煮服之요 更除面目과 及舌下黃이라 又折取 莖中白汁은 傳疔腫이면 出根이오 取汁하야 滴癰上이면 立潰破라 莖葉은 蛇가 觸之則目盲 故로 傳蛇咬에 有驗이라 今人이 種爲菜하야 生食之하니니 開胃、強力하며 利五臟、調十二經脉이로대 多食이면 輕身、少睡라 霍亂後 胃氣逆煩에 生搗汁을 飲之니 雖冷이나 甚益人이오 惟同血食이면 作痔疾이라 衍義에 云 傳疔腫에 甚効하니 靑苗를 陰乾하야 以備冬月이니 爲末 水調敷라 하니라.)

(거(芎)는 크다는 뜻이니, 줄기와 잎이 크고 맛이 쓰므로, 고거(苦芎)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야생 상추이다. 사람들이 집에서 늘 먹는 것은 백거(白芎)인데, 강외(江外)인 영남(嶺南)과 오(吳) 지역 사람들은 백거가 없어서 늘 야생 상추를 심어 음식으로 활용했다. 독이 없다. 뿌리는 골증(骨蒸)과 적백리(赤白痢)를 치료하니, 모두 달여서 먹는다. 또 얼굴과 눈과 혀 밑이 노랗게 되는 증상을 없앤다. 또 부러뜨려서 채취한 줄기 속 흰 즙을 정종(疔腫)에 바르면 뿌리가 빠지게 되고, 응(癰)에 떨어뜨리면 바로 터질 것이다. 줄기와 잎에 뱀이 닿으면 뱀의 눈이 멀게 되므로, 뱀 물린 데에 붙이면 효과가 있다.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채소로 심어서 날로 먹는데, 위(胃)를 여는 힘이 강력하고, 오장(五臟)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십이경맥(十二經脈)을 고르게 한다. 많이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줄어들게 된다. 광란(霍亂) 후 위기(胃氣)가 역번(易煩)하는 경우 날로 찢어서 즙을 마신다. 비록 성질은 차갑지만 사람에게 유익하다. 오직 피와 같

이 먹으면 치질(痔疾)을 유발한다. 《본초연의(本草衍義)》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정종(疔腫)에 붙이면 큰 효과가 있으니, 푸른 싹을 그늘에서 말려 겨울에 사용할 것을 대비하고, 분말로 만들어 물에 개어서 붙인다.)

- (○ 白芨는 苦平이라 補筋骨、利五臟、開胃膈壅氣하며 通經脉、去口氣하며 令人으로 齒白、聰明、少睡게 하니 可常食之로대 惟患冷氣와 及産後에 食之 하면 寒中이니라.)

(○ 백거(白芨)는 맛이 쓰고, 약성이 평이하다. 근골(筋骨)을 보하고, 오장(五臟)을 원활하게 하며, 가슴에 막힌 기를 열어주고, 경맥(經脈)을 소통 시키며, 입 냄새를 제거하고, 사람의 이를 희게 하며, 총명하게 해주고, 잠이 줄게 한다. 늘 먹을 수 있지만, 냉기(冷氣)를 앓는 경우나 산후(産後)에 먹으면 몸속을 차게 만든다.)

苦黃 | 고매

苦黃 無毒 性亦凉이오 壯力能治 面目黃을! 尿血單煎 酒水服이오 拔疔爛蠶 傳蛇傷을.

고매(苦黃)는 독이 없고 약성도 차니, 체력을 강화시키고 누렇게 된 얼굴과 눈을 치료한다. 혈뇨(血尿)에는 단방(單方)으로 물과 술에 달여서 먹으며, 정(疔)의 뿌리가 빠지게 하고 누에를 문드러지게 하며 뱀에 물린 상처에 붙인다.

- (強力、止困、治面目黃이오 汁傳疔腫이면 卽出根하고 又傳蛇蟲咬요 蠶蛾出時에 切不可取拗니 令蠶으로 靑爛이니 蠶婦도 亦忌食이라 野苦黃는 五六回拗後라야 味甘하며 滑於家黃니라.)

(힘을 강화시키고 피곤함을 그치게 하며, 누렇게 된 얼굴과 눈을 치료한다. 즙을 정종(疔腫)에 붙이면 곧장 뿌리가 빠지고, 뱀과 벌레에 물린 상처에도 붙인다. 누에에서 나방이 나올 때 절대 이것을 꺾으면 안 되니, 누에

가 푸르게 문드러져 죽기 때문이다. 누에를 키우는 여성도 역시 먹어서는 안 된다. 야생 고매(苦蕒)는 5~6회 꺾어버린 후에야 맛이 비교적 달게 되며, 민가에서 심은 고매보다 매끄럽게 될 것이다.)

- [◦ 單苦蕒菜飲이라 治尿血하니 酒與水로 煎服之면 効니라.]

[◦ 단방(單方)인 고매채음(苦蕒菜飲)은 혈뇨(血尿)를 치료하고, 술과 물로 달여 먹으면 효과적이다.]

薺 | 제

薺味甘溫 能和中이오 疏利五臟 尤凉肝을! 子治目痛 青盲翳요 根葉燒灰 痢疾安을.

제(薺)는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니 중초(中焦)를 고르게 하고, 오장(五臟)을 풀어서 원활하게 하며 더욱이 간(肝)을 식혀준다. 씨는 눈의 통증과 청맹(靑盲) 및 예장(翳障)을 치료하고, 뿌리와 잎은 그것을 태운 재로 이질(痢疾)을 안정시킨다.

- [薺는 薺也며 好也니 詩에 云 其甘이 如薺라하니 葉作 羹이면 味佳라 無毒이리 和中、利五臟과 及肝氣하니 凡患氣와 及服丹石人이 食之면 動痼疾이오 又與 麪과 同食이면 令人으로 背悶이니라.]

[제(薺)는 가지런하다는 뜻이며, 좋다는 뜻이다. 《시경(詩經)》에서 제(薺)와 같이 달다고 하였다. 잎은 채소 절임이나 국을 끓이면 아주 맛있다. 독이 없다. 중초(中焦)를 고르게 하고, 오장(五臟)과 간기(肝氣)를 원활하게 한다. 다만 기병(氣病)이나 단석(丹石)을 먹은 사람이 먹으면 고질(痼疾)을 유발하고, 밀가루와 같이 먹으면 등이 답답하게 된다.]

- [◦ 子是 亦呼爲 蒹藁子라 味甘平하고 主目痛、青盲、翳膜하며 解熱毒하며 補五臟不足하니 四月八日에 收之라야 良이니라.]

(○ 씨는 석명자(蒜薹子)라고도 부른다.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다. 눈의 통증, 청맹(靑盲), 예막(翳膜)을 치료한다. 열독(熱毒)을 해소하고, 오장(五臟)의 부족(不足)을 보한다. 음력 4월 8일에 채취한 것이 좋다.)

- (○ 根葉은 燒灰爲末하여 蜜湯으로 下면 治赤白痢에 極効요 根汁은 點暴赤眼痛이니라.)

(○ 뿌리와 잎을 태운 재로 분말하여 꿀물로 먹으면, 적백리(赤白痢)에 아주 효과적이다. 뿌리의 즙은 급성으로 충혈된 안구통증에 점입(點入)한다.)

- (○ 煮薺法이라 取薺 一二升許하여 淨洗하여 入淘了米 三合、冷水 三升、生姜 二指大、生油 一蜆殼하고 不用鹽醋하며 又不須攪動하고 俟羹熟하여 取食이면 能引血歸肝하여 明目、治瘡하니 與夜讀에 服熊膽之意로 同이라 此는 幽人山居之祿이니 不可忽也니라.)

(○ 냉이를 끓이는 법은 다음과 같다. 냉이 1~2되를 채취하여 깨끗이 씻은 데다가 물에 인 쌀 3홉, 냉수 3되, 두 개의 손가락 크기의 생강, 생마유(生麻油) 한 조개껍질 정도를 넣고, 소금과 식초를 치지 않는다. 휘젓지 않고 국이 익기를 기다려 먹으면, 피를 간(肝)으로 끌고 돌아가서 눈을 밝히고 창(瘡)을 치료하는 효과가 밤에 독서할 때 응담(熊膽)을 먹는 것과 같다. 이것은 산에 거처하는 사람들의 복이니, 소홀히 할 수 없다.)

葫蘆 | 호로

【葫蘆】味甘 平微毒하니 利水消浮 止渴煩을! 瓠雖稍苦 性無異요 虛脹冷人 切莫吞을.

【호로(葫蘆)】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약간 독이 있으니, 이뇨(利尿) 작용을 하여 부종(浮腫)을 없애고 번갈(煩渴)을 멎게 한다. 박은 비록 맛이 다소 쓰지만 성질은 다르지 않은데, 허창(虛脹)이 있거나 차가운 사람은 절대 먹어

서는 안 된다.

- 〔葫蘆도 亦瓠也니 詩謂之壺라 枯者는 可爲壺요 嫩者는 可爲茹라 有甘有苦하니 苦如膽者는 堪渡水나 不堪食與入藥이라 主大水로 面目浮腫하며 下水하며 令人으로 吐요 除煩、止渴하며 治心熱、利小腸、潤心肺、下石淋、吐蛔蟲、療蠱毒과 吐血이라 又患腳氣와 及虛脹、冷氣人은 不可食이로대 惟服丹石人은 相宜니라.〕

〔호로(葫蘆)도 박이니, 《시경(詩經)》에서 호(壺)라고 부른 것이다. 마른 것은 병을 만들 수 있고, 어린 것은 먹을 수 있다. 맛이 단 것도 있고, 쓴 것도 있다. 쓸개처럼 쓴 것은 물을 건너는 용도로 쓸 수 있지만, 먹거나 약에 넣을 수 없다. 대수(大水)로 인한 얼굴과 눈의 부종을 치료하고, 물을 내려 가게 하며, 토하게 하고, 번(煩)을 제거하며, 갈증을 멎게 한다. 심열(心熱)을 치료하고, 소장(小腸)을 원활하게 하며, 심폐(心肺)를 윤택하게 하고, 석림(石淋)을 나가게 하며, 회충(蛔蟲)을 토하게 하고, 고독(蠱毒)과 토혈(吐血)을 치료한다. 또 각기(脚氣) 환자 및 허창(虛脹)과 냉기(冷氣)가 있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고, 오로지 단석(丹石)을 복용한 사람만은 적합하다.〕

- 〔○花는 日乾爲末하야 傳鼠癭니라.〕

〔○ 꽃은 햇볕에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 서루(鼠癭)에 붙인다.〕

茄 | 가

茄味甘寒 能緩火요 大治風熱 腰腳跛를! 化痰逐瘀 消乳癰이오 發癰發瘡 非相左를! 腸風口糜 蒂燒灰요 根洗凍瘡 煎數朶를.

가(茄)는 맛이 달고 약성이 차니 화(火)를 완화시키고, 풍열(風熱)을 잘 치료하며 허리와 종아리에 경련이 일어서 절뚝이는 증상을 치료한다. 담(痰)을 삭이고 어혈(瘀血)을 몰아내며 유옹(乳癰)을 없애는데, 고질(癰疾)과 창(瘡)을 유

발하기도 하지만 서로 어긋나지는 않는다. 장풍(腸風)과 입이 허는 경우에는 그 꼭지를 태워 재로 만들어 쓰고, 뿌리로는 동상(凍傷)을 씻되 몇 개를 달여서 쓴다.

- (茄者是 連莖之名이니 有數種이로대 入藥에 多用黃茄라 無毒이라 治大風熱痰하니 取黃茄 不計多少하야 以新瓶盛貯하야 埋土中經年이면 盡化爲水하리니 取出하야 入苦參末 爲丸하야 食後와 臨臥에 酒下卅丸이면 甚効라 又治腰脚風、血積冷으로 筋急拘攣疼痛하니 取茄子 五十斤하야 細切洗淨하야 以水五斗로 煮濃去渣하고 再煎至一升하야 入粟粉 同煎하야 令稀稠得所하고 更入麝香、朱砂末하야 爲丸梧子大하야 每旦과 及近暮에 酒下卅丸이면 一月乃瘥니 男女通用이오 此膏는 又可傳發背、乳癰、惡瘡이니 冷如冰雪하리라 又治撲損으로 肌膚青腫하니 用老黃茄種을 切片하야 瓦上焙 爲末하야 臨臥에 酒下二錢이면 惡血 散而痛腫이 止하며 一夜에 消盡 無痕이라 本草에 又云 久冷人은 不可多食이니 損人動氣하며 發瘡、發癰疾이라하니 不與煎膏傳瘡之說로 相左耶아?蓋熱瘡에 塗之則愈나 體冷엔 服之生瘡이오 夏月에는 當時食之라 猶可일새니라.)

(가(茄)는 줄기에 이어졌다는 명칭이다.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약에는 대부분 황가(黃茄)를 쓴다. 독이 없다. 대풍(大風)과 열담(熱痰)을 치료하니, 양을 계산하지 않고 황가를 채취하여 새로운 병에 넣어서 흙 속에 한 해 묻어두면, 다 녹아서 물이 될 것이니, 이것을 꺼내어 고삼(苦參)의 분말을 넣어 오동나무 씨의 크기로 제한(製丸)한다. 이것을 식후와 잠들기 전에 술로 30환씩 먹으면 아주 효과적이다. 또 요각풍(腰脚風)과 피에 냉이 쌓인 증상, 근육이 수축하고 경련하며 아픈 증상 등을 치료하니, 가자(茄子)를 50근을 잘게 썰고 잘 씻어서 물 5말로 진하게 달이고 찌꺼기를 없앤 뒤, 다시 1되가 되도록 달여서 좁쌀 가루를 넣고 같이 졸인다. 적당한 농도가 되면 사향(麝香)과 주사(朱砂) 분말을 넣고 오동나무 씨의 크기로 제한한다. 이것을 매일 아침과 해가 질 무렵에 술로 30알씩 먹으면, 한 달 만에 낫게 될 것이다. 남녀가 같이 쓴다. 이것으로 만든 고약은 발배(發背) 및

유옹(乳癰)과 악창(惡瘡)에도 붙일 수 있는데, 붙이게 되면 얼음이나 눈처럼 냉각시킨다. 또 타박상으로 살결이 푸르게 부은 증상을 치료하니, 묵은 황가를 절편하여 기왓장 위에서 불로 말리고 분말로 만들어 잠들기 전에 2돈씩 술로 먹으면, 악혈(惡血)이 흩어지고 통증과 부종(浮腫)이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그치게 될 것이다. 《본초서(本草書)》에서 만성적으로 냉기가 있는 사람은 많이 먹어서는 안 되니, 사람을 손상시키고, 기(氣)를 동하게 하며, 창(瘡)과 고질(痼疾)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렇다면 졸인 고약을 창(瘡)에 붙인다는 설명과 서로 어긋나지 않는가? 대개 열창(熱瘡)에 바르면 낫지만, 몸이 차가운 사람이 먹으면 창(瘡)이 생긴다는 점을 말한 것이고, 여름철에 먹는 것은 그래도 가능하다.)

- [○ 蒂는 燒灰和蜜하여 調敷口瘡、牙痛하고 酒調服이면 治腸風下血하나니 皆甘以緩火之意也니라.]

[○ 꼭지는 태워서 재로 만들어 꿀과 섞어서 구창(口瘡)과 치아의 통증에 붙이고, 술에 타서 먹으면 장풍하혈(腸風下血)을 치료한다. 모두 단 맛으로 화(火)를 완화한다는 의미이다.]

- [○ 根及枯莖葉은 煎湯하여 漬洗凍瘡이면 良이니라.]

[○ 뿌리 및 마른 줄기와 잎은 달여서 동상(凍傷)을 씻으면 좋다.]

- [○ 又苦茄는 樹小有刺하니 其子是 主痺하며 醋磨하여 塗癰腫이면 効니라.]

[○ 고가(苦茄)는 나무가 작고 가시가 있는 것인데, 씨앗은 비(痺)를 주치하며, 식초에 갈아서 옹종(癰腫)에 바르면 효과가 있다.]

白冬瓜 | 백동과

白冬瓜 甘 寒無毒하니 除熱止渴 性最速을! 更利水脹 治諸淋이오 久病瘦人 最忌服을! 子醒脾胃 悅人顔이오 更消膿血 聚腸腹을! .

백동과(白冬瓜)는 맛이 달고 약성이 차며 독이 없으니, 열을 없애고 갈증을 멎게 하며 성질이 가장 빠르다. 또 수창(水脹)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각종 임질(淋疾)을 치료하지만, 오래 앓았거나 몸이 마른 환자에게는 복용을 금한다. 씨는 비위(脾胃)의 기능을 일깨워 안색이 좋아지게 하고, 또 장(腸)과 배에 생긴 피고름을 없앤다.

- [初生靑綠이라가 經冬則皮白하야 如塗粉 故로 名이라 主解胃中積熱、煩悶하며 止消渴、除小腹水脹하며 療五淋、利大小便하며 壓丹石毒、魚毒하니 並絞汁服之요 又煮食하야 練五臟은 爲下氣 故也요 欲瘦健者는 可長食이오 欲肥者는 勿食이니라 丹溪가 云 性이 急而走하니 久病與陰虛者는 忌之라 하고 衍義에 云 發背와 一切癰疽에 削一大塊하야 置瘡上하야 熱則易之면 分散熱毒이라하니 亦取其走而急也요 九月에 食霜瓜면 令反胃니라.]

(처음 날 때는 청록색(靑綠色)이다가, 겨울을 지나면 껍질이 흰 분을 바른 것처럼 하얗게 되어서 백동과(白冬瓜)라고 명명한 것이다. 가슴 속에 쌓인 열과 번민(煩悶)을 해소하고, 소갈(消渴)을 멎게 하며, 아랫배의 수창(水脹)을 없앤다. 다섯 가지의 임질(淋疾)을 치료하고,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하며, 단석독(丹石毒)과 어독(魚毒)을 진압하니, 모두 찌서 즙을 먹는다. 또 끓여서 먹으면 오장(五臟)을 단련하는데, 이것은 기를 내리기 때문이다. 몸이 마르고 건강하고 싶은 사람은 장복할 수 있지만, 살을 찌우려는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한다. 주단계(朱丹溪)는 성질이 급하고 주행하므로, 만성 환자와 음허(陰虛)한 사람은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초연의(本草衍義)》에서는 다음처럼 말했다. 발배(發背)와 모든 응저(癰疽)에 큰 덩어리 하나를 깎아서 창(瘡) 위에 붙이되 뜨거워졌을 때 갈아주면 열독(熱毒)을 분산시킨다. 이 역시 그 성질이 주행하며 급한 특징을 취한 것이다. 음력 9월에 서리 맞은 과(瓜)를 먹으면 반위(反胃)를 유발한다.)

- [○ 葉은 殺蜂螫、腫毒이니라.]

[○ 잎은 벌에 쏘인 곳과 종독(腫毒)을 줄여 준다.]

- (○ 藤은 燒灰하야 洗黑黧과 并瘡疥濕이라.)

(○ 덩굴은 태워서 재로 만들어 주근깨와 습한 창개(瘡疥)에 씻는다.)

- (○ 子是 甘平하고 無毒이라 醒脾滯、除煩滿不樂하야 令人으로 悅澤하며 好顏色이라 別錄에 云 主腹內結聚하며 破潰膿血하야 最爲腸胃內壅의 要藥이라 하니라 又去皮膚風刺、黑黧하며 潤肌膚하니 可作面脂요 多年損傷이 不差에 熬末하야 溫酒로 調服이라 入藥에 須霜後에 取하야 置之經年이라가 破出核하야 洗燥去殼하고 取仁 微炒用之라 凡瓜는 皆能寒中이로대 惟木瓜則溫中也니라.)

(○ 씨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비(脾)의 정체를 깨우며, 갑갑하고 그득하여 불쾌한 기분을 없애서 즐겁게 하고 안색을 좋게 한다. 《명의별록(名醫別錄)》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뱃속 결취(結聚) 치료하며, 피고름을 터뜨리고, 장위(腸胃)의 응체(壅滯)에 가장 중요한 약이다. 또 피부의 풍자(風刺)와 주근깨를 제거하고, 살결을 윤택하게 하므로 화장용 얼굴 기름을 만들 수 있다. 여러 해 낫지 않은 손상에는 볶아서 분말로 만들어 따뜻한 술에 타서 먹는다. 약으로 쓸 때는 반드시 서리가 내린 후 채취한 해가 지나도록 두었다가 깨뜨려서 씨를 꺼내 씻어 말린 뒤, 겉질을 제거하고 씨만 채취하여 약하게 볶아서 쓴다. 박은 모두 속을 식히지만, 동과(冬瓜)만은 속을 데운다.)

胡葵 | 호수

胡葵 辛溫 微有毒하니 善止頭疼 熱四肢를! 消穀更通 心腹氣요 噴痘酒煎 不用醫를.

호수(胡葵)는 맛이 맵고 약성이 따뜻하며 약간 독이 있으니, 두통(頭痛)과 사지(四肢)의 발열을 잘 멎게 한다. 곡물을 소화시키며 심복(心腹)의 기(氣)를 소통시키고, 두진(痘疹)에는 술로 달여서 뿔으면 의사가 필요 없게 된다.

- [胡는 狐也요 𦍋는 臊也니 久食이면 令人 腋氣로 如狐臊也라 止頭疼、拔四肢 熱하며 消穀하며 通心竅、通大小腸、通小腹氣하고 小兒痘瘡不出에 用酒煎 沸어든 以物 蓋定하야 冷去渣하고 微微히 從項已下 遍身에 噴之호대 除面不 噴이면 其痘 速出이라 久食하면 損人精神하야 多忘게 하며 發胡臭、脚氣、瘡 疾이니라.]

[호(胡)는 여우라는 뜻이며, 수(𦍋)는 누린내라는 의미이다. 오래 먹으면 사람 겨드랑이에서 여우 누린내가 나서 이렇게 명명한 것이다. 두통(頭 痛)을 멎게 하고, 사지(四肢)의 열을 제거하며, 곡식을 소화시키고, 심규(心竅)와 대소장(大小腸) 및 아랫배의 기를 소통시킨다. 소아의 두창(頭 瘡)이 나오지 않을 때, 술로 끓이고 뚜껑을 덮은 뒤, 식으면 찌꺼기를 제거 하고, 목덜미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전신에 조금씩 뿜되, 얼굴에는 뿜지 않으면, 두창(頭瘡)이 신속하게 나올 것이다. 오래 먹으면 사람의 정신(精 神)을 손상시켜 건망증을 유발하며, 여우의 누린내와 각기(脚氣) 및 고질 (瘡疾)을 유발할 것이다.]

- [○ 子는 主腸風、五痔、蠱毒과 及食肉中毒으로 下血不止하야 頓瘡黃者하니 煮冷汁을 服之요 齒痛에 煎湯을 含之요 小兒禿에 油煎하야 傅之요 入藥에는 炒用이니라.]

[○ 씨는 장풍(腸風), 다섯 종류의 치질(痔疾), 고독(蠱毒) 및 고기에 중독 되어 하혈(下血)이 멈추지 않아 갑자기 비증(痞症)으로 누렇게 된 환자를 치료하니, 달여서 식힌 즙을 먹는다. 치통(痔痛)에는 달인 탕을 머금은다. 소아의 독창(禿瘡)에는 기름으로 끓여서 바른다. 약에 넣을 때에는 볶아 서 쓴다.]

- [○ 又石胡𦍋는 俗名이 鵝不食草니 氣寒하고 無毒이라 通鼻氣、利九竅、吐風 痰으로 不任食이오 又熟按하야 內鼻中이면 去翳膜이니라.]

(○ 또 석호수(石胡荽)는 속칭 아불식초(鵝不食草)라고 한다. 약성이 차고, 독이 없다. 비기(脾氣)를 소통시키고, 구구(九竅)를 원활하게 하며, 풍담(風痰)으로 먹지 못할 때 토하게 한다. 또 익힌 수(筴)를 문질러 콧속에 넣으면 예막(翳膜)을 제거한다.)

水芹 | 수근

【水芹】味甘 平無毒하니 能益氣血 養精神을! 更消煩渴 除黃疸이오 帶下崩中 治婦人을.

【수근(水芹)】은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으니, 기혈(氣血)을 보익하고 정신을 보양한다. 또 번갈(煩渴)을 없애고 황달(黃疸)을 제거하며, 대하(帶下)와 붕중(崩中) 등의 부인병을 치료한다.

- [芹은 英也니 産於水滸而英秀하야 異於他菜하니 可作 食이오 無毒이라 益氣하야 保血脉、養精神、壯筋力하며 令人으로 肥健、嗜食이오 除身熱、煩渴하며 利大小腸하며 治五種黃病과 女人의 赤沃、崩中、漏下와 小兒霍亂 吐瀉하며 兼去頭中熱風하며 殺石藥毒이라 醋和食之면 損齒하고 患鰲瘕人은 不可食이오 又三月八月에 龍이 帶精入芹菜中을 人遇食之하면 變成蛟龍瘕하리니 發則似癲하며 面色靑、小腹滿痛하야 狀如懷胎하니 服硬糖 二三升호대 日二服하야 吐出如龍子면 遂愈하리라.)

(근(芹)은 빼어나다는 의미이다. 물가에서 나면서 다른 풀보다 빼어나다는 뜻이다. 채소 절임으로 먹을 수 있다. 독이 없다. 기(氣)를 보익하고, 혈맥(血脈)을 보전하며, 정신(精神)을 보양하고, 근력(筋力)을 왕성하게 하며, 사람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며 잘 먹게 한다. 몸에서 열이 나는 증상과 번갈(煩渴)을 멎게 하고, 대소장(大小腸)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며, 다섯가지의 황달(黃疸), 여성의 적색 분비물, 붕중(崩中), 누하(漏下), 소아의 객란(霍亂)과 토사(吐瀉)를 치료한다. 아울러 머리에 맞은 풍열(風熱)을 없애고, 석약독(石藥毒)을 감소시킨다. 식초와 같이 먹으면 이를 손상시

키고, 별가(鰲瘕) 환자는 먹을 수 없다. 또 음력 3월과 8월에 용이 정액을 문힌 채 미나리 속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우연히 먹으면 변해서 교룡가(蛟龍瘕)가 된다. 이 병이 발병하면 전간(癲癇)처럼 되며, 안색이 푸르고 아랫배가 차오르며 아파서 모습이 임신한 것과 같게 되는데, 경당(硬糖) 2~3되를 하루 2회 먹여 용의 새끼 같은 것을 토하게 되면 나을 것이다.)

芸薹 | 운대

芸薹 最不宜多食이오 發病生蟲 極損陽을! 主破癥瘕 通結血이오 更除丹腫 乳癰瘡을.

운대(芸薹)는 많이 먹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이니, 발병하면 벌레를 발생시키고 양기(陽氣)를 심하게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징가(癥瘕)를 부수고 응결된 피를 소통시키고, 또 단종(丹腫)과 유옹(乳癰) 및 창(瘡)을 없앤다.

- [衍義에 云 芸薹는 不甚香하나 經冬이라도 根不死하며 辟蠹하고 於諸菜中에 亦不甚佳라호대 此人間所啖菜也라 味辛溫하고 無毒이라 久食이면 損陽氣、發痼疾、發瘡、口齒痛하며 生腹中諸蟲하니 先患腰腳과 及胡臭人은 不可食이오 但能破癥瘕、血結、產後血風、瘀血하며 療遊風、丹腫、乳癰이니라.)

(《본초연의(本草衍義)》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운대(芸薹)는 향기가 심하지는 않지만, 겨울이 지나도 뿌리가 죽지 않으며, 즙을 물리친다. 채소 중에서 그다지 맛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이미 사람들이 먹는 채소다. 맛이 맵고, 약성이 따듯하며, 독이 없다. 오래 먹으면 양기(陽氣)를 손상시키고, 고질(痼疾)을 유발하며, 창(瘡)이 발생시키고, 입과 치아에 통증을 발생시키며, 뱃속에서 벌레가 생기게 만든다. 요각통(腰腳病)을 앓았던 사람이거나 호취증(胡臭症)이 있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다만 징가(癥瘕)와 혈결(血結), 산후 혈풍(血風)과 어혈(瘀血)을 부수며, 유풍(遊風), 단종(丹腫), 유옹(乳癰)을 치료한다.)

- (○ 子は 壓油하여 傳頭면 令 長黑이오 婦人經後에 食之면 斷産이니라.)

(○ 씨는 눌러 짜서 그 기름을 머리에 바르면 머리카락이 자라고 검게 된다. 여성이 생리 후에 먹으면 불임이 된다.)

竹筍 | 죽순

竹筍 化痰 更利水요 爽胃利膈 消渴止를! 冷癥脚氣 人休食이오 乾者難化 滯脾土를! 地筍卽是 澤蘭根이니 吐衄血病 堪作主를.

죽순(竹筍)은 담을 삭이고 이뇨(利尿) 작용을 하며, 위(胃)를 상쾌하게 하고 흉격(胸膈)을 원활하게 하며 소갈(消渴)을 멎게 한다. 냉징(冷癥)과 각기(脚氣) 환자는 먹지 말아야 하는데, 건조한 것은 소화하기 어렵고 비토(脾土)를 정체하게 한다. 지순(地筍)은 곧 택란(澤蘭)의 뿌리인데, 토혈(吐血)과 코피를 주치한다.

- (味甘하고 無毒이라 下氣、消痰、利水하며 爽胃氣、利膈、化熱하며 止消渴、益氣하니 可常食이로대 惟有冷癥動氣와 脚氣人은 不可食이오 新者면 稍可食이나 陳者면 難化하여 不益脾라 昔에 有小兒食乾筍이라가 噎喉中하야 喘急、瞑目、似慢驚이어늘 以巴豆藥으로 吐出乃愈라 諸筍은 皆發冷血과 及氣로대 惟苦竹筍은 不發痰하고 主不腫하며 去面目과 舌上熱黃하며 止渴、除熱、解酒毒、明目、健人하며 利水道、理風熱、脚氣하니 取蒸煮하야 食之니라.)

(맛이 달고, 독이 없다. 기(氣)를 내리고, 담(痰)을 삭이며, 이뇨(利尿) 작용을 하고, 위기(胃氣)를 상쾌하게 하며, 흉격(胸膈)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열을 삭이며, 소갈(消渴)을 멎게 하고, 기를 보익하니, 늘 먹을 수 있다. 오직 평소부터 냉징(冷癥)이 있어 기가 동하는 환자나 각기(脚氣) 환자는 먹을 수 없다. 새 것은 그래도 먹을 수 있지만, 묵은 것은 소화하기 어렵고 비장(脾腸)에 좋지 못하다. 예전에 어린아이가 마른 죽순을 먹다가 목구

멍에 걸려서 숨이 차고 눈이 안 보이게 된 것이 만성 경풍(驚風)과 유사하였는데, 파두(巴豆)가 들어있는 약으로 토하게 하였더니 나은 일이 있었다. 모든 죽순은 피를 식히고 기증(氣症)을 발생시키지만, 고죽순(苦竹筍)만은 담(痰)을 유발하지 않고, 불면을 치료하며, 얼굴과 눈과 혀 위의 열황(熱黃)을 제거하고, 갈증을 멎게 하며, 열을 제거하고, 술독을 해독하며, 눈을 밝히고, 사람을 건강하게 하며, 이뇨 작용을 하고, 풍열(風熱)과 각기(脚氣)를 다스린다. 채취하여 찌서 먹는다.)

- [○ 地笋은 甘溫하고 無毒이라 利九竅、通血脈、止吐血、衄血하며 治產後心腹痛과 一切血症하고 食之면 肥白人이니라.]

[○ 지순(地笋)은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없다. 구구(九竅)를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혈맥(血脈)을 소통시키며, 토혈(吐血)과 코피를 멎게 하고, 산후의 심복통(心腹痛)과 모든 혈증(血症)을 치료하는데, 먹으면 사람을 살찌고 희게 만든다.]

- [○ 蒲笋은 卽櫻笋也라 甘寒하고 無毒이라 去熱燥하며 利小便이니라.]

[○ 포순(蒲笋)은 곧 종순(櫻笋)이다. 맛이 달고, 약성이 차며, 독이 없다. 열조(熱燥)를 없애고, 이뇨(利尿) 작용을 한다.]

- [○ 蘆笋은 卽蘆根也요 茭笋은 卽菰根也니 俱見前卷하니라.]

[○ 노순(蘆笋)은 곧 갈대의 뿌리이고, 교순(茭笋)은 곧 고근(菰根)이다. 모두 앞 권에 보인다.]

菌 | 균

菌味甘芳 性本溫이오 開胃止瀉 悅神魂을! 木耳凉血 故止血이오 石耳清心 養胃元을.

균(菌)은 맛이 달고 향기로우며 약성은 본래 따듯하니, 위(胃)를 열어주고 설사를 멎게 하며 혼백(魂魄)을 기쁘게 한다. 목이(木耳)는 피를 식히므로 지혈(止血)하고, 석이(石耳)는 심장을 식히며 위(胃)의 원기(元氣)를 보양한다.

- 〔菌有五色이나 種則一類니 俗呼爲菇라 芳者를 呼爲 蕈菇요 不芳者를 呼爲 荒菇니 生滑乾澁이라 有地生者하며 有木生者하니 或又名木雞요 有土壤糞灰中과 或竹林虛坯處에 夏雨後에 盡生하니 此乃濕熱이 相感而成이니 多食하면 發濕熱하며 少食이라 其氣가 芳香이면 悅神・開胃하고 其味가 稍澁이면 能止瀉・止吐라 冬間과 及春初에는 無毒하고 夏秋에는 有毒하니 爲蛇過也니 誤中하야 脹悶欲死者는 急與甘草湯커나 或黑豆를 煮汁飲하야 解之라 又楓樹上 菌은 食之면 令人으로 笑不止하리니 地漿水로 解之니 亦解諸菌毒이니라.〕

(버섯은 5가지의 색이 있지만, 종류는 한 가지인데, 속칭 고(菇)라고 부른다. 향기 있는 것은 심고(蕈菇)라고 부르며, 향기가 없는 것은 황고(荒菇)라고 한다. 날것은 매끄럽지만, 말리면 뻑뻑해진다. 땅에서 나는 것이 있고, 나무에서 나는 것이 있으니, 목계(木雞)라고 부르기도 한다. 토양과 분회(糞灰) 속이나 대나무 숲과 빈 언덕 등에서 여름비가 온 후 모두 나니, 이것은 습(濕)과 열(熱)이 서로 감응하여 형성된 것이다. 많이 먹으면 습열(濕熱)이 생기고, 밥을 적게 먹게 만든다. 향기로운 것은 정신을 즐겁게 하고 위(胃)를 열어주고, 맛이 시고 약간 떼은 것은 설사와 구토를 멎게 한다. 겨울과 초봄에 나는 것은 독이 없고, 여름과 가을에 나는 것은 독이 있는데, 뱀이 버섯을 스쳐 지나가기 때문이다. 잘못 먹고 속이 차오르고 갑갑하여 죽을 것 같은 환자는 급히 감초탕(甘草湯)이나 검은콩을 달인 즙을 마셔서 해독한다. 또 단풍나무 위로 나온 버섯을 먹으면 사람이 웃음을 그치지 못하게 되는데, 지장수(地漿水)로 해독하며, 아울러 지장수는 모든 버섯의 독을 해독하기도 한다.)

- 〔○ 木耳는 性冷하고 無毒이라 凉血하며 止腸澼・下血이라 勿與小兒食이니 不能尅化니라.〕

〔○ 목이(木耳)는 약성이 차고, 독이 없다. 피를 식히고, 장벽(腸澼)과 하혈(下血)을 멎게 한다. 소아에게는 먹이지 않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 〔○ 石耳는 甘寒하고 無毒이라 清心、養胃、止血이니라.〕

〔○ 석이(石耳)는 맛이 달고, 약성이 차며, 독이 없다. 심장을 맑게 하고, 위(胃)를 보양하며, 지혈(止血)한다.〕

- 〔○ 蘑茹는 甘平하고 無毒이라 河南産者라야 佳니 可食이나 無甚益損이니라.〕

〔○ 마고(蘑茹)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하남(河南)에서 나는 것이 좋으니, 먹을 수 있지만 큰 이익이나 손해는 없다.〕

芋 | 우

芋(園圃에 蒔者가 佳라 味辛平하고 有毒이라 主 腸胃、充肌膚、滑口하며 令人으로 肥白이오 産後煮食이면 破宿血、去死肌하고 汁은 止血渴이오 和魚하야 煮하면 甚下氣、調中、補虛하며 治煩、止渴이오 多食이면 動宿冷하며 滯氣、困脾하며 虛勞無力이라 煮汁으로 浴身上浮風하며 及洗膩衣면 白如玉이니라.)

토란〔밭에 심은 것이 좋다. 맛이 맵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있다. 위장(胃腸)을 완화시키고, 피부를 충실하게 하며, 입을 매끄럽게 하고, 사람을 살찌고 하얗게 만든다. 산후에 끓여서 먹으면 묵은 피를 부수고 죽을 살을 없앤다. 토란의 즙은 피와 갈증을 멎게 한다. 물고기와 같이 끓이면 심하게 기를 내려가게 하며, 중초(中焦)를 고르게 하고, 허(虛)를 보하며, 번(煩)을 치료하고, 갈증을 멎게 한다. 많이 먹으면 묵은 냉(冷)을 움직이게 하여 기(氣)를 정체시켜 비(脾)를 피곤하게 만들고, 허로(虛勞)로 무력하게 한다. 삶은 즙으로 몸의 부풍(浮風)에 목욕하며, 때가 찌든 옷을 빨아서 옥처럼 희게 만든다.〕

- [○ 葉은 冷하고 無毒이라 除煩、止瀉하며 療妊孕으로 心煩迷悶、胎動不安이오 又塩搗하여 傳蛇蟲咬、箭毒과 并癰瘡腫毒이면 止痛이오 梗은 擦蜂螫에 甚効니라.]

[○ 잎은 약성이 차고, 독이 없다. 번(煩)을 없애고, 설사를 멎게 하며, 임신으로 인해 심번(心煩)하고 혼미하며 갑갑하고 태동(胎動)이 불안한 증상을 치료한다. 또 소금과 함께 찢어서 뱀과 벌레 물린 데나 화살독과 응창(癰瘡) 및 종독(腫毒)에 붙이면 진통한다. 줄기는 벌에 쏘인 데에 문지르면 아주 효과적이다.]

- [○ 野芋는 生溪澗하나니 非人所種이라 根葉이 相似나 有大毒하야 入口殺人이니 飲地漿、糞汁하야 解之요 其根은 醋磨하야 傳蟲瘡、疥癬이니라.]

[○ 야생 토란은 시냇가에서 자라는 것이니 사람이 심은 것은 아니다. 뿌리와 잎이 비슷하지만 심한 독이 있으며, 먹으면 사람을 죽게 만드니, 지장(地漿)이나 똥물로 해독해야 한다. 뿌리는 식초로 갈아서 벌레에 의한 창(瘡)이나 개선(疥癬)에 붙인다.]

蕨 | 곁

蕨〔葉似老蕨하며 根如紫草粉이라 味甘 寒滑하니 土之津也라 最難尅化하니 脾土盛者 服之則脾氣愈盛하야 五臟有補하며 去暴熱、利水道어니와 胃弱者 服之하면 氣壅經絡 筋骨間하며 冷中腹脹하며 令人으로 腳弱不能行하며 消陽事、眼闇、鼻塞、落、多睡라 其嫩莖은 山間人이 作茹食之라 昔有獵士하야 折食一枝한대 心中이 淡淡하야 成疾이러니 後吐一小蛇하야 漸乾成蕨하니 遂明此物은 不可生食이니라.〕

곁(蕨) [잎이 노곁(老蕨)과 비슷하고, 뿌리는 자초(紫草)와 비슷하며, 흰 가루가 있다. 맛이 달고, 약성이 차고 매끄러우니, 흙의 진액(津液)으로 생긴 것이다. 아주 소화하기 어려우니 비토(脾土)의 기능이 왕성한 사람이 먹으면 비기

(脾氣)가 더 왕성하게 되어, 오장(五臟)을 보하고, 급성 열을 해소하며, 이뇨(利尿) 작용을 하게 된다. 다만 위(胃)가 약한 사람이 먹으면 기(氣)가 경락(經絡)과 근골(筋骨) 사이에서 응체(壅滯)하게 되며 속이 차게 되어, 배가 차오르게 되며, 다리가 약해져서 걷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양사(陽事)의 능력이 감소되고, 눈이 어둡게 되며, 코가 막히고, 머리카락이 빠지며, 잠이 많아진다. 어린 줄기는 산간 사람들이 나물로 만들어 먹는다. 예전에 한 사냥꾼이 가지를 하는 잘라서 먹었는데, 심장 속이 담담(淡淡)해지더니 병에 걸렸다가, 나중에 작은 뱀을 한 마리 토했는데, 이것이 점차 말라 고사리가 되었다. 이 사실을 통해 고사리를 날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 薇는 生水傍하야 葉似萍이오 味甘寒하고 無毒이라 久食이면 不飢、調中하며 潤大小腸、利水道、下浮腫이니라.]

[○ 고비는 물가에서 자라며 개구리밥과 비슷하다. 맛은 달고, 약성은 차며, 독이 없다. 오래 먹으면 허기(虛飢)를 없애주고, 중초(中焦)를 고르게 하며, 대소장(大小腸)을 윤택하게 하고, 이뇨(利尿) 작용을 하며, 부종(浮腫)을 내린다.]

甜瓜 | 첨과

甜瓜(甘寒하고 有毒이라 多食하면 令人으로 陰下濕痒生瘡하며 動宿冷病、發虛熱、破腹、腳手無力하나 少食이면 除煩、止渴、利小便、通三焦間壅塞氣하며 兼主口鼻瘡이라 衍義에 云 貧士 暑月에 多食避暑하면 至深秋하야 作痢難治니 爲其損陽氣故也니라.)

첨과(甜瓜) [맛이 달고, 약성이 차며, 독이 없다. 많이 먹으면 음부(陰部)의 밑이 습하고 가려워 창(瘡)이 생기게 되고, 묵은 냉병(冷病)을 동하게 하며, 허열(虛熱)을 유발하고, 배탈이 나게 하며, 종아리와 손을 무력하게 만든다. 하지만 조금만 먹으면 번(煩)을 없애고, 갈증을 멎게 하며, 이뇨 작용을 하고, 삼초(三焦) 사이에 막힌 기를 소통시켜주며, 아울러 입과 코의 창(瘡)을 치료한다. 《본

초연의(本草衍義)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가난한 선비가 여름철에 이것을 많이 먹고 더위를 피하게 되면, 한가울이 되어 이질(痢疾)이 발생해서 낫지 않게 될 것이니, 이것은 양기(陽氣)를 손상했기 때문이다.)

- [○ 葉은 治人無 하니 搗汁을 塗之면 卽生이니라.]

[○ 잎은 무발증(無髮症)을 치료하니, 찢어 즙을 바르면 털이 바로 난다.]

- [○ 子는 止女子月經太過하니 去油爲末하야 水調服之니라.]

[○ 씨는 여성의 과다한 월경(月經)을 멎게 하니, 기름을 없애고 분말해서 물에 타 먹는다.]

- [○ 野甜瓜는 又名馬剝兒라 味酸하며 似家甜瓜하니 治噎膈에 有功이니라.]

[○ 야생 참과(甜瓜)는 마박아(馬剝兒)라고도 한다. 맛이 시고 집에서 심은 참과와 비슷하니, 열격(噎膈)을 치료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

胡瓜 | 호과

胡瓜(亦呼爲黃瓜라 味甘寒하고 有毒이라 冷中하야 不益하며 治熱水腫하며 傳蛇傷이라 多食하면 動寒熱、疰瘡 腳氣、百病하며 發瘡疥、損陰血하니 天行後에는 尤不可食이오 小兒 食之면 滑中하며 生疳蟲이라 不與醋로 同食하고 宜薑 蒜으로 佐之니라.)

호과(胡瓜) [또 황과(黃瓜)라고도 부른다. 맛이 달고, 약성이 차며, 독이 있다. 속을 차게 하므로 유익하지 않으나, 열성(熱性) 수종(水腫)을 치료하며 뱀에 물린 데 붙인다. 많이 먹으면 한열(寒熱), 주기(疰氣), 학질(瘡疾), 각기(脚氣), 온갖 질병을 동하게 하며, 창개(瘡疥)를 유발하고, 음혈(陰血)을 손상시키니, 전염병에 걸린 후에는 더욱 먹으면 안 된다. 소아가 먹으면 중초(中焦)가 매끄럽게 되어 감충(疳蟲)이 생긴다. 식초와 같이 먹지 말고, 생강(生薑)과 마늘로 보좌함이 적합하다.]

- (○ 葉은 苦平하고 小毒이라 主小兒閃癖하니 一歲면 服一葉호대 生搗汁으로 得吐下면 瘥요 其根은 搗傳狐刺毒이니라.)

(○ 잎은 맛이 쓰고, 약성이 평이하며, 약한 독이 있다. 소아의 섬벽(閃癖)을 치료하니, 1세에는 1잎을 먹이되, 생으로 찢은 즙을 먹여 토하고 설사하게 하면 낫는다. 뿌리는 찢어서 호자독(狐刺毒)에 붙인다.)

西瓜 | 서과

西瓜(甘寒하고 無毒이라 消暑熱、解煩渴하며 中、下氣、利小水、治血痢하며 病熱口瘡者 食之면 立愈니라.)

서과(西瓜) (맛이 달고, 약성이 차며, 독이 없다. 여름철 더위를 사라지게 하고, 번갈(煩渴)을 해소하며, 중초(中焦)를 완화시키고, 기(氣)를 내리며, 이뇨(利尿) 작용을 하고, 혈리(血痢)를 치료한다. 열병으로 입에 창(瘡)이 생긴 환자가 먹으면 바로 낫는다.)

絲瓜 | 사과

絲瓜(治男婦一切의 惡瘡과 小兒痘疹의 餘毒과 并乳疽、疔瘡 等病하니 只用老苦絲瓜의 連皮 筋子 全者를 燒存性 爲末하야 纔生此等疾起어든 便用末三錢을 白蜜로 調服호대 日二夜一則腫消毒散하고 不致內攻하야 毒人이니라.)

사과(絲瓜) (남녀의 모든 악창(惡瘡)과 소아의 두진(痘疹) 후 여독(餘毒), 유저(乳疽), 정창(疔瘡) 등의 질병을 치료한다. 늙고 쓴 수세미를 껍질과 힘줄 및 씨가 다 있는 상태로 약성이 남도록 태워서 분말로 만들어, 이러한 질병들이 나타나면, 바로 이 분말 3돈을 흰 꿀에 타서 먹되, 낮에 2회, 밤에 1회 먹으면, 종기가 없어지고 독이 흩어져서, 체내로 공격하여 사람에게 해독을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豆角菜 |

豆角菜〔味甘溫하고 無毒이라 開胃、解暑하나 多食 久食하면 滯氣、困脾니라.〕

두각채(豆角菜)〔맛이 달고, 약성이 따듯하며, 독이 없다. 위(胃)를 열어주고, 더위를 해소해주지만, 많이 오래 먹으면 기를 정체시키며 비장(脾腸)을 피곤하게 만든다.〕

胡蘿蔔 | 호나복

胡蘿蔔〔味甘辛하고 無毒이라 寬中、下氣하며 散胃中宿食과 邪滯니라.〕

호나복(胡蘿蔔)〔맛이 달고 매우며, 독이 없다. 중초(中焦)를 완화하고, 기(氣)를 내리며, 위 속에 있는 묵은 음식과 정체된 사기(邪氣)를 흘린다.〕

蓴菜 | 박채

蓴菜〔味甘寒하고 無毒이라 主消渴、熱痺、熱疸하며 厚腸胃、安下焦、補大小腸 虛氣하며 逐水하며 解百藥毒、蠱毒이라 合鮒魚하야 爲羹食之하면 主胃氣弱하야 不下食者에 至効요 久食이면 損齒 이라 昔에 張翰이 思鱸魚、蓴羹은 以下氣也니라.〕

박채(蓴菜)〔맛이 달고, 약성이 차며, 독이 없다. 소갈(消渴), 열비(熱痺), 열달(熱疸)을 주치하며, 장위(腸胃)를 두텁게 하고, 하초(下焦)를 안정시키며, 대소장(大小腸)의 허기(虛氣)를 보하고, 물을 몰아내며, 온갖 약물의 독과 고독(蠱毒)을 해독한다. 붕어와 같이 국을 끓여 먹으면, 위기(胃氣)가 약해서 소화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아주 효과적이다. 장복하면 치아와 머리카락을 손상시킨다. 예전에 장한(張翰)이 농어와 양하국을 생각했던 것은 기를 내리기 때문이었다.〕

菠薐 | 파채

菠薐(性冷하고 微毒이라 利五臟、通腸胃熱、解酒毒하며 服丹石人이 食之면 佳
요 多食이면 冷大小腸하고 久食이면 令人으로 脚弱不能行하며 發腰痛이니라.)

파채(菠薐)〔약성이 차고, 미약한 독이 있다. 오장(五臟)을 원활하게 하고, 장
위(腸胃)의 열을 소통시키며, 술독을 해독한다. 단석(丹石)을 복용한 사람이
먹으면 좋다. 많이 먹으면 대소장(大小腸)을 차게 하고, 장복하면 다리를 약화
시켜 걷지 못하게 만들고 요통(腰痛)을 발생시킨다.〕

蒼蘼 | 군달

蒼蘼(平하고 微毒이라 補中、下氣하며 理脾氣、去頭風、利五臟이라 冷氣에 多
食이면 動氣하고 先患腹冷에 食하면 必破腹이라 莖은 燒灰 淋汁하야 洗衣면 白如
玉이니라.)

군달(蒼蘼)〔약성이 평이하고, 약한 독이 있다. 중초(中焦)를 보하고, 기(氣)를
내리며, 비기(脾氣)를 다스리고, 두풍(頭風)을 제거하며, 오장(五臟)을 원활하
게 만든다. 냉기(冷氣)가 있는 경우 많이 먹으면 기를 동하게 하고, 복냉(腹冷)
의 질병을 겪는 사람이 먹으면 반드시 배탈이 난다. 줄기를 태워서 재로 만들
고 흘러내린 즙으로 옷을 빨면 옥처럼 희게 된다.〕

同蒿 | 동호

同蒿(平이라 主安心氣、養脾胃、消水飲이라 又動風氣하야 熏人心이면 令人으로
氣滿하니 不可多食이니라.)

동호(同蒿)〔약성이 평이하다. 심기(心氣)를 안정시키고, 비위(脾胃)를 보양하
며, 수음(水飲)을 사라지게 한다. 또 풍기(風氣)를 동하게 하여 사람의 심장을
혼증하면 기가 그득하게 되니, 많이 먹으면 안 된다.〕

苦菜 | 고채

【苦菜】〔卽小滿節 後에 苦菜秀者 是也라 莖似苦苣而細하며 折之면 白汁이 出하니 常常 點瘕子면 自落이오 花黃似菊하여 凌冬不死라 味苦寒하고 無毒이라 主五臟 邪氣、厭穀、胃痺、腸澼、渴熱中疾、惡瘡이라 久服이면 安心、益氣、聰察、少 臥니라.〕

【고채(苦菜)】〔바로 소만(小滿) 후에 쓴 채소의 이삭이 팬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줄기는 고거(苦苣)와 비슷하나 가늘고, 꺾으면 흰 즙이 나오니, 사마귀에 찍어 바르면 항상 저절로 떨어지게 된다. 꽃은 국화처럼 노랗고 겨울철에도 시들지 않는다. 맛이 쓰고, 약성이 차며, 독이 없다. 오장(五臟)의 사기(邪氣), 음식을 꺼리는 증상, 골비(骨痺), 장피(腸澼), 갈증을 동반한 중초(中焦)의 질환, 악창(惡瘡) 등을 치료한다. 장복하면 심장을 안정시키고, 기를 보익하며, 총명하게 되고, 잠이 줄어든다.〕

- 〔○ 三月三日에 採 陰乾이니라.〕

〔○ 음력 3월 3일에 채취하여, 그늘에서 말려 쓴다.〕

菘菜 | 침채

菘菜〔甘甜 大寒이라 葉은 似紫菊而大하며 花白이라 食之하면 宜婦人하며 開胃、通心膈하며 治天行疫癘하며 解風熱毒、暑毒、痢毒하니 夏月에 作粥이면 最良이라 南人은 蒸食하면 大香美라하니라.〕

침채(菘菜) (맛이 달고, 약성이 아주 차다. 잎은 보라색 국화와 비슷하나 크며, 꽃은 하얗다. 부인들이 먹는 것이 적합하다. 위(胃)를 열어주고, 심격(心膈)을 소통시키며, 유행성 전염병을 치료하고, 풍열독(風熱毒), 서독(暑毒), 이질독(痢疾毒) 등을 해독한다. 여름철에 죽으로 썰어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남쪽 지방 사람들은 찌서 먹으면 아주 향기롭고 맛있다고 하였다.〕

雍菜 | 응채

雍菜〔味甘平하고 無毒이라 主解野葛毒하니 煮食之니라.〕

응채(雍菜)〔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주로 야갈독(野葛毒)을 해독하니, 삶아서 먹는다.〕

苜蓿 | 목숙

苜蓿〔甘苦平하고 無毒이라 北人은 甚重이로대 江南은 不甚食之하니 以無味 故也 然 去臟腹邪氣와 脾胃間熱氣하며 通小腸・治酒疸이라 多食이면 令人으로 吐利니 少食則安이오 根名은 土黃芪라하니 安中・利五臟이니라.〕

목숙(苜蓿)〔맛이 달고 쓰며, 약성이 평이하고, 독이 없다. 북쪽 사람들은 아주 소중히 여기지만, 남쪽 사람들은 잘 먹지 않는데, 맛이 없기 때문이다. 배와 내장의 사기(邪氣)와 비위(脾胃) 사이의 열기를 제거하고, 소장(小腸)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술로 인한 황달(黃疸)을 치료한다. 많이 먹으면 토하고 설사하게 하지만, 조금 먹으면 편안하게 해준다. 뿌리는 토황기(土黃耆)라고 부르니, 중초(中焦)를 안정시키며, 오장(五臟)을 원활하게 만든다.〕

鹿角菜 | 녹각채

鹿角菜〔出海州의 海中하니 性이 大寒하고 無毒이라 下熱風氣하며 療小兒骨蒸 勞熱이라 丈夫는 不可久食이니 發癰疾하며 損經絡血氣하야 令人으로 腳冷痺하며 損腰腎하며 少顏色이라 服丹石人은 食之하야 下石力也요 又能解麵熱이니라.〕

녹각채(鹿角菜)〔해주(海州)의 바다 속에서 난다. 약성이 아주 차고, 독이 없다. 열성 풍기(風氣)를 내려주고, 소아의 골증노열(骨蒸勞熱)을 치료한다. 성인 남성은 오래 먹으면 안 되니, 고질(痼疾)을 유발하고, 경락(經絡)의 혈기를

손상시켜 사람의 다리에 냉비(冷痺)를 발생시키고, 허리와 신장을 손상시키며, 안색이 나빠지게 만든다. 단석(丹石)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먹어서 독력(毒力)의 부작용을 낮춘다. 또 밀가루의 뜨거운 성질을 잘 해소한다.)

石花菜 | 석화채

石花菜〔大寒하고 無毒이라 去上焦浮熱하나 發下部虛寒이니라.〕

석화채(石花菜)〔약성이 아주 차고, 독이 없다. 상초(上焦)에 떠오르는 열을 제거하나, 하부(下部)의 허한(虛寒)을 유발한다.〕

- 本草分類 四 본초분류 4

1.2. 食治門 下 | 식치문 하

1.2.1. 果部 | 과부

- 〔桃、杏、枇杷、梅子、松子、木瓜、山査、胡椒、川椒、食茱萸 已上은 俱見前卷하나라.〕

〔복숭아, 살구, 비파(枇杷), 매실, 잣, 모과(木瓜), 산사(山査), 호초(胡椒), 천초(川椒), 식수유(食茱萸) 등은 모두 앞 권에 보인다.〕

茶茗 | 다명

【茶茗】苦消 痰熱渴이오 爽神頭目 自能淸을! 消積止瀉 利小便이오 更療腰痛 卒心疼을.

【다명(茶茗)】은 맛이 쓰고 담열(痰熱)과 번갈(煩渴)을 없애고, 정신을 상쾌하게 하며 머리와 눈을 저절로 맑게 한다. 적(積)을 해소하고 설사를 그치게 하며 이뇨(利尿) 작용을 하고, 또 요통(腰痛)과 급성 심통(心痛)을 치료한다.

- 〔早採爲茶요 晩採爲茗이니 微寒하고 無毒이라 入手足厥陰經이라 主去痰熱、煩渴하며 淸頭目하며 悅神、醒神하야 令人으로 少睡하며 下氣、消食하며 止瀉와 及赤白痢하며 利大小便하며 兼治 氣壅腰疼하야 轉動不得과 心痛不可忍에 並濃煎하야 熱服이니 冷則聚痰이라 液에 云 陰證湯內에 用此하야 去格拒之寒은 與治、伏陽大意로 相似라 하나라 諸爛瘡과 及湯火瘡에 細嚼敷之커나 或爲末하야 香油로 調搽요 癰癰已破者엔 用細茶、蜈蚣 等分을 灸令香熟 커든 爲末하야 先煎甘草湯으로 洗後에 以此末로 傅之요 目熱赤澀痛엔 嚼爛하야 貼目兩角이면 其痛이 卽止요 久食이면 損人하며 去人脂하야 令人으로

瘦라 茶序에 云 釋滯、消壅은 一日之利로 暫佳나 瘠氣、侵精은 終身之累로 斯大요 又解炙炒毒하니 甚妙라하니라.)

(일찍 채취한 것이 ‘다(茶)’이고, 늦게 채취한 것이 ‘명(茗)’이다. 약성이 약간 차고, 독이 없다. 수족厥음(手足厥陰經)으로 들어간다. 주로 담열(痰熱)과 번갈(煩渴)을 없애고, 머리와 눈을 맑게 하며, 정신을 유쾌하게 하고 깨워서 사람이 잠을 줄이게 하고, 기를 내려주고, 소화시키며, 설사와 적백이질(赤白痢疾)을 멎게 하고, 대소변이 잘 나오게 한다. 아울러 기의 응체(壅滯)로 인한 요통으로 허리를 돌리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증상과 참을 수 없는 심통(心痛)에 진하게 달여서 뜨겁게 먹는다. 차게 마시면 담(痰)을 모이게 한다. 《탕액본초(湯液本草)》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음증(陰症)을 치료하는 탕약에 이것을 쓰면 항거하는 한기(寒氣)가 없어지는 이유는 복양증(伏陽症)을 치료하는 것과 큰 뜻이 서로 비슷하다. 각종 문드러진 창상(瘡瘍)과 화상에 의한 창상에 잘게 씹어서 붙이거나 혹은 분말로 만들어 참기름에 개어 바른다. 이미 터진 나력(瘰癧)에는 세차(細茶) 및 지네 등과 같은 양을 섞어서 향기가 날 때까지 구워서 익힌 후 분말로 만들어서, 먼저 감초 달인 탕으로 씻고, 이 분말을 붙인다. 눈에 열이 오르며 충혈되고 뻑뻑하게 아픈 경우, 곱게 씹어서 눈의 양쪽 모서리에 붙이면 통증이 바로 그친다. 오래 먹으면 사람을 손상시키니, 사람의 지방을 제거하여 몸이 마르게 한다. 「다음서(茶飲序)」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정체를 풀어주고 막힘을 해소하는 것은 단 하루의 이로움이니 잠시만 좋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를 줄이고 정기(精氣)를 침범하는 일은 죽을 때까지 끼치는 우환(憂患)이 되므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곱거나 볶아서 생긴 독을 해독하는 데에 아주 오묘하다.)

大棗 | 대조

【大棗】甘溫 和胃脾요 腸澼癖氣 故能醫를! 潤心肺令 神液足이오 助十二經 百藥宜를! 生棗甘辛 動濕熱이오 令人脹泄 瘦人肌를.

【대조(大棗)】는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니 비위(脾胃)를 고르게 하고, 장피(腸澼)와 벽기(癖氣)를 잘 치료한다. 심폐(心肺)를 윤택하게 하여 정신(精神)과 진액(津液)을 충족시켜주고, 십이경(十二經)을 도우며 온갖 약을 조화시키는 데 마땅하다. 생대추는 맛이 달고 매우며 습열(濕熱)을 동하게 하여, 배가 차오르고 설사하게 만들며 사람의 살이 빠지게 한다.

- 〔無毒하고 降也며 陽也라 養脾、平胃、安中、補中、益氣하며 治四肢重과 及腸澼、下痢、腸胃間澼氣와 一切心腹邪氣하며 更療心懸、大驚、煩悶하며 壯神、潤肺、止嗽、補津液、補氣라 珍에 云 味甘하며 補經不足하야 以緩陰血하니 血緩則脉生 故로 能助十二經脉하며 補五臟、通九竅、和百藥하며 殺頭毒하니 不但心肺脾三經劑也라 惟心下痞、中滿、嘔吐거나 有齒病者는 忌之요 又不宜合生蔥食이오 多食이면 動風하야 脾反受病이니 屬土而有火故也라 入藥에 用紅棗니 蒸去皮核이니라.〕

(독이 없다. 하강하는 성질이 있으며, 양(陽)이다. 비(脾)를 보양하고, 위(胃)를 평온하게 하고, 중초(中焦)를 안정시키며 보하고, 기(氣)를 보익한다. 사지(四肢)가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 장피(腸澼), 하리(下痢), 위장(胃腸) 사이의 벽기(癖氣)와 모든 심복(心腹)의 사기(邪氣)를 치료한다. 또 심현(心懸), 대경(大驚), 번민(煩悶)을 치료하고, 정신(精神)을 왕성하게 하며, 폐(肺)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멎게 하며, 진액(津液)과 원기(元氣)를 보한다. 《진주낭(珍珠囊)》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맛이 달고, 경락(經絡)의 부족을 보하여 음혈(陰血)을 완화시키면, 맥이 생기므로, 십이경맥(十二經脈)을 잘 돕고, 오장(五臟)을 보하며, 구규(九竅)를 소통시키고, 백약(百藥)을 고르게 하며, 오두독(烏頭毒)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저 심폐비(心肺脾) 세 개의 경락만을 위한 약제(藥劑)가 아니다. 다만 심하비(心下痞), 중만(中滿), 구토하거나 치아(齒牙)의 병이 있는 환자에게는 금한다. 또 생파와 같이 먹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많이 먹으면 풍(風)을 유

발하여 비장(脾腸)에 도리어 병이 생길 것이니, 토(土)에 속하며 화(火)가 있기 때문이다. 약에 넣을 때는 붉은 대추를 쓸 것이니, 찌서 껍질과 씨를 없애고 쓴다.)

- (○ 生棗는 動濕熱하며 多食이면 令人으로 氣滿하여 脹하며 多寒熱、注泄이니 羸瘦者는 勿食이니라.)

(○ 생대추는 습열(濕熱)을 유발하며, 많이 먹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기(氣)가 그득해져서 배가 차오르게 하며, 흔히 한열(寒熱)과 설사(泄瀉)를 하게 만드니, 몸이 마른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한다.)

- (○ 葉은 溫하니 覆麻黃이면 能令出汗하고 散服이면 使人으로 瘦하며 久卽嘔吐요 搗爛하여 揩熱癰瘡하고 煎湯으로 浴小兒壯熱이니라.)

(○ 잎은 약성이 따뜻하니, 마황(麻黃)과 겸용하면 땀이 잘 나게 하고, 가루로 먹으면 사람을 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오래 되면 구토(嘔吐)하게 만든다. 곱게 찼어서 열로 인한 비창(癰瘡)에 문지르고, 달인 탕으로는 소아의 장열(壯熱)에 목욕시킨다.)

- (○ 三年陳核中仁을 燂之하면 味苦하니 主腹痛、邪氣、惡氣의 疰忤요 小兒患秋痢에 與蟲棗하여 食之면 良이니라.)

(○ 3년 묵은 핵(核) 속의 씨를 태우면 맛이 쓰니, 복통(腹痛), 사기(邪氣), 악기(惡氣)의 주오(疰忤)를 치료한다. 소아가 가을 이질(痢疾)에 걸린 경우에는 벌레 먹은 대추를 먹이면 좋다.)

胡桃 | 호도

胡桃 甘溫 滋肺腎이요 潤肌黑髮 解腰痛을! 通經活血 治撲傷이요 多食動風 痰火盛을.

호도(胡桃)는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니 폐(肺)와 신장(腎腸)을 자양(滋養)하여, 살결을 윤택하게 하고 머리카락을 검게 하며 요통(腰痛)을 풀어준다. 경락(經絡)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며 피를 원활하게 만들고 타박상을 치료하는데, 많이 먹으면 풍이 유발되고 담화(痰火)가 왕성해진다.

- 〔出 胡하니 生時에 外有靑皮하며 形如桃也니 無毒이라 滋肺하야 止嗽、潤肌 하니 治酒皴鼻赤에 和橘核하야 研하야 酒服之라 補腎하야 治腰痛、黑髮하며 通經絡、活血脉하고 療壓打損傷하니 搗爛하야 和酒 頓服이면 便差요 多食이면 動風、利小便하며 能脫人眉하며 生痰、傷肺하며 助右腎相火하나니 丹溪가 云 屬土而有火하야 性熱也라 하니라 單方이라 治癰癤하니 取肉燒存性하야 和松脂하야 研傅니라.〕

(강호(羌胡)에서 나는 것으로, 날것일 때는 겉에 푸른 껍질이 있으며, 형태는 복숭아 같아서 이렇게 명명한 것이다. 독이 없다. 폐(肺)를 자양하여 기침을 그치게 하고, 살결을 윤택하게 한다. 딸기코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굴핵(橘核)과 같이 갈아서 술로 먹는다. 신장(腎腸)을 보하여 요통(腰痛)을 치료하고, 머리카락을 검게 하며, 경락(經絡)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혈맥(血脈)을 원활하게 하며, 눌리거나 맞아서 생긴 손상을 치료하니, 곱게 찼어서 술에 타서 한 차례 단번에 먹으면 바로 낫는다. 많이 먹으면 풍(風)을 유발하고, 이뇨(利尿) 작용을 하며, 눈썹이 빠지게 하고, 담(痰)을 발생시키며, 폐(肺)를 손상시키고, 우신(右腎)의 상화(相火)를 돕는다. 주단계(朱丹溪)는 토(土)에 속하나 화(火)가 있어서 성질이 뜨겁다고 하였다. 단방(單方)은 다음과 같다. 나력(癰癤)을 치료하니, 육질을 취해 약성(藥性)이 남도록 태워서 송진과 같이 갈아서 붙인다.)

- 〔○ 湯泡하야 去肉上薄皮하고 研去油하야 用이오 夏至後에는 不堪食이니라.〕

(○ 끓는 물에 넣었다가 육질 위 얇은 껍질을 제거하고 갈아서 기름을 없애고 쓴다. 하지(夏至) 이후에는 먹을 만하지 못하다.)

荔枝肉 | 여지육

荔枝肉 散 無形滯요 治背勞悶 消瘤贅를! 止心煩躁 更淸頭요 健力生津 通神智를!
核可燒灰 調酒食이니 專主心疼 并疝氣를.

여지육(荔枝肉)은 형체가 없는 정체를 흡고, 등이 과로로 갑갑한 증상을 치료하며 유체(瘤贅)를 없앤다. 심장의 번조(煩燥)를 멎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하며, 힘을 키우고 진(津)을 생성시키며 신지(神智)를 통하게 한다. 핵(核)은 태운 재를 술에 타서 먹을 수 있으며, 심통(心痛)과 산기(疝氣)를 전문적으로 치료한다.

- 〔結實時에 枝柔而蒂牢하야 不可摘取니 以刀利로 取其枝 故로 名이오 又云 其實이 離本枝면 一日而色變하고 二日而香變하고 三日而味變하니 離枝之名이 本此라 味甘平하며 無毒하고 屬陽이라 主散無形質之滯氣 故로 治背膊勞悶하며 癭贅赤腫者도 亦用之라 更止心躁、煩渴、頭重하며 健氣、生津、通神、益智하며 和悅顏色이라 多食이면 亦能發虛熱、熱瘡하니 亦以其屬陽而近火 故也니 飲蜜漿 一杯면 卽解니라.〕

〔열매를 맺었을 때는 가지가 연약하고 꼭지가 질겨 딸 수 없어서, 예리한 칼로 가지를 잘라야 하므로, 여지육(荔枝肉)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또 열매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하루 만에 색이 변하고, 이틀이면 향이 변하며, 삼일이면 맛이 변하므로, ‘이지(離枝)’라는 이름은 여기서 비롯한 것이다.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양(陽)에 속한다. 형상 없는 정체 한 기를 흡으므로, 등이 과로로 번민한 증상을 치료하고, 혹처럼 생긴 것이 붉게 부었을 때에도 쓸 수 있다. 또 심조(心躁), 번갈(煩渴), 두중(頭重) 멎게 하고, 기(氣)를 강화시키며 진(津)을 생성하고, 신(神)과 소통시키고, 지혜를 키우며, 안색을 좋게 한다. 많이 먹으면 허열(虛熱)과 열창(熱瘡)을 유발하니, 양(陽)에 속하면서 화(火)에 가깝기 때문이다. 꿀물 한 잔을 마시면 바로 해소된다.〕

- 〔○核은 慢火로 燒存性 爲末하야 溫酒로 調服이면 治心痛 及小腸疝氣니라.〕

(○핵(核)은 약한 불로 약성(藥性)이 남도록 태워서 분말로 만들어서 따뜻한 술에 타서 먹으면, 심통(心痛)과 소장(小腸)의 산기(疝氣)를 치료한다.)

龍眼 | 용안

【龍眼】味甘 平無毒하니 歸脾寧心 益神智를! 五臟虛邪 從此安이오 除蟲殺蟲 核止涕를.

【용안(龍眼)】은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으니, 비(脾)로 돌아가서 심장을 안정시키고 신지(神智) 키운다. 오장(五臟)의 허사가 이를 따라서 안정되는 것이고, 고독(蠱毒)을 없애며 벌레를 죽이는데 핵(核)은 콧물을 멎게 한다.

- 〔形이 如龍之眼也라 味甘歸脾하야 而能益智、寧心하야 去五臟邪氣、厭食하며 除蠱毒、去三蟲하고 久服이면 聰明、通神이니라.〕

(모습이 용의 눈알과 비슷해서 이렇게 명명한 것이다. 맛이 달다. 비장(脾腸)으로 돌아가서 지혜를 키우고, 심장을 안정시키며, 오장(五臟)의 사기를 없애고, 음식을 꺼리는 증상을 그치게 하며, 고독(蠱毒)을 없애고, 삼충(三蟲)을 제거한다. 장복하면 총명해지고 신명(神明)과 통하게 된다.)

- 〔○核은 燒烟熏鼻하면 治流涕不止니라.〕

(○핵(核)을 태워서 그 연기를 코에 훈증하면 그치지 않는 콧물을 치료한다.)

栗 | 울

栗 味鹹溫 厚胃腸이요 耐飢益氣 火煨良을! 生乾補腎 堅腰腳이오 嚼罨能除 箭刺瘡을!
栗楔專醫 筋骨痛이오 鉤栗令人 體健康을.

울(栗)은 맛이 짜고 약성이 따듯하니 위장(胃腸)을 두텁게 하고, 굶주림을 견디게 하며 기를 보익하는데 불에 익히면 좋다. 날것으로 말린 밤은 신장(腎腸)을 보하여 허리와 종아리를 단단하게 하고, 화살촉에 찔린 창상이나 악자창(惡刺瘡)을 잘 제거해준다. 가운데에 있는 납작한 밤은 오로지 근골(筋骨)의 풍통(風痛)을 치료하고, 구를(鉤栗)은 몸을 건강하게 한다.

- (栗은 立也니 本草에 云 人有腳弱이러니 啖栗數升하고 遂能行立하니 此補腎之義也라하니라 無毒이라 主益氣하며 厚腸胃하야 令人으로 耐飢라 凡食栗에 於灰火中에 煨令汗出케하야 食之면 下氣、補益하고 熟則壅氣하고 生則發氣요 若袋盛懸風하야 乾食之면 補腎氣하며 治腰脚無力、破冷瘕癖이오 又生嚼하야 罨惡刺、出箭頭와 及斷筋骨碎하며 瘀血、腫痛、癰癰、腫毒과 小兒疳瘡、熊虎爪傷、馬汗毒瘡에 皆効라 孫真人이 云 味鹹하니 腎病에 宜食이라 하니라 惟小兒는 不可多食이니 生者는 難化하고 熟者는 滯氣、隔食、生蟲하야 往往致病이라 又患風水氣人이 不宜食者는 味鹹 故也니라.)

(울(栗)은 세운다는 뜻이다. 《본초주(本草註)》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다리의 힘이 약한 사람이 있었는데, 밤을 몇 되 먹고 나자 서서 걸어 다닐 수 있었으니, 이것은 신장을 보한다는 뜻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독이 없다. 기(氣)를 보익하고, 장위(腸胃)를 두텁게 하여 굶주림을 견디게 한다. 밤을 먹을 때에는 잣불에 찌어 습기를 내보내고서 먹으면, 기(氣)를 내려가게 하고 보익한다. 익은 것은 기를 막고, 날것은 기를 발산시킨다. 주머니에 담아 매달아서 바람에 말려 먹으면 신기(腎氣)를 보하고, 허리와 종아리 무력증(無力症)을 치료하며, 냉기로 인한 현벽(瘕癖)을 부순다. 또 날것을 씹어서 악자(惡刺)와 화살촉을 빼내는 경우와 끊어진 근육과 부서진 뼈에 붙이며, 어혈(瘀血), 종통(腫痛), 나력(癰癰), 종독(腫毒), 소아의 감창(疳瘡), 곰과 호랑이 발톱에 의한 손상, 마한독창(馬汗毒瘡)에 모두 유

효하다. 손진인(孫眞人)은 맛이 짜니 신장병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다만 소아는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날것은 소화하기 어렵고, 익힌 것은 기를 정체시키며, 음식을 막고, 벌레를 발생시켜서 종종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 풍수기(風水氣)를 앓는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는데, 맛이 짜기 때문이다.)

- [○ 穀은 煮汁 飲之면 止反胃、消渴、瀉血하며 療火丹、毒腫이니라.]

[○ 껍질은 달여서 즙을 마시면 반위(反胃), 소갈(消渴), 사혈(瀉血)을 멎게 하며, 화단(火丹)과 독종(毒腫)을 치료한다.]

- [○ 栗楔은 凡栗은 一毬三顆니 其中心一枚 乃楔也라 治腎虛하야 腰脚無力、骨筋風痛이니라.]

[○ 울설(栗楔)은 다음과 같다. 대개 밤 한 송이에는 3알이 들어있는데, 가운데 1개가 곧 울설이다. 신허(腎虛)하여 허리와 종아리에 힘이 없는 증상과 근골의 풍통(風痛)을 치료한다.]

- [○ 鈎栗은 味甘平하고 主不饑、厚腸胃하야 令人으로 肥健이니라.]

[○ 구를(鈎栗)은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니, 주로 허기가 지지 않게 하고, 장위(腸胃)를 두텁게 하여 사람을 살찌고 건강하게 한다.]

- [○ 苦櫨는 味苦澀하고 止洩痢、口渴하며 破惡血하고 食之不饑하며 令健行이오 其木皮葉의 煮汁은 與産婦하야 飲之면 止血이니라.]

[○ 고저(苦櫨)는 맛이 쓰고 떫으니, 설사와 이질(痢疾) 및 갈증을 멎게 하고, 악혈(惡血)을 부수며, 먹으면 배고프지 않게 하고, 굳세게 걸어 다니게 만든다. 나무껍질과 잎을 달인 즙을 출산한 여성에게 주어 마시게 하면 피를 멎게 한다.]

橄欖 甘溫 微澀酸하니 消酒食療 毒魚肝을! 開胃止瀉 又止渴이오 核仁研爛 傳唇乾을.

감람(橄欖)은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며 약간 떫고 시니, 술과 음식을 소화하며 생선의 간(肝)으로 인한 중독을 치료한다. 위(胃)를 열고 설사를 멎게 하며 갈증을 그치게 하는데, 핵인(核仁)은 갈아서 건조한 입술에 붙인다.

- 〔無毒이라 醉飽者에 宜之하니 能開胃、下氣하며 消酒、止渴、止瀉하며 解諸毒하며 療鯪鮓魚毒하니 人이 誤食其肝하야 迷悶者는 煮汁飲之요 魚 者는 嚼塩欖하야 含津嚥之면 立下라 昔에 有舟人이 用欖木으로 作槳하야 魚를 逐之則死하니 是以로 知欖이 能解諸魚毒也라 蜜藏之면 味佳나 多食이면 能致上壅이니라.〕

〔독이 없다. 만취한 사람에게 적합하다. 위(胃)를 열고, 기(氣)를 내리며, 술을 소화시키고, 갈증을 멎게 하며, 설사를 그치게 하고, 온갖 독을 해독한다. 복어의 독을 치료하는데, 복어의 간(肝)을 잘못 먹고 중독되어 정신이 혼미한 환자에게는 달여서 즙을 마시게 한다. 생선가시가 걸린 경우에는 소금과 감람(橄欖)을 씹어서 진을 머금었다가 삼키면 바로 내려간다. 예전에 벼사람이 감람나무로 상앗대를 만들어 물고기를 몰았더니 물고기가 닿기만 하면 죽었다. 이로써 감람이 각종 물고기 독을 해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꿀에 담가 저장하면 맛이 좋으나 많이 먹으면 상옹증(上壅症)을 발생시킨다.〕

- 〔○ 核中仁은 研傳唇吻燥痛이니라.〕

〔○ 핵(核) 속의 인(仁)은 갈아서 입술이 건조하여 아픈 데에 붙인다.〕

葡萄 | 포도

【葡萄】味甘 平滲下요 利便通淋 水氣化를! 更治筋骨 濕痺疼이오 釀酒調中 味不亞를! 根止嘔噦 達小腸이오 能安胎氣 衝心罈를.

【포도(葡萄)】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물을 잘 배어나오게 하니, 이뇨(利尿) 작용을 하고 임질(淋疾)을 소통시키며 수기(水氣)를 없애지게 만든다. 또 근골(筋骨)의 습비통(濕痺痛)을 치료하는데, 술을 담그면 중초(中焦)를 고르게 하며 맛이 다른 술보다 낫다. 뿌리는 구토와 딸꾹질을 멎게 하고 소장(小腸)에 도달하여 작용하고, 태기(胎氣)가 심장의 틈으로 치미는 증상을 안정시킨다.

- [無毒이라 丹溪가 云 屬土而有水木火라 東南人이 食之하면 多病煩熱、眼闇하고 西北人은 稟氣 厚하니 服之하면 健力、耐寒하나니 蓋性이 能下走滲道也라 故로 經에 云 通小便、治淋澀、逐腸間水氣하며 主筋骨間濕痺라하니라 兼治痘疹不出하니 研和酒하야 飲之니라.]

(독이 없다. 주단계(朱丹溪)가 다음처럼 말했다. 토(土)에 속하나, 수(水)와 목(木)과 화(火)의 성질을 겸하고 있다. 동남쪽 사람이 먹으면 흔히 번열(煩熱)과 눈이 어두워지는 질병을 앓게 되지만, 서북쪽 사람은 타고난 기운이 좋아서 이것을 먹으면 힘이 굳세어지고 추위를 견딜 수 있게 되는데, 대개 포도의 성질이 삼도(滲道)로 주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초경(本草經)》에서 소변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임질(淋疾)로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하고, 장(腸) 사이 물기를 몰아내며, 근골(筋骨) 사이의 습비(濕痺)를 치료한다고 한 것이다. 아울러 두진(痘疹)이 나오지 않은 것을 치료하니, 갈아서 술에 타 마신다.)

- [○ 酒는 甘溫하니 收其子汁하야 釀之면 自成이라 除濕、調中、利小便하나 多飲이면 亦動痰火라 魏文帝 云 醉酒宿醒에 掩露而食하면 甘而不飴하며 酸而不酢하며 冷而不寒하며 味長汁多하야 除煩、解渴하니 他方之果 寧有配乎야.]

(○ 포도주는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다. 그 씨와 즙을 모아서 술을 담그면 저절로 완성된다. 습(濕)을 없애고, 중초(中焦)를 조절하며, 이뇨(利尿) 작용을 한다. 많이 마시면 역시 담화(痰火)를 유발시킨다. 위문제(魏文帝)

가 다음처럼 말했다. 술에 취해도 자고 나면 깨며, 이슬이 맺힌 채로 먹으면 맛이 달지만 옛 같지는 않고, 시지만 식초 같지는 않으며, 서늘하지만 차지는 않고, 맛이 아주 좋고 즙이 많아서, 번갈(煩渴)을 해소하니, 다른 지방 과일들이 어찌 짝할 수 있으랴?)

- [○ 根은 主嘔噦과 及胎氣上衝하니 煮濃汁을 飲之요 俗呼其苗를 爲土木通이라하니 逐水、利小腸에 尤佳니라.]

[○ 뿌리는 구토와 딸꾹질 및 태기(胎氣)가 치밀어 오르는 증상을 치료하니, 진하게 달인 즙을 마신다. 민간에서는 이 싹을 토목통(土木通)이라고 하는데, 수분(水分)을 몰아내고 소장(小腸)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데 더욱 좋다.]

- [○ 又一種 山葡萄는 亦堪爲酒요 性亦大同하니라.]

[○ 또 다른 한 종류로 산포도가 있는데, 이 역시 술을 담을 수 있고, 성질도 거의 같다.]

覆盆子 | 복분자

覆盆子 甘 性微熱하니 陰痿腎虛 精氣竭을! 補肝明目 治肺虛요 婦人宜子 須頻啜을.

복분자(覆盆子)는 맛이 달고 약성이 약간 뜨거우니, 발기부전(勃起不全)과 신허(腎虛)로 인하여 정기(精氣)가 고갈된 증상을 치료한다. 간(肝)을 보하여 눈을 밝히고 폐허(肺虛)를 치료하며, 임신하려는 여성은 반드시 자주 마셔야 한다.

- [衍義에 云 益腎臟하며 服之면 小便이 當覆溺盆이라 無毒이라 主男子腎虛精竭로 陰痿를 能令堅長이오 治肝經風虛하며 明目、去翳、治肺氣虛寒少力하니 取汁하야 入蜜作煎하야 點眼이오 婦人이 食之면 有子하고 久服이면 輕身

、髮不白、悅顔色、和臟腑라 入藥에 水洗하야 去皮蒂하고 酒蒸、日乾이니
라.)

(《본초연의(本草衍義)》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신장(腎腸)을 보익하며,
이것을 먹으면 소변이 요강을 뒤엎는다고 해서 이렇게 명명한 것이다. 독
이 없다. 남자의 신허(腎虛)로 정기(精氣)가 고갈되어 발기가 안 될 때, 단
단하고 길게 만들어준다. 간경(肝經)의 풍허(風虛)를 치료하여 눈을 밝히
고 예장(翳障)을 없앤다. 폐기(肺氣)가 허한(虛寒)하여 힘이 없는 증상을
치료하니, 즙을 내어 꿀을 넣고 달여서 눈에 넣는다. 여성이 먹으면 임신
하게 되고, 장복하면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며, 머리카락이 새지 않게 되
고, 안색이 좋아지며, 장부(臟腑)의 기능을 고르게 한다. 약에 넣을 때는
물로 씻어서 껍질과 꼭지를 제거하고, 술로 찌서 햇볕에 말려서 쓴다.)

- [○ 苗名은 《蓬蘽》라 味酸鹹平하고 功力이 同子라 療中風으로 身熱、大驚이
오 又爛弦、血風、冷淚侵淫、青盲、目暗과 或有蟲 等證에 取苗하야 日乾爲
末하야 薄綿으로 裹之하야 以男乳汁 浸을 如人行七八里久라가 用注目中하고
仰臥니 不過三四日이면 視物을 如少年이오 忌酒麪이니라.)

[○ 싹은 봉류(蓬蘽)라고 한다. 맛이 시고 짜며, 약성이 평이하다. 효능은
열매와 같다. 중풍(中風)으로 열이 오르는 증상과 대경(大驚)을 치료한다.
또 난현풍(爛弦風), 혈풍(血風), 찬 눈물이 넘쳐나는 증상, 청맹(靑盲), 목
암(目暗), 벌레가 생기는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 싹을 채취하고 햇볕에 말
려서 분말로 만들고, 얇은 면으로 싸서 남자 아이를 먹이는 젖에 7~8리 정
도 걸을 시간만큼 담가둔다. 이것을 눈 속에 주입하고 바로 누울 것이니,
이렇게 한 지 사나흘 안에 소년 시절처럼 사물이 보이게 될 것이다. 술과
밀가루를 꺼린다.)

【芡實】甘平 主益精이오 足腰膝痛 不能行을! 治痺補中 除暴疾이오 强志還令 耳目明을.

【검실(芡實)】은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니 정(精)을 보익하고, 다리와 허리 및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비(痺)를 치료하고 중초(中焦)를 보하며 급성 질환을 없애고, 뜻을 강화하며 눈과 귀를 밝게 한다.

- 〔能補人之精의 欠少하니 謂之水硫黃이오 形似鷄頭 故로 又名 鷄頭實이라 無毒이라 東垣이 云 芡實은 益精하며 治白濁이라하고 兼補眞元內虛로 脊腰膝痛과 外濕으로 痿痺하며 補中氣하야 開胃、進食하며 除暴疾、强志意하며 令耳目으로 聰明하고 久服이면 輕身、耐老라 但單服、多服이면 亦難消化요 生食이면 動風冷氣라 蒸熟 去殼하야 舂粉이면 益人이니라.〕

〔사람의 정(精)이 결핍된 상태를 보하며, 수유황(水硫黃)이라고 한다. 형태는 닭의 대가리와 비슷하므로, 계두실(鷄頭實)이라고도 한다. 독이 없다. 이동원(李東垣)이 다음처럼 말했다. 검실(芡實)은 정(精)을 보익하여 백탁(白濁)을 치료한다. 아울러 진원(眞元)의 속이 허한 것으로 인해 허리와 척추 및 무릎이 시리고 아픈 증상, 외부의 습(濕)으로 인해 무력하고 저린 증상을 보하며, 중기(中氣)를 보하여 위(胃)를 열어서 음식을 잘 먹게 하며, 급성 질환을 제거하고, 뜻을 강화하며, 눈과 귀를 총명(聰明)하게 한다. 장복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노화를 억제한다. 다만 단방(單方)으로 복용하거나 많이 먹으면, 소화하기 어렵고, 날것을 먹으면 풍냉기(風冷氣)를 유발한다. 찌서 익히고 껍질을 벗겨낸 다음, 절구질하여 분말로 만들어서 쓰면 사람에게 좋다.〕

- 〔○ 根軟하니 可作蔬食이니라.〕

〔○ 뿌리는 부드러워 나물로 먹을 수 있다.〕

【蓮子】無毒 甘平味니 澀精養神 補中氣를! 止渴止痢 治腰疼이오 遇食須先 去苦蕒를.

【연자(蓮子)】독이 없고 맛이 달며 약성이 평이하니, 정(精)을 수렴하며 정신을 보양하고 중초(中焦)의 기(氣)를 보한다. 갈증과 이질(痢疾)을 멎게 하고 요통(腰痛)을 치료하는데, 먹을 때에는 맛이 쓴 가운데 심을 먼저 없애야 한다.

- (鮮者は 綠房食의이 相連而成實也라 止洩精、白濁하며 安心、養神하며 補中、益氣、醒脾內滯하며 止渴、止痢、治腰疼과 一切五臟不足、傷中內絶하며 補十二經氣血하며 除百病이라 生食이면 微動氣하니 蒸食之면 良이오 令人으로 歡心이라 食與入藥에 俱宜去心이라야 免成霍亂이라 但局方에 亦有用水浸裂에 生取其心하야 以治心熱과 及血疾作渴과 産後作渴、暑熱霍亂者하니 蓋有是病이면 服是藥也니라.)

(신선한 것은 녹색의 방(房)에 보랏빛 알맹이가 이어져서 열매를 맺었다는 뜻에서 이렇게 명명한 것이다. 설정(洩精)과 백탁(白濁)을 멎게 하고, 심장을 안정시키며, 정신을 보양한다. 중초(中焦)를 보하고, 기(氣)를 보익하며, 비장(脾臟) 내부의 정체를 일깨우고, 갈증과 이질(痢疾)을 멎게 하며, 요통(腰痛)과 모든 오장(五臟)의 부족(不足)과 중초(中焦)가 손상되어서 내부가 끊어진 증상을 치료하고, 십이경(十二經)의 기혈(氣血)을 보하며, 백병(百病)을 없앤다. 날것으로 먹으면 기(氣)를 약간 동하게 하므로, 익혀서 먹어야 좋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먹거나 약에 넣을 때는 모두 심을 제거해야 광란(霍亂)을 피할 수 있다. 다만 《국방(局方)》에서는 물에 담갔다가 갈라지면 그 심을 날것으로 취하여 심열(心熱), 피의 질환, 갈증, 산후갈증(産後渴症), 서열광란(暑熱霍亂)을 치료한 경우가 있었으니, 대개 이러한 병이 있으면, 이러한 약을 쓰는 것이다.)

- (○ 蓮花蕊는 煖하고 無毒이라 鎮心、固精、益氣하며 駐顏、催産하니 忌地黃、蒜이니라.)

(○ 연(蓮)의 꽃술은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다. 심장을 진정시키고, 정(精)을 튼튼히 하며, 기(氣)를 보익하고, 안색을 좋게 하며, 출산을 촉진한다. 지황(地黃)과 마늘을 금한다.)

- (○ 石蓮子 卽鮮蓮이 經秋하야 就蓬中에 乾而皮黑하며 沈水者라 味苦寒이라 取其肉하야 於砂盆中에 乾擦하야 去浮上赤色하고 留靑心爲末하야 少入龍腦하고 爲湯 點服이면 寧心志、淸神이오 單用으로 炒爲末하야 止痢하며 治腰痛、止噦逆이라 市中에 一種 皮黑堅而肉多油者는 不用이니라 方書에 言石蓮子者는 皆老家蓮子也니라.)

(○ 석련자(石蓮子)는 신선한 연(蓮)이 가을을 지나 연봉(蓮蓬) 사이에서 말라서 껍질이 검게 되고 물에 가라앉는 것을 말한다. 맛이 쓰고, 약성이 차다. 그 육질을 취하여 자기(磁器) 그릇에서 말린 것을 문질러서 떠오르는 붉은 색은 버리되, 푸른 심을 남겨둔 채 분말로 만든 데다가, 용뇌(龍腦)를 조금 넣고 탕에 넣어서 먹으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맑게 한다. 단방(單方)으로 볶아서 분말로 만들어 쓰면, 이질(痢疾)을 멎게 하고, 요통(腰痛)을 치료하며, 딸꾹질을 그치게 한다. 시중에서 파는 껍질이 검고 단단하며 육질에 기름이 많은 것은 약으로 쓰지 않는다. 방서(方書)에서 석련자(石蓮子)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노가연자(老家蓮子)이다.)

藕 | 우

藕 能解熱 除煩渴이오 更消酒食 開胃胃을! 蜜蒸實下 補五臟이오 節冷搗汁 止吐紅을! 安胎用蒂 催胎葉이오 逐瘀生新 根葉同을.

우(藕)는 해열하고 번갈을 없애며, 또 술과 음식을 소화하고 위(胃)와 가슴을 열어서 소통시킨다. 꿀로 찌서 먹으면 하초(下焦)를 실하게 하고 오장(五臟)을 보하며, 마디는 약성이 차고 찢은 즙은 토혈(吐血)을 멎게 한다. 안태(安胎)하려면 꼭지를 쓰고 출산을 촉진할 때는 잎사귀를 쓰며, 어혈(瘀血)을 몰아내고 생신(生新) 작용을 하려면 뿌리와 잎을 같이 쓴다.

- 〔藕는 甘平하고 無毒이라 生食이면 解胃中熱毒하며 消瘀血、止煩渴하며 主霍亂後虛悶不食하고 産後血悶作渴에 亦用此冷物者는 藕不同生冷하야 破血故也라 蒸熟이면 消食、止泄、開胃、寬中하며 實下焦、補五臟이오 與蜜로 同食이면 令人으로 腹臟이 肥하며 不生諸蟲이오 常食이면 悅神하며 又解蟹毒 이니라.〕

(연근은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생식하면 가슴 속 열독(熱毒)을 해독하고, 어혈(瘀血)을 없애며, 번갈(煩渴)을 멎게 한다. 객란(霍亂) 후 허갈(虛渴)하고 번민(煩悶)하며 먹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산후에 혈민(血悶)으로 갈증이 있을 때도 이렇게 차가운 것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연근이 여타 생냉물(生冷物)과는 달리 피를 부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써서 익혀 먹으면 음식을 소화시키고, 설사를 멎게 하며, 위를 열어주고, 중초(中焦)를 완화하며, 하초(下焦)를 실하게 하고, 오장(五臟)을 보한다. 꿀과 같이 먹으면 복장(腹藏)을 살찌우고 각종 벌레가 생기지 않게 하며, 늘 먹으면 정신을 즐겁게 하고, 또 게의 독을 푼다.)

- 〔○藕節은 冷하니 搗汁飲之면 治傷寒、時氣로 煩躁 大渴 大熱하며 主吐血、衄血不止와 産後血悶上衝腹痛에 合生地하야 溫酒或童便으로 服之요 搗爛하야 罌金瘡、折傷、熱傷이면 散血 止痛 生肌하나니 節少어든 同藕搗라도 亦好니라.〕

(○우절(藕節)은 약성이 차니, 찢은 즙을 마시면 상한(傷寒)과 유행병으로 인한 번조(煩躁), 심한 갈증, 고열(高熱)을 치료한다. 토혈(吐血), 그치지 않는 코피, 산후 혈민(血悶)으로 인해 치미는 복통(腹痛) 등에는 생지황(生地黃)과 합하여 따뜻한 술이나 아이 오줌으로 먹는다. 곱게 찢어서 금창(金瘡), 부러진 손상, 열상(熱傷)에 붙여주면 피를 흘리고 진통하며 살을 재생시킨다. 우절이 적다면 연근과 같이 찢어도 좋다.)

- 〔○荷葉蒂는 又名荷鼻라 味苦平하고 無毒이라 主安胎하며 去惡血 留好血하며 止血痢하니 煮汁服이니라.〕

(○ 하엽체(荷葉蒂)는 또 하비(荷鼻)라고도 부른다. 맛이 쓰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안태(安胎)하고, 악혈(惡血)을 없애는 동시에 좋은 피를 남게 하며, 혈성(血性) 이질(痢疾)을 멎게 하니, 달인 즙을 마신다.)

- (○ 荷葉及房은 主吐血、咯血하니 焙末하야 米飲으로 下요 產後胞衣不下하야 血脹腹痛에 酒煮服之요 內傷脾胃로 陽氣不升하야 口乾、心肺躁悶에 易老 用以爲丸이오 兼殺野菌毒하며 洗漆瘡이라 大抵 根葉의 功用은 主血하며 多効하니 乃因宋室庖人이 削藕皮라가 誤落血中이러니 遂散不凝이라 自後로 醫方에 常用하니 逐瘀生新之妙劑也니라.)

(○ 하엽(荷葉)과 연방(蓮房)은 토혈(吐血)과 객혈(咯血)을 치료하나, 불에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 미음으로 먹는다. 산후에 태반(胎盤)이 나오지 않아서 생긴 혈창(血脹)과 복통(腹痛)에는 술에 달여 먹는다. 비위(脾胃)를 상하여 양기(陽氣)가 상승하기 못해서 입이 마르고, 심폐(心肺)가 조금 하며, 번민(煩悶)하는 경우, 장역노(張易老)는 환약으로 만들어 썼다. 아울러 야생 버섯의 독을 감소시키고, 옷으로 인한 창(瘡)을 씻는 용도로 쓴다. 대개 뿌리와 잎은 혈병(血病)을 치료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다. 송(宋)나라 때 요리사가 연근 껍질을 깎다가 잘못하여 이것을 피 속에 떨어뜨렸다. 그랬더니 피가 흩어지면서 엉기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의방(醫方)에서 상용(常用)하였다. 어혈(瘀血)을 몰아내고 새로 재생하는 작용이 오묘한 약제(藥劑)이다.)

菱角 | 능각

菱角 性冷 味甘美하니 重則損陽 令陰痿를! 輕者傷臟 脹腹中이오! 姜酒熱投 方可止를.

능각(菱角)은 약성이 차고 맛이 달고 좋으니, 무거운 것은 양기(陽氣)를 손상시켜 발기가 안 되게 한다. 가벼운 것은 내장(內臟)을 손상시켜 배가 차오르게 하니, 생강(生薑)과 술을 섞어 뜨겁게 투여하여야 멎는다.

- 〔無毒이라 體實者 服之면 解熱、清心、安五臟하며 又壓丹石毒하고 體薄者 服之면 多則損氣하야 令人으로 陰痿하고 輕則腹中脹滿하며 臟冷作泄하니 可煖酒에 和姜하야 飲一兩盞이면 卽消요 煮熟食之면 雖不冷이나 亦不益脾니라.)

(독이 없다. 신체가 건실한 사람이 먹으면 열을 식히고, 심장을 맑게 하며, 오장(五臟)을 안정시키며, 단석(丹石)의 독을 진압한다. 체격이 마른 사람이 많이 먹으면 원기(元氣)를 손상되어 발기가 안 되고, 조금 먹으면 배속이 차오르고 내장(內臟)이 식어 설사한다. 따뜻한 술과 생강을 섞어 한두 잔 마시면 바로 사라질 것이다. 삶아서 익혀 먹으면 성질이 차지는 않지만 비장(脾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梨果 | 이과

梨果 食多 脾氣傷이오 金瘡乳婦 不宜嘗을! 寬胃止咳 消煩渴이오 若吐風痰 可作漿을.

이과(梨果)는 많이 먹으면 비기(脾氣)를 손상시키고, 금창(金瘡) 환자나 수유하는 여성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가슴을 완화하여 기침을 그치게 하고 번갈(煩渴)을 없애는데, 만약 풍담(風痰)을 토하게 하려면 음료수로 만들어 먹는다.

- 〔味甘酸平하고 無毒이라 丹溪 云 梨者는 利也니 流利下行之謂也라하니라 酒病煩渴者에 宜라 多食이면 動脾하야 令人으로 中寒 下利요 産婦、金瘡과 并 血虛者는 戒之라 除心肺客熱、煩熱、胃中痞結、咳嗽氣喘하며 止渴하고 搗汁作漿하야 服之면 吐風痰이오 治中風失音不語와 及傷寒發熱 驚狂하며 利大小便하고 孕婦 臨月에 食之면 易産이니라.)

(맛이 달고 시며, 약성이 평이하고, 독이 없다. 주단계(朱丹溪)가 다음처럼 말했다. 이(梨)는 원활하다는 뜻으로서, 원활하게 소통하여 하행(下行)한다는 의미다. 술병으로 갑갑하고 갈증이 있는 환자에게 적합하다. 많이 먹으면 비(脾)를 동하게 하여 중초(中焦)를 식혀 하리(下痢)하게 만든다.

출산한 여성과 금창(金瘡)이 있거나 혈허(血虛)한 환자는 경계해야 한다. 심폐(心肺)의 객열(客熱)과 번열(煩熱), 가슴 속 비결(痞結), 기침과 숨이 찬 증상을 없애주고, 갈증을 멎게 한다. 찜어 즙을 내어 마시면 풍담(風痰)을 토하게 한다. 중풍(中風)으로 인한 언어 장애와 상한(傷寒)으로 발열하고 경광(驚狂)하는 증상을 치료하고, 대소변(大小便)을 잘 나오게 한다. 임신부가 출산 예정 달에 먹으면 순산하게 한다.)

- [◦ 葉은 主霍亂吐利不止하니 煮汁飲之요 亦治小兒寒疝으로 腹痛 汗出이니라.]

[◦ 잎은 객란(霍亂)으로 그치지 않는 구토(嘔吐)와 설사를 치료하니, 달여서 즙을 마신다. 또 소아가 한산(寒疝)으로 배가 아프고 땀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 [◦ 樹皮는 治瘡癬、疥、癩에 甚効니라.]

[◦ 껍질은 창선(瘡癬)과 개라(疥癩)에 아주 유효하다.]

石榴 | 석류

石榴 實殼 能收痢요 更治筋攣 腳痛風을! 花主止血 及傷損이오 根皮可去 腹中蟲을.

석류(石榴)의 껍질은 이질(痢疾)을 수렴하고, 또 근육경련과 종아리가 아픈 풍(風)을 치료한다. 꽃은 지혈(止血)하고 손상된 부위를 치료하며, 뿌리의 껍질은 뱃속의 벌레를 없앤다.

- [安石은 國名이니 張騫이 使安石國이라가 得其種이라 丹溪가 云 榴者是 留也니 性滯하야 戀膈成痰하니 病人은 須戒之라하니라 多食이면 傷肺、損齒하나 少食이면 亦能潤咽、止渴이라 有甘酸 二種하니 甘者是 可食이오 酸者是 殼可入藥이니라.]

(안석(安石)은 나라 이름인데, 장건(張騫)이 안석국(安石國)에 사신으로 갔다가 이 종자를 얻어 와서 이렇게 명명한 것이다. 주단계(朱丹溪)가 다 음처럼 말했다. 류(榴)는 머무르게 한다는 의미로서, 성질이 정체하게 하여 흉격(胸膈)에 머물러 담(痰)을 유발하게 하니, 환자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많이 먹으면 폐(肺)와 치아를 손상시키지만, 조금만 먹으면 목구멍을 윤택하게 하여 갈증을 멎게 한다. 단맛과 신맛의 두 종류가 있는데, 단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신 것은 그 껍질을 약에 쓸 수 있다.)

- [○ 實殼은 酸하고 無毒이라 主澀腸하야 止赤白痢하며 收目淚・治漏精과 及 糞前見血이오 又治筋骨風으로 腰脚不遂와 行步에 攀急疼痛하니 陰乾微炒하야 用之니라.]

(○ 열매의 껍질은 맛이 시고, 독이 없다. 장을 뻥뻥하게 하여 적백이질(赤白痢疾)을 멎게 하고, 눈물을 거두어주며, 정액(精液)이 새는 증상 치료하며, 변을 보기 전 피가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또 근골(筋骨)의 풍(風)으로 허리와 종아리가 불편하고, 걸을 때 당기고 아픈 증상을 치료하니, 그늘에서 말려 약하게 볶아 쓴다.)

- [○ 花가 百葉者는 主心熱・吐血과 及 衄血等하니 陰乾爲末하야 吹鼻中이면 立止요 金瘡刀斧傷破로 流血에 取半升하야 入石灰 一升하고 爲末傳之면 少時에 血斷하야 便差니라.]

(○ 꽃이 100장 있는 것은 심열(心熱)과 토혈(吐血) 및 코피를 치료하니, 그늘에서 말려 분말로 만들어 콧속에 넣어 넣으면 바로 그칠 것이다. 금창(金瘡)과 칼과 도끼에 의한 상처로 피가 흐를 때, 꽃 반 되에 석회 1되를 넣고 분말로 마늘어 붙이면, 잠시 후 피가 멎고 바로 낫는다.)

- [○ 東行根皮는 療蛔蟲・寸白蟲하며 治女子血脉不通・赤白帶下하니 灸乾濃煎하야 服之라 凡使根殼에 先漿水에 浸一宿이라가 微炒니 陳久者가 良이니 라.]

(○ 동쪽으로 향하는 뿌리의 껍질은 회충(蛔蟲)과 촌백충(寸白蟲)을 치료하며, 여성의 혈맥불통(血脈不通)과 적백대하(赤白帶下)를 치료하니, 급고 말려서 진하게 달여 먹는다. 뿌리와 열매 껍질은 먼저 장수(漿水)에 하루밤 담갔다가 약하게 볶아서 쓸 것이니, 오래 묵은 것이 좋다.)

紅柿 | 홍시

紅柿 無毒 味甘寒하니 解酒止渴 除胃熱을! 與蟹同食 腸中疼이오 蒸治小兒 秋痢泄을! 蒂止欬逆 聲連連이오 皮甘益脾 和米屑을.

홍시(紅柿)는 독이 없고 맛이 달며 약성이 차니, 술을 깨게 하고 갈증을 멎게 하며 위열(胃熱)을 없앤다. 게와 같이 먹으면 내장 속이 아프게 되나, 찌면 소아의 가을철 설사와 이질(痢疾)을 치료한다. 꼭지는 해역(咳逆)으로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증상을 치료하고, 껍질은 맛이 달며 비장(脾腸)을 보익하니 쌀가루와 같이 먹는다.

- [柿는 朱果也라 故로 有牛心・紅珠之稱하니 日乾者를 名白柿요 火乾者를 名烏柿라 其白柿皮上에 凝厚者를 謂之柿霜이니라.]

(감은 붉은 과일이라서 우심(牛心)이나 홍주(紅珠)라고 부른다. 햇볕에 말린 것은 백시(白柿)라고 하며, 불에 말린 것은 오시(烏柿)라고 한다. 백시의 껍질 위에 두껍게 응결한 것을 시상(柿霜)이라고 한다.)

- [○ 紅柿는 解酒毒、止口渴、除胃熱이라 與蟹同食이면 令腹痛 大瀉요 蒸熱하야 與小兒食이면 治秋痢니라.]

(○ 홍시(紅柿)는 술독을 해독하고, 갈증을 멎게 하며, 위열(胃熱)을 없앤다. 게와 같이 먹으면 복통과 심한 설사를 유발한다. 뜨겁게 찌서 소아에게 먹이면 가을철 이질(痢疾)을 치료한다.)

- [○ 柿蒂는 澀이라 主 逆、嘔噦하니 單煮服之라 一云호대 凡使에 須極小柿蒂라하니 故로 謂之丁香柿蒂니라.]

[○ 감의 꼭지는 성질이 떼다. 구역질과 딸꾹질을 치료하니, 단방(單方)으로 달여서 먹는다. 일설에 감의 꼭지를 쓸 때에는 반드시 아주 작은 감꼭지를 써야 하므로, 정향시체(丁香柿蒂)라고 부른다.]

- [○ 柿實皮는 甘하고 補脾、厚胃、澀腸하니 和米初蒸糕하야 與小兒 食之면 妙니라.]

[○ 감의 껍질은 맛이 달고, 비장(脾腸)을 보하고, 위(胃)를 두텁게 하며, 장(腸)을 뻑뻑하게 만드니, 쌀가루와 같이 섞어서 떡으로 찌서 소아에 먹이면 오묘한 효과가 있다.]

柿乾 | 시건

柿乾 性平 潤肺心이요 化痰止咳 又止血을! 耳聾鼻塞 氣可通이오 建胃厚腸 止痢洩을! 火乾稍緩 性亦同하니 服藥欲吐 者堪嚙를.

시건(柿乾)은 성질이 평이하니 폐(肺)와 심장(尋丈)을 운택하게 하고, 담(痰)을 삭이며 기침을 멎게 하고 또 지혈한다. 이롱(耳聾)과 코 막힘에 기를 소통시키고, 위(胃)를 건강하게 하며 장(腸)을 두텁게 하고 설사와 이질(痢疾)을 멎게 한다. 불로 말린 것은 약간 부드러우나 성질은 같으니, 다른 약을 먹고 토하려는 사람에게 씹어 먹인다.

- [日乾者는 性平이라 療肺痿、心熱하며 化痰、止咳、止吐血하며 潤喉聲이라 丹溪가 云 屬金而有土하니 爲陰有收之義니 止血、治嗽에 可爲助也라 하니라 耳聾、鼻塞者는 乾柿 三枚를 和粳米、豆豉와 煮粥食之면 卽通其氣요 又建脾、厚胃、消痞、澀中하야 治腸澼不足、止瀉、止痢하며 殺腹中蟲이라 多食

이면 去面疔과 及金瘡、火瘡하며 生肌、止痛이라 單方이라 乾柿 三斤을 用
蜜 半斤、酥 一斤과 煎之하야 每日 食三五枚면 療男婦의 脾虛、肚薄、食不
消化라 又産後欬逆、氣亂엔 水煮하야 熱呷之니라.)

(햇볕에 말린 것은 성질이 평이하다. 폐위(肺痿)와 심열(心熱)을 치료하
며, 담(痰)을 삭이고, 기침을 멎게 하며, 토혈(吐血)을 그치게 하고, 목소리
를 윤택하게 한다. 주단계(珠丹溪)가 다음처럼 말했다. 금(金)에 속하는데
토(土)도 있으며, 음(陰)의 수렴(垂簾)하는 의의가 있으니, 지혈(止血)하
고 기침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롱(耳聾)과 코가 막힌 환자는 곱감
3개와 맵쌀 및 두시(豆豉)를 섞어 죽을 쑂아서 먹으면 그 기가 소통된다.
또 비장(脾腸)을 강화하고 위(胃)를 두텁게 하며, 어혈(瘀血)을 없애고, 중
초(中焦)를 뻑뻑하게 하여 장벽(腸癖)의 부족(不足)을 치료하고, 설사와
이질(痢疾)을 멎게 하며, 뱃속 벌레를 죽인다. 많이 먹으면 얼굴 기미와 금
창(金瘡) 및 화상을 없애고, 살결을 재생하며 진통한다. 단방(單方)은 다
음과 같다. 말린 감 2근을 꿀 반근과 연유 1근으로 달여, 매일 3~5개를 먹
으면, 남성과 여성이 비장(脾腸)이 허하고 위(胃)가 얇아서 음식을 소화하
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또 산후의 해역(咳逆)과 기란(氣亂)에는 물에
달여서 뜨겁게 마신다.)

- [○ 火乾者는 性煖하나 功用이 大同하고 服藥口苦 欲吐者에 食少許면 立止니
라.]

[○ 불에 말린 것은 성질이 따뜻한데, 효능은 거의 같다. 약을 먹고 입이 써
서 토하려는 사람에게 조금 먹이면 바로 그친다.]

- [○ 一種梔는 色靑하고 性冷이 甚於柿하며 味甘 無毒이라 主壓石藥發熱하며
利水、解酒熱、去胃熱하며 止渴、潤心肺、除腹臟冷熱하나 久食이면 寒中
이라 不入藥用이오 惟油는 堪作漆이니라.]

〔○ 또 다른 종류인 비(檄)는 색깔이 푸르고, 성질이 감보다 훨씬 차다. 맛이 달고, 독이 없다. 석약(石藥)으로 인한 발열을 진압하고, 이뇨(利尿) 작용을 하며, 술로 인한 발열을 해소하고, 위열(胃熱)을 없애며, 갈증을 멎게 하고, 심폐(心肺)를 윤택하게 하며, 뱃속 내장의 냉열(冷熱)을 제거 하지만, 오래 먹으면 속이 차갑게 된다. 약에는 넣지 않는다. 오직 기름만은 칠(漆)을 만들 만하다.〕

橙皮 | 등피

橙皮 味辛 甘且芳하니 能消惡氣 滿胃腸을! 醒酒化食 祛風氣요 穰主惡心 去汁良을.

등피(橙皮)는 맛이 맵고 달며 향기로우니, 악기(惡氣)가 위(胃)와 장(腸)에 가득 찬 증상을 없앤다. 술을 깨게 하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풍기(風氣)를 없애고, 속은 오심(惡心)을 주치하는데 즙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 〔橙은 大於橘而香하며 皮厚而皺라 氣平하고 無毒이라 散腸胃惡氣하며 醒酒、消食、去胃中浮風氣、療癯氣하며 殺魚蟲毒하며 發虛熱과 療癰이니라.〕

〔등(橙) 귤보다 크고 향기로우며, 껍질은 두껍고 주름져 있다. 약성이 평이하고, 독이 없다. 위장(胃腸)의 악기(惡氣)를 흘리고, 술을 깨게 하며, 음식을 소화시키고, 위(胃) 속에 떠오르는 풍기(風氣)를 제거하며, 영기(癯氣)를 치료하고, 물고기와 벌레의 독을 감소시키고, 허열(虛熱)과 나력(癰癰)을 발산시킨다.〕

- 〔○ 穰은 味酸하니 多食이면 傷肝氣라 又洗去酸汁하고 細切和塩蜜하야 煎成膏에 食之면 治惡心、胃中浮風이니라.〕

〔○ 양(穰)은 맛이 시니, 많이 먹으면 간기(肝氣)를 손상시킨다. 또 신 즙을 씻어내고 잘게 썰어서 소금과 꿀로 고아서 고약을 만들어 먹으면, 오심(惡心)과 위 속의 부풍(浮風)을 치료한다.〕

橘肉 | 귤육

橘肉 甘者 能潤肺요 酸者聚痰 不足貴를! 諸柑醒酒 渴最佳요 臟虛寒人 莫貪味를.

귤육(橘肉) 중 맛이 단 것은 폐(肺)를 윤택하게 할 수 있고, 신 맛이 나는 것은 담(痰)을 모으기 때문에 귀하다고 할 수 없다. 각종 감(柑)은 술을 깨게 하고 갈증을 멎게 하는 데 가장 좋지만, 장(腸)이 허한(虛寒)한 사람은 이것을 탐하지 마라.

- [橘肉이 甘者는 潤肺、止渴、開胃、寬胃하니 畏冷者면 或煨或蒸하여 食之니라.]

[귤육(橘肉) 중 단 것은 폐(肺)를 윤택하게 하고, 갈증을 멎게 하며, 위(胃)를 열고, 가슴을 편안하게 하니, 찬 것이 싫은 사람은 불에 익히거나 찌서 먹는다.]

- [○ 柑에 有蜜陀柑、木柑、黃柑、乳柑、石柑、沙柑과 朱橘、乳橘、山橘、金橘之類나 大同小異하며 味皆甘酸而寒이라 解熱、止渴、潤燥、生津하나 多食이면 戀膈生痰하며 滯肺、傷脾、冷中 作泄하니 病者는 忌之니라.]

[○ 감(柑)에는 밀타감(蜜陀柑), 목감(木柑), 황감(黃柑), 유감(乳柑), 석감(石柑), 사감(沙柑) 등의 종류가 있고, 주귤(朱橘), 유귤(乳橘), 산귤(山橘), 금귤(金橘) 등의 종류가 있는데, 모두 대동소이(大同小異)하여, 모두 맛이 달고 시며, 약성이 차다. 해열(解熱)하고, 갈증을 멎게 하며, 건조한 것을 윤택하게 하고, 진(津)을 발생시키지만, 많이 먹으면 격막(膈膜)에 머물러서 담(痰)을 발생시키며, 폐(肺)를 정체하게 만들고, 비(脾)를 손상시키며, 속을 차게 만들어 설사를 유발하니, 환자는 이런 점을 금기시해야 한다.]

櫻桃 | 앵도

櫻桃 甘溫 百果先이니 益脾悅志 顏色鮮을! 止痢澀精 扶陽氣요 多食發熱 吐風涎을.

앵도(櫻桃)는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며 모든 과일보다 먼저 익으니, 비장(脾腸)을 보익하고 뜻을 기쁘게 하며 안색을 곱게 만든다. 이질(痢疾)을 멎게 하고 정액(精液)을 수습하며 양기(陽氣)를 북돋지만, 많이 먹으면 열이 오르고 풍언(風涎)을 토하게 된다.

- [以其形이 肖桃 故로 曰櫻桃라 三月初間에 最先百果而熟하야 得正陽之氣하고 無毒이라 主調中、益氣、悅神、美志하며 令人으로 好顏色하며 止水穀痢、洩精、回陽氣라 丹溪가 云 屬火而有土하야 性이 大熱而發濕하니 多食이면 發虛熱、吐痰하니 舊有熱病、嗽喘과 及 闇風人은 忌之니라.]

(형태가 복숭아와 비슷하게 생겨서 앵도(櫻桃)라고 부른다. 음력 3~4월 초기에 모든 과일보다 먼저 익어서 정양(正陽)의 기(氣)를 타고난 것이다. 독이 없다. 중초(中焦)를 고르게 하고, 기(氣)를 보익하며, 정신을 기쁘게 하고, 뜻을 맑게 하며, 안색을 좋게 한다. 수곡리(水穀痢)와 설정(洩精)을 멎게 하고 양기(陽氣)를 회복시킨다. 주단계(珠丹溪)가 다음처럼 말했다. 화(火)에 속하면서 토(土)도 있어서, 성질이 아주 뜨거워 습(濕)을 유발한다. 많이 먹으면 허열(虛熱)을 유발하고 담(痰)을 토하게 하니, 평소 열병(熱病)과 기침 및 천식(喘息)과 암풍(暗風)이 있는 환자에게는 금한다.)

- [○ 葉은 搗傳蛇毒하며 絞汁服이면 防蛇毒內攻이니라.]

[○ 잎은 찢어서 뱀독에 붙이고, 찌서 즙을 먹으면 뱀독이 내부를 공격하는 것을 막는다.]

- [○ 東行根은 殺寸白、虵蟲이니라.]

[○ 동쪽으로 향하는 뿌리는 촌백충(寸白蟲)과 회충(虵蟲)을 죽인다.]

楊梅 | 양매

楊梅 乾酸 溫微毒하니 善止酒嘔 消宿食을! 化痰和臟 滌胃腸이오 刀斧傷時 無痕迹을.

양매(楊梅) 말린 것은 맛이 시고 약성이 따뜻하며 약간 독이 있으니, 술로 인한 구역질을 잘 멎게 하고 묵은 음식을 소화시킨다. 담(痰)을 삭이고 장(腸)을 고르게 하며 위장(胃腸)을 씻고, 칼과 도끼에 손상된 상처를 흔적 없이 낫게 한다.

- 〔生者는 酸甚하니 聚痰、發熱、損齒及筋이라 乾作屑하야 臨飲酒時하야 服方寸匕면 止吐酒요 消宿食、化痰하며 和五臟、蕩滌腸胃、煩憤惡氣라 燒灰服이면 能斷下痢니라.〕

(날것은 신맛이 강하여 담(痰)을 모으고, 열이 나게 하며, 치아와 근육을 손상시킨다. 말린 것을 가루로 만들어 술을 마실 때 한 찻숟가락 먹으면 술로 인한 구토를 멎게 한다. 묵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담(痰)을 삭이며, 오장(五臟)을 고르게 하고, 장위(腸胃)와 번거롭고 심란한 악기(惡氣)를 씻어낸다. 태운 재를 먹으면 하리(下痢)가 멈춘다.)

- 〔○根皮煎湯은 洗惡瘡、疥癬이라 忌生蔥이니라.〕

(○ 뿌리껍질을 달인 탕으로 악창(惡瘡)과 개선(疥癬)을 씻는다. 생파를 꺼린다.)

- 〔○魯般方이라 治一切刀斧傷損瘡의 不可者는 用塩과 楊梅 不拘數를 連核 杵如泥하야 捏成餅子하야 收竹筒中이라가 遇損破에 卽填補之하면 止血、生肌、無癍痕에 絶神이니라.〕

(○ 노반방(魯般方)은 다음과 같다. 칼과 도끼에 손상을 입은 상처가 치료되지 않는 경우, 소금과 양매(楊梅)를 넉넉하게 씨까지 진흙처럼 찧어서 떡으로 만들어 대나무 통에 넣어두었다가 손상된 곳에 채워서 보하면, 지

혈(止血)하고 살을 재생시키며 흉터를 없애는 데 신묘한 효과가 있다.)

李子 | 이자

李子 苦甘 治肝病이오 骨間勞熱 須臾淨을! 核仁消瘀 通小腸이오 根皮止痢 奔豚定을.

이자(李子)는 맛이 쓰고 다니 간질환을 치료하고, 뼈 사이의 과로로 인한 발열(發熱)을 금방 정화한다. 핵인(核仁)은 어혈(瘀血)을 없애고 소장(小腸)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며, 뿌리와 껍질은 이질(痢疾)을 멎게 하고 분돈(奔豚)을 안정시킨다.

- [無毒하니 肝病에 宜食이오 去骨節間勞熱하며 除痼熱、調中하고 久食이면 令人虛熱하고 臨水食이면 發痰瘧이오 又不可與白蜜、雀肉과 同食이니라.]

[독이 없으니, 간질환에 먹는 것이 적합하다. 뼈 사이 과로로 인한 발열과 고열(痼熱)을 없애고, 중초(中焦)를 고르게 한다. 장복하면 허열(虛熱)이 나게 하고, 물가에서 먹으면 담학(痰瘧)을 유발한다. 흰 꿀이나 참새고기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 [○ 核仁은 苦平하고 無毒이라 主僵仆躋하야 瘀血 骨痛 內傷하며 利小腸、下水氣、除腫滿과 皮女子小腹脹滿이라 入藥에 泡去皮尖이니라.]

[○ 핵인(核仁)은 맛이 쓰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넘어지거나 추락하여 생긴 어혈(瘀血)과 골통(骨痛) 및 내상(內傷)을 치료한다. 소장(小腸)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물기를 내려가게 하며, 종만(腫滿)과 여성 아랫배의 창만(脹滿)을 없앤다. 약에 넣을 때는 끓는 물에 담갔다가 껍질과 끝을 없애고 쓴다.]

- [○ 根白皮는 大寒이라 主消渴하며 止心煩、逆氣、奔豚、腳氣、熱毒煩躁와 女人卒赤白下、男子赤白痢하니 去粗皮하고 炙黃色하야 水煮 服之니라.]

(○ 뿌리의 흰 껍질은 약성이 아주 차다. 소갈(消渴)을 주치하며, 심번(心煩), 역행하는 기(氣), 분돈(奔豚), 각기(脚氣), 열독(熱毒), 번조(煩燥), 여성의 급성 적백대하(赤白帶下), 남성의 적백이질(赤白痢疾)을 멎게 하니, 거친 껍질을 제거하고 노랗게 구워 물에 달여서 먹는다.)

- (○ 花는 평이라 主小兒壯熱、疳疾하며 驚癇에 作湯浴之니라.)

(○ 꽃은 약성이 평이하다. 소아의 고열과 학질(瘧疾)을 치료한다. 경간(驚癇)에는 탕(湯)을 만들어 목욕한다.)

榛子 | 진자

榛子 味甘 無毒平하니 益人氣力 健人行을! 若令多食 難饑餓요 厚胃寬腸 四體輕을.

진자(榛子)는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약성이 평이하니, 사람의 기력을 보익하고 건강하게 걷게 한다. 만약 많이 먹으면 굶주림을 느끼지 않고, 위(胃)를 두텁게 하고 장(腸)을 완화하며 사지(四肢)를 가볍게 한다.

- (榛은 盛也니 一云호대 從秦하니 生於秦地也라하니라 主益氣力、寬腸胃하며 調中、開胃하며 令人으로 不饑、健行하니 軍行에 食之하야 以當糧이니라.)

(진(榛)은 왕성하다는 뜻이다. 일설에는 진(秦)자를 따랐으니, 진나라 땅에서 난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기력(氣力)을 보익하고, 장위(腸胃)를 완화시키며, 중초(中焦)를 고르게 하고, 위(胃)를 열어주며, 사람이 허기를 느끼지 않게 하고, 잘 걸어 다니게 해주는 것이니, 군대에서 행군(行軍)할 때 양식으로 먹는다.)

榧實 | 비실

榧實 甘平 進飲食이오 能通榮衛 助筋力을! 五痔三蟲 是主方이오 啖多引火 傷肺極을.

비실(榧實)은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니 음식을 잘 먹게 하고, 영위(榮衛)를 소통시키며 근력(筋力)을 돕는다. 다섯 가지 치질(痔疾)과 삼충(三蟲)의 주방(主方)이 되나, 많이 먹으면 화(火)를 유인하여 폐(肺)를 극도로 손상시킨다.

- [榧는 文木也라 爾雅翼에 云 有美實而材光하며 文彩如栢하야 斐然成章也라 無毒이라 主消穀하야 令人으로 能食하며 行榮衛、助筋骨하며 明目、輕身이오 五痔人이 常如果食之면 愈라 東坡詩에 云驅除三彭蟲하니 已我心腹疾이라 하니라 治寸白蟲하니 日食七顆하야 七日滿이면 其蟲이 皆化爲水요 兼治蠱毒、鬼疰라 丹溪 云 屬土與金而有火하니 多啖이면 引火 入肺大腸하니 受傷이면 作泄이라하니라.]

[비자나무는 무늬가 있는 나무다. 《이아익(爾雅翼)》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며, 목재가 빛나 그 빛깔이 잣나무처럼 아름답게 무늬를 이루므로 이렇게 명명한 것이다. 독이 없다. 음식을 소화하고 잘 먹게 하여, 영위(榮衛)를 통행시켜 근골(筋骨)을 돕고, 눈을 밝게 하며, 몸을 가볍게 한다. 다섯 가지 치질 환자가 항상 과일처럼 먹으면 낫는다. 소동파(蘇東坡)는 시에서 세 가지 팽충(彭蟲)을 몰아내서 나의 심복(心腹) 질환을 그치게 한다고 말했다. 촌백충(寸白蟲)을 치료하니, 하루 7알씩 복용하여 7일을 채우면 벌레가 다 녹아서 물로 변한다. 아울러 고독(蠱毒)과 귀주(鬼疰)를 치료한다. 주단계(朱丹溪)가 다음처럼 말했다. 토(土)와 금(金)에 속하되 화(火)도 있으니, 많이 먹으면 화를 끌고 폐(肺)와 대장(大腸)으로 침입하니, 손상을 입으면 설사한다.]

銀杏 | 은행

銀杏(俗名은 白果라 味甘寒하고 有毒이라 清肺胃濁氣하며 化痰、定喘、止咳라 多食이면 昏神、殺人이니라.)

은행(銀杏)〔속칭 백과(白果)라고 한다. 맛이 달고, 약성이 차며, 독이 있다. 폐위(肺胃)의 탁기(濁氣)를 맑게 하고, 담(痰)을 삭이며, 천식(喘息)을 안정시키고, 기침을 멎게 한다. 많이 먹으면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사람을 죽인다.)

柰子 | 내자

柰子(味苦寒하고 無毒이라 補中焦、諸不足하며 和脾、益心하며 治飽食하야 多肺壅 氣脹이오 病人은 忌多食이니라.)

내자(柰子)〔맛이 쓰고, 약성이 차며, 독이 없다. 중초(中焦)의 각종 부족한 기운을 보하며, 비(脾)를 고르게 하고, 심장을 보익한다. 포식하여 폐(肺)가 막히고 기(氣)가 차오르는 증상을 치료한다. 환자들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林檎 | 임금

林檎(樹似柰하고 實은 比柰差圓하며 六七月에 熟하나니 有甘酸二種이라 甘者는 早熟하며 味が 肥美하나 酸者는 差晩하며 熟爛이라야 乃堪啖이라 氣溫하고 無毒이라 主消渴、下氣、消痰하며 止痢、泄精、霍亂 肚痛이라 多食이면 發熱、澀氣하야 好睡하며 發冷痰、生瘡癰、脉閉不行이니라.)

임금(林檎)〔나무는 능금나무와 비슷하고, 열매는 능금보다 더 둥글다. 음력 6~7월에 익는데, 달고 신 것 두 종류가 있다. 단 것은 일찍 익으며 맛이 풍부하고 좋다. 신 것은 조금 늦게 익으며 완전히 익어야 먹을 수 있다. 약성은 따듯하고, 독이 없다. 갈증을 해소하며, 기(氣)를 내리고, 담(痰)을 삭이며, 이질(痢疾), 설정(洩精), 광란(霍亂), 복통(腹痛)을 멎게 한다. 많이 먹으면 열이 나게 하고, 기를 정체시켜 졸음을 유발하며, 냉담(冷痰)과 창절(瘡癰)을 유발하며, 맥을 막아 순행하지 못하게 한다.)

茈菰 | 자고

茨菰(葉似箭鏃하고 根黃似芋而小하니 煮熟이면 可啖이오 本草에 名烏芋라 味苦
甘하며 微寒하고 無毒이라 主消渴、胃痺、胃熱、溫中、益氣하며 消黃疸、風毒
하며 開胃、下食、明耳目이라 不可多食이니라.)

자고(茨菰) (잎은 화살촉과 비슷하고, 뿌리는 노랗고 토란과 유사하나 작다.
삶아서 익히면 먹을 수 있다. 본초서(本草書)에서는 오우(烏芋)라고 하였다.
맛이 쓰고 달며, 약성이 약간 차고, 독이 없다. 소갈(消渴), 흉비(胸痺), 위열(胃
熱)을 치료하며, 중초(中焦)를 데우고 기(氣)를 보익하며, 황달(黃疸)과 풍독
(風毒)을 사라지게 하고, 위(胃)를 열며, 음식을 소화하고, 눈과 귀를 밝힌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

勃薺 | 발제

勃薺(苗가 似龍鬚草로 青色이오 根은 黑如指大로 皮厚有毛라 味甘하야 可生啖이
라 下石淋하며 服丹石人에 相宜는 以其能解毒也요 若作粉 食之면 厚腸胃하며 令
人不饑나 但此二物은 皆非美味니 多食이면 發百病、生瘡癰하고 小兒 食之면 臍
下痛이오 孕婦 食之면 動胎요 得生姜이면 良이니라.)

발제(勃薺) (싹이 용수초(龍鬚草)와 비슷하고 푸르며, 뿌리는 검고 손가락만
하며 껍질이 두껍고 털이 있다. 맛이 달고, 날것으로 먹을 수 있다. 석림(石淋)
을 내려가게 한다. 단석(丹石)을 복용한 사람한테 적합한 이유는 해독(奚毒)하
기 때문이다. 만약 분말로 만들어 먹으면 장위(腸胃)를 두텁게 하여 허기지지
않게 한다. 다만 이 두 약물은 모두 맛이 좋지 못하며, 많이 먹으면 온갖 질병과
창절(瘡癰)을 유발하고, 소아가 먹으면 배꼽 아래가 아프게 되고, 임신부가 먹
으면 태동(胎動)하게 만든다. 생강(生薑)과 같이 쓰면 좋다.)

1.2.2. 獸部 | 수부

猪肉 | 저육

【猪肉】寒中 味甘鹹하니 昏神閉血 引風痰을! 四蹄五臟 并腸膽이오 補虛治病 還相兼을! 卵主五癰 乳主癰이오 膏 潤肺 補漏岩을.

【저육(猪肉)】은 중초(中焦)를 차갑게 하며 맛이 달고 짜니,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혈맥(血脈)을 닫으며 풍담(風痰)을 유발한다. 네 발과 오장(五臟) 및 장(腸)과 쓸개를 다 쓰는데, 허(虛)를 보하고 병(病)을 치료하는 데는 도리어 겸해서 쓴다. 알은 오릉(五癰)을 치료하고 젖은 간질을 치료하며, 비계는 폐(肺)를 윤택하게 하고 바위 같은 루(漏)를 보한다.

- (猪는 水畜也라 其味が 甘美而鹹하고 其氣는 微寒이라 先入腎하며 其性이 暴悍 故로 食之多者는 昏神氣、閉血脈、弱筋하며 引風痰、動火하야 令人으로 暴肥하며 少子하니 臟疾、心氣、瘡病、金瘡人은 忌之요 養生家は 不與牛肉、蕎麥과 同食이니라.)

(돼지는 오행 상 수(水)에 속하는 가축이다. 맛이 달고 짙으며 짜고, 약성은 약간 차다. 먼저 신장(腎腸)으로 들어가며, 성질이 급하고 사나우므로, 많이 먹으면 정신이 흐려지고, 혈맥(血脈)을 막으며, 근육을 약화시키고, 풍담(風痰)을 유인하며, 화(火)를 동하게 하여 사람이 갑자기 살이 찌게 만들고 출산을 적게 하게 한다. 내장질환, 심기(心氣), 학질(瘡疾), 금창(金瘡) 환자는 금한다. 양생가(養生家)는 소고기나 메밀과 같이 먹지 않는다.)

- (○ 四足은 甘寒이라 補中氣、滑肌膚、去寒熱、下乳汁하며 煮汁으로 洗一切瘡疽、傷撻이니라.)

〔○ 네 발은 맛이 달고, 약성이 차다. 중초(中焦)의 기를 보하고, 살결을 매끄럽게 하며, 젖을 나오게 한다. 달인 즙으로 모든 창저(瘡疽)와 타박상(打撲傷)을 씻는다.〕

- 〔○懸蹄는 卽前蹄腕이니 性平이라 主五痔、伏熱在腸、腸癰內蝕이니라.〕

〔○ 현제(懸蹄)는 앞발의 군살이다. 약성이 평이하다. 다섯 가지의 치질과 창자에 잠복한 열, 장옹(腸癰)이 내부로 부식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 〔○心은 熱하니 主驚邪、憂恚라 血虛에 多食이면 反耗心氣요 忌는 與吳茱萸와 同食이니라.〕

〔○ 심장(心臟)은 약성이 뜨거우니, 경사(驚邪)와 우예(憂恚)를 치료한다. 피가 허(虛)한 경우에 많이 먹으면, 도리어 심기(心氣)를 소모시킨다. 오수유(吳茱萸)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 〔○肝은 溫하니 主冷泄赤白、臍虛、腳氣、水腫、肝熱目赤하고 女子陰中痒痛에 炙熱 內之면 當有蟲出이오 以五味로 和食則補肝氣니라.〕

〔○ 간(肝)은 약성이 따뜻하다. 차가운 적백(赤白)의 설사, 내장의 허(虛), 각기(脚氣), 수종(水腫), 간(肝)의 열로 인한 안구의 충혈을 치료한다. 여성의 음부(陰部) 속이 가렵고 아플 때 뜨겁게 구워서 넣으면 벌레가 나오게 되고, 양념하여 먹으면 간기(肝氣)를 보한다.〕

- 〔○脾는 主脾胃虛熱하니 和陳皮、人參、姜 蔥、陳米하야 煮羹하야 去陳皮等하고 食之니라.〕

〔○ 비장(脾腸)은 비위(脾胃)의 허열(虛熱)을 치료하니, 진피(陳皮), 인삼(人蔘), 생강(生薑), 파, 묵은 쌀로 죽을 끓여서 진피를 없애고 먹는다.〕

- 〔○肺는 微寒하고 補肺라 與白花菜와 同食이면 令發霍亂이니라.〕

〔○ 폐는 약성이 약간 차고, 폐(肺)를 보한다. 백화채(白花菜)와 같이 먹으면 객란(霍亂)을 유발한다.〕

- [○ 腎은 卽腰子니 性冷이라 和腎氣、利膀胱、補虛勞、消積滯라 單食 久食이면 令人으로 少子하고 冬月애 食之면 損眞氣니라.]

[○ 콩팥은 바로 요자(腰子)라는 것이니, 약성이 차다. 신기(腎氣)를 고르게 하고, 방광을 원활하게 하며, 허로(虛勞)를 보하고, 적체(積滯)를 제거한다. 단방(單方)으로 장복하면 출산을 적게 하게 만들고, 겨울에 먹으면 진기(眞氣)를 손상시킨다.]

- [○ 肚는 微溫하니 補虛羸、骨蒸、勞熱、血滯氣弱하며 大補中氣、止渴、止痢하며 並小兒疳瘡이오 殺勞蟲이라 孕婦九箇月애 宜食之니라.]

[○ 위(胃)는 약성이 약간 따뜻하니, 허리(虛羸), 골증(骨蒸), 노열(勞熱), 혈체(血滯), 기약(氣弱) 등을 보한다. 크게 중초(中焦)의 기를 보하고, 갈증을 멎게 하며, 이질(痢疾)을 그치게 한다. 아울러 소아의 감창(疳瘡)을 치료하고, 노충(勞蟲)을 죽인다. 임신 9개월에 먹는 것이 적합하다.]

- [○ 腸臟은 補下焦虛竭하며 去大小腸風熱하며 止小便數、口渴이니라.]

[○ 창자는 하초(下焦)의 허갈(虛竭)을 보하고, 대소장(大小腸)의 풍열(風熱)을 제거하며, 잦은 소변과 구갈(口渴)을 멎게 한다.]

- [○ 膽은 苦寒하니 主傷寒熱渴、潤燥通便하며 入心通脉하며 內傷으로 骨蒸、勞極、小兒疳蛔、熱瘡이오 其膽中黃은 主金瘡、血痢니라.]

[○ 쓸개는 맛이 쓰고, 약성이 차다. 상한병(傷寒病)으로 인한 발열과 갈증을 치료하고, 건조한 것을 윤택하게 하여 대변이 나오게 한다. 심장으로 들어가서 맥을 소통시키고, 내상(內傷)으로 인한 골증(骨蒸), 노극(勞極), 소아의 감회(疳蛔), 열창(熱瘡) 등을 치료한다. 쓸개 속 노란 부분은 금창(金瘡)과 혈리(血痢)를 치료한다.]

- [○ 卵은 甘溫하고 無毒이라 主五癰邪氣로 攣縮、奔豚、驚癇、癲狂、鬼疰하니 陰乾하되 勿令敗니라.]

(○ 돈란(豚卵)은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없다. 오릉(五癰)의 사기로 근육이 오그라드는 증상, 분돈(奔豚), 경간(驚癇), 전광(癲狂), 귀주(鬼疰)를 치료하니, 그늘에서 말리되 썩지 않게 해야 한다.)

- (○ 乳汁은 主小兒의 驚癇、天弔와 大人의 猪鷄癇病이니 乳頭도 治同이니라.)

(○ 젖은 소아의 경간(驚癇)과 천조(天弔), 대인의 저간병(猪癇病)과 계간병(鷄癇病)을 치료하니, 유두(乳頭)도 효능이 같다.)

- (○ 肪膏는 潤肺、利血脉、治皮膚風熱、殺蟲과 及諸癰疽、惡瘡하며 治五疸、下胞衣하니 蒸食커나 或浸酒 服之요 漏瘡、鼠瘻와 及頭髮不生에 並外傳커나 或煎膏藥하야 貼之라 吹妳로 惡寒 壯熱에 冷水에 浸貼하되 熱則又易이오 蜈蚣、蟻子入耳에 炙令香케하야 安耳孔이면 自出이라 臘月亥日에 收之면 不壞요 忌烏梅하고 解斑猫、芫青毒이니라.)

(○ 돼지비계는 폐(肺)를 윤택하게 하고, 혈맥(血脈)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며, 피부의 풍열(風熱)을 치료하고, 벌레를 죽이며, 각종 응저(癰疽)와 악창(惡瘡)을 치료한다. 다섯 가지의 황달(黃疸)을 치료하고, 태반(胎盤)이 내려오게 하니, 찢어서 먹거나 술에 담갔다가 먹는다. 누창(癰瘡)과 서루(鼠瘻) 및 머리카락이 나지 않을 때에 모두 곁에 붙이거나 졸여서 고약을 만들어 붙인다. 젖몸살로 인한 오한(惡寒)과 고열(高熱)에는, 이것을 찬물에 담갔다가 붙이되 뜨거워지면 새것으로 갈아준다. 지네와 개미가 귀에 들어갔을 때에는, 향기가 나도록 구워 귓구멍에 넣으면 저절로 나온다. 설달해일(亥日)에 거두어 보관하면 썩지 않는다. 오매(烏梅)를 꺼리고, 반묘(斑猫)와 원청(芫青)의 독을 해독한다.)

- (○ 膏는 主肺痿로 咳嗽膿血에 和棗肉 浸酒하야 服之니 亦主冷痢、疝癖이오 多服이면 損陽이니라.)

[○ 이고(膏)는 폐위(肺痿)로 인한 피고름 섞인 기침하는 증상을 치료하니, 대추의 과육과 같이 술에 담갔다가 먹는다. 또 냉리(冷痢)와 헌벽(炫癖)을 치료한다. 많이 먹으면 양기(陽氣)를 손상시킨다.]

- [○舌은 健脾하야 令人能食이니라.]

[○ 혀는 비장(脾腸)을 건강하게 하여 음식을 잘 먹게 한다.]

- [○ 齒는 主小兒驚癇하니 燒灰服하며 兼治蛇咬니라.]

[○ 이빨은 소아의 경간(驚癇)을 치료하니, 태운 재를 먹는다. 아울러 뱀에 물린 것을 치료한다.]

- [○ 腦髓는 主風眩 腦鳴하며 塗凍瘡、手足皸裂이니라.]

[○ 뇌수(腦髓)는 풍현(風眩)과 뇌명(腦鳴)을 치료한다. 동상(凍傷)과 손발이 갈라터진 데에 바른다.]

- [○ 血은 主奔豚氣、風頭眩、淋瀝과 及海外瘡氣요 又蛇入口와 并七孔中에 割母豬尾血하야 滴口中이면 卽出이니라.]

[○ 피는 분돈기(奔豚氣), 풍두현(風頭眩), 임력(淋瀝) 및 해외의 장기(瘡氣)를 치료한다. 또 뱀이 입과 7개의 구멍으로 들어갔을 때, 어미 돼지의 꼬리를 잘라서 낸 피를 입 속에 떨어뜨리면 바로 나온다.]

- [○ 骨은 燒灰 爲末하야 水下方寸匕면 解諸果毒이니라.]

[○ 뼈는 태운 재를 분말로 만들어 물로 한 찻숟가락 먹으면 각종 과일의 독을 해독한다.]

- [○ 耳中垢는 主蛇傷이니라.]

[○ 귓속의 때는 뱀에 의한 손상을 치료한다.]

- [○猪膚는 卽皮上垢膩니 甘寒하고 無毒이라 治傷寒客熱로 下痢 咽痛 胃滿 心煩이니라.]

[○ 껍질은 피부 위의 흰 기름이니, 맛이 달고, 약성이 차며, 독이 없다. 상한병(傷寒病)의 객열(客熱)로 인한 하리(下痢), 목구멍의 통증, 흉만(胸滿), 심번(心煩)을 치료한다.]

- [○ 尿는 主天行熱病、寒熱、黃疸、濕痺、蠱毒하니 取東行牝猪者하야 水浸一宿이라가 去渣服之요 又燒灰하야 傳諸瘡과 并小兒白禿이니라 已上은 俱用牯猪者라야 佳니라.]

[○ 똥은 유행성 열병(熱病), 한열(寒熱), 황달(黃疸), 습비(濕痺), 고독(蠱毒)을 치료하니, 동쪽으로 가는 암돼지의 똥을 채취하여 물에 하루밤 담가두었다가 찌꺼기를 버리고 먹는다. 또 태운 재를 각종 창(瘡)과 소아의 백독(白禿)에 붙인다. 이상은 모두 암돼지 것이 좋다.]

野猪肉 | 야저육

野猪肉勝 似家猪요 久痔腸風 人可咀를! 黃止諸血 疳與癰이오 脂飲産婦 乳有餘를.

야저육(野猪肉) 집돼지보다 나은 듯한데, 오래된 치질(痔疾)과 장풍(腸風) 환자는 먹을 수 있다. 쓸개 속 노란 부분은 각종 혈증(血症)을 멎게 하고 감병(疳病)과 간질(癰疾)을 치료하고, 지방은 출산한 여성이 먹으면 젖이 넉넉하게 나온다.

- [形如家猪나 但腰腳이 長하며 毛褐이라 雄者는 肉이 甘美하며 無毒이라 靑蹄者는 勿食이니라 肉色이 赤者는 補五臟하며 長肌膚라 久痔、腸風下血에 灸食이면 不過十頓이오 癰癰病에 水煮服之면 不動風氣하니 所以勝家猪也니라.]

(형태는 집돼지와 비슷한데, 다만 허리와 다리가 길고, 털이 갈색이다. 수 돼지는 육질이 달고 맛있으며, 독이 없다. 발굽이 푸른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 육질의 색이 붉은 것은 오장(五臟)을 보하고, 피부를 길러준다. 오랜 치질(痔疾)과 장풍하혈(腸風下血)에 구워서 먹으면 10회가 되기 전에 낫는다. 전간(癲癇)에는 물에 삶아서 먹어도 풍기(風氣)를 동하게 하지 않으니, 집돼지보다 나은 이유이다.)

- [○ 黃은 在膽中하니 味辛甘平하고 無毒이라 主金瘡의 止血、鬼疰、癲癇과 小兒疳氣、客忤、天弔하니 陰乾하여 研水服之니라.]

(○ 쓸개 속 노란 부분은 맛이 맵고 달며, 약성이 평이하고, 독이 없다. 금창(金瘡)에 지혈하며, 귀주(鬼疰), 전간(癲癇), 소아의 감기(疳氣), 객오(客忤), 천조(天弔)를 치료하니, 그늘에서 말려 갈아서 물로 먹는다.)

- [○ 脂는 除風腫、毒瘡、疥癬하니 浸酒服之요 令婦人으로 多乳니 連進十日이면 可供三四孩兒요 本來無乳者라도 亦有니라.]

(○ 비계는 풍종(風腫), 독창(毒瘡), 개선(疥癬)을 없애니, 술에 담갔다가 먹는다. 부인들에게 젖이 많이 생기게 한다. 열흘 동안 계속해서 먹으면 서너 명의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고, 본래 젖이 안 나오던 사람도 젖이 나오게 된다.)

- [○ 外腎은 和皮燒灰存性하여 米飲으로 下면 治崩中、帶下、腸風下血、血痢니라.]

(○ 외신(外腎)을 껍질과 함께 약성이 남도록 태운 재를 미음으로 먹으면, 붕중(崩中), 대하(帶下), 장풍하혈(腸風下血), 혈리(血痢)를 치료한다.)

- [○ 豪猪는 肉이 甘美하고 多膏하나 不可多食이니 發風氣하며 利大腸하여 令人으로 虛羸요 肚는 詳蝟皮條下하니라.]

(○ 호저(豪猪)는 고기가 달고 맛있으며, 기름기가 많지만, 많이 먹으면 안 되니, 풍기(風氣)를 유발하며, 대장(大腸)을 원활하게 소통시켜 사람이 허하고 마르게 한다. 위(胃)는 위피(蝟皮)의 조문에 상세하다.)

- (○ 獾猪는 肉이 甘美하니 作羹食之면 下水腫하며 治久痢에 大効요 瘦人이 食之하면 長肌肉하며 肥白이오 其脂는 治傳尸 鬼氣·肺痿니라.)

(○ 환저(獾猪)는 고기가 달고 맛있다. 국으로 먹으면 수종(水腫)을 내려 가게 하고, 만성 이질(痢疾)에 아주 효과적이다. 마른 사람이 먹으면 살이 찌게 하여 희고 살지게 된다. 지방(脂肪)은 전시(傳尸), 귀기(鬼氣), 폐위(肺痿)를 치료한다.)

- (○ 江猪는 肉이 平酸하고 補氣하나 食多면 令人體重이오 汁은 健脾胃하야 令人으로 能食이니라.)

(○ 강저(江猪)는 육질이 평이하고 맛이 시다. 기를 보하나, 많이 먹으면 몸을 무겁게 한다. 좁은 비위(脾胃)를 튼튼하게 하여 사람이 음식을 잘 먹게 한다.)

牛肉 | 우육

牛肉甘平 益胃脾요 消腫止渴 洩尤宜를 更健筋骨 輕腰腳이오 髓溫骨髓 補中衰를!
肚葉和中 肝明目이오 膽治驚風 痰熱兒을.

우육(牛肉)은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니 비위(脾胃)를 보익하고, 종(腫)을 없애며 갈증을 멎게 하는데 설사(泄瀉)에 더욱 적합하다. 또 근골(筋骨)을 튼튼하게 하며 허리와 종아리를 가볍게 하고, 소의 골수(骨髓)는 사람의 골수를 데우고 중초(中焦)의 쇠약함을 보한다. 두엽(肚葉)은 중초(中焦)를 고르게 하고 간(肝)은 눈을 밝히며, 쓸개는 소아의 경풍(驚風)과 담열(痰熱)을 치료한다.

- 〔孟詵이云牛者是稼穡之資로 不多屠殺이라 自死者는 血脉이 已絶하고 骨髓가 已竭하니 不堪服食이오 黃牛는 發藥毒하며 動病하야 不如水牛하니 蓋黃牛는 溫而水牛는 冷故也라 常食黃牛가 爲妙나 瘡疾後에는 亦忌之요 養生者는 忌與黍米、韭、薤와 同食이오 十二月에 食之면 傷神이니라.〕

(맹선(孟詵)이 다음처럼 말했다. 소는 농사를 짓는 밑천이니 많이 도살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죽은 소는 혈맥(血脉)이 이미 끊어지고 골수(骨髓)가 이미 말라서 먹기에 부적절하다. 황우(黃牛)는 약독(藥毒)을 발발시켜 병을 유발하므로 물소만 못하니, 대개 황우는 약성이 따뜻하나 물소는 약성이 차기 때문이다. 황우를 늘 먹는 것이 효과가 좋기는 하지만, 학질(瘡疾)을 앓은 이후에는 금한다. 양생(養生)하는 사람은 서미(黍米), 부추, 염교 등과 같이 먹지 않는다. 음력 12월에 먹으면 정신을 손상시킨다.)

- 〔○肉은 無毒이라 安中、益氣하며 養脾胃、消水腫、除濕氣하며 止消渴과 并吐洩하며 補虛弱、強筋骨、壯腰腳이니라.〕

(○ 고기는 독이 없다. 중초(中焦)를 안정시키고, 기(氣)를 보익하며, 비위(脾胃)를 보양하고, 수종(水腫)을 없애며, 습기(濕氣)를 제거하고, 소갈(消渴)과 토설(吐洩)을 멎게 하며, 허약(虛弱)을 보하고, 근골(筋骨)을 강화하며, 허리와 종아리를 튼튼하게 한다.)

- 〔○髓는 甘하고 無毒이라 填骨髓하며 補中、益氣하며 續絕傷이오 止泄瀉、消渴에 以酒服之하고 止吐衄、崩帶、腸風瀉血、水瀉에 燒灰用이오 又和地黃汁、白蜜의 等分하야 作煎服이면 治勞瘦니라.〕

(○ 골수(骨髓)는 맛이 달고, 독이 없다. 사람의 골수를 채우고, 중초(中焦)를 보하며, 기(氣)를 보익하고, 끊어진 손상을 이어준다. 설사와 소갈(消渴)을 멎게 하려면 술로 먹는다. 토혈(吐血)과 코피, 붕루(崩漏)와 대하(帶下), 장풍사혈(腸風瀉血), 설사 등의 경우에는 태운 재를 쓴다. 또 지황즙(地黃汁)과 흰 꿀을 같은 양으로 달여서 먹으면 과로로 몸이 수척해진 증상을 치료한다.)

- [○ 肚는 甘平하니 和中、益脾胃하고 百葉肚는 主熱氣、水氣、丹毒하며 解酒勞와 并痢니라.]

[○ 위(胃)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니, 중초(中焦)를 고르게 하고, 비위(脾胃)를 보익한다. 백엽두(百葉肚)는 열기(熱氣), 수기(水氣), 단독(丹毒)을 치료하고, 주로(酒勞)과 이질(痢疾)을 해독한다.]

- [○ 肝은 甘凉하니 明目、平肝氣라 北人은 牛瘦에 多蛇를 從鼻灌之하야 則爲獨肝하니 有大毒이라 食之면 痢血하야 至死니라.]

[○ 간(肝)은 맛이 달고, 약성이 차니, 눈을 밝히고, 간기(肝氣)를 평정시킨다. 북쪽지방 사람들은 소가 마르면 뱀을 코로 집어넣어 간이 하나만 있는 소를 만드니, 이 소는 심한 독을 갖게 되어 이것을 먹으면 혈리(血痢)가 발생하여 죽는다.]

- [○ 膽은 苦大寒이라 可和丸藥이니 除心腹邪熱로 煩渴 口舌焦燥하며 益目睛、利大小腸하며 治小兒驚風痰熱과 疳濕이니라.]

[○ 쓸개는 맛이 쓰고, 약성이 아주 차다. 다른 약물과 섞어서 환약(丸藥)을 만들 수 있으니, 심복(心腹)의 사열(邪熱)로 번갈(煩渴)하고 혀와 입이 메마르고 타는 듯한 증상을 치료한다. 눈동자를 보익하고, 대소장(大小腸)을 원활하게 소통시킨다. 소아의 경풍(驚風)과 담열(痰熱) 및 감습(疳濕)을 치료한다.]

- [○ 心은 主虛恡이니라.]

[○ 염통은 허(虛)해서 발생하는 건망증(健忘症)을 치료한다.]

- [○ 腎은 補腎精하니 大抵 五臟은 主人五臟也니라.]

[○ 콩팥은 신정(腎精)을 보하니, 대개 소의 오장(五臟)은 사람의 오장을 치료한다.]

- [○ 懸蹄는 主婦人崩中、漏下赤白、無子하니 陰莖도 功同하니라.]

[○ 현제(懸蹄)는 여성의 붕중(崩中), 적백루하(赤白漏下), 불임(不妊)을 치료한다. 음경(陰莖)도 효능이 같다.]

- [○ 腦髓는 主消渴、風眩이니라.]

[○ 뇌수(腦髓)는 소갈(消渴)과 풍현(風眩)을 치료한다.]

- [○ 齒는 主小兒牛癇이니라.]

[○ 이빨은 소아의 우간(牛癇)을 치료한다.]

- [○ 口中涎은 主反胃하니 終身不噎이니라.]

[○ 입에서 나오는 침은 반위(反胃)를 치료하니, 죽을 때까지 열격(噎膈)이 생기지 않는다.]

- [○ 耳中垢는 封癰腫、鼻疳瘡이니라.]

[○ 귓속의 때는 옹종(癰腫)과 코의 감창(疳瘡)에 봉해서 붙인다.]

- [○ 尿는 寒하니 主霍亂、消渴、黃疸、水腫、鼓脹、癥瘕、腳氣、小便不通 하니 微火로 煎如糖하야 服之요 湯火灼、頭瘡、白禿、五色丹毒과 及鼠瘻、惡瘡에 己有膿血者는 以熱尿로 傅之거나 或燒灰하야 鷄子白으로 調傅요 又 塗門戶하야 辟惡氣하고 置席下하야 止小兒夜啼니라.]

[○ 소동은 약성이 차다. 곽란(霍亂), 소갈(消渴), 황달(黃疸), 수종(水腫), 고창(蠱脹), 징가(癥瘕), 각기(脚氣), 소변불통(小便不通)을 치료하니, 약한 불로 당(糖)을 만들 때처럼 달여서 복용한다. 화상(火傷), 두창(頭瘡), 대머리, 오색단독(五色丹毒)과 서루(鼠瘻), 악창(惡瘡)에 이미 피고름이 있으면 뜨거운 똥을 붙이거나, 태운 재를 계란 흰자로 개어서 붙인다. 또 집의 문에 발라 악기를 물리치고, 잠자리 밑에 두어 소아의 야제증(夜啼症)을 멎게 한다.]

- [○ 尿는 主水腫、腹脹、脚滿하며 利小便漸漸하니 以銅器로 取新者하야 服二三升이면 愈니라.]

[○ 오줌은 수종(水腫), 복창(腹脹), 각만(脚滿)을 치료하고, 시원치 못한 소변을 잘 내보내니, 구리그릇에 새 오줌을 받아서 2~3회 마시면 낫는다.]

- [○ 牛黃、牛角腮는 另見前卷하니라.]

[○ 우황(牛黃)과 우각새(牛角腮)는 앞 권에 따로 나온다.]

- [○ 正胃散이라 用牛喉末을 陳米飲으로 調服이면 治膈食이니라.]

[○ 정위산(正胃散)은 다음과 같다. 목의 분말을 묽은 쌀로 만든 미음에 타서 먹으면 격식(膈食)을 치료한다.]

羊肉 | 양육

羊肉 味甘 性大熱하니 補臟虛寒 形羸劣을! 安心止汗 又止驚이오 益腎壯陽 堅骨節을! 骨治寒中 頭退熱이오 血止諸血 及暈血을.

양육(羊肉)은 맛이 달고 약성이 아주 뜨거우니, 장(臟)이 허한(虛寒)하여 몸이 수척해진 증상을 치료한다. 심장(心臟)을 안정시키고 땀을 멎게 하며 또 놀란 증상을 그치게 하고, 신장(腎腸)을 보익하고 양도(陽道)를 왕성하게 하며 뼈마디를 튼튼하게 한다. 양(羊)의 뼈는 한중(寒中)을 치료하고 대가리는 열을 물리치며, 피는 각종 출혈과 혈훈(血暈)을 멎게 한다.

- [羊有三四種하니 以北地青色者로 入藥이오 有一種의 無角白羊하니 亦堪食이라 北地驅至南方이면 筋力이 勞損하니 亦不益人이오 南方羊은 受濕하며 喫毒草 故로 不及이니라.]

(양은 3~4종류가 있는데, 북쪽 땅에서 나는 푸른 색 양을 약에 넣는다. 또 다른 한 종류로서 뿌리 없는 흰 양이 있으니, 먹을 수 있다. 북쪽 지역에서 남쪽으로 몰아 온 것은 근력(筋力)이 과로로 손상되어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남방의 양은 습기(濕氣)를 받고 독초(毒草)를 먹었기 때문에 북방의 양보다 못하다.)

- [○ 殺羊肉은 無毒이라 治五勞七傷과 臟氣虛寒으로 形體羸劣하며 補中、益氣하며 安心、止汗、止驚하며 益腎氣、壯陽道、堅筋骨、健腰膝하며 婦人의 產後虛羸、脾胃冷氣、乳餘疾과 及頭腦風眩과 小兒驚癇하니 惟素有痰火者가 食之면 骨蒸殺人하고 時疾、瘧疾、瘡癤初起에 皆忌하며 孕婦도 亦不可多食이니 皆以其熱也요 若虛人의 癰疽潰後에는 則宜하니 古人이 以之比黃芪라 養生者는 忌與酒와 同食이오 六月에 食之면 傷神이니라.]

[○ 고양(殺羊)의 고기는 독이 없다. 오로칠상(五勞七傷)과 장기(臟氣)의 허한(虛寒)으로 인하여 몸이 마르고 여윈 것을 치료한다. 중초(中焦)를 보하고, 기(氣)를 보익하며, 심장을 안정시키고, 땀과 놀란 증상을 그치게 한다. 신기(腎氣)를 보익하고, 양도(陽道)를 튼튼하고 굳세게 하며, 근골(筋骨)을 견고하게 하고, 허리와 무릎을 튼튼하게 한다. 여성이 산후(産後)에 허약하고 여윈 증상, 비위(脾胃)의 냉기(冷氣), 출산 후유증, 두뇌(頭腦)의 풍현(風眩), 소아의 경간(驚癇)을 치료한다. 다만 평소 담화(痰火)가 있는 환자가 먹으면 골증(骨蒸)으로 죽는다. 유행성 질환, 학질(瘧疾), 초기(初期)의 창이(瘡癤) 모두에 금하고, 임신부도 많이 먹으면 안 되니, 양고기의 약성이 뜨겁기 때문이다. 만약 허(虛)한 사람의 경우 웅저(癰疽)가 터진 후에는 적합한데, 예전 사람들은 이런 경우 양고기를 황기(黃芪)의 효력에 견주어 말했다. 양생(養生)하는 사람은 술과 같이 먹는 것을 꺼렸고, 음력 6월에 먹으면 정신(精神)을 손상시킨다.]

- [○ 心은 主憂悵隔氣하니 有孔者는 殺人이니라.]

[○ 심장(心臟)은 근심과 분노로 인하여 기가 막힌 증상을 치료하니, 구멍이 있는 심장은 사람을 죽인다.]

- [○ 肝은 冷하다 主肝風 虛熱로 目赤과 及天行後嘔逆不食이라 若合猪肝、梅子、小豆하야 同食이면 傷人心이니라.]

[○ 간(肝)은 약성이 차다. 간풍(肝風)과 허열(虛熱)로 충혈된 눈 및 유행성 질환 후 구역질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만약 돼지의 간이나 매자(梅子) 및 소두(小豆) 등과 같이 먹으면 사람의 심장을 상하게 한다.]

- [○ 肺는 主咳嗽하며 止渴이라 三月至五月에는 其中에 有蟲하야 如馬尾하니 不可食이니라.]

[○ 폐(肺)는 해수(咳嗽)를 치료하고, 갈증(渴症)을 멎게 한다. 음력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폐 속에 말꼬리 같은 벌레가 있으니 먹어서는 안 된다.]

- [○ 腎은 主補精、壯陽、陰痿하며 治耳聾、盜汗、腳膝無力이니라.]

[○ 콩팥은 정(精)을 보하고, 양(陽)을 왕성하게 하며, 발기부전을 치료하고, 이롱(耳聾), 도한(盜汗), 무릎과 종아리의 무력증을 치료한다.]

- [○ 肚는 補胃하며 治虛羸盜汗、溺數과 及水氣在脅하야 不食、煩熱하니 和白朮하야 作湯食之니라.]

[○ 양의 위(胃)는 사람의 위를 보하며, 허리(虛羸), 도한(盜汗), 잦은 소변, 옆구리에 수기(水氣)가 있어서 먹지 못하고 번열(煩熱)하는 증상을 치료하니, 백출(白朮)과 같이 달여서 먹는다.]

- [○ 膽은 平이라 主靑盲、赤障、白膜、風淚니라.]

[○ 쓸개는 약성이 평이하다. 청맹(靑盲), 적장(赤障), 백막(白膜), 풍루(風淚)를 치료한다.]

- [○ 骨은 熱하다 主虛勞 寒中으로 羸瘦요 嫩脊骨은 治腎冷腰痛으로 轉動不得에 搗碎煮爛하야 和蒜齏거나 或酒로 空心에 食之니라.]

[○ 뼈는 약성이 뜨겁다. 허로(虛勞)와 한중(寒中)으로 몸이 마르는 증상을 치료한다. 어린 척추는 신장(腎腸)이 냉하여 생긴 허리의 통증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에 찢어서 문드러지게 삶아서 마늘을 버무리거나 술로 공복(空腹)에 먹는다.]

- [○ 脛骨은 熱하다 治牙齒가 疎豁疼痛하니 火煨爲末하야 入飛鹽 二錢하고 和勻하야 每早에 擦牙齒上하고 以水로 漱去니라.]

[○ 종아리의 뼈는 약성이 뜨겁다. 이가 들뜨며 아픈 증상을 치료하니, 불에 달구어 분말로 만들어 비염(飛鹽) 2돈을 넣고 고르게 섞은 것으로 매일 아침 치아를 문지르고 물로 행구어 낸다.]

- [○ 齒는 主小兒의 羊癇寒熱이니라.]

[○ 이빨은 소아의 양간(羊癇)으로 인한 한열(寒熱)을 치료한다.]

- [○ 頭는 凉하다 治骨蒸、腦熱頭眩하며 明目、止小兒驚癇이니라.]

[○ 대가리는 약성이 서늘하다. 골증(骨蒸) 및 뇌열(腦熱)과 두현(頭眩)을 치료하며, 눈을 밝히고 소아의 경간(驚癇)을 멎게 한다.]

- [○ 血은 主女人產後中風으로 血悶、血暈欲絶거나 或下血不止에 飲一升이면 卽愈요 卒驚悸하야 九竅出血에 取新血하야 熱飲이면 卽止요 治硫黃毒으로 發氣悶하니 飲一合이면 効니라.]

[○ 피는 여성이 산후 중풍(中風)으로 혈민(血悶)하고 혈훈(血暈)으로 쓰러지려 하거나 하혈(下血)이 그치지 않는 경우, 한 되를 마시면 바로 낫는다. 급성 경계(驚悸)로 구구(九竅)에서 피가 날 때, 새로운 피를 받아서 뜨겁게 마시면 바로 멎는다. 유황독(硫黃毒)으로 기민(氣悶)이 발생하는 증상을 치료하니, 한 홉 마시면 효과가 있다.]

- 〔○脂는 治遊風과 并黑黣하며 又能柔銀、軟銅이니라.〕

〔○ 비계는 유풍(遊風)과 주근깨를 치료하며, 또 은과 구리를 부드럽게 한다.〕

- 〔○髓는 甘溫하고 無毒이라 主男婦陰氣不足하며 利血脉、益經氣하니 以酒服之니라.〕

〔○ 골수는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없다. 남녀의 음기부족(陰氣不足)을 치료하며, 혈액(血脉)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경기(經氣)를 보익하니, 술로 먹는다.〕

- 〔○皮는 補虛勞하며 去一切風하며 治腳中虛風하니 去毛하고 作臠하야 食之니라.〕

〔○ 가죽은 허로(虛勞)를 보하고, 모든 풍(風)을 없애며, 종아리의 허풍(虛風)을 치료하니, 털을 없애고 국을 만들어 먹는다.〕

- 〔○尿는 燔之하야 主小兒洩痢、腸鳴、驚癇하며 兼理聾耳하며 生髮毛하며 及箭鏃木刺가 入肉하니 猪脂로 和塗면 自出이오 煮湯服이면 治大小便不通하고 燒烟으로 熏鼻면 主中惡으로 心腹刺痛하고 熏瘡이면 療諸瘡、痔瘻等이니라.〕

〔○ 똥은 태워서 소아의 설사와 이질(痢疾), 장명(腸鳴), 경간(驚癇)을 치료하고, 아물러 정이(聾耳)를 다스리며, 모발을 나게 하고, 화살촉이나 나무 가시가 살로 들어간 상처를 치료하니, 돼지기름과 같이 바르면 저절로 나온다. 달여서 탕을 만들어 먹으면 대소변(大小便)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을 치료하고, 태운 연기를 코에 훈증하면 중악(中惡)으로 심복(心腹)이 찌르듯이 아픈 증상을 치료하며, 창(瘡)에 훈증하면 각종 창(瘡)과 치루(痔瘻)를 치료한다.〕

- 〔○角은 治見前卷하니라.〕

〔○ 뿔은 주치(主治)가 앞 권에 보인다.〕

- 〔○ 羚羊肉은 肥軟하야 益人하며 兼主冷勞、山嵐、瘧痢와 婦人赤白帶下라 但此羊은 多啖石香茹 故로 腸臟의 熱人은 不宜多食이니라.〕

〔○ 영양(羚羊)의 고기는 살지고 부드러워 사람에게 유익하다. 아울러 냉로(冷勞), 산람(山嵐), 학질(瘧疾)과 이질(痢疾), 여성의 적백대하(赤白帶下)를 치료한다. 다만 이 양은 석향유(石香薷)를 많이 먹으므로, 장(腸)과 내장(內臟)에 열이 있는 사람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 〔○ 山羊肉은 味甘於家羊하니 食之면 健人筋力이오 其皮는 可爲靴履니라.〕

〔○ 산양(山羊)의 고기는 맛이 가양(家羊)보다 달며, 먹으면 사람의 근력(筋力)을 강화시키고, 가죽으로는 가죽신을 만들 수 있다.〕

馬肉 | 마육

【馬肉】有毒 味苦冷하니 除熱壯筋 馬癰惺을! 脛骨降火 代芩連이오 莖益精氣 陰強猛을 驢肉甘涼 療風狂이오 尿治反胃 吐不省을.

【마육(馬肉)】은 유독하고 맛이 쓰며 약성이 차니, 열을 없애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며 마간(馬癰)을 깨운다. 말의 정강이뼈는 화(火)를 내리는 데 있어, 황금(黃芩)과 황련(黃連)을 대용할 수 있고, 말의 음경(陰莖)은 정기(精氣)를 보익하여 음위(陰痿)를 맹렬하게 강화시킨다. 노새의 고기는 맛이 달고 약성이 서늘하니 광풍(狂風)을 치료하고, 오줌은 반위(反胃)로 인해 구토가 줄어들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 〔易에 曰乾爲馬라하니 言行이 健也라 入藥에 用白者라야 爲勝은 得金之正色也니라.〕

(《주역(主役)》에서는 건(乾)이 말이 된다고 하였으니, 주행(走行)이 강건한 것을 말한다. 약에 넣을 때는 백마(白馬)를 써야 좋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오행 상 금(金)의 정색(正色)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 [○ 馬肉은 主消熱、下氣하며 壯筋骨、強腰脊、強志、輕身이라 又馬癰에 動發無時하며 筋脉을 不收와 周痺로 肌肉不仁에 用肉煮粥커나 或五味를 和食之니 凡食에 須清水로 搗洗三五次하야 以去毒하고 煮得爛熟이라야 方可食이니 食後엔 以清酒로 啜之하고 忌與蒼耳、生姜과 同食이오 有瘡疥人도 勿食이오 馬病疥와 及馬自死者도 不可食이오 五月에 食之면 傷神이니라.]

[○ 말고기는 열을 없애고, 기(氣)를 내리며, 근골(筋骨)을 강성하게 하고, 허리와 척추를 강화하며, 의지(意志)를 강하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한다. 또 마간(馬癰)이 수시로 발작하는 증상, 근맥(筋脈)을 수축하지 못하는 증상, 주비(周痺)로 인해 기육(肌肉)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는 증상 등에, 고기로 죽을 쑂거나 갖은 양념을 해서 먹을 것이니, 먹을 때에는 반드시 많은 물로 3~5회 문질러 씻어서 독을 없애고 푹 익도록 끓여서 먹으며, 식후에는 많은 술을 마신다. 창이자(蒼耳子)와 생강(生薑)을 같이 먹으면 안 되고, 창개(瘡疥)가 있는 사람도 먹어서는 안 된다. 몸에 걸린 말이나 저절로 죽은 말도 먹지 않는다. 음력 5월에 먹으면 정신(精神)을 손상시킨다.]

- [○ 脛骨은 甘寒하니 可代黃芩、黃連하야 以治痰火之疾이니 中氣不足者에 用之니 火燉過하야 細研用이니라.]

[○ 정강이뼈는 맛이 달고, 약성이 차니, 황금(黃芩)과 황련(黃連)을 대용(代用)하여 담화(痰火)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니, 이것은 중기(中氣)가 부족한 사람에게 쓰는 것이다. 불로 달군 후 곱게 갈아서 쓴다.]

- [○ 陰莖은 味鹹甘平하고 無毒이라 主男子陰痿不起하며 益精氣하야 有子라 凡使엔 須當春遊牝時에 力勢正强者를 生取得하야 陰乾百日하야 剉用이니라.]

〔○ 음경(陰莖)은 맛이 짜고 달며, 약성이 평이하고, 독이 없다. 남성의 발기부전(勃起不全)을 치료하며, 정기(精氣)를 보익하여 임신이 가능하게 한다.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봄에 유목할 때 힘과 세력이 정강(正強)한 말에서 산 채로 채취하여, 100일 동안 그늘에서 말리고 썰어서 쓴다.〕

- 〔○ 心은 主喜恚이라 患痢人은 忌食이니라.〕

〔○ 염통은 건망증(健忘症)을 치료한다. 이질(痢疾)을 앓는 사람이 먹는 것은 금한다.〕

- 〔○ 肝은 有毒하니 食之殺人이니라.〕

〔○ 간(肝)은 유독하니, 먹으면 사람을 죽인다.〕

- 〔○ 肺는 主寒熱、莖痿니라.〕

〔○ 폐(肺)는 한열(寒熱)과 발기불능을 치료한다.〕

- 〔○ 懸蹄는 白者는 主白崩하고 赤者는 主赤崩이니라.〕

〔○ 현제(懸蹄)는, 백마(白馬)의 경우 백붕(白崩)을 치료하고, 적마(赤馬)의 경우 적붕(赤崩)을 치료한다.〕

- 〔○ 眼은 主驚癇이니라.〕

〔○ 눈은 경간(驚癇)을 치료한다.〕

- 〔○ 齒는 主小兒驚癇하니 水磨服이니라.〕

〔○ 이빨은 소아의 경간(驚癇)을 치료하니, 물로 갈아서 먹는다.〕

- 〔○ 頭骨은 主多睡하니 作枕하야 枕之니라.〕

〔○ 머리뼈는 잠이 많은 증상을 치료하니, 베개를 만들어 베다.〕

- 〔○ 尾는 主小兒의 馬毒客忤에 取尾하야 於兒面前에 燒之하야 令兒로 吸烟氣而愈니라.〕

[○ 꼬리는 소아의 마독(馬毒)으로 인한 객오(客忤)를 치료하니, 꼬리를 가져다 아이의 얼굴 앞에서 태워 아이가 연기를 마시면 낫는다.]

- [○ 尿는 微溫이라 主吐下血、鼻衄과 及婦人崩中、金瘡止血、男子易病、産後百病에 絞汁하여 和酒 服之요 又杖瘡、打損과 患瘡腫에 中風疼痛者는 炒熨五十遍이면 極効요 多年惡瘡痛과 及剝馬라가 被骨刺하여 中毒欲死者는 傳之거나 或燒灰 傳之면 効요 馬咬、馬汗毒에도 亦效니라.]

[○ 말똥은 약성이 약간 따듯하다. 주로 토혈(吐血), 하혈(下血), 코피, 여성의 붕중(崩中), 금창(金瘡) 등을 지혈한다. 남자의 음역병(陰易病)과 산후 각종 질병에는, 찌서 낸 즙을 술로 먹는다. 매 맞아서 생긴 창상(瘡傷)과 타박상(打撲傷) 및 정종(疔腫)으로 감풍(感風)하여 아픈 경우에는 이것을 볶아서 50회 정도 찜질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다년간의 악창(惡瘡)으로 아프거나 말가죽을 벗기다가 뼈에 찢려서 중독되어 죽을 듯한 경우에는 이것을 붙이거나 태운 재를 붙이면 효과적이고, 말에 물리거나 마한독(馬汗毒)에도 유효하다.]

- [○ 尿는 微寒이라 主消渴하며 破癥瘕 積聚와 男子伏梁 積疝、婦人瘕疾하니 銅器로 承飲之요 頭瘡、白禿、惡刺瘡、乳腫에 取尿하여 熱漬하며 洗之니라.]

[○ 말의 오줌은 약성이 약간 차갑다. 소갈(消渴)을 치료하며, 징가(癥瘕)와 적취(積聚)를 부수고, 남성의 복량(伏梁)과 적산(積疝), 부인의 가질(瘕疾)을 치료하니, 구리 그릇으로 받아서 마신다. 두창(頭瘡), 백독(白禿), 악자창(惡刺瘡), 유종(乳腫)에 오줌을 받아 뜨겁게 해서 담그거나 씻는다.]

- [○ 驢肉은 無毒하니 黑者가 最良이라 主療風狂하며 解心煩、治憂愁不樂、安心氣라 多食이면 動風하며 脂肥는 尤甚이니라.]

〔○ 나귀의 고기는 독이 없다. 검은 것이 가장 좋다. 풍광(風狂)을 치료하며, 심번(心煩)을 해소하고, 근심 걱정으로 우울한 증상을 치료하며, 심기(心氣)를 안정시킨다. 많이 먹으면 풍(風)을 동하게 하는데 비계는 더욱 심하다.〕

- 〔○ 尿는 鹹平하고 小毒이라 主反胃로 吐食不止하니 每二合을 早晚으로 溫飲之면 効요 兼破癥癖、下水毒하며 治牙齒痛이니라.〕

〔○ 나귀의 오줌은 맛이 짜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약간 있다. 반위(反胃)로 계속 음식을 토하는 증상을 치료하니, 한 번에 2홉씩 아침저녁으로 따듯하게 마시면 효과적이다. 아울러 징가(癥瘕)를 부수고, 수독(水毒)을 내리며, 치아의 통증을 치료한다.〕

- 〔○ 尿는 熬之하여 熨風腫、癭瘡하고 絞汁을 服하면 主心腹卒痛、諸疰忤니라.〕

〔○ 나귀의 똥은 볶아서 풍종(風腫)과 누창(癭瘡)에 찜질하고, 짜낸 즙을 먹으면 심복(心腹)의 급성 통증과 각종 주오(疰忤)를 치료한다.〕

- 〔○ 脂는 治久瘡、久聾、癲狂의 不語 不識人하니 和酒 服之요 惡瘡、疥癬、風腫에 研爛하여 傅之요 眼中息肉에 和石鹽하여 點兩眦頭면 一月이면 卽効니라.〕

〔○ 지방은 만성 학질(瘡疾), 만성 이롱(耳聾), 전광(癲狂)으로 말도 못하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하니 술에 섞어서 먹는다. 악창(惡瘡), 개선(疥癬), 풍종(風腫)에는 찢어서 붙인다. 눈 속의 식육(息肉)에는 석염(石鹽)을 섞어서 양쪽 눈초리에 넣으면, 1달 만에 즉효가 나타난다.〕

- 〔○ 皮는 和毛煎膠하여 治一切風毒、骨節疼痛하니 取其發散皮膚之外也요 仍須烏者是 取其水色하여 以制風熱之義也라 凡腹中物을 食之면 皆令筋急이니라.〕

(○ 나귀의 가죽은 털과 같이 고아 아교를 만들어서, 모든 풍독(風毒)과 관절통을 치료하니, 피부 밖으로 발산시키는 힘을 취한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검은 나귀를 선택하는 이유는, 오행(五行) 상 수(水)의 색깔이 풍열(風熱)을 억제하는 의미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나귀에 뱃속에 있는 내장을 먹으면 모두 근육을 수축하게 한다.)

- (○ 驢肉은 辛溫하고 小毒이라 性이 頑劣하니 食之면 不益人이오 孕婦는 忌食이니라.)

(○ 노새의 고기는 맛이 맵고, 약성이 따뜻하며, 약간 독이 있다. 성질이 완고하고 열등하여, 먹으면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임신부에게는 금한다.)

牛乳 | 우유

牛乳甘寒 補血虛요 清熱止渴 潤肌膚를! 羊乳性溫 補腎氣요 更潤心肺 咬蜘蛛를! 酥酪醍醐 俱乳作이오 馬驢乳同 治熱軀를.

우유(牛乳)는 맛이 달고 약성이 차니 혈허(血虛)를 보하고, 열을 식히며 갈증을 멎게 하고 살결을 윤택하게 한다. 양의 젖은 약성이 따뜻하여 신기(腎氣)를 보하고, 또 심폐(心肺)를 윤택하게 하며 거미에 물린 데에 마신다. 연유(煉乳)와 락(酪) 및 제(醍)와 호(醐)는 모두 소와 양의 젖으로 만드는데, 말의 젖과 나귀의 젖도 모두 치료의 효과가 같아서 열(熱)을 몰아낸다.

- (千金方に 云 乳 酪 酥를 燂하야 常食之하면 令人으로 有筋力、膽幹하며 肌體潤澤이오 多食이면 亦令人으로 膨脹、泄利하니 臟寒冷氣人은 禁服이라하니라.)

(《천금방(千金方)》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젖과 락(酪) 및 연유(煉乳)를 가열하여 늘 먹으면 사람이 근력 및 담력(膽力)과 재간(才幹)이 생기고, 피부가 윤택하게 되지만, 많이 먹으면 배가 차오르고 설사하게 하므로, 장

(臟)이 서늘해서 냉기(冷氣)가 있는 사람은 금한다.)

- [○牛乳는 無毒이라 補虛羸、解熱毒、養心肺、止煩渴、潤皮膚요 煎葦撥하야 服하면 治氣痢라 凡服乳에 必煮一二沸하야 停冷服之니 熱食이면 卽壅이오 不欲頓服은 欲得漸消라 與酸物、生魚와 相反하니 令人으로 腹中結癖이라 凡用牛乳와 尿、尿에 黑牛가 勝黃牛니라.]

[○우유(牛乳)는 독이 없다. 허하고 수척함을 보하고, 열독(熱毒)을 해독하며, 심폐(心肺)를 자양(滋養)하고, 번갈(煩渴)을 멎게 하며,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 필발(葦撥)과 함께 달여서 먹으면 기리(氣痢)를 치료한다. 우유를 먹을 때는 반드시 1~2회 끓여서 식으면 먹어야 하니, 뜨겁게 먹으면 바로 막히게 된다. 한꺼번에 먹지 않는 것은 점차적으로 소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신 물질과 날 생선에 상반(相反)하여 뱃속에 벽(癖)이 응결하게 한다. 우유와 소의 똥오줌을 쓸 때에는 흑우(黑牛)가 황우(黃牛)보다 낫다.]

- [○羊乳는 甘하며 無毒이라 補腎虛、益精氣하며 仍潤心肺하며 止消渴、利大腸하며 兼治卒心痛과 及男婦中風、小兒의 驚癇、口瘡 舌腫이오 又蜘蛛咬로 腹大如孕하며 遍身生絲에 生飲之면 卽愈요 蛭蝟入耳에 取灌耳中이면 卽化成水니라.]

[○양의 젖은 맛이 달고, 독이 없다. 신허(腎虛)를 보하고, 정기(精氣)를 보익하며, 심폐(心肺)를 윤택하게 하고, 소갈(消渴)을 멎게 하며, 대장(大腸)을 원활하게 소통시킨다. 아울러 급성 심통(心痛)과 남성과 여성의 중풍(中風), 소아의 경간(驚癇), 구창(口瘡), 설종(舌腫)을 치료한다. 또 거미에 물려서 임신한 듯 배가 볼록해지고, 전신에 실과 같은 모세혈관(毛細血管)이 생긴 경우, 날 것을 마시면 바로 낫는다. 연유(蛭蝟)가 귀에 들어갔을 때, 귓속에 주입하면 곧 녹아서 물이 된다.]

- [○馬驢乳는 性治가 大同하니라.]

[○ 말의 젖과 나귀의 젖은 약성과 효능이 우유(牛乳)나 양유(羊乳)와 거의 같다.]

- [○ 酥는味甘하며 微寒이라 白肥하며 補五臟하며 除肺痿와 心熱·吐血이라.]

[○ 연유(煉乳)는 맛이 달고, 약성이 약간 차다. 희고 기름지게 하며, 오장(五臟)을 보하고, 폐위(肺痿), 심열(心熱), 토혈(吐血)을 없앤다.]

- [○ 酪은味甘酸寒하고 無毒이라 主熱毒하며 止渴하며 除胃中虛熱로 膈痛이라 身面上熱瘡·丹疹에 和塩煮熱하여 摩之요 餘는 與牛羊乳로 治同이니라.]

[○ 낙(酪)은 맛이 달고 시며, 약성이 차고, 독이 없다. 열독(熱毒)을 치료하고, 갈증을 멎게 하며, 가슴 속의 허열(虛熱)로 인한 격통(膈痛)을 없앤다. 신체와 얼굴의 열창(熱瘡)과 단진(丹疹)에 소금과 같이 끓여서 뜨겁게 문지른다. 나머지는 소나 양의 젖과 효능이 같다.]

- [○ 醍醐는 作酪時에 上一重으로 凝者는 爲酪이오 其面上的 如油者는 爲醍醐니 熬之即出하나 不可多得이오 性滑하여 以物盛之면 皆透로대 惟鷄子殼과 及葫瓢로 盛之면 不出이라 味甘平하고 無毒이라 治一切肺病의 咳嗽 膿血不止와 及風濕痺氣·皮膚瘙癢하며 通潤骨髓하며 止驚悸·明目·補虛하니 其功이 優於酥也니라.]

[○ 제호(醍醐)는 낙(酪)을 만들 때, 위에 한 겹으로 응결하는 것이 낙(酪)이고, 그 표면에 기름 같은 것이 제호(醍醐)이다. 가열하면 바로 나오지만 많이 얻을 수는 없다. 성질이 매끄러워서 용기에 담아 놓으면 스며서 나가게 되지만, 계란의 껍질과 호표(葫瓢)에 담으면 빠져 나가지 못한다.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폐병(肺病)으로 인한 모든 해수(咳嗽)와 피고름이 그치지 않는 증상, 풍습비기(風濕痺氣)와 피부의 소양(瘙癢)을 치료하며, 골수(骨髓)를 소통시켜 윤택하게 하며, 경계(驚悸)를 멎게 하고, 눈을 밝히며, 허(虛)를 보하니, 그 효능이 연유(煉乳)보다 낫다.]

- 〔○乳腐는 微寒이라 潤五臟、利大小便、益十二經脉하나 微動氣요 小兒赤白痢에 細切하여 醋漿水로 煮一十餘沸하여 食之면 効니라 已上四種은 乃牛乳、羊乳、馬乳를 或各或合하여 爲之하나니 四種之中에 牛乳가 爲上이오 羊이 次之하고 馬又次之나 而驢乳는 性冷하여 不堪入品矣니라.〕

〔○유부(乳腐)는 약성이 약간 차다. 오장(五臟)을 윤택하게 하고, 대소변(大小便)을 잘 나오게 하며, 십이경맥(十二經脈)에 유익하나, 기(氣)를 약간 동하게 한다. 소아(小兒)의 적백이질(赤白痢疾)에 잘게 썰어 식초와 장수(漿水)로 10여회 끓여서 먹으면 효과가 있다. 이상의 4가지는 우유(牛乳), 양유(羊乳), 마유(馬乳) 등을 각각 혹은 합하여 만드는 것이니, 4가지 중 우유로 만든 것이 최상이고, 양유가 그 다음이며, 마유가 그 다음이 되나, 나귀의 젖은 성질이 차가워서 끼워줄 만한 급이 안 된다.〕

狗肉 | 구육

【狗肉】鹹溫 最補陽이오 陰虛孕婦 豈宜嘗을! 莖治男痿 并女帶요 血醫橫産 及癲狂을! 乳點青盲 經十載요 頭骨壯陽 傳諸瘡을.

【구육(狗肉)】은 맛이 짜고 약성이 따뜻하고 양(陽)을 가장 잘 보하니, 음허(陰虛)한 임신부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는가? 개의 음경(陰莖)은 남성의 발기부전과 여성의 대하(帶下)를 치료하고, 개의 피는 횡산(橫産)과 전광(癲狂)을 치료한다. 개의 젖은 10년 지난 청맹(靑盲)에 넣고, 머리의 빠는 양(陽)을 강성하게 하고 각종 창(瘡)에 붙인다.

- 〔狗는 叩也니 叩聲하여 吠以守也라 肉은 鹹酸하며 有毒이라 壯陽道、補下元、益氣血하며 煖脾胃、厚腸臟하니 食近腰連腎者면 佳니 黃色牡狗로 爲上이오 黑白이 次之라 血極香美하니 去血食之면 不益人이오 狂犬及自死者는 不可食이라 陰虛人이 食之면 發熱難治요 孕婦가 食之면 令兒無聲이오 又不可與大蒜과 同食이오 九月에 食之면 傷神이라 古云 山藥은 涼而能補호대 犬肉은 煖而不補라 하니라.〕

(구(狗)는 두드린다는 뜻이니, 두드리는 소리로 짚어서 지킨다는 의미이다. 개고기는 맛이 짜고 시며, 독이 있다. 양기(陽氣)를 강성하게 하고, 하원(下元)을 보하며, 기혈(氣血)을 보익하고, 비위(脾胃)를 데우며, 장(腸)과 장(臟)을 두텁게 하니, 허리 근처의 신장과 이어진 부분을 먹으면 좋다. 황색이 나는 수컷이 가장 좋고, 검은색과 흰색이 그 다음이다. 피가 아주 향기롭고 맛있으니, 피를 빼고 먹으면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미친개와 저절로 죽은 개는 먹으면 안 된다. 음허(陰虛)한 사람이 먹으면 열이 나게 되는데, 치료하기 어렵다. 임신부가 먹으면 아이가 말하지 못하게 된다. 또 마늘과 같이 먹으면 안 되고, 음력 9월에 먹으면 정신을 손상시킨다. 옛말에 산약(山藥)은 서늘하면서 보하고, 개고기는 따뜻하면서도 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 陰莖은 鹹平하고 無毒이라 六月上伏日에 取하여 陰乾百日하여 用이니 治 勞傷하며 陰痿不起를 令强大하여 有子하고 除女人 帶下十二病이니라.]

(○ 음경(陰莖)은 맛이 짜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음력 6월 상복일(上伏日)에 채취하여 그늘에서 100일 동안 말려서 쓴다. 노상(勞傷)을 치료하며, 발기하지 못하는 음경을 크고 강하게 만들어서 자식을 두게 한다. 여성 대하(帶下)의 12가지 질병을 없앤다.)

- [○ 白狗血은 鹹溫하며 無毒이라 主臨產橫生、血上搶心하나 若孕時에 服之면 令生子 不出이오 又治癲疾發作과 及鬼擊으로 腹痛 失血하니 取熱血하여 飲之하며 并塗身上이오 卒得痼瘡하여 常對在兩腳에 塗之면 立愈니라.]

(○ 흰 개의 피는 맛이 짜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없다. 출산할 때 횡산(橫産)이 되거나 피가 올라서 심장에 부딪치는 증상을 치료하나, 임신 중에 먹으면 분만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 전간(癲癇)의 발작과 귀신에게 맞아서 배가 아프고 피를 흘리는 증상을 치료한다. 뜨거운 피를 받아서 마시고 몸에 바른다. 갑자기 와창(痼瘡)이 양쪽 종아리에 나란히 생겼을 때 바르면 바로 낫는다.)

- [○ 乳汁은 主十年靑盲하니 取白犬生子目未開時의 乳汁하야 注目中이니 狗子眼開면 卽愈니라.]

[○ 젖은 십 년 된 청맹(靑盲)을 치료하니, 흰 개가 낳은 새끼가 아직 눈을 뜨지 않았을 때의 젖을 눈에 넣으면, 새끼가 눈을 뜰 때쯤에는 낫는다.]

- [○ 頭骨은 平하야 補虛、壯陽하며 治頭風眩하며 主崩中、帶下、血痢하니 燒灰酒下요 金瘡에 止血 生肌하며 諸瘡癰、妬乳、癰腫에 燒灰傅之요 附骨疽及魚眼瘡에 燒烟薰之라 餘骨은 主補虛하며 止小兒客忤、驚癇하며 令婦人으로 有子라 黃色者가 佳니 火煨 研用이니라.]

[○ 머리뼈는 약성이 평이하다. 허(虛)를 보하며, 양기(陽氣)를 강성하게 하고, 머리의 풍현(風眩)을 치료한다. 붕중(崩中), 대하(帶下), 혈리(血痢)를 치료하니, 태운 재를 술로 먹는다. 금창(金瘡)에 지혈하고 살을 재생시키며, 각종 창루(瘡癰), 투유(妬乳), 옹종(癰腫)에는 태운 재를 붙인다. 부골저(附骨疽)와 어안창(魚眼瘡)에는 태운 연기를 훈증한다. 나머지 뼈는 허를 보하고 소아의 객오(客忤)와 경간(驚癇)을 멎게 하고, 여성에게 임신을 가능하게 한다. 황색이 좋으니, 불로 달구고 갈아서 쓴다.]

- [○ 腦髓는 主頭風痺、下部 瘡、鼻中息肉이니라.]

[○ 뇌수(腦髓)는 머리의 풍비(風痺), 하부(下部)의 뇌창(腦瘡), 콧속 식육(息肉)을 치료한다.]

- [○ 膽은 苦平하며 小毒이라 主明目、鼻、鼻中息肉하며 去腸中膿水요 又治撲損、刀箭瘡하니 熱酒 調服이면 瘀血이 盡下요 塗諸惡瘡、痂瘍에 有効라 又膽中黃은 謂之狗寶니 治肺經의 風毒、痰火와 癰疽、惡瘡하니 犬夜吠月하며 發狂者에 多有之나 然이나 必自採라야 乃得其眞이라 入藥에 用乾豆腐에 抗一竅하야 入黃於中間하고 合定하야 水煮半日하야 細研用이니라.]

〔○ 쓸개는 맛이 쓰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약간 있다. 눈을 밝게 하고, 비옹(鼻癰)과 콧속의 식육(息肉)을 치료하며, 창자 속의 고름 물을 제거한다. 또 타박상 및 칼과 화살에 의한 창(瘡)을 치료하니, 뜨거운 술에 타서 먹으면 어혈(瘀血)이 다 내려간다. 각종 악창(惡瘡)과 가양(痲瘍)에 바르면 유효하다. 또 쓸개 속의 노란부분은 구보(狗寶)라고 하는데, 폐경(肺經)의 풍독(風毒), 담화(痰火), 옹저(癰疽), 악창(惡瘡)을 치료하니, 밤에 달을 보고 짓으며 발광(發狂)하는 개에게 많다. 그러나 반드시 스스로 채취해야 진품(珍品)을 얻을 수 있다. 약에 넣을 때는 마른 두부에 구멍 하나를 파고 구보를 여기에 넣고, 다시 합해서 고정시킨 것을 물로 반나절 삶아 곱게 갈아서 쓴다.〕

- 〔○ 心은 主憂恚니라.〕

〔○ 심장은 근심과 분노를 치료한다.〕

- 〔○ 肝은 主腳氣衝心이니라.〕

〔○ 간(肝)은 각기(脚氣)가 심장으로 치미는 증상을 치료한다.〕

- 〔○ 腎은 主腎冷이니라.〕

〔○ 콩팥은 사람 신장의 냉(冷)을 치료한다.〕

- 〔○ 齒는 主癰癰、痘疹이니라.〕

〔○ 이빨은 전간(癰癰)과 두진(痘疹)을 치료한다.〕

- 〔○ 四腳蹄는 煮飲之면 下乳汁이니라.〕

〔○ 사각제(四腳蹄)는 삶아서 마시면 젖이 나오게 한다.〕

- 〔○ 山狗는 形如家狗나 腳이 微短하며 好食鮮果肉이라 味는 甘美하고 皮可爲裘니 在處有之라 蜀中出者는 名天狗니라.〕

(○ 산구(山狗)는 형태가 가구(家狗)와 같지만, 다리가 약간 짧고, 신선한 과육(果肉)을 잘 먹는 것이니, 맛은 달고 맛있으며, 가죽으로는 갓옷을 만들 수 있다. 어디든지 있다. 촉(蜀)에서 나는 것을 천구(天狗)라고 한다.)

象肉 | 상육

象肉味淡 不堪飡이오 皮可煎膏 貼瘡癰을! 牙調漩溺 祛勞癰이오 屑善生肌 出刺鑽을! 胷前橫骨 能浮水요 膽用塗瘡 目疾安을.

상육(象肉)은 맛이 담백하여 먹을 만하지 않고, 가죽은 고아서 고약을 만들어 창(瘡)의 흉터에 붙일 수 있다. 상아(象牙)는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잦은 증상을 조절하고 노간(勞癰)을 없애며, 상아의 가루는 살을 잘 재생하고 살을 찢은 물건을 나오게 한다. 가슴 앞에 있는 횡골(橫骨)은 물에 뜨게 하고, 쓸개는 창(瘡)에 바르며 눈의 질환을 안정시킨다.

- [象相也며 大也니 言其形也라 肉味が 淡하야 不堪噉이오 多食이면 令人으로 體重이라 身有十二種肉하야 以配十二辰屬하며 皆有分界나 惟鼻가 是其本肉이라 象은 孕五歲에 始産하야 六十歲라야 骨方完足이니라.]

(상(象)은 모습이며 크다는 뜻으로 형태를 말한 것이다. 고기는 맛이 담백하여 먹을 만하지 않다. 많이 먹으면 사람이 몸이 무거워진다. 몸에 12종류의 고기가 있어서 12개의 별에 각각 배속하며 모두 분리된 경계가 있지만, 코만은 본육(本肉)이 된다. 코끼리는 임신한 지 5년이 지나야 출산하며, 60세가 되어야 뼈가 완전해진다.)

- [○ 皮는 煎膏藥하면 去腐生新하야 易於歛口니라.]

(○ 가죽은 고아서 고약을 만어 쓰면, 썩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이 돌아나게 하며 창구(瘡口)를 잘 아물게 한다.)

- [○ 牙는 治小便不通하나 生煎服之요 小便多엔 燒灰服之요 骨蒸勞、風癰熱에 灸令略黃하야 剉末用之라 生爲屑은 主諸瘡、痔瘻、生肌 填口에 最速이오 入 諸鐵과 及雜物이 刺入肉에 刮屑을 和白梅水하야 研傅之면 立出이오 若刺와 及諸骨鯁이 在喉中者는 水調服之라 凡使에 舊牙梳가 尤佳니라.]

[○ 상아(象牙)는 소변불통(小便不通)을 치료할 때는 날것을 달여 먹고, 소변이 많을 때는 태운 재를 먹는다. 골증(骨蒸), 노풍(勞風), 간열(癰熱)에는 약간 노랗게 구워서 썰고 분말로 만들어 쓴다. 날것으로 만든 가루는 각종 창(瘡)과 치루(痔瘻)에 살을 재생시키며 상처 입구를 메우는 데 가장 효과가 빠르다. 각종 쇠와 잡물(雜物)이 근육에 박혔을 때, 가루를 곁어서 백매수(白梅水)와 섞어서 갈아 붙이면 바로 나오게 한다. 가시와 각종 뼈가 목에 걸린 환자는 물에 타서 먹는다. 쓸 때에 오래된 상아로 만든 빗이 더 좋다.]

- [○ 胃前小橫骨을 燒灰酒下면 令人으로 能浮水出沒이니라.]

[○ 가슴 앞 작은 횡골(橫骨)을 태워서 술로 먹으면 사람이 물에 뜨게 하며 출몰(出沒)하게 만들 수 있다.]

- [○ 膽不附肝하고 隨四時하야 在四腿의 諸肉中하니 春前左、夏前右、秋後左、冬後右하나니 主明目하며 治疳이라 以清水로 和塗瘡腫上이면 差요 口中이면 治口臭니라.]

[○ 쓸개는 간에 붙어있지 않고 사계절을 따라 네 다리의 여러 근육에 있다. 봄에는 왼쪽 앞다리, 여름에는 오른쪽 앞다리, 가을에는 왼쪽 뒷다리, 겨울에는 오른쪽 뒷다리에 있다. 눈을 밝히고, 감병(疳病)을 치료한다. 청수(清水)로 창종(瘡腫)에 개어 바르면 낫고, 입에 머금으면 구취(口臭)를 치료한다.]

- [○ 眼睛은 主目疾하니 和乳汁하야 點之니라.]

[○ 눈동자는 사람의 눈 질환을 치료하니, 젖에 개어서 눈에 넣는다.]

虎肉 | 호육

虎肉酸平 祛邪瘧이오 壯氣又能 止嘔惡를 豹肉大同 健骨筋이오 脂善生髮 塗腦角을.

호육(虎肉)은 맛이 시고 약성이 평이하니 사기(邪氣)와 학질(瘧疾)을 없애고, 기(氣)를 왕성하게 하며 또 구토(嘔吐)와 오심(惡心)을 멎게 한다. 표범의 고기도 거의 같으며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표범의 지방은 머리카락을 잘 나게 하고 뇌각(腦角)에 바른다.

- 〔虎肉은 無毒하고 治瘧疾、益氣力、止嘔吐 惡心이라 食之 入山하면 辟邪魅하며 虎見益 라 藥箭射處는 有毒하고 熱食이면 損齒하며 小兒齒未生에 不宜食이오 正月에 食之면 傷神이라 其脛骨等은 見前卷하니라 但 虎、鹿、兔는 壽俱千歲나 五百歲에 毛俱變白이오 熊은 五百歲에 能化爲狐狸요 獼猴는 八百歲에 化爲猿하고 猿은 五百歲에 變爲獼하고 獼은 一千歲에 變爲蟾蜍요 狼은 壽八百歲하되 三百歲면 善變人形이니라.〕
〔호랑이의 고기는 독이 없다. 학질(瘧疾)을 치료하고, 기력(氣力)을 보익하며, 구토(嘔吐)와 오심(惡心)을 멎게 한다. 이것을 먹고 산으로 들어가면, 사악한 도깨비를 물리치고, 호랑이가 보면 더 두려워한다. 독약을 바른 화살에 맞은 부위는 독이 있고, 뜨겁게 먹으면 치아(齒牙)를 손상하며, 이가 아직 나지 않은 소아가 먹어서는 안 되고, 정월(正月)에 먹으면 정신을 손상시킨다. 정강이뼈 등에 대한 설명은 앞 권에 나온다. 다만 호랑이, 사슴, 토끼는 수명이 1000년인데, 500세만에 털이 모두 희게 변한다. 곰은 500세만에 여우와 살쥔이로 변한다. 미후(獼猴)는 800세만에 원(猿)으로 변하고, 원(猿)은 500세만에 확(獼)으로 변하며, 확은 1000세만에 두꺼비로 변한다. 이리는 800세를 사는데, 300세가 되면 사람의 모습으로 잘 변한다.〕

- 〔○ 豹肉은 酸平하고 無毒이라 主安五臟、補絕傷、輕身、益氣하며 壯筋骨、強志氣하고 久服이면 耐寒暑하야 令人으로 猛健이오 正月에 食之면 傷神이라 寢其皮면 可以祛瘟疫하며 辟鬼魅 神邪니라.〕

〔○ 표범의 고기는 맛이 시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오장(五臟)을 안정시키고, 끊어진 손상을 이어주며, 몸을 가볍게 하고, 기(氣)를 북돋으며, 근골(筋骨)을 튼튼하게 하고, 지기(志氣)를 강하게 한다. 장복하면 추위와 더위를 견디게 하며, 사람을 용맹하고 튼튼하게 만든다. 정월(正月)에 먹으면 정신을 손상시킨다. 이 가죽을 깔고 잠을 자면 온역(瘟疫)이 없어지고, 귀신과 도깨비 및 신사(神邪)를 물리친다.〕

- 〔○ 脂는 合生髮藥하면 朝塗暮生이니라.〕

〔○ 지방은 머리카락이 나게 하는 약과 혼합하여 아침에 바르면 저녁에 머리카락이 나온다.〕

- 〔○ 頭骨은 燒灰淋汁으로 浴頭去風屑하고 齒骨은 極堅하야 刀不能斫하며 火不能燒하니 有詐爲佛骨하야 以誑俗이니라.〕

〔○ 머리의 뼈는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흘러내린 즙으로 머리를 감으면 풍설(風屑)을 없애며, 치아의 뼈는 아주 단단하여 칼로 자르지 못하고 불로 태울 수도 없다. 거짓으로 부처의 뼈라 하며 세상 사람들을 속이기도 한다.〕

熊掌 | 웅장

熊掌食之 風寒當이오 膏肉治痺 急筋強을! 膽苦明目 塗瘡痔요 小兒驚風 積癰良을!
殺蟲消疸 止久痢요 古人夜讀 作丸嘗을.

웅장(熊掌)은 먹으면 풍한(風寒)을 견디고, 기름과 고기는 비(痺)로 인해 근육이 뻣뻣해진 증상을 치료한다. 쓸개는 맛이 쓴데 눈을 밝히며 창(瘡)과 치질(痔疾)에 바르며, 소아의 경풍(驚風)과 적취(積聚) 및 간질(癎疾)에 좋다. 벌레를 죽이고 황달(黃疸)을 없애며 만성 이질(痢疾)을 멎게 하는데, 옛사람들은 밤에 독서할 때 환(丸)으로 먹었다.

- [熊은 雄也니 猛噉多力하야 能拔大木 故로 書에 曰 以有熊羆之士라하니 以力으로 言也라 熊掌은 是八珍之數니 須用酒醋水로 同煮라야 乃可熟이라 此物은 能舉木引氣하며 不食하고 飢則自舐其掌 故로 美在其掌하니 久食之면 可禦風寒諸疾이니라.]

(웅(熊)은 강하고 힘이 있다는 의미이니, 사납게 물고, 힘이 세서 커다란 나무도 뽑을 수 있으므로, 《서경(書經)》에서 웅비지사(熊羆之士)라고 말한 것이니, 그 힘을 말한 것이다. 곰의 발바닥은 팔진지수(八珍之數)에 드는 것으로, 반드시 술과 식초물로 같이 끓여야 익게 할 수 있다. 곰은 나무를 들어서 기를 빼고, 먹지 않기도 하며, 배고프면 스스로 발바닥을 핥기 때문에, 맛이 그 발바닥에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먹으면 풍한(風寒)의 각종 질환을 막을 수 있다.)

- [○ 膏與肉은 味甘微寒하고 無毒이라 主風痺、筋骨不仁하며 補虛損、殺勞蟲、去頭瘍、白禿、面上疥癩하고 久食하면 強志、輕身이라 凡腹中에 有積聚、癎疾者가 食之면 終身不愆<愈>이오 十月에 食之면 傷神이라 雷公이 云 每脂一斤에 入生椒 十四粒하야 同煉하야 去革膜하고 收瓶中이라가 任用이라 하니라 若與猪脂와 燃燈하야 烟入目中이면 卽失明이오 但熊은 惡鹽하니 食之 卽死니라.]

(기름과 고기는 맛이 달고, 약성이 약간 차며, 독이 없다. 풍비(風痺)와 곤골불인(筋骨不仁)을 주치하고, 허손(虛損)을 보하며, 노충(勞蟲)을 죽이고, 두양(頭瘍)과 백독(白禿) 및 얼굴 위의 기미와 여드름을 제거한다. 오랫동안 먹으면 의지(意志)를 강하게 하며, 몸을 가볍게 만든다. 뱃속에 적

취(積聚)와 고질(痼疾)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죽을 때까지 낫지 않는다.
음력 10월에 먹으면 정신(精神)을 손상시킨다. 뇌공(雷公)이 다음처럼 말했다. 기름 1근에 산초 14알을 넣고 같이 불에 녹여서 가죽과 막(膜)을 없애고 병 속에 모아두었다가 임의대로 쓴다. 만약 돼지기름과 섞어 등불을 피워서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실명한다. 다만 곰은 소금을 싫어하니, 소금을 먹으면 바로 죽는다.)

- [○ 膽은 苦寒이라 點眼하면 去翳・開盲하고 塗惡瘡・痔瘻면 最良이오 治小兒風熱驚癇하며 殺疳蟲・療黃疸・止久痢라 古人이 敎子夜讀에 粉苦參・熊膽을 爲丸 與之하야 吞一二枚하야 以資勤苦者는 蓋夜讀이 久則血不歸肝 而火衝頭目하야 朝旦面黃하나니 用此하야 降火和肝則血脉이 流通하며 津液이 暢潤하리니 痰・火・瘡疥之病이 從何而生이리오 服苦之意는 與此相同하니 라 又云 其膽이 春在首하고 夏在腹하고 秋在左足하고 冬在右足이나 然이나 亦多僞하니 欲試之(진)덴 取栗顆許하야 滴水中에 一道若線하며 不散者라야 眞이오 入藥엔 另研이니라.]

[○ 쓸개는 맛이 쓰고, 약성이 차다. 눈에 넣으면 예막(翳膜)을 없애서 눈이 보이게 된다. 악창(惡瘡)과 치루(痔瘻)에 바르면 가장 좋다. 소아의 풍열(風熱)과 경간(驚癇)을 치료하며, 감충(疳蟲)을 죽이고, 황달(黃疸)을 치료하며, 만성 이질(痢疾)을 멎게 한다. 옛사람들이 자식들을 밤에 독서하게 할 때, 고삼(苦參) 가루와 웅담(熊膽)으로 환(丸)을 만들어 주어서, 1~2알을 삼키게 하여 힘들고 괴로움을 줄여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개 야간 독서를 오래 하면 피가 간(肝)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화기(火氣)가 머리와 눈으로 상충(上衝)하므로 아침에 얼굴이 누렇게 되는데, 이것으로 화(火)를 내리고 간을 고르게 하면, 혈액이 잘 소통하게 되고 진액(津液)이 윤택하게 되니, 담화(痰火)와 창개(瘡疥)의 질환이 어떻게 발생하겠는가? 쓴 맛의 약을 먹는 뜻은 대체로 이와 같다. 또 다음처럼 말했다. 곰의 쓸개는, 봄에는 머리에 있고, 여름에는 배에 있으며, 가을에는 왼발에 있

고, 거울에는 오른발에 있는데, 가짜가 많으므로, 진위(眞僞)를 구별하려면 좁쌀만큼을 취하여 물속에 떨어뜨려 보아, 한 줄로 내려가서 흩어지지 않는 것이라야 진품이다. 약에 넣을 때는 따로 갈아서 쓴다.)

- [◦ 熊는 大於熊하고 貔는 似虎猫나 小於虎而淺毛하니 三獸는 俱陽物로 功用이 同熊虎니라.]

(◦ 비(熊)는 곰보다 크고, 비(貔)는 호랑이나 고양이와 비슷하지만, 호랑이보다 작고 털이 얇다. 이 세 짐승은 모두 양물(陽物)로서 효능이 곰이나 호랑이와 같다.)

鹿肉 | 녹육

鹿肉補虛 又療風이오 血止諸血 治肺癰을! 陰痿腰疼 俱可服이오 髓堅筋骨 治傷中을! 麋肉補氣 脂逐痺요 虛勞血病 羨角茸을.

녹육(鹿肉)은 허(虛)를 보하고 또 풍(風)을 치료하며, 사슴의 피는 각종 출혈을 멎게 하고 폐옹(肺癰)을 치료한다. 발기부전(勃起不全)과 요통(腰痛)에 모두 먹을 수 있고, 골수(骨髓)는 근골(筋骨)을 튼튼하게 하고 중초(中焦)의 손상을 치료한다. 큰사슴의 고기는 기(氣)를 보하고 기름은 비(痺)를 몰아내며, 허로(虛勞)와 혈병(血病)에는 녹각(鹿角)과 녹용(錄用)이 필요하다.

- [鹿肉은 甘溫하며 無毒이라 益中氣、調血脉、補虛羸하고 生肉은 貼中風口偏하니 左患貼右하고 右患貼左하야 正卽除之라 蹄肉은 主諸風、腳膝疼痛이오 頭肉은 主消渴、夜夢하니 九月後正月前에 食之則宜요 五月에 食之하면 傷神이라 凡餌藥之人은 不可多食이니 能解藥力이니라.]

[사슴의 고기는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없다. 중기(中氣)를 복돋우고, 혈맥(血脈)을 고르게 하며, 허리(虛羸)를 보한다. 날고기는 중풍(中風)으로 입이 돌아갔을 때 붙이는데, 왼쪽으로 돌아간 경우에는 오른쪽에 붙이고, 오른쪽으로 돌아간 경우에는 왼쪽에 붙여, 바르게 되면 뎀

다. 제육(蹄肉)은 각종 풍(風)과 종아리와 무릎의 통증을 치료한다. 머리
고기는 소갈(消渴)과 야몽(夜夢)을 치료하니, 음력 9월 이후에서부터 정
월(正月) 이전에 먹는 것이 적합하다. 음력 5월에 먹으면 정신(精神)을 손
상시킨다. 약을 먹는 사람은 많이 먹어서는 안 되니, 약의 힘을 풀어버리
기 때문이다.)

- (○ 血은 主肺痿、肺癰、吐血、衄血及崩中、帶下하며 止飢渴、充氣血、起
陰痿、止腰痛하니 生刺和酒하야 服之니라.)

(○ 피는 폐위(肺痿), 폐옹(肺癰), 토혈(吐血), 코피, 붕중(崩中), 대하(帶
下)를 치료하고, 허기(虛氣)와 갈증을 멎게 하며, 기혈(氣血)을 채우고, 음
경(陰莖)을 발기시키며, 요통(腰痛)을 멎게 하니, 살아있는 사슴을 찢어서
피를 받아 술에 타서 먹는다.)

- (○ 髓는 甘溫이라 主男婦의 傷中、絶脉、筋骨急痛、欬逆에 以酒로 和服이오
又同地黃煎膏면 填骨髓요 蜜煮食이면 壯陽하야 令人으로 有子요 腦髓는 堪
入面脂니라.)

(○ 골수(骨髓)는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다. 남성과 여성의 중초손상(中
焦損傷), 맥이 끊어진 증상, 근골(筋骨)이 당기듯 아픈 증상, 해역(咳逆)을
치료하니, 술과 함께 먹는다. 또 지황(地黃)과 같이 고아서 고약을 만들면
골수(骨髓)를 채우고, 꿀과 함께 끓여 먹으면 양기(陽氣)를 강성하게 하여
임신을 하게 만든다. 뇌수(腦髓)는 얼굴에 바르는 기름에 넣어 쓸 수 있
다.)

- (○ 脂는 主癰腫、死肌、四肢不隨하며 治頭風、通腠理니라.)

(○ 지방은 옹종(癰腫), 죽은 살, 사지불수(四肢不隨)를 주치하며, 두풍(頭
風)을 치료하고, 주리(腠理)를 소통시킨다.)

- (○ 腎은 平하니 補腎、壯陽하며 及腎氣虛損耳聾에 作酒及煮粥하야 食之니
라.)

〔○ 콩팥은 약성이 평이하니, 사람의 신장(腎腸)을 보하고, 양기(陽氣)를 강성하게 하며, 신기(腎氣)가 허손(虛損)해서 발생한 이롱(耳聾)에 술을 담그거나 죽을 쑤어서 먹는다.)

- 〔○ 筋은 主勞損、續絶이니라.〕

〔○ 근육은 허로(虛勞)로 인한 손상을 치료하고, 끊어진 손상을 잇는다.)

- 〔○ 骨은 甘熱하니 補虛勞하며 安胎、下氣하고 浸酒면 療風虛니라.〕

〔○ 뼈는 맛이 달고 약성이 뜨거우니, 허로(虛勞)를 보하고, 안태(安胎)하며, 기(氣)를 내린다. 술에 담그면 풍허(風虛)를 치료한다.)

- 〔○ 齒는 主留血氣、鼠癭、心腹痛이니라.〕

〔○ 이빨은 정체된 혈기(血氣), 서루(鼠癭), 심복(心腹)의 통증을 치료한다.)

- 〔○ 角、茸、膠는 見前卷하니라 大抵 鹿之一身은 皆能益人하니 野族의 第一品也니 或脯或煮 或蒸이니 俱宜和酒하여 食之니라.〕

〔○ 녹각(鹿角)과 녹용(錄用) 및 녹각교(鹿角膠)는 앞 권에 나온다. 대개 사슴의 모든 부위는 사람에게 유익하니, 야생동물 중 가장 뛰어나다. 혹은 육포(肉脯)를 만들거나 삶거나 찌서 모두 술과 같이 먹는다.)

- 〔○ 麋肉은 甘溫이라 補中、益氣、健腰脚하니 不可合 雉、鰕、生菜、梅李의 果實하여 同食이니라.〕

〔○ 미육(麋肉)은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다. 중초(中焦)를 보하고, 기(氣)를 북돋우며, 허리와 종아리를 튼튼하게 한다. 꿩고기, 새우, 생채(生菜), 매실, 자두 등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

- 〔○ 脂는 辛溫하니 通腠理、柔皮膚하여 療癰腫、惡瘡、死肌、風寒濕痺、頭風腫痛하니 如面生皰瘡에 塗之即差니라.〕

(○ 지방은 맛이 맵고, 약성이 따뜻하니, 주리(瘵理)를 소통시키고, 피부를 부드럽게 한다. 응종(癰腫), 악창(惡瘡), 죽은 살, 풍한습비(風寒濕痺), 두풍종통(頭風腫痛)을 치료한다. 얼굴에 생긴 여드름에 바르면 바로 낫는다.)

- (○ 뼈는 除虛勞에 最良이오 煮骨汁으로 釀酒飲之면 令人으로 肥白 美顏色이니라.)

(○ 뼈는 허로(虛勞)를 없애는 데에 가장 좋다. 달인 뼈의 즙으로 술을 빚어서 마시면 사람이 희고 살이 찌며 안색(顏色)이 좋아진다.)

- (○ 角은 甘溫하고 無毒이라 補一切血病하며 止血、益氣、添精、壯陽하며 治風痺、腰腳不仁하며 亦可煎膠니라.)

(○ 뿔은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없다. 모든 혈병(血病)을 보하고, 지혈(止血)하며, 기(氣)를 보익하고, 정(精)을 채우며, 양기(陽氣)를 왕성하게 한다. 풍비(風痺) 및 허리와 종아리가 마비된 증상을 치료하며, 녹각교(鹿角膠)와 같이 고아서 쓸 수 있다.)

- (○ 茸은 服之면 功同鹿茸하나 先輩가 云 鹿茸은 補陰하고 麋茸은 補陽이라고 一云하되 鹿勝麋라 하고 一云하되 麋勝鹿이라 하니 要知麋性是 與鹿性으로 一同하야 盡皆甘溫補陽之物이라 有謂鹿骨과 麋肉이 近陰則痿者는 全非니라.)

(○ 미용(麋茸)을 먹으면 효능이 녹용(鹿茸)과 같은데, 선배들은 녹용은 음(陰)을 보하고, 미용은 양(陽)을 보한다고 말했다. 일설에는 녹용이 미용보다 낫다고 하고, 또 일설에는 미용이 녹용보다 낫다고 하였다. 요컨대 미용과 녹용은 성질이 같고, 모두 단 맛과 따뜻한 성질로 양(陽)을 보하는 물질임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사슴의 뼈와 큰사슴의 고기가 음경(陰莖)에 닿으면 음위(陰痿)가 된다고 하였지만, 완전히 틀린 말이다.)

麋肉 | 장육

麋肉益人 治心麓요 骨止洩精 釀酒哺耑! 臍下有香 仍補損이오 麋肉甘平 痔可除를.

장육(麋肉)은 사람에게 유익하고 심성(心性)이 거친 것을 치료하고, 노루의 뼈는 설정(洩精)을 멎게 하니 술을 담아 먹는다. 배꼽 아래 향(香)이 있는데 허손(虛損)을 보하고, 노루의 고기는 맛이 달며 약성이 평이하고 치질(痔疾)을 없앤다.

- [道家는 以 麋鹿肉으로 爲白脯하나니 不是腥膩 故也라 味甘溫하고 無毒이라 補人하나 心麓者 食之면 減性하고 膽小者 食之면 愈怯이오 八月至十一月에 食之면 甚美나 餘月에 食之多則動氣니라.]

[도가(道家)에서는 노루 고기로 흰 육포를 만드는데, 비리고 기름기가 없기 때문이다.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없다. 심성이 거친 사람이 먹으면 성질을 죽여주고, 담력(膽力)이 작은 사람이 먹으면 더 겁을 먹게 된다. 음력 8월부터 11월까지 먹으면 아주 맛있지만, 나머지 달에 많이 먹으면 기(氣)를 동하게 한다.]

- [○ 骨은 鹹平이라 主洩精하며 益精하고 釀酒하면 有補下之功이니라.]

[○ 뼈는 맛이 짜고, 약성이 평이하다. 설정(洩精)을 치료하고, 정(精)을 보익한다. 술을 담으면 하초(下焦)를 보하는 효능이 있다.]

- [○ 髓는 益氣·悅顏이니라.]

[○ 골수(骨髓)는 기(氣)를 보익하고, 안색(顔色)을 좋게 한다.]

- [○ 臍下에 有香하니 治一切虛損이니라.]

[○ 배꼽 아래에 향(香)이 있는데, 모든 허손(虛損)을 치료한다.]

- [○ 麋肉은 無毒이라 主五痔病하니 以姜醋로 食之면 大効요 多食이면 發瘡疾、瘡癰하며 墮胎니라.]

[○ 노루의 고기는 독이 없다. 다섯 가지 치질(痔疾)을 치료하니, 생강(生薑)과 식초로 요리해서 먹으면 매우 효과적이지만, 많이 먹으면 고질(瘡疾)과 창절(瘡癰)을 유발하며, 낙태(落胎)시킨다.]

- [○ 頭骨은 燒灰飲下면 治鬼疰、飛尸니라.]

[○ 머리뼈는 태워서 재를 마시면 귀주(鬼疰)와 비시(飛尸)를 치료한다.]

- [○ 皮는 可作履니라.]

[○ 가죽은 신을 만들 수 있다.]

兔肉 | 토육

兔肉甘平 不益人이오 腦髓皮毛 救産屯을! 頭止頭眩 肝明目이오 尿治痔疾 血來頻을.

토육(兔肉)은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니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뇌수(腦髓) 및 가죽과 털은 난산(難産)을 구치(求治)한다. 머리뼈는 두현(頭眩)을 멎게 하고 간(肝)은 눈을 밝게 하며, 똥은 치질로 인한 잦은 출혈을 치료한다.

- [兔는 吐也니 言生子에 從口中吐出이라 肉은 多食이면 損元氣하며 弱陽事하며 令人으로 痿黃이오 若合白鷄肉하야 食하면 面發黃이오 合獺肉食하면 病遁尸요 合姜橘食이면 令心痛、霍亂이오 孕婦는 忌食이오 二月에 食之면 傷神이오 兔死眼合者는 殺人이라 衍義에 云 兔有白毛者는 全得金氣也니 入藥尤効요 餘兔는 至秋浚時則可食은 金氣全也니 纔至春夏면 其肉味 變하나니라.]

(토(兔)는 토한다는 뜻이니, 새끼를 낳을 때 입에서 토해낸다는 것이다. 고기는 많이 먹으면 원기(元氣)를 손상시키고, 성적(性的) 능력을 약화시키며, 사람을 수척하고 누렇게 변하도록 한다. 만약 흰 닭고기와 같이 먹으면, 얼굴이 누런빛으로 변하고, 수달의 고기와 같이 먹으면 둔시(遁尸)를 앓게 하며, 생강(生薑)이나 굴과 같이 먹으면 심장통(心臟痛)과 곽란(霍亂)을 앓게 한다. 임신부에게는 금한다. 음력 2월에 먹으면 정신(精神)을 손상시키고, 토끼가 죽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먹으면 죽는다. 《본초연의(本草衍義)》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털이 흰색인 토끼는 금기(金氣)를 온전히 얻은 것이니, 약에 넣으면 효과가 오묘하다. 나머지 토끼는 깊은 가을이 되어야만 먹을 수 있는데, 이 시기에 금기가 온전하기 때문이다. 봄과 여름이 되면 고기의 맛이 변한다.)

- [○ 腦髓는 滑産하며 塗凍瘡、手足皸裂이니라.]

(○ 뇌수(腦髓)는 부드럽게 출산하게 하며, 동창(凍瘡)과 손발 터진 데에 바른다.)

- [○ 頭骨은 平하고 無毒하니 主頭眩痛、癲疾이라 和皮毛하야 燒灰爲丸하야 酒下면 主難産、催生하며 并産後胎衣不下와 瘀血衝心하야 脹痛欲死者에 極効요 産後陰下脫엔 單燒頭하야 末을 傳之요 癰疽、惡瘡엔 取頭細剉하야 甌內蒸熟하야 塗帛上하야 貼之니라.]

(○ 머리뼈는 약성이 평이하고, 독이 없다. 두현통(頭眩痛)과 전질(癲疾)을 치료한다. 가죽과 털을 같이 태운 재를 환약(丸藥)으로 만들어서 술로 먹으면, 난산(難産)을 치료하여 출산(出産)을 촉진하며, 산후에 태반이 나오지 않는 증상, 어혈(瘀血)이 심장에 충돌하여 차오르면서 아파서 죽을 듯한 증상 등에 극히 효과적이다. 산후(産後) 자궁(子宮)이 하탈(下脫)한 경우에는 단방(單方)으로 머리를 태운 재를 분말로 만들어 붙인다. 옹저(癰疽)와 악창(惡瘡)에는 머리를 잘게 썰어서 시루에서 찌 익히고 비단 위에 발라서 붙인다.)

- 〔○ 骨은 主熱中으로 消渴、小便不禁이니라.〕

〔○ 뼈는 열중(熱中)으로 인한 소갈(消渴)과 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 〔○ 肝은 主明目、退翳하니 和決明子末 爲丸하야 每晚에 白湯으로 送下니라.〕

〔○ 간(肝)은 눈을 밝게 하고 예장(翳障)을 물리치니, 결명자(決明子) 분말과 같이 환약(丸藥)을 만들어 매일 저녁 백탕(白湯)으로 넘긴다.〕

- 〔○ 尿는 主痔瘡疼痛 下血不止하니 慢火로 炒黃爲末하야 每三錢에 入乳香末 五分하야 酒下요 小兒月蝕爛瘡에 取尿하야 內蝦蟆腹中 燒灰하야 傳之니라.〕

〔○ 똥은 치창(痔瘡)으로 아프고 하혈(下血)이 그치지 않는 증상을 치료하니, 약한 불로 노랗게 볶고 분말로 만들어서 한 번에 3돈씩 유향말(乳香末) 5푼을 넣고 술로 먹는다. 소아의 월식란창(月蝕爛瘡)에는 똥을 채취하여 두꺼비 배속에 넣어서 태운 재를 붙인다.〕

狸肉 | 이육

狸肉甘溫 味最佳요 骨醫痔瘻 効堪誇를! 諸疰刺皮 攻心腹이오 頭骨治噎 及風邪를!
家狸甘酸 主勞瘵요 能消鼠癰 滿頸遮를.

이육(狸肉)은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며 맛이 가장 좋고, 뼈는 치루(痔瘻)를 치료하는데 그 효과는 자랑할 만하다. 각종 만성 전염병이 피부를 찌르는 듯하고 심복(心腹)을 공격하는 증상을 치료하고, 머리뼈는 딸꾹질과 풍사(風邪)를 치료한다. 집고양이 고기는 맛이 달고 시며 노채(勞瘵)를 치료하고, 서력(鼠癰)이 목덜미에 가득한 증상을 없앤다.

- 〔狸는 理也니 脊間에 有黑理一道하며 其類가 甚多有也라 節狸、玉面狸、風狸、香狸의 肉은 甘하며 無毒하니 食品으로 佳者也라 或作羹食커나 或炙末하야 酒下니 治與骨로 同이니라.〕

(리(狸)는 결이라는 뜻이니, 척추 사이에 검은 결이 한 줄 나있다. 그 종류가 아주 많다. 절리(節狸), 옥면리(玉面狸), 풍리(風狸), 향리(香狸) 등의 고기는 맛이 달고, 독이 없으니, 식품(食品)으로 가장 좋다. 국을 끓여 먹거나 구워서 분말로 만들어 술로 먹는데, 효과는 빠와 같다.)

- [○ 骨은 主痔瘡、鼠癭하니 灸爲末하야 和麝香、雄黃하야 爲丸服이면 甚効라 又治風疰、尸疰、鬼疰의 毒氣가 在皮中淫躍하야 如針刺者와 心腹痛의 走無常處와 及惡瘡、遊風과 食野烏中毒하니 俱燒灰服이니 頭骨이 尤良이라 單炒爲末하야 治噎病으로 不通飲食이오 燒灰酒下면 治一切風이라 又頭、蹄骨의 等分을 酥灸爲末하야 空心에 粥飲으로 下一錢이면 治療癰이 腫硬、疼痛、久不愈者에 効니라.]

[○ 빠는 치창(痔瘡)과 서루(鼠癭)를 치료하니, 구워서 분말로 만들어 사향(麝香)과 옹황(雄黃)을 섞어 환(丸)으로 만들어 먹으면 아주 효과적이다. 또 풍주(風疰), 시주(尸疰), 귀주(鬼疰)의 독기가 피부 속에서 분출하여 침을 맞는 듯한 증상과 특정 부위 없이 심복통(心腹痛)이 돌아다니는 증상, 악창(惡瘡)과 유풍(遊風), 야생 까마귀 고기에 중독된 증상 모두의 경우에 태운 재를 먹는데, 머리빠가 더 좋다. 단방(單方)으로 볶아서 분말로 만들어 열격(噎膈)으로 음식을 소통시키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태운 재를 술로 먹으면 모든 풍(風)을 치료한다. 또 머리빠와 발굽의 빠를 같은 양으로 연유(煉乳)로 구워서 분말로 만들어 공복에 미음으로 1돈씩 먹으면 나력(癰癰)이 딱딱하게 굳어 붓고 아프며 오랫동안 낫지 않는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

- [○ 陰莖은 主女人月水不通、男子陰癰하니 燒灰하야 東流水로 送下니라.]

[○ 음경(陰莖)은 여성의 월경불통(月經不通)과 남성의 음퇴(陰癰)를 치료니, 태운 재를 동쪽으로 흐르는 물로 먹는다.]

- [○ 尿는 主寒熱鬼瘡이 發無期度者하니 燒灰用之면 極効니라.]

(○ 똥은 한열귀학(寒熱鬼瘡)이 아무 때나 발작하는 증상을 치료하니, 태운 재를 쓰면 아주 효과적이다.)

- (○ 家狸는 卽猫也니 肉이 微寒이라 主勞瘵로 骨熱 痰多하며 又治鼠瘻의 腫核疼痛과 已有瘡하야 出膿血者하니 煮作羹하야 空心에 食之요 蝎이 螫人하야 痛不止에 以屎로 塗之니라.)

(○ 가리(家狸)는 바로 집고양이니, 고기는 약성이 약간 차다. 노채(勞瘵)로 인해 뼈가 뜨겁고 담(痰)이 많은 증상을 치료한다. 또 서루(鼠瘻)에 종핵(腫核)이 있으면서 아픈 증상과 이미 창(瘡)이 생겨서 피고름이 나오는 환자를 치료하니, 국으로 끓여서 공복에 먹는다. 전갈에 쏘여서 통증이 계속될 때에는 집고양이의 똥을 바른다.)

狐肉 | 호육

狐肉補虛 治健忘이오 更消冷積 及惡瘡을! 心肝生服 治妖魅요 莖主絕產 陰中痒을.

호육(狐肉)은 허(虛)를 보하고 건망증(健忘症)을 치료하고, 또 냉적(冷積)과 악창(惡瘡)을 없앤다. 심장(心腸)과 간(肝)을 날것으로 먹으면 요매(妖魅)를 치료하고, 음경(陰莖)은 불임(不妊)과 음경 속이 가려운 증상을 치료한다.

- (狐性は疑하니 疑則不可以合 故로 從孤라 肉은 甘溫하며 有毒이라 主補虛勞로 精神恍惚、健忘、語言無度하며 兼消五臟積冷하며 治惡瘡疥、蠱毒하니 作羹食之니라.)

(여우의 성질은 의심을 잘 하는 것인데, 의심이 많으면 다른 동물과 같이 있지 못하므로, ‘고(孤)’라는 글자를 따라서 명명한 것이다. 고기는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있다. 허로(虛勞)로 인하여 정신이 몽롱하고, 건망증이 있으며, 언어가 분명치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아울러 오장(五臟)의 적냉(積冷)을 없애고, 악창(惡瘡)과 개(疥) 및 고독(蠱毒)을 치료하니, 국을 끓여서 먹는다.)

- [○ 心肝은 生服하면 治狐魅하고 肝은 燒灰하야 治風하고 五臟及腸은 主小兒驚癇이니라.]

[○ 심장(心腸)과 간(肝)은 날로 먹으면 여우에 홀린 증상을 치료한다. 간은 태운 재로 풍(風)을 치료한다. 여우의 오장(五臟)과 창자는 소아의 경간(驚癇)을 치료한다.]

- [○ 陰莖은 主女子絕産、陰痒、小兒陰癰 卵腫이니라.]

[○ 음경(陰莖)은 여성의 불임, 음부(陰部)의 소양(瘙痒), 소아의 음퇴(陰瘻)와 고환(辜丸)의 부종(浮腫)을 치료한다.]

- [○ 膽은 主卒暴亡하니 溫水로 微研하야 灌入喉中이면 卽活이니 臘月에 收雄者라야 佳니라.]

[○ 쓸개는 갑작스런 폭망(暴亡)을 치료하니 따뜻한 물로 곱게 갈아서 목구멍에 주입하면 바로 깨어난다. 설달에 수컷에서 채취한 것이 좋다.]

- [○ 尿는 燒之辟惡하며 去癰病하며 治一切惡瘻 中冷으로 息肉에 爲末하야 新汲水로 下一錢이니 正月에 取在木石上이니 尖頭로 硬者가 佳니라.]

[○ 똥은 태워서 악기(惡氣)를 물리치고, 온병(癰病)을 없애며, 모든 악루(惡瘻)와 중냉(中冷)으로 인한 식육(息肉)을 치료하니, 분말로 만들어 새로 길은 물로 1돈씩 먹는다. 정월(正月)에 나무나 바위 위에 있는 것을 채취할 것이며, 끝이 딱딱한 것이 좋다.]

- [○ 頭尾灰는 治牛疫하니 以水飲之니라.]

[○ 머리와 꼬리의 재는 소의 전염병을 치료하니, 물로 마시게 한다.]

獾肉 | 달육

獾肉甘寒 療時疫이오 逐水通腸 宜少食을! 肝治咳嗽 傳尸勞요 屎主魚臍 瘡浸蝕을.

달육(獺肉) 맛이 달고 약성이 차니 시역(尸疫)을 치료하고, 물을 몰아내며 장(腸)을 소통시키니 적게 먹어야 한다. 간(肝)은 해수(咳嗽)와 전시로(傳尸勞)를 치료하고, 똥은 침식된 어제창(魚臍瘡)을 치료한다.

- [獺은 瀨也니 好生瀨瀨요 又獺祭魚하야 知報本하니 非無賴者라 肉及五臟은 主時疫、瘟病及牛馬疫하니 皆煮汁을 停冷하야 灌之라 消水腫、脹滿하며 利大小腸과 女人經絡不通、血脉不行하며 亦治男子나 多食이면 損陽이니라.]

[달(獺)은 여울이라는 뜻이니, 여울에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 또 수달은 물고기를 제사하여 근본(根本)에 보은(報恩)할 줄 아니, 무리한 동물은 아니다. 고기와 오장(五臟)은 시역(時疫), 온병(瘟病), 소와 말의 전염병을 치료하니, 모두 끓인 즙을 식혀서 먹인다. 수종(水腫)과 창만(脹滿)을 없애고, 대소장(大小腸)과 여성의 생리불통(生理不通) 및 혈맥불행(血脈不行) 등을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만든다. 또 남자도 치료하지만, 많이 먹으면 양(陽)을 손상시킨다.]

- [○ 肝은 甘溫하며 有毒이라 主虛勞로 骨蒸、上氣、咳嗽、傳尸、勞極、腸風下血과 并鬼疰、蠱毒、魚𩚑하니 並燒灰 服之라 諸畜肝은 皆葉數가 定이로대 惟此肝은 一月에 一葉이오 十二月에 十二葉이오 其間에 又有退葉하니 用之에 須見形이라야 乃可니 不然이면 多僞니라.]

[○ 간(肝)은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있다. 허로(虛勞)로 인한 골증(骨蒸), 상기(上氣), 해수(咳嗽), 전시(傳尸), 노극(勞極), 장풍하혈(腸風下血) 등과 아울러 귀주(鬼疰), 고독(蠱毒), 생선가시가 목에 찔린 증상을 치료하니, 모두 태운 재를 먹는다. 모든 동물의 간은 간엽(肝葉)의 수가 일정하지만, 오직 수달의 간은 1월에는 1엽이며, 12월에 12엽이 되는데, 그 사이에 물러나는 간엽이 있으므로, 쓸 때에는 반드시 그 형태를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가 많을 것이다.]

- [○ 腎은 主益男子니라.]

〔○ 콩팥은 남자에게 유익하다.〕

- 〔○ 膽은 主眼翳黑花로 不明이니라.〕

〔○ 쓸개는 눈의 예장(翳障)과 흑화(黑花)로 눈이 밝지 못한 증상을 치료한다.〕

- 〔○ 骨은 治嘔噦不止니라.〕

〔○ 뼈는 그치지 않는 구토와 딸꾹질을 치료한다.〕

- 〔○ 爪는 主魚骨鯁하니 取爬項下거나 或煮汁 飲之면 卽下니라.〕

〔○ 발톱은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증상을 치료하니, 이것으로 목덜미를 긁어내리게 하거나, 달인 즙을 마시면 바로 내려간다.〕

- 〔○ 皮毛는 作服領이면 不著塵垢요 孕婦帶之면 易産이오 作褥及襪이면 主水瘰病하니 亦可煮汁 服之니라.〕

〔○ 가죽과 털은, 옷의 깃을 만들면 먼지와 때가 묻지 않는다. 임신부가 띠를 만들어 매면 쉽게 출산하게 해준다. 요와 버선을 만들어 쓰면, 수릉병(水瘰病)을 치료하는데, 역시 달인 즙을 먹어도 괜찮다.〕

- 〔○ 尿는 主魚臍瘡하니 研爛하여 傅之니라.〕

〔○ 똥은 어저창(魚臍瘡)을 치료하니, 곱게 갈아서 붙인다.〕

駱駝 | 낙타

駱駝(生西北界하며 人家畜養者니 峯蹄가 最精하나 入藥에 不及野者라 其脂가 在 兩峯肉間하니 性溫하며 無毒이라 治風、下氣하며 壯筋、潤皮膚하며 可柔金이라 尿는 主一切風疾、頑痺、皮膚搔痒、死肌、筋皮攣縮、踠傷筋骨하니 火灸摩之하야 取熱氣入肉이오 和米粉하야 作煎餅食하면 療痔요 及惡瘡、毒腫漏爛에 竝和藥 傅之요 以尿爲末하야 搐鼻中이면 治鼻衄이니라.)

낙타(駱駝)〔서북방의 경계에서 나며, 인가(人家)에서 기르는 것으로, 봉우리
와 발굽이 가장 좋으나, 약으로는 야생 낙타에 미치지 못한다. 지방이 두 봉우
리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약성이 따뜻하고, 독이 없다. 풍(風)을 치료하고, 기(氣)
를 내리며, 근(根)을 강성하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며, 쇠를 부드럽게 한
다. 풍은 모든 풍질(風疾), 완고한 비(痺), 피부의 소양(癢痒), 죽은 살, 근육과
피부가 수축되는 증상, 원상근골(踰傷筋骨)을 치료하니, 불로 구워서 해당 부
위를 문질러 열기를 근육으로 들어가게 한다. 분말을 섞어 떡을 만들어 먹으면
치질(痔疾)을 치료한다. 진물이 흐르고 문드러진 악창(惡瘡)과 독종(毒腫)에
는 다른 약과 같이 붙인다. 풍을 분말로 만들어 콧속에 붙여넣으면 코피를 멎
게 한다.〕

| 시

〔肉은 酸이라 食之無益하니 瘦人脂肉하며 損人精神이니라.〕

시(豺)〔승냥이 고기는 맛이 시다. 먹어도 무익하며, 사람의 지방과 살을 마르
게 하고, 인체의 정신(精神)을 손상시킨다.〕

- 〔○皮는 熱하며 有毒이라 主冷痺・脚氣하니 灸熱하야 纏病上이면 卽差요 疔
痢・腹中諸瘡에 燒灰하야 酒下니라.〕

〔○가죽은 약성이 뜨겁고, 독이 있다. 냉비(冷痺)와 각기(脚氣)를 치료하
니, 구워서 뜨겁게 환부를 감싸면 바로 낫는다. 감리(疔痢), 뱃속 각종 창
(瘡)에는 태운 재를 술로 먹는다.〕

狼 | 낭

狼〔肉은 辛하며 可食이라 老狼頤下에 有懸肉하며 行善顧하나 疾則不能이오 鳴則
諸孔이 皆沸이라 其喉結을 日乾爲末하야 入半錢於飯內하야 食之면 治噎病에 甚効
니라.〕

냥(狼)〔고기는 맛이 매우며, 먹을 수 있다. 늑은 늑대는 턱 아래에 늘어진 근육이 있다. 다닐 때에는 잘 돌아보지만, 빨리 갈 때는 그렇지 못하다. 울 때에는 여러 구멍이 다 끓는다. 목구멍에 응결한 것을 햇볕에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서, 밥에 반 돈씩 넣어서 먹으면 열병(噎病)을 치료하는 데 매우 유효하다.〕

- 〔○ 尿는 燒烟하면 直上 故로 烽火에 用之요 燒灰하야 傳療癰이라 其屎中骨은 燒灰하야 服黍許면 止小兒夜啼니라.〕

〔○ 똥은 태워 연기를 내면 곧바로 올라가므로 봉화(烽火)에 쓴다. 태운 재는 나력(瘰癧)에 붙인다. 똥 속의 뼈는 태워서 재를 기장의 낱알 크기만큼 먹으면 소아의 야제증(夜啼症)을 멎게 한다.〕

- 〔○ 胫下筋은 如織絡小囊하며 大如鴨卵하니 人有犯盜者에 熏之면 脚攣하니 因之獲賊也니라.〕

〔○ 피하근(胫下筋)은 직조해서 만든 작은 주머니와 비슷하며, 크기는 오리알만 하다. 도적질한 사람한테 이것을 훈증(燻蒸)하면 종아리가 오그라드니, 이로 인해 도적을 잡을 수 있다.〕

- 〔○ 猯는 前足이 短하고 先知食所在하야 以示狼하니 狼이 負以行이오 匪狼이 不能動이라 肉을 可食이니라.〕

〔○ 이리는 앞발이 늑대보다 짧고, 먹을 것이 있는 곳을 먼저 알아서 늑대에게 알려 주므로, 늑대가 지고 다니는 것이지, 이리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리의 고기는 먹을 수 있다.〕

獼猴 | 미후

獼猴(肉은 酸平하며 無毒이라 主諸風勞하니 釀酒에 彌佳요 爲脯하야 主久瘧이니라.)

미후(彌猴)〔고기는 맛이 시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각종 풍로(風勞)를 치료하니, 술을 담그면 더 좋다. 육포(肉脯)를 만들어 오래된 학질(瘡疾)을 치료한다.〕

- 〔○ 頭骨은 燒灰酒下하야 主瘡瘍、鬼瘡不定이오 作湯하야 辟驚邪、鬼魅寒熱이니라.〕

〔○ 머리뼈는, 태운 재를 술로 넘겨서, 일정하지 않은 장학(瘡瘍)과 귀학(鬼瘡)을 치료한다. 탕(湯)으로 만들어 경사(驚邪)와 귀매(鬼魅)에 의한 한열(寒熱)을 물리친다.〕

- 〔○ 手는 主小兒驚癇 口噤이니라.〕

〔○ 손은 소아의 경간(驚癇)과 구금(口噤)을 치료한다.〕

- 〔○ 尿는 主蜘蛛咬니라.〕

〔○ 똥은 거미 물린 상처를 치료한다.〕

- 〔○ 皮는 主馬疫氣라 人家養者는 並不主病하나니 爲其食息이 雜하야 違其本眞也(엘)새라.〕

〔○ 가죽은 말의 역기(疫氣)를 치료한다. 인가(人家)에서 기른 것은 전혀 병을 치료하지 못하니, 먹는 것이 잡스러워 본래의 참된 성질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諸血 | 제혈

諸血〔諸獸之血은 主補血不足及血枯하니 皮皴、面無顔色에 並生飲之요 又解諸藥毒、菌毒하며 止渴、除煩熱이요 食筋이면 令人으로 多力이니라.〕

제혈(諸血)〔각종 짐승의 피는 피가 부족한 증상과 피가 마르는 증상을 치료한다. 피부가 주름져 터지거나 얼굴에 혈색이 없을 때 생피를 마신다. 또 여러 약물의 독과 버섯의 독을 해독하고, 갈증을 멎게 하며, 번열(煩熱)을 없앤다. 근육(筋肉)을 먹으면 사람이 힘이 세진다.〕

六畜毛蹄甲 | 육축모제갑

【六畜毛蹄甲】〔謂牛馬猪羊狗雞也라 味鹹平하며 有毒이라 主鬼疰、蠱毒寒熱、驚癇、癰瘡하니 更宜於各品類中에 參之니라.〕

【육축모제갑(六畜毛蹄甲)】〔소, 말, 돼지, 양, 개, 닭을 말한다. 맛이 짜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있다. 귀주(鬼疰), 고독(蠱毒), 한열(寒熱), 경간(驚癇), 전치(癰瘡)를 치료한다. 또 각 품종에서 기술했던 것을 참고하여 쓸 것이다.〕

敗鼓皮 | 패고피

敗鼓皮〔平하니 以黃牛皮者로 爲佳라 主蠱毒하니 用穿敗者를 燒灰하야 酒下면 病人이 卽呼蠱主姓名하리니 仍往하야 令其呼케하고 取蠱면 便差니라.〕

패고피(敗鼓皮)〔약성이 평이하다. 황우(黃牛)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 좋다. 고독(蠱毒)을 치료한다. 구멍이 뚫려 못 쓰는 것을 태워서 재로 만들어 술로 마시면, 환자가 바로 고주(蠱主)의 성명을 부를 것이니, 가서 부르게 하고 고(蠱)를 취하면 바로 낫는다.〕

1.2.3. 禽部 | 금부

丹雄鷄 | 단웅계

【丹雄鷄】甘 溫無毒하니 女子崩中 赤白沃을! 止血補虛 更溫中이오 冠血滴口 自縊復을.

【단웅계(丹雄鷄)】는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없으니, 여성의 붕중(崩中)과 적백옥(赤白沃)을 치료한다. 지혈(止血)하고 허(虛)를 보하며 또 속을 데우는데, 벼슬의 피를 입에 떨어뜨리면 스스로 목을 맨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 [丹은 言色也요 雄은 壯也니 陽氣壯也요 鷄는 稽也니 稽侯日이 將至巽位에 感動其氣而鳴 故로 巽은 爲鷄 爲風이라 肉은 主女子崩中、漏下、赤白沃하며 止血、補虛、溫中、久傷乏瘡이니라.]

[단(丹)은 색을 말하는 것이고, 웅(雄)은 기상이 굳세다는 뜻이니, 양기(陽氣)가 강성하다는 말이다. 계(鷄)는 헤아린다는 뜻이니, 태양이 손(巽)에 도달할 때를 헤아려 그 기운에 감동하여 울기 때문에, 손괘(巽卦)가 닭이 되고, 풍(風)이 되는 것이다. 그 고기는 여성의 붕중(崩中), 누하(漏下), 적백옥(赤白沃)을 치료하고, 지혈(止血)하며, 허(虛)를 보하고, 중초(中焦)를 데우며, 구상핍창(久傷乏瘡)을 치료한다.]

- [○冠血은 主自縊死하니 心下溫者는 刺血滴口中호대 男雌女雄이면 卽活이오 百蟲入耳에 滴之卽出이오 小兒卒驚으로 似有痛處而不知疾狀에 臨兒口上하야 滴少許면 差요 兼療乳難、白癜風、諸瘡、浸淫瘡、馬咬人瘡、毒腫疼痛、蜈蚣咬에 並取塗之니라.]

[○ 벼슬의 피는 스스로 목을 매 죽은 사람을 치료하니, 심장의 아래 부분에 온기가 남아 있는 자는 벼슬을 찢어서 피를 내어 입에 떨어뜨리되, 남자는 암탉을 여성은 수탉을 쓰면 바로 살아난다. 온갖 벌레가 귓속으로 들

어갔을 때 귀에도 떨어뜨리면 바로 나온다. 소아가 갑자기 놀라서 아픈 곳이 있는 듯하지만 질병의 증상은 알지 못할 때, 아이의 입 위에 조금 떨어뜨리면 낫는다. 아울러 젖이 안 나오는 증상, 백전풍(白癜風), 각종 창(瘡), 침음창(浸淫瘡), 말에 물린 창(瘡), 독종(毒腫)으로 인한 통증, 지네에 물린 경우 모두에 바른다.)

烏雄雞 | 오웅계

烏雄雞甘溫補中이오 空心食之 氣血充을! 止心腹痛 除麻痺요 安胎續骨 排瘡膿을!
肝能強陰 膽明目이오 腸胫澁尿 與腸風을.

오웅계(烏雄雞)는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니 중초를 보하고, 공복에 먹으면 기혈(氣血)이 충족된다. 심복통(心腹痛)을 멎게 하고 마비(痲痺)를 없애며, 안태(安胎)하고 뼈를 이으며 창(瘡)에서 고름을 내보내고, 간(肝)은 음(陰)을 강화하고 쓸개는 눈을 밝혀주며 창자와 피치(脰胫)는 오줌과 장풍(腸風)을 수습(收澁)한다.

- 〔微溫하며 無毒이라 主補虛弱하니 取一隻하야 治如食法하야 以五味로 炊爛食之요 生即反損이라 又止心腹痛하며 除風濕麻痺、安胎하며 治折傷、攻癰疽니라.〕

〔약성이 약간 따뜻하고, 독이 없다. 허약(虛弱)을 보하니, 한 마리를 잡아서 식용하는 법에 따라 다듬고 온갖 양념을 하여 푹 익혀서 먹는다. 날것은 도리어 손상시킨다. 또 심복통(心腹痛)을 멎게 하고, 풍습(風濕)으로 인한 마비(痲痺)를 없애며, 안태(安胎)하고, 부러진 손상을 치료하며, 응저(癰疽)를 공격한다.〕

- 〔○ 肝及左翅毛는 主強陰이니라.〕

〔○ 간(肝)과 왼쪽 날개의 털은 음(陰)을 강화한다.〕

- [○ 膽은 療目不明、肌瘡이니라.]

[○ 쓸개는 눈이 어두운 증상과 살결의 창(瘡)을 치료한다.]

- [○ 腸은 主遺溺、小便不禁이니라.]

[○ 창자는 유뇨(遺尿)와 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 [○ 胘脰裏黃皮는 微寒하며 無毒이라 主洩利、小便遺溺하며 除熱、止煩하며 止洩精、尿血、腸風、瀉痢와 婦人崩中、帶下하며 小兒瘡疾、鵝口不乳하니 並宜燒灰하여 用之니라.]

[○ 피치(胘脰) 속 노란 껍질은 약성이 약간 차고, 독이 없다. 설사와 이질(痢疾) 및 유뇨(遺尿)를 치료하고, 열을 없애며, 번(煩)을 멎게 하고, 설정(洩精), 노혈(尿血), 장풍(腸風), 설사와 이질(痢疾), 여성의 붕중(崩中)과 대하(帶下)를 멎게 하며, 소아의 학질(瘡疾), 아구창(鵝口瘡)으로 젖을 빨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모두 태운 재를 쓴다.]

- [○ 頭는 主殺鬼니라.]

[○ 대가리는 귀신을 죽인다.]

- [○ 心은 主五邪니라.]

[○ 염통은 다섯 가지의 사기(邪氣)를 치료한다.]

- [○ 肪은 主耳聾이니라.]

[○ 지방은 이롱(耳聾)을 치료한다.]

- [○ 翮羽는 主下閉血이니라.]

[○ 핵우(翮羽)는 막힌 피를 나가게 한다.]

- [○ 血은 主中惡腹痛、踠折骨痛、乳難、痿痺及馬咬瘡、剝馬被刺하니 熱血에 浸之니라.]

(○ 피는 악기에 맞은 복통(腹痛), 넘어지고 부러져서 생긴 뼈의 통증, 젖이 잘 안 나오는 증상, 위비(痿痺) 등을 치료하며, 말에 물려 생긴 창(瘡)과 말가죽을 벗기다가 찢린 상처를 치료하니, 뜨거운 피에 담근다.)

- (○ 尿白은 微寒이라 主消渴하며 破石淋、消鼓脹、風痺요 又齒痛에 燒末綿裏하야 安痛處 하고 咬之요 蜈蚣咬에 醋和傳之요 子死腹中에 濃煎煮粥하야 食之요 產後小便不禁及妬乳癰腫에 燒灰하야 酒下니라.)

(○ 시백(尿白)은 약성이 약간 차다. 소갈(消渴)을 치료하고, 석림(石淋)을 부수며, 고창(蠱脹)과 풍비(風痺)를 사라지게 한다. 또 치통(齒痛)에는 태운 분말을 술에 싸서 아픈 곳에 두고 물고 있다. 지네에 물렸을 때에는 식초로 개어 붙이고, 태아가 뱃속에서 죽었을 때에는 진하게 고아서 죽을 만들어 먹는다. 산후에 소변(小便)을 참지 못하는 증상 및 젖몸살과 웅종(癰腫)에는 태운 재를 술로 먹는다.)

- (○ 抑論컨대 諸鷄는 補虛羸之最要라 故로 食治方中에 多用之라 有風人及患骨熱人은 不宜食이오 小兒未斷乳에 食之면 生蛔蟲이오 又不可合犬肝腎、芥菜하야 同食이오 合兔肉食이면 成泄痢하고 合水鷄食이면 作遁尸요 六指와 玄鷄白頭及自死하야 足爪不伸者는 不可食이오 抱鷄肉及蜈蚣傷者를 食之면 殺人發疽라 凡用鷄의 膽、心、肝、腸、肪、胙脰、糞等에 以烏雄鷄로 爲良이오 卵以黃雌로 頭以丹雄으로 翮以烏雄鷄로 爲良이라 大抵 丹者는 入心하고 白者는 入肺하고 黑者는 入腎하고 黃者는 入脾하나 總皆歸於肝也라 丹溪가 云 屬土而有金與木火하야 性이 補 故로 助濕中之火하야 病邪得之則劇이나 然이나 非但鷄而已요 魚肉之 類도 皆助病者也라하니라.)

(○ 또 논해보건대 각종 닭은 허리(虛羸)를 보하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식품으로 치료하는 처방에 많이 쓴다. 풍(風)을 앓거나 골열증(骨熱症)을 앓는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못하다.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소아가 먹으면 회충(蛔蟲)이 생긴다. 또 개의 간과 콩팥 및 개채(芥菜) 등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 토끼의 고기와 같이 먹으면 설사와 이질이 발생한다. 수계

(水鷄)와 같이 먹으면 둔시(遁尸)가 일어난다. 발가락이 여섯이거나 몸체는 검은데 머리만 흰 것, 저절로 죽어서 발톱을 펴지지 않은 닭은 먹으면 안 된다. 알을 품은 닭이나 지네에 손상된 닭을 먹으면 사람이 죽거나 저(疽)가 발생한다. 대개 닭의 쓸개, 염통, 창자, 지방, 모이주머니, 똥 등을 쓸 때에는 오웅계(烏雄鷄)의 것이 좋다. 알은 노란 암닭이 낳은 것이, 대가리는 단웅계(丹雄鷄)의 것이, 핵우(翮羽)는 오웅계의 것이 좋다. 대개 붉은 것은 심장으로 들어가고, 흰 것은 폐로 들어가며, 검은 것은 신장으로 들어가고, 노란 것은 비장(脾腸)으로 들어가지만, 모두 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주단계(朱丹溪)가 다음처럼 말했다. 토(土)에 속하나 금(金)과 목(木)과 화(火)가 있어서, 보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습(濕) 중의 화(火)를 도와서 병사(病邪)가 이것을 만나면 극심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이치는 닭뿐만 아니라 어육(魚肉)의 종류도 모두 병사를 돕는다.)

烏雌鷄 | 오자계

烏雌鷄要 骨亦烏요 下乳治痺 攻癰疽를! 安心定志 益胃氣요 破瘀生新 最補虛를.

오자계(烏雌鷄)는 뼈까지도 검어야 하는데, 젖을 나오게 하고 비(痺)를 치료하며 응저(癰疽)를 공격한다. 심장과 의지를 안정시키며 위기(胃氣)를 보익하고, 어혈(瘀血)을 부수고 새 피를 생기게 하여 허(虛)를 가장 잘 보한다.

- (骨毛俱黑者 爲上이라 治乳難、乳癰、風寒濕痺하며 攻癰疽、排膿、安心、定志하며 除邪、辟惡氣하며 益胃氣、壯顏色하며 破腹中宿血하여 生新血하며 補產後虛羸니라.)

(뼈와 깃털이 모두 검은 것이 상품(上品)이다. 젖이 잘 안 나오는 증상, 유옹(乳癰), 풍한습비(風寒濕痺)를 치료하며, 응저(癰疽)를 공격하여 배농(排膿)하게 하며, 심장과 의지를 안정시키고, 사기(邪氣)를 없애고, 악기

(惡氣)를 물리치며, 위기(胃氣)를 보익하고, 안색(顔色)을 좋게 하고, 뱃속 오래된 피를 파괴하여 새로운 피를 생기게 하고, 산후(産後)의 허리(虛羸)를 보한다.)

白雄鷄 | 백웅계

白雄鷄甘 酸微溫하니 調中下氣 療狂言을! 止渴利便 消丹毒이오 雌者味同 補下元을! 止渴澀腸 止漏血이오 男勞女産 入饗飧을.

백웅계(白雄鷄)는 맛이 달고 시며 약성이 약간 따뜻하니, 중초(中焦)를 조절하고 기(氣)를 내리며 미친 말을 하는 광사(狂邪)를 치료한다. 갈증을 멎게 하고 이뇨(利尿) 작용을 하며 단독(丹毒)을 없애는데, 백자계(白雌雞)는 맛이 같고 하원(下元)을 보한다. 갈증을 멎게 하며 장(腸)을 수습(收澀)하고 누혈(漏血)을 멎게 하며, 남성의 노상(勞傷)과 여성의 출산에 아침저녁으로 먹는다.

- [白毛烏骨者が 佳라 主調中、下氣하며 安五臟、療狂邪、傷中、消渴하며 利小便、消丹毒이니라.]

[털이 희고, 뼈가 검은 것이 좋다. 중초(中焦)를 고르게 하고, 기(氣)를 내리며, 오장(五臟)을 안정시키고, 광사(狂邪), 상중(傷中), 소갈(消渴)을 치료하며, 이뇨(利尿) 작용을 하고, 단독(丹毒)을 없앤다.]

- [○ 白雌鷄는 補五臟、勞傷하며 潤肺、益腎하며 止消渴、腸癖、洩利及小便不禁과 婦人崩中下血、赤白漏下、産後虛損等證이니라.]

[○ 백자계(白雌鷄)는 오장(五臟)과 노상(勞傷)을 보하고, 폐(肺)를 윤택하게 하며, 신장(腎腸)을 보익한다. 소갈(消渴), 장벽(腸癖), 설리(洩利) 및 소변불금(小便不禁), 여성의 붕중하혈(崩中下血), 적백루하(赤白漏下), 산후(産後)의 허손(虛損) 등을 치료한다.]

黃雌鷄 | 황웅계

黃雌鷄甘 酸助陽이오 止洩止精 煖小腸을! 更消水癖 并水腫이오 肋骨又治 兒瘦黃을.

황웅계(黃雌鷄)는 맛이 달고 시며 양(陽)을 돕고, 설사와 유정(遺精)을 멎게 하고 소장(小腸)을 데운다. 또 수벽(水癖)과 수종(水腫)을 사라지게 하며, 갈비뼈는 또 소아가 누렇게 마르는 증상을 치료한다.

- 〔性平하며 無毒이라 補精하야 助陽氣하며 補益五臟、續絕傷하며 止腸癖、洩利하며 止洩精、小便不禁이라 又和赤豆하야 同煮爛하야 并汁食之면 主腹中水癖、水腫이오 其肋骨은 主小兒羸瘦와 食不生肌니라.〕

(성질은 평이하고, 독이 없다. 정(精)을 보하고, 양기(陽氣)를 도우며, 오장(五臟)을 보익하고, 끊어진 손상을 이어주며, 장벽(腸癖)과 설리(洩利)를 그치게 하고, 설정(洩精)과 소변불금(小便不禁)을 멎게 한다. 또 붉은 팔과 같이 폭 삶아서 즙을 마시면 뱃속의 수벽(水癖)과 수종(水腫)을 치료한다. 갈비뼈는 소아가 마른 증상과 먹어도 살이 붙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鷄子 | 계자

鷄子甘平 除煩熱이오 淡煮卻痰 益氣血을! 蠟煎治痢 酒治風이오 白療目赤 火燒裂을! 殼能出汗 磨翳睛이오 衣止久嗽 敷瘡癰을.

계자(鷄子)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니 번열(煩熱)을 없애고, 담담하게 삶아 먹으면 담(痰)을 물리치고 기혈(氣血)을 보익한다. 밀랍(蜜蠟)과 함께 달이면 이질(痢疾)을 치료하고 술로 달이면 풍(風)을 치료하며, 흰자는 충혈된 눈과 화상으로 갈라진 창(瘡)을 치료한다. 껍질은 땀을 내고 예막(翳膜)을 마멸시키며, 흰 막은 만성 해수(咳嗽)를 멎게 하고 창절(瘡癰)에 붙인다.

- 〔生絞入藥이면 除煩熱及孕婦의 天行熱疾로 狂走요 豁開淡煮면 大能卻痰、潤聲、養胃、益心血、止驚이오 和蠟炒면 止久泄、疳痢요 和黑豆入酒하야 服이면 治癰、瘰、賊風、麻痺요 黃熬油는 和粉하야 傳頭瘡이니라.〕

(날것을 찢서 약에 넣으면 번열(煩熱)과 임신부가 유행성 열병(熱病)에 걸려 미쳐서 날뛰는 증상을 없애준다. 깨뜨려서 담박하게 삶으면 담(痰)을 물리치고, 목소리를 운택하게 하며, 위(胃)를 보양하고, 심장의 피를 보익하며, 경기(驚氣)를 멎게 한다. 밀랍(蜜蠟)과 함께 볶으면 만성 설사와 감리(疳痢)를 멎게 하고, 검은콩과 같이 술에 넣어서 먹으면, 간치(癰瘰), 적풍(賊風), 마비(麻痺)를 치료한다. 노른자를 가열하여 나온 기름은 쌀가루와 섞어서 두창(頭瘡)에 붙인다.)

- 〔○ 卵白은 微寒이라 療目赤、火燒瘡하며 除心下伏熱하며 止煩滿、欬逆、小兒下洩하며 婦人產難、胞衣不出이오 醋漬一宿하야 療黃疸이라 多食이면 動心氣하고 和蔥食이면 氣短하고 和鼈食이면 損人이오 又不可合獾肉、蒜、李하야 同食이니라.〕

(○ 달걀흰자는 약성이 약간 차다. 충혈된 눈과 화상에 의한 창(瘡)을 치료한다. 심하(心下)에 잠복한 열을 없애고, 번만(煩滿), 해역(咳逆), 소아의 설사를 멎게 하며, 여성의 난산(難產)과 태반(胎盤)이 나오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식초에 하루밤 담갔다가 쓰면 황달(黃疸)을 치료한다. 많이 먹으면 심기(心氣)를 동하게 하고, 파와 같이 먹으면 숨이 짧아지게 되며, 자라와 같이 먹으면 사람을 손상시킨다. 또 수달의 고기와 마늘 및 자두 등과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 〔○ 卵殼은 細研하야 磨障翳요 又傷寒勞復에 炒黃爲末하야 熱湯으로 下면 汗出卽愈니라.〕

(○ 껍질은 곱게 갈아서 예장(翳障)을 갈고, 또 과로로 재발한 상한병(傷寒病)에는 노랑게 볶아서 분말로 만들어 뜨거운 탕으로 넘겨서 땀을 배출시키면 바로 낫는다.)

- 〔○ 卵中白皮는 名鳳凰衣라 主久欬結氣하니 得麻黃、紫菀하야 和服之면 立已요 小兒頭身諸瘡에 燒灰하야 猪脂로 調傅니라.〕

〔○ 계란 속 흰 막은 봉황의(鳳凰衣)라고 한다. 오래된 해수(咳嗽)와 응결한 기(氣)를 치료하니, 마황(麻黃) 및 자완(紫菀)과 같이 먹으면 바로 그치게 된다. 소아의 머리와 몸에 각종 창(瘡)이 있을 때에는 태운 재를 돼지기름으로 개어서 붙인다.〕

白鵝肉 | 백아육

白鵝肉冷 全無毒이오 解熱止渴 煮湯服을! 膏潤肌膚 灌耳聾이오 毛燒灰治 噎氣促을! 蒼鵝有毒 發瘡膿이오 水毒射工 効更速을.

백아육(白鵝肉)은 약성이 차고 전혀 독이 없으니, 해열(解熱)하고 갈증을 멎게 하니 달인 탕으로 복용한다. 기름은 살결을 윤택하게 하고 이롱(耳聾)에 주입하며, 털을 태운 재는 촉급한 열기(噎氣)를 치료한다. 푸른 거위는 독이 있어서 창농(瘡膿)을 유발하나, 수독(水毒)과 사공(射工)에 효과가 더 빠르다.

- 〔鵝는 自鳴聲也니 有蒼白二種이라 白鵝肉은 解五臟熱하며 止渴하니 煮汁飲之요 多食이면 令人으로 霍亂하며 發瘡疾이로대 惟丹石人은 相宜니라.〕

〔‘아(鵝)’는 스스로 우는 소리를 형용한 것이니, 푸른색과 흰색 두 종류가 있다. 백아육(白鵝肉)은 오장(五臟)의 열을 해열하고, 갈증을 멎게 하니, 달인 즙을 마신다. 다만 많이 먹으면 사람이 광란(霍亂)을 일으키며 고질(瘡疾)을 유발하므로, 오로지 단석(丹石)을 먹는 사람에게만 적합하다.〕

- 〔○ 膏는 微寒이라 潤肌膚하며 療手足皸裂이오 卒耳聾에 以膏로 灌之니라.〕

〔○ 기름은 약성이 약간 차다. 살결을 윤택하게 하며, 손발이 갈라터진 증상을 치료하고, 급성 이롱(耳聾)에는 기름을 주입한다.〕

- 〔○ 毛는 燒灰하야 主噎及小兒驚癇의 極者니라.〕

(○ 깃털을 태운 재는 목에 메는 증상과 심한 소아의 경간(驚癇)을 치료한다.)

- (○ 蒼鵝肉은 냉이라 發瘡膿하고 毛는 主水毒·射工하니 又飲其血及塗身이오 尿는 可傳蛇蟲의 咬毒이라 陳藏器가 云 白鵝는 不食蟲하니 主渴에 爲勝이오 蒼鵝는 食蟲하니 主射工에 爲勝이라 하니라.)

(○ 창아육(蒼鵝肉)은 약성이 차며, 창농(瘡膿)을 유발시킨다. 깃털은 수독(水毒)과 사공(射工)을 치료하니, 또 이것의 피를 마시고 몸에 바른다. 똥은 뱀과 벌레 물린 곳에 붙인다. 진장기(陳藏器)가 다음처럼 말했다. 흰 거위는 벌레를 먹지 않으니, 갈증을 치료하는 데에 더 낫고, 푸른 거위는 벌레를 먹으니, 사공(射工)을 치료하는 데에 더 낫다.)

- (○ 卵은 溫하니 補中·益氣하며 補五臟하나 食多면 傷胃滯氣하야 發瘡疾이니라.)

(○ 알은 약성이 따뜻하다. 중초(中焦)를 보하고, 기(氣)를 보익하며, 오장(五臟)을 보하나, 많이 먹으면 위(胃)를 상하게 하고, 기(氣)를 정체시켜 고질(痼疾)을 유발한다.)

白鴨肉 | 백압육

白鴨肉寒 補勞虛요 和臟利水 熱風祛를! 尿消蓄熱 并瘀痢요 卵冷能令 背悶拘를!
野鴨補中 消食毒이오 專治小瘡 遍體軀를.

백압육(白鴨肉)은 약성이 차고 허로(虛勞)를 보하며, 장(臟)을 고르게 하고 이뇨(利尿) 작용을 하며 열풍(熱風)을 없앤다. 똥은 쌓인 열과 어리(瘀痢)를 사라지게 하고, 알은 약성이 찬데 등을 답답하게 만든다. 야생 오리는 중초(中焦)를 보하고 식독(食毒)을 사라지게 하며, 전신에 퍼진 소창(小瘡)을 전문적으로 치료한다.

- 〔鴨鴨은 自呼名也니 或이 曰可押 故로 謂之鴨이라하니 有家野二種이니라.〕

(압압(鴨鴨)은 오리가 스스로를 부르는 소리이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길들일 수 있다고 해서 압(鴨)이라고 부른다고 말하기도 한다. 집오리와 야생 오리 두 종류가 있다.)

- 〔○ 家鴨肉은 味甘하며 無毒이라 補虛、和臟腑하며 利水道하며 療風虛寒熱하며 消熱毒、止驚癇、解丹毒、止痢血이니라.〕

(○ 집오리의 고기는 맛이 달고 독이 없다. 허(虛)를 보하고, 장부(臟腑)를 고르게 하며, 이뇨(利尿) 작용을 한다. 풍허(風虛)로 인한 한열(寒熱)을 치료하고, 열독(熱毒)을 없애며, 경간(驚癇)을 멎게 하고, 단독(丹毒)을 해독하며, 이혈(痢血)을 멎게 한다.)

- 〔○ 尿는 主散蓄熱、熱毒、瘀痢하며 解結縛하며 殺石藥 金銀 鉄毒하니 爲末하야 水調服之요 熱毒、瘡腫과 并蚯蚓咬에 和鷄卵白하야 傳之니라.〕

(○ 똥은 축적된 열, 열독(熱毒), 어리(瘀痢)를 흩어지게 하고, 응결되고 뭉친 것을 풀어지게 하며, 석약(石藥)의 독, 금은(金銀)의 독, 철독(鉄毒) 등을 감소시키니, 분말로 만들어 물에 타서 먹는다. 열독(熱毒)과 창종(瘡腫) 및 지렁이에 물린 데는 계란 흰자와 섞어서 붙인다.)

- 〔○ 卵은 微寒이라 治心腹胃膈熱하나 多食이면 發冷氣하며 令背膊으로 悶하고 小兒가 食하면 腳軟하나니 惟塩淹者면 稍可니라.〕

(○ 알은 약성이 약간 차다. 심복(心腹)과 흉격(胸膈)의 열을 치료하나, 많이 먹으면 냉기(冷氣)를 유발하고, 등을 갑갑하게 하며, 소아가 먹으면 종아리가 연약하게 된다. 오직 소금에 절인 것만 조금 먹을 수 있다.)

- 〔○ 血은 主解諸毒과 野葛毒하니 刺項中하야 熱血을 飲之니라.〕

(○ 피는 각종 독과 야생 칩의 독을 해독하니, 목덜미를 찔러서 뜨거운 피를 받아 마신다.)

- [○ 頭는 主水腫하며 通利小便하니 煮服之라 凡鴨은 白毛烏骨者가 爲上이오 黃雌鴨은 最補하고 綠頭、靑頭鴨도 佳요 黑鴨은 滑中하며 發冷痢、腳氣라 凡鴨은 老者가 佳니 嫩者는 有毒이요 肉與卵을 同烹食이면 害人이니라.]

[○ 대가리는 수종(水腫)을 치료하며, 이뇨(利尿) 작용을 하니, 달여 먹는다. 대개 오리는 깃털이 희고 뼈가 검은 것이 제일 낫고, 노란색의 암컷 오리는 가장 잘 보하며, 녹색이나 푸른색 대가리를 가진 오리도 좋다. 검은 오리는 중초(中焦)를 매끄럽게 하여 냉리(冷痢)나 각기(脚氣)를 유발한다. 대개 오리는 늙은 것이 좋으니, 어린 것은 독이 있다. 고기와 알을 자라와 같이 먹으면 사람을 해친다.]

- [○ 野鴨은 名鵞이니 性凉하며 無毒이라 肉은 主補中、益氣、補虛、助力하며 和胃氣하야 大益病人이오 消食、利水、導熱毒하며 去風氣及惡瘡、癰腫하며 殺臟腹의 一切蟲이오 又身上諸小熱瘡이 多年不可者는 多食이면 卽差니 九月後 立春前에 食之면 絶勝이오 家鴨은 雖寒이나 不動氣하니 但不可與木耳、胡桃、豆豉와 同食이니라.]

[○ 야생 오리는 ‘목(鵞)’이라고 한다. 약성이 서늘하고, 독이 없다. 고기는 중초(中焦)를 보하고, 기(氣)를 보익하며, 힘을 돕는다. 위기(胃氣)를 고르게 하여 환자에게 아주 유익하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이뇨(利尿) 작용을 하며, 열독(熱毒)을 인도하여 나가게 하고, 풍기(風氣)와 악창(惡瘡) 및 절종(癰腫)을 없애며, 내장과 배의 모든 벌레를 죽인다. 또 몸의 각종 작은 열창(熱瘡)이 여러 해 낫지 않을 때 많이 먹으면 바로 낫는데, 음력 9월 이후와 입춘(立春) 이전에 먹으면 아주 좋다. 집오리는 비록 성질이 비록 차지만 기(氣)를 동하게 하지는 않는데, 다만 목이(木耳), 호도(胡桃), 두시(豆豉)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 [○ 肪은 甘하다 主風虛寒熱、水種이니라.]

[○ 비계는 맛이 달다. 풍허(風虛)로 인한 한열(寒熱)과 수종(水腫)을 치료한다.]

- (○ 一種小者는 名刀鴨이니 味로 最重하며 食之면 更補虛하고 又一種은 名油鴨이니 其味更佳니라.)

(○ 작은 동류(同類)를 도압(刀鴨)이라고 한다. 맛이 가장 무거우며, 먹으면 더욱 허(虛)를 보한다. 또 한 종류로 유압(油鴨)이 있는데, 맛이 더욱 좋다.)

鴈肪 | 안방

【鴈肪】無毒 味甘平하니 拘急風攣 氣不盈을! 血滯偏枯 須久服이오 肉性相同 食不輕을.

【안방(鴈肪)】은 독이 없고 맛이 달며 약성이 평이하니, 구급(拘急)하는 풍련(風攣)으로 기(氣)가 충족되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피가 정체하여 한쪽이 마르는 증상에는 반드시 오래 먹어야 하는데, 고기와 성질이 서로 같으나 먹을 때에는 소홀히 사용해서는 안 된다.

- (鴈은 陽鳥也라 從隹在厂下하니 宿干水厓也라 從人은 何也오 取執摯奠摯하야 爲意也라 肪은 厚脂也니 主風攣拘急、偏枯와 麻痺로 血氣不通利하니 取四兩을 煉烱濾過하야 每日空心에 煖酒로 調服一匙라 久服이면 益氣力、壯筋骨、長鬚髮、聰耳、輕身、耐老하며 殺諸藥石毒이오 又和黃豆하야 作丸이면 補勞瘦하며 肥白人이오 六七月에 食之면 傷神이라 衍義에 云 人이 不輕易食者는 謂其知陰陽之升降하며 分長少之行序하야 熱則卽北하고 寒則卽南하야 以就中和之氣니 所以爲禮幣者는 取其信也라 其毛自落者를 小兒帶之면 療驚癇이니라.)

(기러기는 양적(陽的)인 성향의 새이다. 추(隹)가 엄(厂)의 아래에 있는 것이니, 물가의 벼랑에서 머무른다는 의미이다. 인(人)을 따른 것은 어떤 이유인가? 사람들이 이것으로 예(禮)를 갖추는 데 쓰기 때문에 그 뜻을 취한 것이다. 비계는 두터운 지방(脂肪)인데, 풍련구급(風攣拘急) 및 편고(偏枯)와 마비(麻痺)로 혈기가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하

니, 4냥을 불에 녹이고 여과시켜서, 매일 공복에 따뜻한 술로 한 숟가락 먹는다. 오래 먹으면 기력(氣力)을 더해주고, 근골(筋骨)을 튼튼하게 하며,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고, 귀가 잘 들리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하며, 늙지 않게 하고, 각종 약독(藥毒)과 석독(石毒)을 죽인다. 또 노란 콩과 같이 제환(製丸)하여 먹으면 과로로 몸이 수척해진 증상을 보하여 사람을 살찌게 한다. 음력 6~7월에 먹으면 정신(精神)을 손상시킨다. 《본초연의(本草衍義)》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사람들이 기러기를 쉽게 먹지 않는 것은, 기러기들이 음양(陰陽)의 승강(乘降)을 알고 있으며, 어른과 아이의 질서를 구분하여, 날이 더울 때는 북쪽으로 가고, 날이 추울 때는 남쪽으로 가서, 중화(中和)한 기(氣)를 좇기 때문이니, 예폐(禮幣)로 쓰는 것은 그것이 신의가 있다는 점을 취한 것이다. 저절로 떨어진 깃털을 소아가 휴대하면 경간(驚癇)을 치료한다.)

雉肉 | 치육

雉肉微寒 却補中이오 止洩止渴 最有功을! 更除痰壅 氣上喘이오 疥癩五痔 食之凶을.

치육(雉肉)은 약성이 약간 차니 중초(中焦)를 보하고, 설사와 갈증을 멎게 하는데 가장 유효하다. 또 담옹(痰壅)으로 기가 치밀어 올라 숨이 찬 증상을 없애나, 개창(疥癩)과 다섯 종류의 치질에 먹으면 흉하다.

- [俗名은 野鷄니 無毒이라 主補中하며 益氣力、止洩痢、小便多하며 治消渴及痰氣上喘하며 除蟻瘻라 衍義에 云 雖野味之貴나 食之면 損多益少하니 秋冬에 食之면 有補요 餘月엔 有小毒하야 食之면 發諸瘡疥、五痔、癰疾이라 又不可與胡桃、木耳、蕈菌、蕎麥麪、葱、豉와 同食이니 發頭風、心痛이오 人食이면 令人으로 瘦니라.]

(속칭 야계(野雞)라고 한다. 독이 없다. 중초(中焦)를 보하고, 기력(氣力)을 더해주며, 설사와 이질(痢疾) 및 소변이 과다한 증상을 멎게 한다. 소갈(消渴)과 담(痰)으로 인해 기가 치밀며 올라 숨이 찬 증상을 치료하고, 의루(蟻癭)를 제거한다. 《본초연의(本草衍義)》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비록 야생동물로서 먹기에 귀하지만 먹으면 손해가 많고 이익은 적다. 가을과 겨울에 먹으면 조금 보하고, 나머지 계절에는 독이 약간 있다. 먹으면 각종 창개(瘡疥), 다섯 가지의 치질(痔疾), 고질(癰疾)을 유발한다. 또 호도(胡桃), 목이(木耳), 담균(葷菌), 메밀가루, 파, 두시(豆豉) 등과 같이 먹으면 안 되니, 두풍(頭風)과 심통(心痛)을 유발한다. 오랫동안 먹으면 사람이 마르게 된다.)

鷓鴣 | 자고

鷓鴣甘溫 微有毒하니 能補五臟 更明心을! 專救瘟瘴 欲死者니 酒煮服之 自酌斟을.

자고(鷓鴣)는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약간 있으니, 오장(五臟)을 보하고 또 마음을 밝게 한다. 온장(瘟瘴)으로 죽으려 하는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니, 술로 달여서 먹이되 스스로 짐작해서 쓴다.

- [鷓는 撫也요 鴣는 苦也니 謂啼聲이 撫苦也라 肉은 補五臟・益心力하며 解嶺南의 野葛・生金・蛇・菌 等毒과 及瘟瘴・蠱氣의 病久欲死者하니 合毛熬하여 酒漬之거나 或生搗取汁하여 服之면 最良이오 食之에 忌笋이오 自死者는 不可食이니라.]

(자(鷓)는 슬프다는 뜻이고, 고(鴣)는 괴롭다는 뜻이니, 우는 소리가 슬프고 괴롭다는 의미이다. 고기는 오장(五臟)을 보하여 심장(心腸)의 힘을 더해준다. 영남(嶺南)의 야생 칩의 독, 생금(生金)의 독, 뱀의 독, 버섯의 독 및 온장(瘟瘴)과 고기(蠱氣)로 인한 병이 오래되어 죽으려고 하는 증상을

해독한다. 털이 있는 그대로를 고아 술에 담가서 쓰거나 산 채로 찢어서 즙을 내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죽순(竹筍)을 꺼린다. 저절로 죽은 것은 먹을 수 없다.)

- [○ 脂는 澤手면 不裂이니라.]

[○ 기름은 손에 발라서 윤택하게 하면 손이 갈라 터지지 않는다.]

斑鳩<鳩> | 반구

斑鳩<鳩>明目 助陰陽이오 久虛瘦人 食最良을! 靑者仍能 補五臟이오 排膿消瘀 治諸瘡을.

반구(斑鳩)는 눈을 밝히고 음양(陰陽)을 도우며, 오랫동안 허하여 몸이 마른 사람이 먹으면 가장 좋다. 푸른 것은 오장(五臟)을 보하고, 배농(排膿)하며 어혈(瘀血)을 없애서 각종 창(瘡)을 치료한다.

- [衍義에 云 有有斑、無斑、灰色、大小之數種하나 其用則一也라 斑鳩는 味甘平하며 無毒이라 主明目、益氣하며 助陰陽하니 久病虛損人이 食之면 最補니라.]

[《본초연의(本草衍義)》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반점이 있는 것, 반점이 없는 것, 회색인 것, 몸집이 큰 것, 몸집이 작은 것 등의 몇 가지 종류가 있으나 그 작용은 하나이다. 반구(斑鳩)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주로 눈을 밝히고, 기(氣)를 보익하며, 음양기(陰陽氣)를 도우니, 오랜 병으로 허약해진 사람이 먹으면 가장 잘 보한다.]

- [○ 靑鳩는 主安五臟하야 助氣하며 補虛損、排膿血하며 并一切癰癤、惡瘡、蟻瘻하니 以五味로 淹하야 炙食之면 極甘美요 一種의 黃褐侯鳩는 功同하니 라.]

(○ 청구(靑鳩)는 오장(五臟)을 안정시키고, 기(氣)를 더해주며, 허손(虛損)을 보하고, 피고름을 배출시켜주며, 모든 응결(癰癰)과 악창(惡瘡) 및 의루(蟻癩)를 치료한다. 갓은 양념으로 절였다가 구워 먹으면 아주 맛이 달고 좋다. 일종인 황갈후구(黃褐侯鳩)도 효능이 같다.)

- (○ 鳩<鳩>屎丸이라 野鳩糞을 炒微焦 一兩 麝香、白朮 各二分 赤芍、靑木香 各五錢 柴胡 三分 玄胡索 一兩을 爲末하여 溫酒로 調服一錢이면 治帶下 하나 候膿盡하여 卽止後服하고 他藥으로 補血臟이니라.)

(○ 합시환(鳩屎丸)은 다음과 같다. 야생 비둘기의 똥을 1냥 약하게 볶은 것을, 사향(麝香)과 백출 각 1푼, 적작(赤芍)과 청목향(靑木香) 각 5푼, 시호(柴胡) 3푼, 현호색(玄胡索) 1냥 등과 함께 분말로 만들어 따뜻한 술에 한 돈씩 타서 먹으면, 대하(帶下)를 치료하니, 고름이 다 없어지면 복용하기를 그치고서, 다른 약으로 피와 장(臟)을 보한다.)

白鳩 | 백합

白鳩味鹹 氣亦平하니 益氣調精 解藥毒을! 瘡疥食之 立消除요 白癰風痒 炒酒服을.

백합(白鳩)은 맛이 짜고 약성이 평이하니, 기(氣)를 보익하고 정(精)을 고르게 하며 약독(藥毒)을 해독한다. 창개(瘡疥)에 먹으면 바로 없어지고, 백전(白癰)과 풍양(風痒)에 볶아서 술로 먹는다.

- (肉은 煖無毒이라 益氣、調精하며 解一切藥毒하며 止消渴하니 食之益人이나 若服藥人이 食之면 減藥力하여 無効니라 又治惡瘡、瘡癰、風瘙、白癰、風癩、瘍에 炒酒服之면 卽愈니라.)

(고기는 약성이 따뜻하고, 독이 없다. 기(氣)를 보익하고, 정(精)을 고르게 하며, 모든 약물의 독을 해독하고, 소갈(消渴)을 멎게 하니, 인체에 유익하나, 만약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약의 힘을 감소시켜 효과가

없게 된다. 또 악창(惡瘡), 개선(疥癬), 풍소(風癰), 백전풍(白癩), 풍나(風癩), 역양(癰瘍) 등을 치료하니, 볶아서 술로 먹으면 바로 낫는다.)

- [○ 尿는 主頭極痒不痛하며 生瘡하니 醋調成膏하야 煮二三沸하야 傳之요 白禿에 先以醋米泔으로 洗淨하고 爲末하야 傳之요 馬가 患疥에 取尿하야 炒黃 爲末하야 和草飼之거나 亦可外傳니라.]

(○ 똥은 머리가 심하게 가려운데 아프지는 않으며 창(瘡)이 발생한 것을 치료하니, 식초에 개어서 고약을 만들고 2~3차례 끓여서 붙인다. 백독(白禿)에는 먼저 식초와 쌀뜨물로 깨끗하게 씻고 분말로 만들어 붙이고, 말이 옴을 앓는 경우에는 똥을 노랗게 볶고 분말로 만들어 풀과 같이 먹이거나 겔에 붙인다.)

雀肉 | 작육

雀肉大溫 益元陽이오 卵起陰痿 大且強을! 腦主耳聾 血眼暗이오 決癰治翳 白丁香을.

작육(雀肉)은 약성이 아주 따뜻하고 원양(元陽)을 보익하며, 알은 발기부전(勃起不全) 환자의 음경(陰莖)을 크고 강하게 발기시킨다. 뇌(腦)는 이롱(耳聾)을 치료하고 피는 눈이 어두운 증상을 치료하고, 옹(癰)을 터뜨리고 예장(翳障)을 치료할 때는 백정향(白丁香)을 쓴다.

- [卽小麻雀也라 肉은 甘無毒이라 壯陽道、益氣、益精하야 令人으로 有子요 煖腰膝、縮小便、治崩帶하니 十月以後 正月以前에 宜食이니 取其陰陽未泄之義也라 今人이 取肉하야 以蛇床子和 熬膏하야 和合衆藥하야 丸服은 補下에 有効라 肉은 不可合李子、醬하야 同食이오 孕婦는 尤忌니라.]

(즉 몸이 작은 마작(麻雀)이다. 고기는 맛이 달고, 독이 없다. 성적 능력을 강성하게 만들고, 기(氣)와 정(精)을 보익하여 임신을 가능하게 한다. 허리와 무릎을 데우고, 소변을 줄이며, 붕루(崩漏)와 대하(帶下)를 치료한

다. 음력 10월 이후와 정월(正月) 이전에 먹는 것이 적합하니, 음(陰)과 양(陽)의 기(氣)가 아직 배설되지 않았다는 점을 취한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참새고기를 취하여 사상자(蛇床子)와 졸여서 고약을 만들어 여러 약물과 합해서 환으로 만들어 먹는 것은, 하초(下焦)를 보하는 데에 유효하기 때문이다. 참새고기는 자두나 간장과 같이 먹으면 안 되고, 임신부에게는 더욱 금한다.)

- [○ 卵은 酸溫 無毒이라 主下氣하며 男子陰痿不起를 強之하며 令熱多精케 하며 有子라 雀性은 利陰陽 故로 卵亦然하니 和天雄하야 爲丸服之면 令莖大하야 不衰니 入藥에 取第一番者라야 佳니라.]

[○ 알은 맛이 시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없다. 기(氣)를 내리며, 남성이 발기가 안 될 때 음경(陰莖)을 강하고 뜨겁게 만들고, 정액(精液)을 많게 하여 임신을 가능하게 한다. 참새는 성질이 음양(陰陽)의 기운을 원할하게 하므로, 알 역시 그렇다. 그래서 천웅(天雄)과 같이 제환(製丸)하여 먹으면 음경(陰莖)을 크고 쇠약하지 않게 하니, 약에 넣을 때에는 제일 처음 낳은 것이 좋다.]

- [○ 腦髓는 主耳聾하며 塗凍瘡이니라.]

[○ 뇌수(腦髓)는 이롱(耳聾)을 치료하고, 동상(凍傷)에 바른다.]

- [○ 頭血은 主雀盲하니 雞矇眼이 是也니라.]

[○ 머리의 피는 작맹(雀盲)을 치료하니, 계몽안(鷄矇眼)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 [○ 白丁香은 卽雄雀屎니 兩頭尖者 是라 主諸癰癤이 已成膿하야 不得破者에 塗之면 立潰요 目熱痛及努肉、白膜、赤脉貫瞳에 用男首生乳로 和如薄泥하야 點之면 卽消요 又女子帶下、溺不利에 蜜丸服이니 除疝瘕、久痼冷病하며

爛疰癰、諸塊、伏梁이라 又急黃欲死及喉閉、口噤에 細研하야 水下半錢이 오 婦人吹妳에 酒下一錢이오 齒痛有蟲에 綿裹하야 塞孔中이라 凡使에 細研하야 甘草湯에 浸一宿하야 焙乾用이니 臘月者라야 佳니라.)

(○ 백정향(白丁香)은 숫참새의 똥인데, 양끝이 뾰족하게 생겼다. 각종 응결(癰癰)이 이미 화농(化膿)이 되었는데도 터지지 않은 데에 바르면 바로 터진다. 눈에 열이 나면서 아픈 증상, 노육(努肉), 백막(白膜), 적맥(赤脈)이 눈동자를 관통하는 증상에, 첫째 아들을 낳은 여성의 모유(母乳)로 묻은 진흙처럼 개어서 넣으면 바로 없어진다. 또 여성의 대하(帶下)와 소변이 시원치 못한 증상에는 꿀로 제한하여 먹는다. 산가(疝瘕)와 오래된 고냉병(痼冷病)을 없애고, 헌벽(疝癖), 각종 덩어리, 복랑(伏梁)을 문드러지게 한다. 또 급성 황달(黃疸)로 죽으려고 하며, 목이 막히고, 입이 닫힌 증상에는 곱게 갈아서 물로 반 돈씩 먹고, 여성의 취유(吹妳)에는 술로 1돈씩 먹는다. 치통(齒痛)으로 벌레가 생긴 경우에는, 솜으로 싸서 구멍을 막는다. 사용할 때에는 곱게 갈아서 감초탕(甘草湯)에 하룻밤 담갔다 불로 찌어 말려서 쓴다. 설달에 채취한 것이 좋다.)

烏鴉 | 오아

烏鴉無毒 味鹹平하니 專祛勞嗽 骨熱蒸을! 臘月罐中 煨末服이오 更醫兒癰 治目睛을.

오아(烏鴉)는 독이 없고 맛이 짜며 약성이 평이하니, 노수(勞嗽)와 골증열(骨蒸熱)을 전문적으로 제거한다. 설달에 옹기에 넣고 불로 달구고 분말로 만들어 먹고, 또 소아의 전간(癲癇)을 치료하고 눈동자를 치료한다.

- 〔主勞瘦、骨蒸、咳嗽하니 臘月에 取翅羽、觜足이 全者를 瓦罐에 固濟하야 火煨爲末하야 米飲으로 下라 兼治小兒驚癇、鬼魅니라.〕

(노수(勞瘦), 골증(骨蒸), 해수(咳嗽)를 치료하니, 선달에 날개와 주둥이와 다리가 온전한 것을 잡아서 옹기에 넣고 밀폐한 후, 불로 달구고 분말로 만들어 미음으로 먹는다. 아울러 소아의 경간(驚癇)과 귀매(鬼魅)를 치료한다.)

- (○ 目睛汁을 注目中이면 治目暗이니라.)

(○ 눈동자의 좁은 사람의 눈 속에 넣으면 눈이 어두워진 증상을 치료한다.)

- (○ 頭骨은 燒灰하여 傅土蜂癭니라.)

(○ 머리뼈는 태워서 그 재를 토봉루(土蜂癭)에 붙인다.)

- (○ 慈鴉는 似烏而小하며 多羣飛하며 作鴉鴉聲者 是니 北土에 極多하며 不作膻臭하니 卽今之寒鴉라 主補虛勞瘦弱하며 止上氣、咳嗽及骨蒸發熱하니 和五味하여 炙食之면 良이라 其大鴉肉은 澁하니 只能治病이오 不宜常食이니라.)

(○ 자아(慈鴉)는 까마귀와 비슷한데 작고, 대부분 떼를 지어 날아다니면서 ‘아아’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이것인데, 북쪽지방에 아주 많고, 누린내가 나지 않으니, 바로 지금의 ‘한아(寒鴉)’이다. 주로 허로(虛勞)로 인한 수약(瘦弱)을 보하고, 상기(上氣)와 기침 및 골증발열(骨蒸發熱)을 멎게 하니, 온갖 양념을 해서 구워 먹으면 좋다. 큰 까마귀 고기는 뱉으니, 단지 병만 치료할 뿐, 일상에서 먹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 (○ 又廣東의 一種白鴉는 補陽氣하여 令人으로 有子하며 治勞瘵에 尤佳니라.)

(○ 또 광동(廣東)에 있는 일종인 백아(白鴉)는 양기(陽氣)를 보하여 임신을 가능하게 하며, 노채(勞瘵)에는 더욱 좋다.)

喜鵲甘寒 主石淋하니 燒灰取汁 熱能清을! 多年巢療 癲狂魅요 蠱毒燒之 呼崇名을.

희작(喜鵲)은 맛이 달고 약성이 차니 석림(石淋)을 치료하고, 태운 재에서 나온 즙은 열을 식힌다. 해묵은 등지는 전광(癲狂)과 귀매(鬼魅)를 치료하고, 고독(蠱毒)에 걸린 경우 태우면 병의 빌미가 된 이름을 부른다.

- [以翼으로 左覆右면 是雄이오 右覆左면 是雌라 又燒毛作屑하야 內水中에 沉者면 是雄이오 浮者면 是雌니 入藥에 只取雄者라 肉은 甘無毒이라 主消渴하며 下石淋、消結熱하니 燒灰淋汁하야 飲之면 石卽下요 又主風秘、四肢煩熱、胃膈痰結이라 婦人은 不可食이니라.]

(왼쪽 날개로 오른쪽을 덮으면 수컷이고, 오른쪽 날개로 왼쪽을 덮으면 암컷이다. 또 깃털을 태워서 가루를 내어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수컷이고, 뜨면 암컷이다. 약에는 수컷만 쓴다. 고기는 맛이 달고, 독이 없다. 소갈(消渴)을 치료하고, 석림(石淋)을 나가게 하며, 응결한 열(熱)을 없애니, 태워서 재를 만들며 흘러내린 즙을 마시면 결석(結石)이 바로 내려간다. 또 풍비(風痺), 사지(四肢)의 번열(煩熱), 흉격(胸膈)에 담(痰)이 응결한 증상을 치료한다. 부인들은 먹으면 안 된다.)

- [○巢多年者는 主癲狂、鬼魅及蠱毒等에 燒之하면 仍呼崇物名號요 亦可傳瘡瘡이니라.]

(○여러 해 묵은 등지는 전광(癲狂), 귀매(鬼魅), 고독(蠱毒) 등에 걸렸을 때, 태우면 병의 빌미가 된 사물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또 누창(瘰癧)에 붙일 수 있다.)

鴿鵲肉 | 구육육

鴿鵲肉甘 平無毒하니 老嗽吃噫 取蒸服을! 痔瘻下血 尤其靈이오 乳汁和睛 可點目을.

구육육(鳩鵲肉)은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으니, 노수(老嗽)와 흘히(吃噫)에 잡아다가 찌서 먹는다. 치루(痔瘻)로 하혈(下血)하는 경우에 더 영험한 효과가 있고, 젖에 그 눈동자를 곱게 갈아서 넣고 눈에 떨어뜨린다.

- [格物論에 云 鳩鵲은 慧鳥也라 端午日에 取子하야 去舌端이면 能効人言句호대 若谷聲有應也라 主老嗽、吃噫、下氣하니 取一箇하야 蒸食거나 或煮作羹食거나 或灸爲末하야 蜜丸服之요 痔瘻下血에 五味로 炙食之니 俱以臘月臘日에 得者라야 有効니라.]

(격물론(格物論)에서 구관조는 지혜로운 새라고 말했다. 단오(端午)에 새끼를 잡아서 혀끝을 자르면 사람의 말을 모방하는데, 마치 골짜기에서 메아리가 상응하는 것처럼 한다. 노수(勞嗽)와 흘히(吃噫)를 치료하고, 기(氣)를 내리니, 한 마리를 찌서 먹거나, 삶아서 국으로 먹거나, 구워서 분말로 만들어 꿀로 제환(製丸)해서 먹는다. 치루(痔瘻)로 하혈(下血)하는 경우에는, 온갖 양념을 해서 구워서 먹는데, 선달 납일(臘日)에 잡은 것이 라야 유효하다.)

- [○ 目睛은 和乳汁研하야 點眼이면 能見雲外之物이라.]

(○ 눈동자를 젖으로 갈아서 눈에 넣으면 구름 너머에 있는 사물을 볼 수 있다.)

孔雀 | 공작

孔雀〔肉은 鹹凉하며 微毒이라 解藥毒、蠱毒이니라.〕

공작(孔雀)〔고기는 맛이 짜고, 약성이 서늘하며, 독이 약간 있다. 약물(藥物)의 독과 고독(蠱毒)을 해독한다.〕

- [○ 血은 治毒藥하니 生飲이라야 良이니라.]

(○ 피는 독약(毒藥)을 치료하니, 날것을 마셔야 좋다.)

- [○ 尿는 主女子帶下、小便不利하며 傳惡瘡이니라.]

[○ 똥은 여성의 대하(帶下)와 소변불리(小便不利)를 치료하며, 악창(惡瘡)에 붙인다.]

- [○ 尾는 入眼이면 令昏翳니라.]

[○ 꼬리가 눈에 들어가면 눈이 어두워지고 예장(翳障)이 생긴다.]

鰯 | 계척

鰯 [肉은 甘平하며 無毒이라 食之하야 治驚邪하고 養之하야 辟短狐하나니 古云 鰯
湫은 尋邪而逐害라하니 是也니라.]

계척(鰯) [고기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이것을 먹으면 경
사(驚邪)를 치료하고, 기르면 단호(短狐)를 물리친다. 예전 사람들이 계척(鰯
) 이 사기(邪氣)를 찾고 해로움을 쫓아낸다고 했던 말이 이것이다.]

鴛鴦 | 원앙

鴛鴦 [肉은 鹹平하며 小毒이라 主諸癰、疥癬하니 酒浸炙食거나 或炙熱하야 傳瘡
上호대 冷則易이오 食之면 令患大風이라 又夫婦不和에 作羹하야 私與食之니라.]

원앙(鴛鴦) [고기는 맛이 짜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소량 있다. 각종 누(癰)
와 개선(疥癬)을 치료하니, 술에 담갔다가 구워서 먹거나, 구워서 뜨겁게 하여
창(瘡) 위에 붙이되, 식으면 갈아 준다. 먹으면 대풍(大風)을 앓게 한다. 또 부
부가 불화(不和)할 때 국을 끓여 사적으로 몰래 먹인다.]

白鵲 | 백한

白鵠(肉은 可食이라 色白而背有細黑文이라 亦堪畜養이니 或疑컨대 卽白雉也裏라.)

백한(白鵠) (고기는 먹을 수 있다. 색이 희고 등에 가느다란 검은 무늬가 있다. 역시 가축으로 기를 수 있는데, 혹은 흰 꿩이 아닌가 의심된다.)

錦鷄 | 금계

錦鷄(肉은 食之면 令人으로 聰明이라 文采形狀이 畧似雄雉하며 毛羽에 皆作圓斑點하고 尾는 倍長하며 喙有肉綬하야 睛則舒於外하니 人謂之吐錦이니라.)

금계(錦鷄) (고기는 먹으면 사람을 총명하게 만든다. 아름답게 광채가 나는 모습은 대략 수꿩과 비슷한데, 깃털에 둥근 반점이 있고, 꼬리는 두 배가 길며, 모이주머니에 근육으로 된 끈이 늘어져서 날씨가 맑으면 겉으로 펴내니, 사람들은 비단을 토한다고 말한다.)

天鵝 | 천아(天鵝)

天鵝(肉은 甘平하며 無毒이라 性冷하니 醢食이라야 佳라 絨毛는 療刀杖瘡이면 立愈니라.)

천아(天鵝) (고기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성질이 차니, 소금에 절여서 먹어야 좋다. 털로 칼과 몽둥이에 입은 창상(瘡傷)을 치료하면 바로 낫는다.)

白鶴 | 백학

白鶴(肉은 鹹平하며 無毒이라 益氣力이니라。血은 益血虛、補勞乏하며 去風、補肺하니 勞弱者는 宜食之니라。肫中砂石子는 磨服하야 治蠱毒、邪氣니라.)

백학(白鶴)〔고기는 맛이 짜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기력(氣力)을 더 해준다. ○ 피는 혈허(血虛)를 보익하고, 과로로 체력이 결핍된 증상을 보하며, 풍(風)을 없애고, 폐(肺)를 보한다. 과로로 약해진 사람이 먹기에 적당하다. ○ 밥통 속의 모래를 갈아서 복용하면 고독(蠱毒)과 사기(邪氣)를 치료한다.〕

鷺鷥 | 노자

鷺鷥〔肉은 鹹平하며 無毒이라 主虛羸하며 益脾、補氣하니 炙食之니라.〕

노자(鷺鷥)〔고기는 맛이 짜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허리(虛羸)를 치료하고, 비장(脾腸)을 보익하며, 기(氣)를 보하니, 구워서 먹는다.〕

鶴鶴 | 관학

鶴鶴〔似鶴하나 但頭無丹하며 項無烏耳라 骨은 甘寒하며 無毒이라 主鬼疰、蠱毒、心腹痛하니 炙黃爲末하야 空心에 酒下니라.〕

관학(鶴鶴)〔학과 비슷하지만, 머리에 단정(丹頂)이 없고 목덜미에 검은 줄이 없다. 뼈는 맛이 달고, 약성이 차며, 독이 없다. 귀주(鬼疰), 고독(蠱毒), 심복통(心腹痛)을 치료하니, 노랗게 굵고 분말로 만들어 공복에 술로 먹는다.〕

- 〔○ 脚骨及觜는 主喉痺、飛尸、蛇咬及小兒閃癖、大腹、痞滿에 並煮汁하야 服之니라.〕

〔○ 종아리의 뼈와 부리는 후비(喉痺), 비시(飛尸), 뱀 물린 상처와 소아의 섬벽(閃癖) 및 대복(大腹), 비만(痞滿) 등을 치료하니, 달여서 즙을 먹는다.〕

鷹 | 응

鷹〔肉은 食之하면 主邪魅、狐魅니라.〕

응(鷹)〔고기를 먹으면 사매(邪魅)와 호매(狐魅)를 치료한다.〕

- 〔○ 觜、爪、頭는 燒灰服하야 主五痔니라.〕

〔○ 부리, 발톱, 대가리는 태워서 그 재를 먹고서 다섯 종류의 치질(痔疾)을 치료한다.〕

- 〔○ 屎白은 平하며 小毒이라 主中惡、小兒乳癖하며 和殭蠶、衣魚之屬하야 爲膏면 滅傷撻 癥痕이니라.〕

〔○ 시백(屎白)은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약간 있다. 중악(中惡)과 소아의 유벽(乳癖)을 치료한다. 강잠(殭蠶)과 의어(衣魚) 등의 종류와 섞어서 고약을 만들어 쓰면 맞아서 생긴 흉터를 없앤다.〕

- 〔○ 眼睛은 和乳汁 研하야 點眼三日이면 見碧霄中物이니 忌烟이니라.〕

〔○ 눈동자는 유즙과 같이 갈아서 눈에 3일 동안 넣으면 푸른 하늘 가운데 있는 물체를 볼 수 있다. 연기를 금한다.〕

鷓| 구

鷓(肉은 甘 無毒이라 主燥渴、狂邪하니 五味로 淹하야 炙食之니라.〕

구(鷓)〔고기는 맛이 달고, 독이 없다. 조갈(燥渴)과 광사(狂邪)를 치료하니, 오미(五味)로 양념을 하고 절여서 구워 먹는다.〕

鷓| 노자

鷓(頭는 微寒이라 主魚骨鯁及噎하니 燒灰服之면 効니라.〕

노자(鷓)〔대가리는 약성이 약간 차다.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거나 목이 멘 증상을 치료하니, 태운 재를 먹으면 효과적이다.〕

- 〔○ 尿는 主面癰、酒皰及湯火瘡痕、疔瘡하니 和猪脂하야 調傳요 小兒疳蛔에 灸猪肝으로 蘸末하야 食之면 奇効라 其尿는 多在山石上하며 色紫如花하니 就石上하야 刮取白者하야 用之니 市者는 多僞니라.〕

〔○ 똥은 얼굴의 반점, 주사(酒皰)와 화상으로 인한 흉터, 정창(疔瘡) 등을 치료하니, 돼지기름으로 개어서 붙인다. 소아의 감병(疳病)과 회충(蛔蟲)에는 돼지의 간을 굽고 똥의 분말을 쳐서 먹으면 대단히 효과적이다. 이 똥은 산의 바위 위에 많은데, 자색(紫色)으로 마치 꽃이 피어있는 것과 비슷하다. 바위 위에서 흰 부분을 긁어서 채취하여 쓴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가짜가 많다.〕

鷓鴣 | 암순

鷓鴣(味甘平이라 補五臟、益中、續氣하며 實筋骨하며 耐寒溫、消結熱이라 小豆에 和生姜하야 煮食之면 止洩痢요 酥煎이면 令人으로 下焦肥요 和猪肉食이면 生黑子요 和菌子食이면 發痔라 小兒患疳及下痢五色에 日日食之면 有効요 春月엔 不可食이니라.〕

암순(鷓鴣)〔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다. 오장(五臟)을 보하고, 중초(中焦)를 보익하며, 기(氣)를 잇고, 근골(筋骨)을 채워주며, 추위와 더위를 견디게 하고, 응결한 열(熱)을 없앤다. 팔과 생강(生薑)을 같이 넣고 삶아 먹으면 설사와 이질(痢疾)이 멎는다. 연유(煉乳)로 졸여서 복용하면 하초(下焦)를 살찌우고, 돼지고기와 같이 먹으면 주근깨가 생기며, 버섯과 같이 먹으면 치질(痔疾)이 생긴다. 소아의 감병(疳病)과 오색하리(五色下痢)에 날마다 먹으면 유효하다. 봄에는 먹으면 안 된다.〕

竹鷄 | 죽계

竹鷄(味甘平하며 無毒이라 主野鷄病하며 殺蟲하니 煮灸하야 食之니라.〕

죽계(竹鷄)〔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야생 닭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며, 벌레를 죽이니, 삶아서 먹거나 구워서 먹는다.〕

山鷓 | 산자

山鷓(味甘溫이라 食之하여 解諸果毒이니라.)

산자(山鷓)〔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다. 먹으면 각종 과일의 독을 해독한다.〕

燕屎 | 연시

【燕屎】〔味辛平하며 有毒이라 主鬼疰・蠱毒하며 破五癰 利小便하니 入藥에 當用 胡燕者라야 佳니라.〕

【연시(燕屎)】〔맛이 맵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있다. 귀주(鬼疰)와 고독(蠱毒)을 주치하고, 오름(五癰)을 부수며, 이뇨(利尿) 작용을 하니, 약에는 호연(胡燕)의 똥이 좋다.〕

- 〔○ 窠中土는 主卒得浸淫瘡하여 有汁에 水和塗之요 又與屎와 等分을 以作湯 하여 浴小兒면 治驚癇이니라.〕

〔○ 등지 속의 흙은 급성 침음창(浸淫瘡)에 걸려 진물이 흐를 때 물로 개어서 바른다. 또 똥과 같은 양을 끓여서 소아를 목욕시키면 경간(驚癇)을 치료한다.〕

- 〔○ 肉은 出痔蟲이니라.〕

〔○ 고기는 치충(痔蟲)을 나오게 한다.〕

- 〔○ 卵은 主水腫이니라.〕

〔○ 알은 수종(水腫)을 치료한다.〕

鵲嘲 | 골조

鵲嘲(鹹平하며 無毒이라 助氣하야 益脾胃하며 去頭風 目眩하니 煮炙하야 食之니라.)

골조(鵲嘲)〔맛이 짜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기(氣)를 더해주고, 비위(脾胃)를 보익하며, 두풍(頭風)과 목현(目眩)을 제거하니, 삶아서 먹거나 구워서 먹는다.〕

翠鳥 | 취조

翠鳥(鹹平하며 無毒이라 主鯁及魚骨이 入肉하야 痛甚者하니 燒令黑하야 末하야 頓服이오 或煮汁飲之라고도 亦佳니라.)

취조(翠鳥)〔맛이 짜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생선의 가시와 생선의 뼈가 살로 들어가서 생긴 심한 통증을 치료하니, 검게 태우고 분말로 만들어 한 번에 먹거나, 달인 즙을 마셔도 좋다.〕

啄木 | 탁목

啄木(此鳥에는 有大有小하니 有褐者는 是雌요 斑者는 是雄이라 又有黑者하니 頭上에 有紅毛하고 大如鵲하며 觜如錐하야 長이 數寸이니 常穿木하야 食蠹故로 名이라 性平하며 無毒이라 主痔漏有頭하야 膿水不止에 取一隻 燒灰하야 酒下二錢이오 牙齒疳、虫牙疼痛에 燒爲末하야 內牙孔中이면 不過三次요 或取舌尖綿裹하야 於痛處에 咬之니 俱以端午日에 得者라야 佳니라.)

탁목(啄木)〔이 새는 몸집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갈색이 있는 것은 암컷이고, 반점이 있는 것은 수컷이다. 또 검은 것이 있으니, 머리 위에 붉은 털이 있고, 크기는 까치와 비슷하며, 부리는 송곳과 같고, 길이는 몇 촌이다. 늘 나무를 뚫어서 벌레를 잡아먹어서 이렇게 명명한 것이다. 약성은 평이하고, 독

이 없다. 치루(痔瘻)에 머리가 있어서 고름이 그치지 않는 증상을 치료하니, 한 마리를 태워서 재로 만들고 술로 2돈씩 먹는다. 치아의 감닉(疳蠱)과 벌레 먹어 아플 때, 태운 재를 분말로 만들어 치아의 구멍에 넣으면, 3번 이내에 효과를 볼 것이다. 혹은 그 허끝을 솜에 싸서 아픈 곳에 대고 물고 있을 것이니, 모두 단오(端午)에 잡은 것이라야 좋다.)

練鵲 | 연작

練鵲(味甘平하며 無毒이라 主益氣하며 治諸風疾하니 冬間에 取去毛하고 炒香하여 用絹袋로 盛하여 以淸酒로 浸一月하여 每日溫飲之니라.)

연작(練鵲)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기(氣)를 보익하고, 각종 풍병(風病)을 치료하니, 겨울에 잡아서 털을 없애고 향기가 나도록 볶아서, 명주 주머니에 담아서 맑은 술에 한 달 동안 담갔다가, 매일 따듯하게 마신다.)

百舌鳥 | 백설조

百舌鳥(主蟲咬・心胃痛하니 炙食之요 亦主小兒久不語니라.)

백설조(百舌鳥) (벌레 물린 상처와 심위(心胃)의 통증을 치료하니, 구워서 먹는다. 또 소아가 오랫동안 말하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布谷鳥 | 포곡조

布谷鳥(食之면 令夫妻로 相愛라 以爪并頭를 五月五일에 收하여 帶之各一호대 男左女右니라.)

포곡조(布谷鳥) (먹으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만든다. 발톱과 대가리를 음력 5월 5일에 채취하여 몸에 각각 하나씩 지니되, 남자는 왼쪽으로, 여자는 오른쪽으로 한다.)

鵪鶉 | 교조

鵪鶉〔肉은 寒不堪食이오 人家養之면 最厭火災니라.〕

교조(鵪鶉)〔고기는 성질이 차서 먹기가 힘들다. 인가(人家)에서 기르면 화재(火災)를 가장 잘 진압한다.〕

杜鵑 | 두견

杜鵑〔按本草에 云 初鳴을 先聞者는 主離別이오 學其聲이면 令人으로 吐血이오 鳴至口中 出血이라야 始止 故로 有嘔血事也라 하니라.〕

두견(杜鵑)〔본초(本草)의 말을 참고해 보건대, 첫 울음소리를 먼저 들은 사람은 이별을 한다고 하였고, 그 소리를 배우면 사람이 피를 토한다고 하였다. 이 새는 울면 목에서 피가 나와야만 그치므로, 피를 토하는 일이 있게 된다고 한 것이다.〕

- 〔○ 抑論컨대 禽獸肉은 皆補陽氣나 然이나 禽은 本乎天하며 又爲陽中之陽이니 陰虛者는 慎之니라.〕

〔○ 또 논의해 보건대, 새와 짐승의 고기는 모두 양기(陽氣)를 보하나, 새는 하늘에 근본하며, 양(陽) 중의 양(陽)이니, 음허(陰虛)한 사람은 삼간다.〕

1.2.4. 蟲魚部 | 충어부

- 〔龜鱉墨魚鯪鯉已上見前卷.〕

〔거북이, 자라, 흑어(墨魚), 능리(鯪鯉)는 이미 앞 권에 보인다.〕

鯪魚 | 이어

【鯪魚】止渴 消浮腫이오 腹有癥瘕 食不宜를! 骨主女人 崩赤白이오 青盲白翳 膽尤奇를.

【이어(鯪魚)】는 갈증을 멎게 하고 부종(浮腫)을 없애나, 뱃속에 징가(癥瘕)가 있는 환자는 먹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뼈는 여성의 적백붕대(赤白崩帶)를 치료하고, 청맹(靑盲)과 백예(白翳)에 쓸개가 더욱 효과가 있다.

- 〔鯪는 理也니 三十六鱗으로 文理 明也라 味甘平하며 無毒이라 止渴、消水腫、黃疸、脚氣하며 主咳嗽、上氣、喘促、安胎라 治懷孕身腫에 煮爲湯하야 食之요 破冷氣、疝癖、氣塊하니 橫關伏梁에 作鱸하야 和蒜薑하야 食之요 腹有宿瘕及天行病後엔 俱不可食之니 食之면 再發卽死요 久服天門冬人도 不可食이라 九溪澗砂石中者는 有毒이 多在腦內하니 不得食頭요 九修理에 可去脊上兩筋과 黑血이니 有毒이오 及目傍에 有骨如乙字하니 食之면 令人瞶이오 肉忌葵菜하고 卵忌豬肝하고 鮓忌豆葉하니 同食害人이라 衍義에 云 鯪魚는 至陰之物이니 陰極則陽復하나니 所以로 素問에 曰 魚는 熱中이라하니 食多면 發風熱이오 日華에 云 風家 食魚면 貽禍無窮이라하니라.〕

〔‘리(鯪)’는 결이라는 뜻으로서, 서른여섯 개의 비늘이 있고, 무늬가 분명하다. 고기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갈증을 멎게 하고, 수종(水腫), 황달(黃疸), 각기(脚氣)를 없앤다. 해수(咳嗽), 상기(上氣), 숨이 찬 증상을 치료하고, 태아(胎兒)를 안정시킨다. 임신부의 부종(浮腫)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달여서 탕으로 먹는다. 냉기(冷氣), 헌벽(疝癖), 기괴

(氣塊) 등을 파괴하니, 가로로 걸린 복량(伏梁)에 회를 쳐서 마늘을 버무려 먹는다. 뱃속의 묵은 가(癥)와 유행병을 앓은 후에는 모두 먹어서는 안 되니, 먹으면 재발하여 죽는다. 천문동(天門冬)을 장복하는 사람도 먹으면 안 된다. 대개 계곡의 모래와 돌 사이에 있는 잉어는 독이 있는데, 독은 대부분 뇌 속에 있으므로 대가리는 먹으면 안 된다. 조리할 때 척추 양쪽 근육과 검은 피는 제거해야 하니 독이 있기 때문이다. 눈알 곁에 을(乙)처럼 생긴 뼈가 있는데 먹으면 목에 가시가 걸린다. 고기는 규채(葵菜)를 금하고, 알은 돼지의 간을 금하며, 젓갈은 콩잎을 금하니, 함께 먹으면 사람을 해친다. 《본초연의(本草衍義)》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잉어는 지극히 음적(陰的)인 생물이니, 음이 지극하면 양(陽)이 회복되는 것이 양의 이치이므로, 《소문(素問)》에서 물고기는 중초(中焦)에 열이 생기게 한다고 하였으니, 많이 먹으면 풍열(風熱)을 발생시킨다. 《일화자(日華子)》에서 풍병(風病)에 걸린 환자가 생선을 먹으면 끼치는 화(禍)가 끝이 없다고 하였다.)

- [○ 骨은 主女子帶下赤白、陰蝕이니라.]

[○ 뼈는 여성의 적백대하(赤白帶下)와 음부(陰部)의 부식(腐蝕)을 치료한다.]

- [○ 膽은 苦하니 久服이면 强悍하며 益志氣요 點眼이면 治目熱赤痛、青盲、白翳하고 滴耳中이면 療聾하고 塗小兒熱腫하며 咽喉痺腫에 和竈心土하야 塗之면 立差요 蜀漆로 爲使니라.]

[○ 쓸개는 맛이 쓰니, 장복하면 강하고 세차게 되며, 지기(志氣)를 더하게 된다. 눈에 넣으면 목열적통(目熱赤痛), 청맹(靑盲), 백예(白翳)를 치료한다. 귓속에 떨어뜨리면 이롱(耳聾)을 치료한다. 소아의 열종(熱腫)에 바르며, 인후(咽喉)가 비종(痺腫)한 경우에는, 아궁이 흙과 섞어서 바르면 바로 낫는다. 촉칠(蜀漆)로 사약(使藥)을 삼는다.]

- [○ 脂는 主諸癰及小兒癰疾、驚忤하니 食之면 良이니라.]

[○ 기름은 각종 간질(癰疾)과 소아의 간질(癰疾) 및 객오(客忤)를 치료하니, 먹으면 좋다.]

- [○ 腦髓는 治暴聾하니 煮粥食之니라.]

[○ 뇌수(腦髓)는 급성 이롱(耳聾)을 치료하니, 죽을 쑤어 먹는다.]

- [○ 血은 主小兒丹毒、瘡腫하니 塗之即差니라.]

[○ 피는 소아의 단독(丹毒)과 창종(瘡腫)을 치료하니, 바르면 바로 낫는다.]

- [○ 眼睛은 主刺在肉中、中風水하야 腫痛者하니 燒灰內瘡中하면 汁出即愈니 諸魚目도 並好니라.]

[○ 눈알은 가시에 찔린 상처와 풍수(風水)에 맞아 붓고 아픈 증상을 치료하니, 태운 재를 창(瘡) 속에 넣으면 진물이 나오면서 바로 낫는다. 각종 물고기의 눈알도 모두 좋다.]

- [○ 齒는 主石淋하니 燒灰酒下니라.]

[○ 이빨은 석림(石淋)을 치료하니, 태운 재를 술로 먹는다.]

- [○ 腸은 主瘻及小兒肌瘡하니 取腸切作五段하야 火炙香이어든 洗淨하고 封之 호대 冷即又易하야 覺痒蟲出이면 即愈니라.]

[○ 창자는 누(瘻)와 소아의 살결 창(瘡)을 치료하니, 창자를 5마디로 잘라서 향기가 나도록 구워서 창이 생긴 곳을 잘 씻고 붙이되, 식으면 바꾸어 준다. 이렇게 하면 가렵게 되며 벌레가 나오면 바로 낫는다.]

- [○ 鱗은 主產後血滯腹痛하니 燒灰酒下요 兼治氣血하니 雜諸藥하야 用之니라.]

[○ 비늘은 산후에 피의 정체로 인한 복통(腹痛)을 치료하니, 태운 재를 술로 먹는다. 아울러 기혈(氣血)을 치료하니, 여러 약물과 섞어서 쓴다.]

- (○ 皮는 主癰疹이니라.)

(○ 껍질은 은진(癰疹)을 치료한다.)

蠡魚 | 여어

【蠡魚】無毒 味甘寒하니 下水消浮 濕痺安을! 五痔灸腸 安穀道요 膽攻喉痺 効如丹을.

【여어(蠡魚)】는 독이 없고 맛이 달며 약성이 차니, 물을 배출하여 부종(浮腫)을 없애고 습비(濕痺)를 낮게 한다. 다섯 가지의 치질(痔疾)에 창자를 구워서 항문 속에 넣어 안치하고, 쓸개가 후비(喉痺)를 공격하면 단(丹)처럼 효과가 있다.

- (蠡는 禮也니 頭載七星而夜禮北斗也라 衍義에 云 卽今之黑鯉魚也니 道家는 爲其頭有星으로 爲地厭하니 世有知之者는 徃徃不敢食이라 하니라 主濕痺、面目浮腫、二便壅塞이라 又腸痔로 下血疼痛者는 作鱸하야 和蒜齧하야 食之니 脚氣、風氣에도 亦宜라 丹溪는 治癰에 用此하야 以代花蛇하니 是亦去風이오 古方에 有單用安胎者나 多食이면 亦發癰疾이니라.)

(려(蠡)는 예의라는 말이니, 머리에 일곱 개의 별을 이고 있으며 밤에 북두칠성에 예를 표한다. 《본초연의(本草衍義)》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요즘의 검은 잉어이니, 도가(道家)에서는 머리에 별이 있으므로 지염(地厭)으로 삼았는데, 세상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종종 감히 먹지 못한다. 습비(濕痺), 얼굴과 눈의 부종(浮腫), 대소변이 막힌 증상을 치료한다. 또 장치(腸痔)로 하혈(下血)하며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회를 쳐서 마늘과 버무려 먹일 것이니, 각기(脚氣)와 풍기(風氣)에도 적합하다. 주단계(朱丹溪)는 나병(癰病)을 치료할 때 이것으로 백화사(白花蛇)를 대용했는데, 이것도 역시 풍(風)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옛 처방에는 단방(單方)으로 안태(安胎)하기도 하였으나, 많이 먹으면 고질(癰疾)을 유발한다.)

- [○ 腸은 主五痔하니 以五味로 炙令香하야 綿裏納穀道中을 一食頃이면 蟲當 出이니라.]

[○ 창자는 다섯 가지의 치질을 치료하니, 오미(五味)로 양념하여 향기가 나도록 구워서 속에 싸 항문에 넣기를 한 식경(食頃) 정도 하면 벌레가 나온다.]

- [○ 諸魚膽은 苦로대 惟此魚膽은 味甘可食이 爲異也니 臘月 에 收하야 陰乾爲 末이라가 遇急喉痺어든 取少許하야 點患處면 藥至卽差요 甚者면 水調灌之니 라.]

[○ 각종 물고기의 쓸개는 맛이 쓴데, 오직 가물치의 쓸개만은 맛이 달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설달에 모아 그늘에서 말려 분말로 만들었다가, 급성 후비(喉痺)를 만나게 되는 경우 조금씩 아픈 곳에 넣으면, 약이 달자마자 바로 낫는다. 심한 환자는 물에 개어서 주입한다.]

鯽魚 | 즉어

鯽魚調胃 味甘溫하니 下血腸風 釀白礬을! 久痢赤白 堪爲鱠요 惡瘡燒末 醬塗痕을.

즉어(鯽魚)는 위(胃)를 조절하고 맛이 달며 약성이 따뜻하니, 하혈(下血)과 장풍(腸風)에 백반(白礬)으로 빚어서 쓴다. 만성 적백이질(赤白痢疾)에는 회를 쳐서 쓸 수 있고, 악창(惡瘡)에는 태운 재를 장(醬)에 개어 흉터에 바른다.

- [丹溪가云 諸魚는 皆屬火로대 惟鯽魚는 屬土 故로 能入陽明하야 而有調胃實腸之功이나 若得之多者는 未嘗不起火也라하고 又云 魚在水中에 無一息之停 故로 能動火하니 戒之라하니라 合蓴菜 作羹이면 主胃弱不下食하며 調中、下氣、補虛、益五臟이오 釀白礬 燒灰면 治腸風、下血이오 作鱠면 主腸澼、水穀不調及赤白久痢、脚氣、痔瘻요 諸惡瘡에 燒灰和醬汁하야 塗之거나 或取猪脂하야 煎用이니 又主腸癰이오 開其腹하고 內少塩하야 燒之면 治齒痛이라

和蒜食之면 有少熱하고 和薑醬食之면 有少冷이오 夏月熱痢에 食之多益이나 冬月中則不治也라 若與砂糖、蒜、芥、猪肝、鷄肉과 同食이면 成疳蟲이니 라.)

(주단계(朱丹溪)가 다음처럼 말했다. 각종 물고기는 모두 화(禍)에 속하는데, 붕어만은 토(土)에 속하므로, 양명(陽明)으로 들어가서 위(胃)를 조절하고 장(腸)을 실하게 하는 효능이 있으나, 많이 먹은 경우 화증(火症)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또 다음처럼 말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잠시도 멈추어 있는 때가 없으므로, 화(火)를 동하는 것이니, 경계해야 한다. 순채(蓴菜)와 같이 국을 끓여 먹으면, 위가 약하여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중초(中焦)를 조절하고, 기(氣)를 내리며, 허(虛)를 보하고, 오장(五臟)을 보익한다. 백반(白礬)을 넣고 태워서 재로 만들어 장풍하혈(腸風下血)을 치료한다. 회로 만들어 먹으면 장피(腸癖), 수곡(水穀)이 고르지 못한 증상, 만성 적백이질(赤白痢疾), 각기(脚氣), 치루(痔漏)를 치료한다. 각종 악창(惡瘡)에는 태운 재를 장(醬)에 개어 바르거나, 돼지기름과 같이 볶아서 사용한다. 또 장옹(腸癰)을 치료한다. 그 배를 갈라서 소금을 조금 넣고 태운 것은 치통(齒痛)을 치료한다. 마늘과 같이 먹으면 작은 열이 생기고, 생강(生薑)과 간장을 섞어 먹으면 약간 차게 된다. 여름철 열성 이질(痢疾)에 먹으면 아주 유익하나, 겨울에는 치료하지 못한다. 만약 사당(砂糖), 마늘, 겨자, 돼지의 간, 닭고기 등과 같이 먹으면 감충(疳蟲)이 생긴다.)

- [○ 頭는 燒灰服之면 主咳嗽요 及 傳小兒 瘡、面瘡、頭瘡、口瘡、重舌、目翳라 又 孕婦傷寒에 燒灰酒下하고 取汗이면 卽差니라.]

[○ 대가리는 태워서 재를 먹으면 해수(咳嗽)를 치료하고, 소아의 낙창(蠟瘡), 면창(面瘡), 두창(頭瘡), 구창(口瘡), 중설(重舌), 목예(目翳)에 붙인다. 또 임신부의 상한병(傷寒病)에는 태운 재를 술로 넘기고 땀을 내면 바로 낫는다.)

- [○ 膽은 主小兒腦疳으로 鼻痒、毛髮作穗、面黃、羸瘦에 取汁하야 滴鼻中을 連三五日이면 甚効니라.]

[○ 쓸개는 소아가 뇌감(腦疳)으로, 코가 가렵고, 모발이 거의 없으며, 얼굴이 누렇게, 몸이 수척해졌을 때, 즙을 내서 콧속에 계속 3~5일 떨어뜨리면 매우 유효하다.]

- [○ 子は 主調中、益肝氣니라.]

[○ 새끼는 중초(中焦)를 고르게 하고 간기(肝氣)를 보익한다.]

- [○ 單方이라 治男婦勞證으로 發熱 咳嗽하며 湯藥不愈者하니 取活鯽 一箇하야 去鱗腸하고 洗淨하야 入葦麻子를 如病人年幾 數於腹內하고 以濕紙六重으로 包하야 火中煨熟하야 晚上에 食之니 十日內에 食三尾면 見効니라.]

[○ 단방(單方)은 다음과 같다. 남성과 여성이 과로로 열이 오르고 기침을 하나, 탕약(湯藥)으로도 낫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살아있는 붕어 1마리를 잡아 비늘과 창자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피마자(葦麻子)를 환자의 나이 수만큼 뱃속에 넣고, 젖은 종이로 6겹 싸서 불 속에 찌어 익힌 뒤, 저녁에 먹는다. 이렇게 10일 안에 세 마리를 먹으면 효과가 나타난다.]

靑魚肉 | 청어육

靑魚肉甘 平無毒하니 主脚濕痺 益心力을! 膽內石灰 塗惡瘡이오 吹喉又用 點眼目을.

청어육(靑魚肉)은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으니, 각기(脚氣)와 습비(濕痺)를 치료하고 심력(心力)을 더해준다. 쓸개는 석회(石灰)에 넣어 악창(惡瘡)에 바르고, 목에 붙어넣을 때 쓰고 눈에도 떨어뜨린다.

- [俗名烏流魚라 主濕痺、脚氣로 軟弱、煩悶하며 益心力하니 和韭白하야 煮食커나 或作鮓하야 食之요 與服石人이면 相反이오 忌蒜、葵요 服朮人은 不可食이니라.]

[속칭 오류어(烏流魚)라고 한다. 습비(濕痺)와 각기(脚氣)로 무르고 약하며 번민(煩悶)하는 증상을 치료하고, 심력(心力)을 복돋는다. 구백(韭白)과 같이 달여 먹거나 젓갈로 만들어 먹는다. 석약(石藥)을 먹는 사람에 상반(相反)하며, 마늘과 아욱을 꺼리고, 출(朮)을 먹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 [○ 臈은 主惡瘡하니 和石灰하야 塗之요 喉痺腫痛에 調白礬末 陰乾하야 以少許로 吹之요 眼目昏暗에 取汁點之요 魚骨鯁에 以少許로 含嚥이면 卽愈니 臘月者라야 佳니라.]

[○ 쓸개는 악창(惡瘡)을 치료하니, 석회(石灰)와 같이 바른다. 후비(喉痺)로 붓고 아플 때, 백반가루에 개어서 그늘에서 말린 것을 조금씩 붙여 넣는다. 눈이 어두운 경우에는 즙을 내서 떨어뜨린다. 생선 가시에 걸렸을 때에는 입안에 조금 머금었다가 삼키면 바로 낫는다. 설월에 채취한 것이 좋다.]

- [○ 頭中枕은 蒸令氣通커든 日乾하야 可代虎珀이오 醋磨服이면 治水氣、血氣、心腹痛이니라.]

[○ 두중침(頭中枕)은 찌서 기(氣)가 통하게 되면 햇볕에 말려 호박(虎珀)을 대용할 수 있고, 식초에 갈아서 먹으면 수기(水氣), 혈기(血氣), 심복통(心腹痛)을 치료한다.]

白魚 | 백어

白魚甘平 助胃脾요 調氣助血 令人肥를! 補肝明目 去水氣요 有瘡食之 卽出皮를.

백어(白魚)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니 비위(脾胃)를 돕고, 기(氣)를 고르게 하며 혈맥(血脈)을 도와서 사람을 살지게 한다. 간(肝)을 보하여 눈을 밝게 하고 수기(水氣)를 제거하며, 창(瘡)이 있을 때 먹으면 바로 피부 밖으로 터져 나오게 한다.

- 〔疑此컨대 卽鰻魚也니 無毒이라 主開胃、助脾、消食、下氣、調五臟氣하며 助血脉하야 令人으로 肥健이오 補肝、明目、去水氣하니 以五味로 蒸食之면 良이니 新鮮者라야 佳라 經宿이면 令腹冷하야 生病하나니 或淹或糟가 皆可나 惟患瘡癰人은 食之면 甚發膿이오 又灸瘡不發에 作鱠食之면 卽發이니라.〕

(의심컨대 이것은 곧 연어(鰻魚)로 보인다. 독이 없다. 위(胃)를 열고, 비장(脾腸)을 도우며,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氣)를 내리며, 오장(五臟)의 기를 고르게 하며, 혈맥(血脈)을 도와 사람을 살지고 튼튼하게 하며, 간(肝)을 보하여 눈을 밝히고, 수기(水氣)를 제거한다. 온갖 양념을 해서 찌 먹으면 좋다. 신선한 것이 좋은데, 하룻밤 지난 것은 배가 차게 되어서 병이 생기게 한다. 혹 젓갈을 담거나 술지게미에 저장했다가 먹어도 된다. 다만 창절(瘡癰) 환자는 먹으면 심하게 고름이 발생하게 되고, 땀을 뼀 상처가 발농(發膿)하지 않았을 때, 회로 먹으면 바로 발농하게 된다.)

鰻鱺魚 | 만려어

鰻鱺魚甘 平小毒하니 勞熱骨蒸 病可復을! 更醫腰背 脚痺風이오 痔瘻帶下 諸不足을.

만려어(鰻鱺魚)는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약간 있으니, 노열(勞熱)과 골증(骨蒸)을 회복시킨다. 또 허리와 등 및 종아리의 비풍(痺風)을 치료하고, 치루(痔瘻)와 대하(帶下) 및 각종 부족(不足)을 치료한다.

- 〔鰻은 漫也요 鱺는 利也니 漫滑而利也라 有五色文者하니 功勝이라 主勞瘵、骨蒸、傳尸、注氣하니 和五味하야 煮粥食之요 治腰背間의 濕風痺로 常如水洗와 及濕脚氣、五種痔瘻、腸風、下血、婦人帶下、百病에 食之良이라 日

華에 云 此魚는 雖有毒而能補五臟、虛損、勞傷不足하며 煖腰膝、興陽하며 令人으로 肥健하며 亦美味也라 又 能殺諸蟲하며 壓諸草石藥毒하며 治諸瘡癰、癰瘍皮膚와 一切風瘙、惡瘡、疥癬、疔及婦人陰瘡、蟲痒에 皆効요 又下部蟲과 及穢中 竹木中の 蛙蟲、蚊蟲에 並可燒烟하야 薰之요 取其骨하야 置箱中이면 斷白魚의 咬衣나라.)

(만(鰻)은 원활하다라는 뜻이고, 려(鱺)는 잘 소통시킨다는 뜻이니, 원활하게 잘 소통시킨다는 의미이다. 오색 무늬가 있는 것이 더 효능이 좋다. 노채(勞瘵), 골증(骨蒸), 전시(傳尸), 주기(注氣)를 치료하니, 온갖 양념을 해서 죽을 쑤어 먹는다. 허리와 등 사이의 습풍비(濕風痺)로 늘 물을 뿌린 듯 땀이 나는 증상과 습각기(濕脚氣), 다섯 가지의 치루(痔瘻), 장풍(腸風), 하혈(下血), 여성의 대하(帶下), 온갖 질병에 먹으면 좋다. 《일화자(日華子)》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이 물고기는 비록 독이 있지만, 오장(五臟), 허손(虛損), 노상(勞傷), 부족(不足) 등을 보하며, 허리와 무릎을 데우고, 양기(陽氣)를 일으키며, 사람을 살찌고 튼튼하게 하고, 역시 맛도 좋다. 또 각종 벌레를 죽이고, 각종 초석약(草石藥)의 독을 진압하며, 각종 창루(瘡癰), 피부의 역양(癰瘍), 풍소(風瘙), 악창(惡瘡), 개선(疥癬), 감닉(疔蠱) 그리고 여성 음부(陰部)의 창(瘡)과 벌레로 인한 가려움증에 다 유효하다. 또 하부치충(下部痔虫) 및 담요 속과 대나무 속의 좀벌레와 모기에, 태워서 연기를 훈증할 수 있다. 뼈를 채취하여 상자 속에 넣어두면 백어(白魚)가 옷을 갉아먹는 것을 단절시킨다.)

- (○ 單方이라 治頸項及面上에 白駁이 浸淫하야 有似癬이나 但無瘡可治者하니 取魚生剖日乾하야 先於白處를 微微擦動하고 取少許하야 火上微炙하야 俟油出하야 以指로 擦之五七次면 卽愈니라.)

(단방(單方)은 다음과 같다. 목덜미와 얼굴에 백박풍(白駁風) 퍼져서 선증(癬症)과 비슷하지만 치료할 창(瘡)이 없는 환자를 치료하니, 뱀장어를 산 채로 갈라서 햇볕에 말린 뒤, 먼저 백박처(白駁處)를 약하게 문지르고,

조금 떼어서 불 위에서 약하게 구워서 기름이 나오기를 기다려 손가락으로 짚어서 5~6회 문지르면 바로 낫는다.)

鰾魚 | 선어

鰾魚甘溫 益氣血이오 頭骨燒灰 止痢渴을! 去冷除痞 宿食消요 産後淋瀝 卽能遏을.

선어(鰾魚)는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니 기혈(氣血)을 보익하고, 머리뼈를 태운 재는 이질(痢疾)과 소갈(消渴)을 멎게 한다. 냉(冷)을 제거하고 비(痞)를 없애며 묵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산후의 임력(淋瀝)을 바로 멎게 한다.

- [俗名은 黃鰾이니 無毒이라 主療虛損하며 補中、益氣血하며 去十二經의 風邪、濕痺하며 除腹中冷氣로 腸鳴과 婦人의 産前百病、産後淋瀝、諸虛羸瘦、血氣不調에 宜食이오 多食이면 動風氣하야 令人으로 霍亂이오 時行病起에 食之면 再發이니라.]

[속칭 황선(黃鰾)이라고 한다. 독이 없다. 주로 허손(虛損)을 치료하고, 중초(中焦)를 보하며, 기혈(氣血)을 보익하고, 십이경(十二經)의 풍사(風邪)와 습비(濕痺)를 제거하며, 뱃속의 냉기(冷氣)로 인한 장명(腸鳴), 여성의 출산 전 온갖 질병, 출산 후의 임력(淋瀝), 각종 허약증으로 인한 이수(羸瘦), 혈기가 고르지 못한 증상에 있어 마땅히 복용해야 한다. 많이 먹으면 풍기(風氣)를 동하게 하여 객란(霍亂)을 유발한다. 유행병을 앓고 나을 무렵에 먹으면 재발한다.]

- [○ 頭骨은 止痢、治消渴、去冷氣、除痞、消食하니 端午日에 取하야 燒灰用之니라.]

[○ 머리뼈는 이질(痢疾)을 멎게 하고, 소갈(消渴)을 치료하며, 냉기(冷氣)를 제거하고, 비(痞)를 없애며, 음식을 소화시키니, 단오(端午)에 잡아서 태운 재를 쓴다.]

- [○ 血은 主癰及癭하니 斷取하야 塗之니라.]

[○ 피는 선(癰)과 누(癭)를 치료하니, 잘라서 피를 받아 바른다.]

- [○ 皮는 主婦人乳硬結痛하니 燒灰하야 酒下二錢이니라.]

[○ 껍질은 여성의 유방이 딱딱하게 응결하며 아픈 증상을 치료하니, 태운 재를 술로 2돈씩 먹는다.]

- [○ 鰕魚는 甘溫하며 無毒이라 補中、止洩하니 但鰕鱔은 俱不可 同白犬血하야 食之니라.]

[○ 추어(鰕魚)는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없다. 중초(中焦)를 보하고, 설사를 멎게 한다. 다만 추어(鰕魚)와 선어(鱔魚)는 모두 백견혈(白犬血)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

善鳴長股 水中【鼃】니 補損祛勞 殺疰邪를! 一種風蛤 爲美饌이니 正宜産婦 益虛家를.

잘 울고 다리가 긴 것은 물 속의 【와(鼃)】이니, 허손(虛損)을 보하고 노채(勞瘵)를 제거하며 주사(疰邪)를 죽인다, 일종인 풍합(風蛤)은 맛이 좋은 음식이니, 출산한 여성에게 정말 적합하며 허(虛)한 사람에게 유익하다.

- [似蝦蟆나 但背靑、腹細、觜尖하며 後脚이 長하고 善鳴하나니 卽今人의 所食者라 味甘寒하며 無毒이라 去勞劣、解熱毒、勞熱하며 殺尸疰 勞蟲하며 治小兒赤毒、熱瘡、臍傷腹疼、胃氣虛乏하니 取以五味로 淹炙하야 酒食之면 良이니라.]

[두꺼비와 비슷하나, 등이 푸르고, 배가 가늘며, 주둥이가 뾰족하고, 뒷다리가 길며, 잘 우는 것이니, 지금 사람들이 식용하는 것이다. 맛이 달고, 약성이 차며, 독이 없다. 노열(勞劣)을 제거하고, 열독(熱毒)과 노열(勞熱)을

해소하며, 시주(尸疰)와 노채충(勞瘵蟲)을 죽인다. 소아의 적독(赤毒), 열창(熱瘡), 배꼽의 손상으로 인한 복통(腹痛), 위기(胃氣)가 허하고 부족한 증상을 치료하니, 온갖 양념으로 절여서 구운 뒤 술과 같이 먹으면 좋다.)

- [○ 風蛤은 似鼃而色黑하며 味至美하고 補虛損하며 宜産婦니라.]

[○ 풍합(風蛤)은 와(鼃)와 비슷하나, 색이 검고, 맛이 아주 좋으니, 허손(虛損)을 보하고, 산부(産婦)에게 적합하다.]

田螺 | 전라

田螺無毒 性寒過하니 專治雙眸 赤熱多를! 肉傳熱瘡 反胃殼이오 汁能醒酒 渴同科를.

전라(田螺)는 독이 없고 약성이 아주 차니, 양쪽 눈이 심하게 붉어지고 열이 나는 증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한다. 고기는 열이 나는 창(瘡)에 붙이고 반위(反胃)에는 껍질을 쓰며, 즙(汁)은 술을 깨게 하고 갈증의 치료에도 근본을 같이 한다.

- [主目熱 赤痛하니 取黃連末 納其中하야 良久汁出이어든 用以注目이니라.]

[눈에 열이 나고 충혈되어 아픈 증상을 치료하니, 황련(黃連)의 가루 속에 넣고 한참 후 즙이 나오면 이것을 눈에 주입한다.]

- [○ 肉은 冷하니 解熱毒、治酒疸、利小水、消瘡腫이라 多食이면 發寒濕氣、痼疾이오 碎其肉하야 傳熱瘡이니라.]

[○ 고기는 약성이 차니, 열독(熱毒)을 해독하고, 주달(酒疸)을 치료하며, 이뇨(利尿) 작용을 하고, 창종(瘡腫)을 없앤다. 많이 먹으면 한습기(寒濕氣)와 고질(痼疾)을 유발한다. 고기를 부수어 열이 나는 창(瘡)에 붙인다.]

- [○ 爛白殼은 燒爲灰하야 主反胃、胃冷하고 去卒心痛、止失精、消痰이오 傳下疳하니 火煨用之니라.]

[○ 난백각(爛白殼)은 태워서 재로 만들어, 반위(反胃)와 위냉(胃冷)을 치료하고, 급성 심통을 제거하며, 실정(失精)을 멎게 하고, 담(痰)을 삭인다. 하감(下疳)에 붙이려면 불에 달구어 쓴다.]

- [○ 生浸 取汁하야 飲之면 止消渴、利大小便、除腹中結熱、脚氣上衝、手脚浮腫하며 解酒過多、喉舌生瘡하며 壓丹石熱하나 不可常食이라 又螺螄、海螺도 用同하니라.]

[○ 산 채로 담갔다가 즙을 내서 마시면 소갈(消渴)을 멎게 하고, 대소변(大小便)을 잘 나오게 하며, 뱃속의 응결한 열, 각기(脚氣)의 상충(上衝), 손과 종아리의 부종(浮腫)을 제거하고, 과다한 음주로 인한 숙취 및 목구멍과 혀의 창(瘡)을 해독하고, 단석(丹石)의 열을 진압하나, 상식(常食)하면 안 된다. 또 나사(螺螄)와 해라(海螺)도 작용이 같다.]

蠃 | 해

【蠃】主胃中 邪熱結이오 爪能墮胎 破瘀血을! 殼黃化漆 更續筋이오 消食塗瘡 同脚節을.

【해(蠃)】는 가슴 속에 사열(邪熱)이 응결한 증상을 치료하고, 손톱은 낙태(落胎)시키며 어혈(瘀血)을 부순다. 껍질의 노란 부분은 화칠작용(化漆作用)을 하며 근골(筋骨)을 이어주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창(瘡)에 바르는 것은 각절(脚節)과 같다.

- [足節이 屈曲하야 行則旁橫하고 每至夏末秋初則解殼 故로 曰 螃蠏라 味鹹寒하며 有毒이라 主胃中邪熱하며 解結、散血、養筋、益氣하며 理經脉、利關節、去五臟中煩悶하며 消食이라 又食品中之佳味도 最宜人이나 須是八月一日 蠃喫稻芒後에야 方可食이니 霜後엔 更佳나 已前에 食之면 有毒이오 十二

월에 食之면 傷神이오 體有風疾人과 并孕婦는 不可食이오 獨螫、獨目과 四足六足과 兩目相向者는 皆有大毒하니 不可食이라 誤中者는 惟藕、蒜汁、冬瓜汁、紫蘇、黑豆豉汁이라야 可解之니라.)

(다리의 마디가 굽어 있어서, 다닐 때는 옆으로 간다. 매년 늦여름과 초가을에 껍질을 벗으므로, 방해(螃蟹)라고 한다. 맛이 짜고, 약성이 차며, 독이 있다. 가슴 속 사열(邪熱)을 주치하고, 응결된 것을 풀어주며, 피를 흘리고, 근(筋)과 기(氣)를 보익하며, 경맥(經脈)을 다스리고, 관절을 원활하게 하며, 오장(五臟) 속 번민(煩悶)을 제거하고, 음식을 소화시킨다. 또 식품 중 맛이 좋은 것이므로, 인체에 가장 적합하지만, 반드시 음력 8월 1일 정도에 게가 도망(稻芒)을 먹은 후라야 비로소 식용할 수 있으며, 서리 내린 후라면 더욱 좋다. 서리가 내리기 이전에 먹으면 독이 있고, 음력 12월에 먹으면 정신을 손상시킨다. 몸에 풍질(風疾)이 있는 환자나 임신부는 먹으면 안 되고, 집게발이 하나밖에 없거나, 눈이 하나이거나, 다리가 4개나 6개인 것, 두 눈이 서로 향하는 것들은 모두 심한 독이 있으니, 먹으면 안 된다. 잘못하여 중독되면 우즙(藕汁), 산즙(蒜汁), 동과즙(冬瓜汁), 자소(紫蘇), 흑두시즙(黑豆豉汁)으로만 해독할 수 있다.)

- (○ 爪는 主墮胞胎하며 破宿血、止産後血悶、腹痛하니 酒及醋湯으로 煎服이니라.)

(○ 손톱은 태아를 유산시키고, 묵은 피를 부수며, 산후의 혈민(血悶)과 복통(腹痛)을 멎게 하니, 술과 식초로 끓여서 먹는다.)

- (○ 殼中黃及脚中髓는 熬爲末하야 內金瘡中이면 能續斷絕筋骨이오 其黃은 能化漆爲水 故로 傳漆瘡及久疽、瘡疥요 其足骨은 焙乾하야 和白歛等分 爲末하야 乳汁으로 調塗小兒頭縫不合이오 其螫는 和犬血燒煙이면 可以集鼠於庭이라 大抵 蟬類 甚多하니 殼潤多黃者는 名蟻이니 其螫가 最銳하고 食之면 行

風氣요 扁而大者는 名蟪蛄이니 解熱氣及小兒瘡氣요 其最小者는 名蟬蛻이니 食之면 令人으로 吐利요 一螯가 大하고 一螯는 小者는 名擁劍이니 可供食이 오 餘蟬는 有毒하니 皆不可食이니라.)

(○ 껍질의 노란 부분과 다리 속의 골수(骨髓)는 볶아서 분말로 만들어 금창(金瘡) 속에 넣으면 끊어진 근골(筋骨)을 이어준다. 노란 부분은 옷을 물로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칠창(漆瘡)과 오래된 저(疽) 및 창개(瘡疥)에 붙인다. 다리의 뼈는 불에 말려서 백렴(白斂)과 같은 양으로 섞어 분말로 만들어서 젖으로 개어 소아의 두개골이 닫히지 않은 부분에 바른다. 집게발과 개의 피를 태워서 연기를 피우면 쥐를 마당에 모을 수 있다. 대개 게 종류는 아주 많다. 껍질이 넓고 노란 부분이 많은 것은 절(蟻)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집게발이 가장 예리하고 먹으면 풍기(風氣)를 순행하게 한다. 납작하면서 큰 것은 추모(蟪蛄)라고 하는데, 열기(熱氣)와 소아의 비기(痞氣)를 풀어준다. 가장 작은 것은 팽활(蟬蛻)이라고 하는데, 먹으면 토하고 설사하게 만든다. 한쪽 집게발은 크고 한쪽 집게발은 작은 것을 옹검(擁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먹을 수 있다. 이 외의 나머지 게는 유독하므로 모두 먹어서는 안 된다.)

石首魚 | 석수어

石首魚甘 下石淋이오 乾之炙食 鯨爲名을! 消爪成水 寬膨脹이오 益氣開胃 蓴作羹을.

석수어(石首魚)는 맛이 달고 석림(石淋)을 내려가게 하며, 말려서 구워 먹는 것은 상(鯨)이라고 한다. 오이를 소화하여 물로 변화시키고 팽만(膨滿)을 완화하며, 기(氣)를 보익하고 위(胃)를 여는 데에는 순채(蓴菜)로 국을 끓여 먹는다.

- (生東海하나니 味甘하고 無毒이라 腦中에 有一石이 如碁子하니 主下石淋하니 燒灰하야 飲之라 乾이면 名鯨魚니 炙食之면 主消爪成水하며 及卒腹脹、

宿食不消、暴下痢、中惡不解라 生食거나 和蓴菜하야 作羹이면 開胃、益氣
니라.)

(동해(凍害)에서 난다. 맛이 달고, 독이 없다. 뇌 속에 바둑알 같은 돌 하나
가 있는데, 임석(淋石)을 내려가게 하니, 태운 재를 물로 마신다. 말린 것
은 상어(鯨魚)라고 하는데, 구워서 먹으면, 오이 류 채소를 소화하여 물로
만들고, 급성 복창(腹脹), 묽은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증상, 급성 하리(下
痢), 중악(中惡)이 풀리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날것으로 먹거나, 순채
(蓴菜)와 같이 국을 끓여 먹으면 위(胃)를 열고 기(氣)를 보익한다.)

淡菜 | 담채

淡菜甘溫 能補陽이오 虛勞吐血 亦堪嘗을! 消食除癥 止久痢요 婦人崩帶 產餘良을.

담채(淡彩)는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니 양(陽)을 보하고, 허로(虛勞)와 토혈
(吐血)에도 먹을 수 있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징(癥)을 없애며 오래된 이질(痢
疾)을 멎게 하고, 여성의 붕루(崩漏)와 대하(帶下) 및 출산후유증에도 좋다.

- (生南海하나니 似珠母하며 一頭는 尖하야 中銜少毛라 海之菜는 皆鹹이로대
惟此는 味淡 無毒이오 形雖不典而甚益人이라 主益陽事、補五臟、虛損吐血
하며 理腰脚氣、潤毛髮하며 消食、除腹中冷、破瘀癥 癥瘕하며 治產後血結
冷痛、崩中、帶下、漏血과 男子久痢하니 並宜以五味로 煮食之라 多食이면
令頭悶、目闇하리니 可微利면 卽止니라.)

(남해(南海)에서 난다. 주모(珠母)와 비슷한데, 한쪽 머리가 뾰족하고, 그
속에 소량의 털이 있다. 바다에서 나는 풀은 다 짠데, 이것만은 맛이 담담
하다. 독이 없다. 모양이 비록 전아(典雅)하지는 못했지만 사람한테는 매
우 유익하다. 양사(陽事)에 유익하며, 오장(五臟)과 허손(虛損) 및 토혈
(吐血)을 보하고, 요각기(腰脚氣)를 다스리고, 모발을 윤택하게 하며, 음
식을 소화시키고, 뱃속의 냉을 제거하며, 현벽(瘀癖)과 징가(癥瘕)를 부순
다. 산후의 피가 응결한 냉통(冷痛), 붕중(崩中), 대하(帶下), 누혈(漏血)

등과, 남성의 오랜 하리(下痢)를 치료하니, 아울러 마땅히 온갖 양념을 하여 찌서 먹는다. 많이 먹으면 머리가 갑갑해지고 눈이 어둡게 되지만, 약하게 설사하게 하면 바로 그친다.)

海粉 | 해분

海粉無毒 氣寒鹹하니 能治熱燥 濕頑痰을! 更療肺脹 多咳嗽이오 海石痰火 病相兼을.

해분(海粉)은 독이 없고 약성이 차며 맛이 짜니, 열담(熱痰)과 조담(燥痰) 및 습담(濕痰)과 완담(頑痰)을 치료한다. 또 폐창(肺瘡)으로 기침과 천식이 심한 증상을 치료하고, 해석(海石)은 담(痰)과 화(火)를 겸한 병을 치료한다.

- 〔出閩廣하나니 海粉은 海石과 同種이오 石은 其根也라 近有造海粉法하나 終不如生成이 爲美니라.〕

(민광(閩廣)에서 난다. 해분(海粉)은 해석(海石)과 같은 종류다. 돌은 그 근본을 말한다. 근래에는 해분을 만드는 법이 있지만, 끝내 자연에서 난 것만큼 좋지는 못하다.)

- 〔○ 海粉은 治肺燥로 鬱脹 咳嗽하니 熱痰은 能降하고 濕痰은 能燥하고 塊痰은 能軟하고 頑痰은 能淸하니 取其鹹以軟堅也라 止入丸藥하나니 水洗晒乾하야 另研이오 又有造成者하니 湯丸에 俱宜라 八月에 取紫口蛤蜊하야 火煨爲末하야 取黃瓜蓼皮子와 共搗和爲餅하야 陰乾이라가 次年에 聽用이니라.〕

〔○ 해분(海粉)은 폐조(肺燥)로 인해 울체(鬱滯)하고 해천(咳嗽)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열담(熱痰)은 내리고, 습담(濕痰)은 건조시키며, 괴담(塊痰)은 무르게 하고, 완담(頑痰)은 깨끗이 없앤다. 이 모든 것은 짠맛으로 단단함을 부드럽게 하는 원리를 취한 것이다. 오직 환약(丸藥)에만 넣으며, 물로 씻어서 햇볕에 말려서 따로 갈아서 쓴다.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탕(湯)과 환(丸)에 모두 적합하다. 음력 8월에 입이 보라색인 합리(蛤

蜊)를 채취하여, 불로 달구어 분말로 만들고 노란 과루(瓜蒌)의 피자(皮子)를 같이 찼어서 떡을 만들어 그늘에서 말려 두었다가 다음해에 쓸 것을 대비한다.)

- [○ 海石은 味淡 氣平이라 治痰燥가 在咽不出과 痰塊、血塊、食塊、痰火、痛風、心痛、疝痛、泄瀉、咳血、遺精、白濁、帶下하니 入藥에 火煨거나 或 醋煮하여 研用이니라.]

[○ 해석(海石)은 맛이 담담하고, 약성은 평이하다. 담(痰)이 말라서 목구멍에 붙어 나오지 않는 증상, 담괴(痰塊), 혈괴(血塊), 식괴(食塊), 담화(痰火), 통풍(痛風), 심통(心痛), 산통(疝痛), 설사(泄瀉), 해혈(咳血), 유정(遺精), 백탁(白濁), 대하(帶下)를 치료하니, 약에 넣을 때에는 불에 달구거나 초로 끓여 갈아서 쓴다.]

蛤蜊 | 합리

蛤蜊性冷 元無毒하니 主癖解醒 開胃腸을! 消渴婦人 生血塊요 殼燒研傅 火湯傷을.

합리(蛤蜊)는 약성이 냉하고 원래 독이 없으니, 벽(癖)을 치료하고 술을 깨게 하며 위장(胃腸)을 연다. 소갈(消渴)과 여성의 혈괴(血塊)가 발생한 것을 치료하고, 껍질은 태워서 갈아 화탕상(火湯傷)에 붙인다.

- [蜊는 利也니 言其肉이 滑利也라 主老癖이 能爲寒熱者하니 煮食之요 解酒毒、開胃、止消渴、治婦人血塊라 此物은 性冷하야 乃與丹石으로 相反하니니 服丹石人이 食之면 令腹으로 結痛이니라.]

[리(蜊)는 순조롭다는 뜻이니, 육질이 매끄럽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노벽(老癖)이 한열(寒熱)을 발생시키는 증상을 치료하니, 삶아서 먹는다. 주독(酒毒)을 풀고, 위(胃)를 열며, 소갈(消渴)을 멎게 하고, 여성의 혈괴(血塊)를 치료한다. 이 생물은 성질이 차서 단석(丹石)에 상반(相反)하니, 단석(丹石)을 복용하는 사람이 먹으면 배를 응결시켜 아프게 된다.]

- [○ 殼은 主湯火傷하니 取燒灰爲末하야 油調塗之면 神効니라.]

[○ 껍질은 탕화상(湯火傷)을 치료하니, 태운 재를 분말로 만들어 기름에 개어서 바르면 신묘한 효능이 있다.]

蚌蛤 | 방합

蚌蛤〔冷하며 無毒이라 明目、除濕、止消渴、除煩、解熱하며 壓丹石藥毒하며 補婦人虛勞下血하며 并痔瘻、血崩、帶下라 以黃連末로 內之取汁하야 點赤眼、昏闇이면 良이라 又能治疳、止痢와 并嘔逆하며 癰腫에 醋로 調傳니라.〕

방합(蚌蛤)〔약성이 차고, 독이 없다. 눈을 밝히고, 습(濕)을 제거하며, 소갈(消渴)을 멎게 하고, 번(煩)을 없애며, 해열(解熱)하고, 단석약(丹石藥)의 독을 진압하며, 부인의 허로(虛勞)로 인해 발생한 하혈(下血)을 치료한다. 아울러 치루(痔瘻), 혈붕(血崩), 대하(帶下)를 치료한다. 황련말(黃連末)을 이것에 넣어서 나온 즙은 눈이 충혈되고 어두울 때 떨어뜨리면 좋다. 또 감(疳)을 치료하고, 이질(痢疾)과 구역질을 멎게 한다. 응종(癰腫)에는 초에 개어서 붙인다.〕

- [○ 爛殼은 殺粉飲下면 治反胃、痰飲이니라.]

[○ 난각(爛殼)은 분말로 만들어 먹으면 반위(反胃)와 담음(痰飲)을 치료한다.]

蚶 | 감

蚶〔生海中이라 殼如瓦屋 故로 又名은 瓦壘子라 性溫 無毒이라 補中、益陽하며 治心腹冷氣、腰脊冷風하며 利五臟、益血色하며 消食、健胃하야 令人으로 能食이라 每食了에 以乾飯으로 壓之니 不爾면 令人으로 口乾이니라.〕

감(蚶)〔바다 속에서 난다. 껍질이 기와집과 같아서 와룡자(瓦壟子)라고 한다. 약성이 따뜻하고, 독이 없다. 중초(中焦)를 보하고, 양기(陽氣)를 보익하며, 심복(心腹)의 냉기(冷氣), 허리와 척추의 냉풍(冷風)을 치료하고, 오장(五臟)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며, 혈색(血色)을 좋게 하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위(胃)를 튼튼하게 하여 음식을 잘 먹게 한다. 먹고 나서 늘 마른 밥으로 눌러줄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입이 마르게 된다.)

- 〔○ 殼은 燒紅하야 醋淬三次後에 埋令爛커든 醋膏로 丸이니 治一切血氣、痰積、癥瘕、冷氣니라.〕

〔○ 껍질은 붉게 태워서 식초를 3회 뿌린 후 땅에 묻어서 썩게 되면 초로 고아서 환약(丸藥)을 만든다. 이것은 일체의 혈기(血氣), 담적(痰積), 징가(癥瘕), 냉기(冷氣)를 치료한다.〕

蜆 | 현

蜆〔小於蛤하며 黑色이니 生水泥中이라 風雨하야 能以殼으로 爲翅飛者라 肉冷無毒이라 去暴熱、明目、利小便하며 下熱氣、腳氣、濕毒하며 開胃、解酒毒、目黃이라 多食이면 發嗽와 并冷氣로 消腎이라 又煮汁飲이면 治時氣、壓丹石藥하며 下乳汁하고 生浸取汁服이면 止消渴하고 洗疔瘡이니라.〕

현(蜆)〔합(蛤)보다 작고, 색이 검다. 물속의 진흙에서 난다. 비바람이 불 때를 살피 껍질을 날개로 삼아 날아다닐 수 있다. 고기는 약성이 차고, 독이 없다. 급성 열(熱)을 없애고, 눈을 밝히며, 이뇨(利尿) 작용을 한다. 열기(熱氣), 각기(脚氣), 습기(濕氣)를 내려가게 하고, 위(胃)를 열며, 주독(酒毒)과 눈이 노랗게 된 증상을 풀어준다. 많이 먹으면 기침을 유발하고, 냉기(冷氣)가 신장을 약하게 만든다. 또 달여서 즙을 마시면 시기(時氣)를 치료하고, 단석약(丹石藥)을 진압하며, 젖이 나오게 한다. 날것을 담갔다가 즙을 채취해서 마시면 소갈(消渴)을 멎게 하고, 정창(疔瘡)을 씻는다.〕

- 〔○ 陳爛殼은 溫하니 燒灰飲下면 主反胃吐食하며 除心胃의 痰水로 咳嗽不止

하며 止痢及失精하며 治陰瘡이니라.)

(○ 진란각(陳爛殼)은 약성이 따뜻하다. 태운 재를 마시면 반위(反胃)로 음식을 토하는 증상을 치료하고, 가슴의 담수(痰水)로 인해 기침이 멎지 않는 증상을 제거하며, 이질(痢疾)과 실정(失精)을 멎게 하고, 음창(陰瘡)을 치료한다.)

馬刀 | 마도

【馬刀】〔在處有之라 長三四寸 濶五六分으로 頭小銳하야 形如斬馬刀하며 多在沙泥中하니 卽蚌之類也라 味辛하고 微寒하며 有毒이라 破石淋、主漏下、赤白 寒熱하며 殺禽獸、賊鼠하며 除五臟間熱、肌中鼠 하며 止煩滿、補中、去厥痺、利機關이라 用之當鍊이오 得水면 爛人腸이라 肉可爲鮓나 然이나 發風痰이니라.)

【마도(馬刀)】〔곳곳에 있다. 길이는 3~4촌이고, 넓이는 5~6푼이다. 대가리가 작고 예리하여 모양이 마치 말을 베는 칼처럼 생겼다. 대부분 모래 진흙 속에 있으니, 곧 방(蚌)의 부류이다. 맛이 맵고, 약성이 약간 차며, 독이 있다. 석림(石淋)을 부수고, 적백누하(赤白漏下)와 한열(寒熱)을 치료한다. 새와 짐승 및 도둑 쥐를 죽인다. 오장(五臟) 사이의 열과 살 속 서부(鼠)를 없애고, 번만(煩滿)을 멎게 하며, 중초(中焦)를 보하고, 궤비(厥痺)를 제거하며, 관절을 원활하게 한다. 사용할 때에는 마땅히 제련해야 한다. 물을 얻으면 사람의 창자를 썩게 한다. 고기는 젓갈을 담을 수 있지만, 많이 먹으면 풍담(風痰)을 유발한다.)

- (○ 丹溪가 云 馬刀는 與蚌蛤、蚶、蜆、螺螄로 大同小異하야 屬金而有水木土라 衍義에 言其冷而不言濕하고 多食發疾은 以其濕中有火하야 久則氣上升而不降하리니 固生疾이오 多熱則生風矣니 何冷之有裏오 今의 蛤粉은 皆此類로 爲之라 하니라.)

(○ 주단계(朱丹溪)가 다음처럼 말했다. 마도(馬刀)는 방합(蚌蛤), 감(蚶), 현(蜆), 나사(螺螄)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금(金)에 속하나 수(水), 목(木), 토(土)를 겸하고 있다. 《본초연의(本草衍義)》에서는 차다고만 말

하고 습(濕)은 말하지 않았다. 많이 먹으면 병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습 속
에 화(火)가 있기 때문에, 오래 되면 기(氣)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게 될
것이기에 본래 병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열이 높으면 병이 생기고, 풍(風)
이 발생하니, 어찌 차가울 리가 있겠는가? 요즈음의 합분(蛤粉)은 모두 이
런 종류로 만든다.)

鰕 | 하

鰕(平하나 小毒하니 食之不益人이라 主五痔나 引風、動癰、發疥癩하며 小兒食
之면 令腳屈不能行이오 有風病、嗽病者는 忌食이라 小兒赤白遊腫에 生搗汁하야
塗之라 生水田、溝渠中하며 小者는 有小毒이라 海鰕는 長一尺이니 作鮓면 毒人
至死요 有無鬚及煮色이 白者도 不可食이니라.)

하(鰕)〔약성이 평이하고, 독이 조금 있다. 먹으면 인체에 유익하지 않다. 다섯
가지 치질(痔疾)을 치료하고, 풍(風)을 유인하며, 누(癰)를 동하게 하고, 개창
(疥癩)을 유발한다. 소아가 먹으면, 다리가 굽어서 걷지 못하게 만든다. 풍병
(風病)과 기침 환자에게는 금한다. 소아의 적백유종(赤白遊腫)에는 날로 찢어
서 즙을 바른단. 수전(水田)과 도랑에서 나며, 작은 것은 독이 약간 있다. 바다
새우는 길이가 1척이고, 젓갈을 담으면 사람을 중독시켜서 죽이고, 수염이 없
는 것이나 삶았을 때 흰색으로 변하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水母 | 수모

水母(俗名이 海蜇이라 味鹹 無毒이라 主生氣、婦人勞損、血滯와 小兒風疾、丹
毒이니라.)

수모(水母)〔속칭 해철(海蜇)이다. 맛이 짜고, 독이 없다. 기(氣)를 발생시키고,
여성들의 노손(勞損), 혈체(血滯), 소아의 풍질(風疾), 단독(丹毒)을 치료한
다.)

河魴 | 하돈

河魴(味甘溫하며 大毒이라 主補虛、去濕氣、理腳氣、去痔疾、殺蟲이라 其味 極美하나 肝尤毒하니 然이나 修治를 不如法이면 食之殺人하리니 橄欖、蘆根、糞汁으로 解之라 厚生者는 不食이 亦好니라.)

하돈(河魴)〔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며, 심한 독이 있다. 허(虛)를 보하고, 습기(濕氣)를 제거하며, 각기(脚氣)를 다스리고, 치질(痔疾)을 없애며, 살충한다. 맛이 아주 좋지만, 간(肝)은 독이 더욱 심하니, 제대로 된 방법대로 수치(修治)하지 않고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 감람(橄欖), 노근(蘆根), 분즙(糞汁)으로 해독한다. 양생(養生)으로 장수하려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海狔魚 | 해돈어

海狔魚〔生大海하니 風潮하야 卽出하며 形如狔이라 味鹹 無毒이라 主飛尸、蠱毒、瘡癰하니 作脯食之면 一如水牛肉이나 味小腥耳라 皮中肪膏는 摩惡瘡、疥癬、痔瘻、犬馬癩疥하야 殺蟲이니라.〕

해돈어(海狔魚)〔큰 바다에서 난다. 바람과 조수를 살피서 곧장 나온다. 모양은 돼지의 새끼와 같다. 맛이 짜고, 독이 없다. 비시(飛尸), 고독(蠱毒), 장학(瘡癰)을 치료한다. 육포(肉脯)를 만들어서 먹으면 수우육(水牛肉)과 같으나, 약간 비리다. 껍질 속의 지방(脂肪)은 악창(惡瘡), 개선(疥癬), 치루(痔瘻), 개와 말의 와개(癩疥)에 문질러서 벌레를 죽인다.〕

鰈魚 | 곶어

鰈魚〔甘平 無毒이라 補虛勞、益脾胃、治腸風 下血하며 去腹內惡血、小蟲하며 益氣力하야 令人으로 肥健이니라.〕

꺽어(鰓魚)〔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허로(虛勞)를 보하고, 비위(脾胃)를 보익하며, 장풍하혈(腸風下血)을 치료하고, 뱃속 악혈(惡血)과 작은 벌레를 제거하며, 기력(氣力)을 복돋아서 사람을 살찌고 튼튼하게 한다.〕

- 〔○ 臍은 臘月에 陰乾이니 治一切骨鯁과 或竹木이 簽刺喉中不下에 取少許 酒煎呷之하야 得吐면 骨隨涎出하리니 未吐면 再服이오 在臟腑日久하야 黃瘦者에도 亦宜니라.〕

〔○ 쓸개는 설탕에 그늘에 말린다. 모든 뼈와 가시 및 대나무 등이 목구멍에 걸려서 내려가지 않는 증상을 치료하니, 조금씩 술에 달여서 마시고, 토하게 하면 뼈가 침을 따라 나올 것이며, 나오지 않으면 다시 먹는다. 장부(臟腑)에 가시가 오래 머물러 누렇게 마르는 사람에게도 적합하다.〕

時魚 | 시어

時魚(平하니 補虛勞하나 稍發疔瘡니라.)

시어(時魚)〔약성이 평이하니, 허로(虛勞)를 보하나, 감질(疔疾)과 고질(瘡疾)을 다소 유발한다.〕

鰩魚 | 심어

鰩魚(生江中하나니 背如龍하며 長이 一二丈이라 甘平 無毒이라 主益氣、補虛하야 令人으로 肥健이오 煮汁飲之면 止血淋이라 鼻上肉을 作脯면 補虛、下氣나 然이나 味雖甘美而發諸藥毒과 及一切瘡疥하며 動風氣라 與乾笋으로 同食이면 發癰瘻風하고 服丹石人이 食之하면 令少氣요 小兒가 食之하면 結癥瘕及嗽하고 大人이 久食하면 令卒患心痛、腰痛이니라.)

심어(鰩魚)〔강에서 난다. 등은 용(龍)과 같고, 길이는 1~2장이다.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기(氣)를 보익하고, 허(虛)를 보하여, 사람을 살찌고 튼튼하게 만든다. 달인 즙을 마시면 혈림(血淋)을 멎게 한다. 코 위의 살을

육포로 만들어 먹으면, 허를 보하고 기를 내린다. 맛이 달고 좋지만 각종 약독(藥毒)과 일체의 창개(瘡疥)를 유발시키고, 풍기(風氣)를 동하게 한다. 마른 죽순(竹筍)과 같이 먹으면, 탄탄풍(癱瘓風)을 유발시키고, 단석(丹石)을 복용하는 사람이 먹으면 기가 줄어들게 된다. 소아가 먹으면 징가(癥瘕)가 응결하고 기침하며, 어른이 오랫동안 먹으면 갑자기 심통(心痛)과 요통(腰痛)이 생긴다.)

- [○ 子は 如小豆하니 食之肥美하고 殺腹內小蟲이니라.]

[○ 알은 팔처럼 생겼으며, 먹으면 기름지고 맛이 좋고, 배속 작은 벌레를 죽인다.]

- [○ 鮓는 世人이 雖重이나 亦不益人이니라.]

[○ 젓갈은 세상 사람들이 중시하지만, 사람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

鯉魚 | 황어

鯉魚〔甘平 無毒이라 味極肥美하야 楚人이 尤重之나 多食이면 生熱疾이니라.〕

황어(鯉魚)〔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맛이 아주 기름지고 좋아서, 초(楚)나라 사람들이 더욱 중시하지만, 많이 먹으면 열병(熱病)을 유발한다.〕

- [○ 鮓는 肥美奇絶하나 亦不益人이니라.]

[○ 젓갈은 대단히 기름지고 맛있지만, 사람에게 유익하지는 못하다.]

鱸魚 | 노어

鱸魚〔平하니 補五臟、益肝腎、和腸胃、益筋骨、治水氣하며 補中、安胎하니 多食宜人이오 不甚發病이라 宜然 張翰이 思之也로다 作鱸면 尤良이라 又暴乾이면 甚香美나 不可與乳酥로 同食이니라.〕

노어(鱸魚)〔약성이 평이하다. 오장(五臟)을 보하고, 간신(肝腎)을 보익하며, 장위(腸胃)를 고르게 하고, 근골(筋骨)을 보익하며, 수기(水氣)를 치료하고, 중초(中焦)를 보하고, 안태(安胎)하는 것이니, 많이 먹어도 좋고, 그다지 심하게 병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니 장한(張翰)이 이것을 생각한 것은 당연하다. 회를 만들어 먹으면 더욱 좋다. 또 햇볕에 말리면 매우 향기롭고 맛이 좋지만, 것이나 연유(煉乳)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鮎魚 | 점어

鮎魚〔味甘 無毒이라 主水腫、利小便이라 爲臙이면 美而且補하며 稍益胃氣라 合牛肝食이면 令患風하며 發痼疾이라 又不可與野雞、野豬로 同食이오 赤目赤鬚、無鰓者是 殺人이니라.〕

점어(鮎魚)〔맛이 달고, 독이 없다. 수종(水腫)을 치료하고, 이뇨(利尿) 작용을 한다. 국으로 끓이면 맛이 좋고 또한 보하며, 위기(胃氣)에 다소 유익하다. 소의 간(肝)과 같이 먹으면 풍병(風病)을 앓게 하고 고질(痼疾)을 유발한다. 또 야계(野雞)나 야저(野豬)와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눈이 붉고 수염이 붉으며 아가미가 없는 것을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

鰣魚 | 외어

鰣魚〔似鮎하니 甘平 無毒이라 不腥하며 美且益人이라 補中、益氣하며 下膀胱水하며 開胃라 作鱠면 白如雪이라 隋朝는 吳都로 進鰣魚乾鱠하야 取快라 하니 日乾瓶盛이라가 臨食에 以布裏하야 水浸良久라가 漉出이면 如初鱠와 無異라 此二魚는 寒而有毒하니 非嘉物也니라.〕

외어(鰣魚)〔점어(鮎魚)와 유사하다.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비리지 않고 맛이 좋으며, 사람에게 유익하다. 중초(中焦)를 보하고 기(氣)를 보익하며, 방광의 물을 나가게 하고, 위(胃)를 연다. 회를 치면 눈처럼 희다. 수

(隋)나라 때에는 오도(吳都)에서 외어(鮓魚)의 건회(乾鱠)를 진상하여 즐거움을 취했다고 한다. 햇볕에 말리고 병에 담아두었다가, 먹을 때에는 베로 싸서 물에 오래 담가 둔 뒤, 물기를 걸러내면 처음 회와 다를 것이 없게 된다. 이 두 물고기는 약성이 차고 독이 있으니, 그리 좋은 물고기는 아니다.)

鰮魚 | 용어

鰮魚〔池塘所蓄이니 頭大鱗細者라 甘平하며 益人이니라.〕

용어(鰮魚)〔저수지에서 기른다. 머리가 크고 비늘이 자잘한 것이다.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사람에게 유익하다.〕

銀條魚 | 은조어

銀條魚〔甘平 無毒이라 寬中、健胃하니 淸生羹하야 作羹이면 良이니라.〕

은조어(銀條魚)〔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없다. 중초(中焦)를 누그러뜨리고, 위(胃)를 튼튼하게 하니, 생강(生薑)을 넣고 국을 끓이면 좋다.〕

少陽魚 | 소양어

少陽魚〔味甘鹹 平이라 治男子白濁、膏淋으로 玉莖澀痛이니라.〕

소양어(少陽魚)〔맛이 달고 짜며, 약성이 평이하다. 남자가 백탁(白濁)과 고림(膏淋)으로 인해 옥경(玉莖)이 뻑뻑하며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比目魚 | 비목어

比目魚〔平이라 補虛、益氣하나 多食이면 稍動氣니라.〕

비목어(比目魚)〔약성이 평이하다. 허(虛)를 보하고, 기(氣)를 보익하나, 많이 먹으면 기를 다소 동하게 한다.〕

黃魚 | 황어

黃魚(背黃頭尖하니 下江 呼爲鰓魚 人<是>也라 味甘平하며 小毒이라 醒酒하나 不益人하며 發風動氣하며 發瘡疥하니 病人忌食이오 和蕎麥하야 同食이면 失音이니 라.)

황어(黃魚)〔등이 노랗고, 머리가 뾰족하다. 하강(下江)에서는 험어(鰓魚)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이다. 맛이 달고, 약성이 평이하며, 독이 조금 있다. 술을 깨게 하지만,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풍(風)을 유발하고, 기(氣)를 동하게 하며, 창개(瘡疥)를 유발하니, 환자에게는 금한다. 교맥(蕎麥)과 같이 먹으면 목소리를 쉬게 한다.〕

魴魚 | 방어

魴魚(俗名이 扁魚니 味甘 無毒이라 調胃氣、利五臟이라 和芥子、醬하야 食之하면 助肺氣、去胃家風하며 消穀食이오 作鱠食하면 助脾氣하야 令人으로 能食이나 患疝痢者는 不得食이라 作羹臠하야 食하면 宜人하니 其功이 同鯽魚니라.)

방어(魴魚)〔속칭 편어(扁魚)라고 한다. 맛이 달고, 독이 없다. 위기(胃氣)를 고르게 하고, 오장(五臟)을 원활하게 소통시킨다. 겨자나 장(醬)과 같이 먹으면 폐기(肺氣)를 돕고, 위(胃)의 풍(風)을 제거하며, 곡식을 소화시킨다. 회를 쳐서 먹으면 비기(脾氣)를 도와서 사람이 잘 먹게 하지만, 감병(疝病)과 이질(痢疾) 환자는 먹을 수 없다. 국을 끓여서 먹으면 사람에게 적당하고, 효능은 즉어(鯽魚)와 같다.〕

鱠魚 | 제어

鯪魚(味甘辛하니 食之不益人이오 助火動痰하며 發瘡疥니라.)

제어(鯪魚)〔맛이 달고 맵다. 먹으면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화(火)를 조장하고, 담(痰)을 동하게 하며, 창개(瘡疥)를 유발한다.〕

鯨魚 | 종어

鯨魚(平하니 補五臟、益筋骨、和脾胃하니 多食이라도 宜人이오 作鮓면 尤佳라 暴乾하면 甚香美하야 不毒하며 亦不發病이니라.)

종어(鯨魚)〔약성이 평이하다. 오장(五臟)을 보하고, 근골(筋骨)에 유익하며, 비위(脾胃)를 고르게 하니, 많이 먹어도 사람에게 적합하다. 젓갈로 먹으면 더욱 좋다. 햇볕에 말리면 매우 향기롭고 맛이 좋으며, 독이 없고, 질병도 유발하지 않는다.〕

鮓魚 | 회어

鮓魚(生南海하나니 味、美하며 無毒이라 膠可作膠니 一名은 江鰐라 主竹木이 刺入肉하야 經久不出者하니 取白하야 傳四畔이면 肉爛刺出이오 破傷風瘡、月蝕瘡、陰瘡、癰瘡에 並燒灰하야 用之라 又嘔血에 灸黃爲末하야 用甘蔗節의 搗自然汁으로 調下二錢이니라.)

회어(鮓魚)〔남해(南海)에서 난다. 맛이 좋고, 독이 없다. 허구리살로 아교를 만들 수 있다. 일명 강표(江鰐)라고 한다. 대나무가 살에 박혀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증상을 치료하니, 백표(白鰐)를 채취하여 환부의 사방에 붙이면 살이 문드러지면서 가시가 나올 것이다. 파상풍창(破傷風瘡), 월식창(月蝕瘡), 음창(陰瘡), 누창(癰瘡)에는 모두 태운 재를 쓴다. 구혈(嘔血)에는 노랗게 구워서 분말로 만들고 감자(甘蔗)의 마디를 찢어 나온 즙에 2돈씩 타서 먹는다.〕

蜳 | 정

鯉〔甘溫하며 無毒이라 補虛及産後虛損하며 主冷痛、邪熱煩悶하니 疫後에는 忌食이니라.〕

정(鯉)〔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며, 독이 없다. 허(虛)와 산후의 허손(虛損)을 보하고, 냉통(冷痛)과 사열(邪熱)로 인한 번민(煩悶)을 치료하는데, 전염병을 앓은 후에는 사용을 금한다.〕

魚鱠 | 어회

魚鱠〔乃諸魚所作之膾니 味甘溫補라 去冷氣、濕痺하며 除喉中氣結、心下酸水、腹中伏梁과 冷疝、結癖、疝氣하며 補腰腳、起陽道라 以菰菜로 爲羹을 謂之金羹玉鱠라하니 開胃口、利大小腸이오 以蔓菁으로 煮면 去腥이라 凡物의 腦는 能消毒하니 所以로 食鱠에 必魚頭美也요 近夜 食하야 不消는 馬鞭草汁이 能消之요 飲水면 令成蟲이오 病起에 食之면 令胃弱이오 同乳酪食이면 令霍亂이라 又云 不可同蒜食이라 호대 昔에 一婦 患吞酸하야 食魚鱠러니 遂愈하니 蓋以辛辣에 有劫病之功也라 凡鱠는 若魚本佳者면 鱠도 亦佳니라.〕

어회(魚鱠)〔곧 각종 물고기로 만든 회이다. 맛이 달고, 약성이 따뜻하며, 보한다. 냉기(冷氣)와 습기(濕氣)를 제거하고, 목구멍 속에 기가 응결한 증상, 심하(心下)의 신물, 배속의 복량(伏梁), 냉현(冷疝), 결벽(結癖), 산기(疝氣)를 없앤다. 허리와 종아리를 보하고, 양도(陽道)를 일어나게 한다. 고채(菰菜)로 국을 끓인 것을 금강옥회(金羹玉鱠)라고 하니, 위(胃)의 입구를 열고, 대소장(大小腸)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며, 만청(蔓菁)과 같이 삶으면 비린내를 제거한다. 모든 만물의 뇌(腦)는 독을 없애므로, 생선회를 먹을 때는 생선의 대가리가 맛이 좋다. 밤에 먹어서 소화가 안 될 때에는 마편초(馬鞭草)의 즙이 소화를 잘 시킨다. 물을 마시면 벌레가 생기게 되고, 병을 앓고 난 후 먹으면 위(胃)가 약해지며, 젓이나 진한 유즙과 같이 먹으면 광란(霍亂)이 일어난다. 또 마늘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예전에 한 여성이 신물이 올라오는 질병을 앓다가 생선회를 먹었더니 낫게 되었는데, 아마도 매운맛이 질병을 몰아내는 효능이 있기 때문인 듯하다. 모든 생선회는 물고기가 좋으면 회도 좋다.)

魚鮓 | 어자

魚鮓(乃諸魚所作之鮓니 不益脾胃하며 背發瘡疥라 鯉魚鮓는 忌靑豆、赤豆하고 靑魚鮓는 忌胡葵요 羊肉鮓中에 有鰕者는 不可食이니라.)

어자(魚鮓)〔곧 각종 물고기로 만든 것갈이다. 비위(脾胃)에 유익하지 않으며, 모두 창개(瘡疥)를 유발한다. 잉어의 것갈은 청두(靑豆)와 적두(賊豆)를 꺼리고, 청어의 것갈은 호유(胡葵)와 양고기를 꺼린다. 것갈 속에 새우가 있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右五品藥性和 瘡毒과 食治는 皆古人이 設也니 愚는 推古菴意하야 於各類에 增通用과 雜用하야 以備神農三百六十五種之數하고 更采大觀本草、東垣珠囊、丹溪日用、熊宗立藥賦와 圖經、捷徑、小學、集要、集韻 等書하야 纂歌集註호대 僅一千品에 止하고 有兼用之法이면 節齋를 編之備矣니 大槩 風兼寒證則兼用姜桂하고 風兼濕證則兼用蒼朮하고 風兼燥證則兼用地黃하고 風兼虛證則兼用參朮芎歸하고 風兼熱證則兼用芩連梔柏하니 餘皆以此例推니 古菴도 亦略言之矣라 但各類所載의 雜用藥品은 人多不識하고 方多少用이로대 以其爲神農所創 故로 不敢遺하니 且俟四方多識者의 採訪用之하노니 猶勝於今之新藥也(엘)새라 蓋聖人이 取藥에 上應天氣하고 下應地味하며 中應人臟하시니 衍義에 云 草木이 皆木也요 金鉛이 皆金也요 糞土 皆土也요 灰火 皆火也요 水池 皆水也로대 盡皆妙合乎陰陽造化之理라 하니라 非若後之氣味無憑하고 試驗相傳而已라 噫라 人知用藥之爲難하고 而不知識藥之眞僞 爲尤難이오 人知素問之難讀하고 而不知本草之尤難讀이로다 有所受하며 而歷年이 多者라야 方可以言 知藥之性이니 知藥之性이면 則知病機矣 裏라 故로 曰 本草는 爲醫之祖라하니라.

위에서 말한 오품(五品)의 약성(藥性)과 창독문(瘡毒門) 및 식치문(食治門)은 모두 옛사람들이 설정한 것으로, 나는 방고암(方古庵)의 뜻을 확충하고 각 종류에 통용(通用)하는 것과 잡용(雜用)하는 것을 증보하여,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365종의 수를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또 《대관본초(大觀本草)》, 이동원(李東垣)의 《진주낭(珍珠囊)》, 주단계(朱丹溪)의 《일용(日用)》, 웅종립(熊宗立)의 《약부(藥賦)》, 《본초도경(本草圖經)》, 《첩경(捷徑)》, 《의경소학(醫經小學)》, 《집운(集韻)》 등의 책에서 채록하여 가사(歌詞)를 편찬하고, 주해(註解)를 모으되, 겨우 1000종에서 그쳤다. 검용하는 방법은 왕절재(王節齋)의 것을 엮어서 갖추어 놓았으니, 대체로 다음과 같다. 풍(風)이 한(寒)을 겸한 경우에는 강류(薑類)와 계류(桂類)를 검용하고, 풍이 습(濕)을 겸한 경우에는 창출(蒼朮)을 검용하며, 풍이 조(燥)를 겸한 경우에는 지황(地黃)을 검용하고, 풍이 허(虛)를 겸한 경우에는 인삼(人蔘), 백출(白朮), 궁궁(芎藭), 당귀(當歸)를 검용하며, 풍이 열(熱)을 겸한 경우에는 황금(黃芩), 황련(黃連), 치자(梔子), 황백(黃柏)을 검용한다. 나머지는 모두 이러한 용례를 따라 추론하여 검용할 것이다. 방고암(古庵)도 이런 점을 대략 말한 적이 있다. 다만 각 분류에서 기재한바, 잡용이라고 한 약품(藥品)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는 것이 많고, 방제(方劑)에도 적게 쓰이는 것이지만, 신농(神農)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감히 버리지 못하였고, 아울러 사방의 많은 박식한 사람들이 찾아서 응용하기를 기다리고자 해서이기도 하며, 현재 쓰는 새로운 약보다 효과가 낫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개 성인들이 약을 선택할 때에는, 위로는 천기(天氣)에 상응하고, 아래로는 지미(地味) 상응하며, 가운데로는 인체의 내장(內臟)에 상응하게 하였으니, 《본초연의(本草衍義)》에서 말하되, 초목(草木)은 다 목(木)이고, 금연(金鉛)은 다 금(金)이며, 분토(糞土)는 다 토(土)이고, 회화(灰火)는 다 화(火)이며, 수지(水池)는 다 수(水)이지만, 모두 다 음양조화(陰陽調和)의 이치에 오묘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말하는 기미(氣味)가 근거도 없으면서 시험해 본 것만으로 서로 전수하는 것과 다르다. 아아! 사람들은 약을 쓰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만 알고, 약의 진위(眞僞)를 아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은 모르고, 사람들은 《소문(素問)》이 읽기 어렵다는 사실만 알고, 《본초경(本草經)》

이 더 읽기 어렵다는 사실을 모른다. 제대로 전수받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비로소 약의 성질을 안다고 할 수 있으니, 약의 본성을 알았다면 병의 기전(機轉)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초(本草)를 의학(醫學)의 시조(始祖)라고 하는 것이다.

〔附〕食治方 | 〔부록〕식치방

- 〔詳安老書及食醫心鏡、食療本草、養生雜纂 等書하니라.〕

〔오래된 책과 《식의심경(食醫心鏡)》, 《식료본초(食療本草)》, 《양생잡찬(養生雜纂)》 등에 상세하다.〕

와###1.3.〔附〕食治方 |〔부록〕식치방

- 〔詳安老書及食醫心鏡、食療本草、養生雜纂等書하니라.〕

〔《안로서(安老書)》와《식의심경(食醫心鏡)》,《식료본초(食療本草)》,《양생잡찬(養生雜纂)》 등에 상세하다.〕

1.3.1. 風 | 풍

蒼耳子粥 | 창이자죽

蒼耳子粥〔治目暗不明及諸風으로 鼻流清涕하며 兼治下血、痔瘡等證이라 用蒼耳子五錢을 取汁하야 和早米 三合하야 煮粥食이오 又可作羹과 及煎之하야 代茶니라.〕

창이자죽(蒼耳子粥)〔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거나 각종 풍(風)으로 코에서 맑은 물이 나오는 증상을 치료한다. 아울러 하혈(下血)과 치장(痔瘡)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 창이자(蒼耳子) 5돈을 즙을 내서 일찍 익은 쌀 3홉과 섞어 죽을 쑀어 먹는다. 또 국으로 끓이거나 달여서 차 대신 쓸 수도 있다.〕

蔥粥 | 총죽

蔥粥〔治傷風及妊娠動胎와 產後血暈이라 用糯米를 煮粥하야 臨熟에 入蔥數莖하고 再略煮하야 食之니라.〕

총죽(蔥粥)〔상풍(傷風), 임신 중 태동(胎動), 산후혈훈(產後血暈)을 치료한다. 찹쌀을 끓여서 죽을 쑀어 익을 무렵에 파 몇 줄기를 넣고 다시 약간 끓여 먹는다.〕

烏頭粥 | 오두죽

烏頭粥〔治風寒濕痺로 麻木不仁과 手足四肢不遂、重痛不舉 等證하니 宜預服하여 防之니라 用生川烏末 四錢、白米 半碗을 慢火로 熬作稀粥하고 入生姜汁 一匙、白蜜 三匙하여 攪勻하여 空心에 溫服이오 如中濕이면 更入薏苡末 二錢이니 蓋風客肝則淫脾 故로 疾在四末이니 宜穀氣로 引風濕之藥하고 徑入脾經이니라.〕

오두죽(烏頭粥)〔풍한습비(風寒濕痺)로 인하여 감각이 없고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 수족(手足)과 사지(四肢)를 제도로 쓰지 못하는 증상, 무겁고 아프면서 들지 못하는 증상 등을 치료하니, 미리 먹고 예방하는 것이 적합하다. 생천오(生川烏) 분말 4돈에 흰쌀 반 그릇을 약한 불에 끓여서 묽은 죽을 쑀어, 생강즙 1술가락, 흰 꿀 3술가락을 넣어 고르게 저어서 공복에 따듯하게 복용한다. 습기(濕氣)에 맞은 경우에는, 여기에 다시 의이인(薏苡仁) 분말 2돈을 넣어서 쓸 것이니, 대개 풍(風)이 간(肝)으로 들어가면 비(脾)로 넘치게 되므로, 사지에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니, 곡기(穀氣)로 풍습(風濕)을 치료하는 약을 이끌고 비경(脾經)으로 바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

牛蒡鱠飪方 | 우방박탁방

牛蒡鱠飪方〔治中風에 口目瞤動、煩悶不安이라 用牛蒡根 一升을 去皮爲末하여 和白米四合하여 煮熟이어든 入蔥、豉、椒、塩하고 和勻하여 空心에 常食이면 効니라.〕

우방박탁방(牛蒡鱠飪方)〔중풍(中風)으로 인해 입과 눈이 씹룩거리고, 번민(煩悶)하여 불안한 증상을 치료한다. 우방(牛蒡)의 뿌리 1되를 껍질을 벗겨내고 분말로 만들어, 흰쌀 4홉과 같이 끓여서 익으면, 파, 두시(豆豉), 산초(山椒), 소금을 넣고 섞어서 공복에 항상 먹으면 유효하다.〕

烏鷄臠 | 오계학

烏鷄臠〔治中風の煩熱、言語澀悶과 或手足發熱이라 用烏鷄肉 半斤、蔥白 一握을 煮作臠하여 入麻油、塩、豉、姜、椒하고 再煮令熟이든 空心에 漸食이니 善能補益이니라.〕

오계학(烏鷄臠)〔중풍(中風)으로 인한 번열(煩熱)과 언어장애와 손발에 열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오계육(烏雞肉) 반 근과 총백(蔥白) 한 주먹을 달여서 고깃국을 만들어 마유(麻油), 소금, 두시(豆豉), 생강(生薑), 산초(山椒)를 넣고 다시 끓여서 익으면, 공복에 조금씩 먹을 것이니, 잘 보익할 수 있다.〕

黃牛腦子酒 | 황우뇌자주

黃牛腦子酒〔治遠年近日의 偏正頭風이라 用牛腦髓 一箇薄切、白芷、川芎末 各三錢을 同入磁器內하고 加酒煮熟하여 乘熱服之호대 盡量一醉니 睡後酒醒이면 其疾이 如失이니라.〕

황우뇌자주(黃牛腦子酒)〔만성(慢性) 혹은 최근 발생한 편두풍(偏頭風)과 정두풍(正頭風)을 치료한다. 소의 뇌수(腦髓) 1개를 얇게 썬 것에, 백지(白芷)와 천궁(川芎) 등의 분말 각 3돈을 함께 자기(磁器) 그릇에 넣고 술을 부어 끓여서 익히고, 뜨거울 때 먹되, 양껏 먹고 취할 것이니, 잠이 깬 후 술이 깨면 질병이 없어진다.〕

鵝酒 | 아주

鵝酒〔治頭風痛이라 用飛鵝一隻을 去毛翼腸雜하고 以防風 半斤으로 裝入腹內하야 縫合하고 以黃泥로 固濟하야 炭火로 하야 去烟存性케하야 取出爲末하야 每二三錢을 熱酒로 下하야 汗出이면 卽愈니라.〕

아주(鵝酒)〔두풍통(頭風痛)을 치료한다. 날아다니는 거위 1마리를 털과 날개 및 내장 등의 잡물(雜物)을 제거하고, 방풍(防風) 반 근을 배속에 넣고 꿰매어 향토 진흙으로 꼭 막고 숯불로 가열한다. 연기가 나지 않고 약성이 남을 때까지

지 계속한 뒤 꺼내어 분말로 만들어, 한 번에 2~3돈씩 뜨거운 술로 먹고서 땀이 나면 바로 낫는다.)

菖蒲酒 | 창포주

菖蒲酒〔治風痺하나니 骨立、痿黃、醫所不治者는 宜服이라 經百日이면 顏色豐足、耳目聰明하야 延年益壽요 久服이면 通神이니라 用菖蒲 絞汁 五斗로 糯米 五斗를 炊熟하야 細麴 五斤과 拌勻하야 入甕하고 密蓋三七日後에 取酒溫服이니라.〕

창포주(菖蒲酒)〔풍비(風痺)를 치료하는 것이니,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며 누렇게 떠서 의사들이 치료하지 못하는 환자가 복용해야 한다. 먹은 지 100일 지나면 안색(顏色)이 좋게 되고, 귀와 눈이 밝아지며, 생명을 연장하여 장수하게 된다. 장복하면 통신(通神)하게 된다. 창포(菖蒲)를 짜낸 즙 5말과 찹쌀 5말을 불을 때서 밥을 지어 익게 되면, 세국(細麴) 5근과 고르게 섞어서 옹기에 넣어 뚜껑을 막고서, 21일 후 술을 떠서 따듯하게 먹는다.〕

菊花酒 | 국화주

菊花酒〔壯筋骨、補髓하며 延年益壽라 用菊花、生地、枸杞根 各五升을 以水一石으로 煮取汁五斗와 糯米 五斗를 炊熟하야 入細麴末 拌勻하야 入甕內密封이라가 熟하야 澄清을 溫服之니라.〕

국화주(菊花酒)〔근골(筋骨)을 강성하게 하고, 골수(骨髓)를 보하며, 오래 살게 한다. 국화(菊花), 생지황(生地黃), 구기자(枸杞子) 뿌리 각 5되를 물 1석(石)으로 달여서 즙 5말을 낸 다음, 이것으로 찹쌀 5말을 불을 때서 밥을 지어 익게 되면, 세국(細麴) 분말을 넣고 고르게 섞어서 옹기에 넣고 밀봉한다. 술이 익으면 맑은 부분을 따듯하게 먹는다.〕

大豆酒 | 대두주

大豆酒〔治卒中風으로 口噤、身體反張、不語니라 用大豆 二升을 炒하여 聲靜이
어든 卽投下酒하여 煮一 二沸하여 去渣熱服하고 覆臥汗瘥니 口噤이면 扞開하고
灌之니라.〕

대두주(大豆酒)〔급성 중풍(中風)으로 입을 다물거나 열지 못하는 증상, 신체를 뒤집지 못하는 증상,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 등을 치료한다. 대두(大豆) 2되를 소리가 조용해질 때까지 볶아서, 바로 술에 넣어, 한두 차례 끓여서 찌꺼기를 없애고 따듯하게 먹되, 누워서 이불을 덮고 땀을 내면 나을 것이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벌리고 주입한다.〕

槐花酒 | 괴화주

槐花酒〔治百種瘡毒하나니 初覺頭腦面背와 及身上下에 有瘡하여 雖有大勢라도
服此卽退니라 用槐花 四兩을 炒香하여 入酒二碗하고 煎一二沸하여 去渣盡服이면
卽消요 未効어든 再進一服이니라.〕

괴화주(槐花酒)〔온갖 창독(瘡毒)을 치료하니, 머리, 얼굴, 등 그리고 몸의 상하부(上下部)에 창(瘡)이 처음 생겨 비록 심해질 듯한 경우에도, 이것을 먹으면 곧장 물러난다. 괴화(槐花) 4냥을 향기가 나도록 볶아서, 술 2그릇에 넣고 한 두 차례 끓여 찌꺼기를 없애고, 모두 다 먹으면 곧 사라지게 된다. 효과가 없으면 다시 한 번 먹는다.〕

薜荔酒 | 벽려주

薜荔酒〔取大木上の 薜荔 二百葉하여 細研하고 入酒 一升許하여 拌和攪汁을 煎一
二沸하여 隨宜飲盡이니 未解어든 再服三服이라도 不妨이니 雖氣弱人이라도 且去
瘡毒이 爲急일새니라.〕

벽려주 (큰 나무 위에 있는 벽려(薜荔)의 잎 200개를 채취해서, 곱게 갈아서 술을 1되 남짓 넣어, 고르게 섞어서 즙을 내고, 한 두 차례 끓여서 편의에 따라 모두 다 마신다. 그래도 낫지 않으면 두세 번 먹어도 무방하다. 비록 기(氣)가 약한 환자라도 창독(瘡毒)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史國公浸酒方、仙酒方、五積酒 | 사국공침주방, 선주방, 오적주

史國公浸酒方、仙酒方、五積酒(俱見七卷의 六十葉하나라.)

사국공침주방(史國公浸酒方), 선주방(仙酒方), 오적주(五積酒) (모두 7권의 60엽(葉)에 보인다.)

1.3.2. 寒 | 한

乾姜粥 | 건강죽

乾姜粥〔治一切의 寒冷氣鬱로 心痛과 腹脅이 脹滿이라 用白米 四合에 入乾姜・良姜 各一兩하야 煮熟하야 食之니라.〕

건강죽(乾姜粥)〔일체의 한냉(寒冷)과 기(氣)의 울체(鬱滯)로 인한 심통(心痛) 및 배와 옆구리 창만(脹滿)을 치료한다. 흰쌀 4홉에 건강(乾薑)과 양강(良薑)을 각 1냥씩 넣고, 끓이고 익혀서 먹는다.〕

茱萸粥 | 수유죽

茱萸粥〔治冷氣로 心痛不止・腹脇脹滿・坐臥不得이라 用吳茱萸末 二分을 和米煮粥하야 食之니라.〕

수유죽(茱萸粥)〔냉기(冷氣)로 심통(心痛)이 지속되고 배와 옆구리가 창만(脹滿)하여, 앉거나 눕지도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오수유(吳茱萸) 분말 2푼에 흰쌀을 넣고 섞어서 죽을 쑤어 먹는다.〕

川椒茶 | 천초차

川椒茶〔細茶에 入川椒 少許 同煎이니 或生姜・吳茱萸를 隨便入些라도 亦可니 辟寒이니라.〕

천초차(川椒茶)〔가는 찻잎에 천초(川椒)를 조금 넣고 같이 끓이는 것으로, 혹은 생강(生薑)과 오수유(吳茱萸)를 편의에 따라 조금 넣어도 역시 괜찮으니, 한(寒)을 물리친다.〕

肉桂酒 | 육계주

肉桂酒〔治感寒하야 身體疼痛이라 用桂末 二錢을 溫酒로 調服이라 腹痛泄瀉에 俗以生薑、茱萸를 搗酒하니 俱好라 如打撲傷墜로 瘀血疼痛이면 用桂枝니라.〕

육계주(肉桂酒)〔한기(寒氣)를 받아서 몸이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매운 육계(肉桂) 분말 2돈씩을 따듯한 술에 타서 먹는다. 복통(腹痛) 설사의 경우, 민간에서 생강(生薑)과 오수유(吳茱萸)를 술로 갈아서 썼으니, 모두 좋다. 타박상(打撲傷)과 추락상(墜落傷)으로 인한 어혈(瘀血)로 아픈 경우라면, 계지(桂枝)를 쓴다.〕

1.3.3. 暑 | 서

菉豆粥 | 녹두죽

菉豆粥〔豆熟에 入米同煮하여 食之면 最解暑渴이니라.〕

녹두죽(菉豆粥)〔콩이 익으면 쌀을 넣고 같이 끓여서 먹으면 여름의 갈증을 가장 잘 해소한다.〕

麴粥 | 면죽

麴粥〔治痢色이 白하니 不渴者는 爲寒이라 用麴의 炒過를 煮米粥으로 調下方寸匕니 兼止 瀉百行의 醫所不救者니라.〕

면죽(麴粥)〔이질(痢疾)의 색이 흰 것을 치료하니, 갈증이 없는 경우는 한증(寒證)이다. 밀가루를 과하게 볶은 것을 쌀죽으로 한 찻숟가락 타서 먹는다. 아물러 설사를 수도 없이 해서 의사들도 치유하지 못하는 증상을 멎게 한다.〕

蒜酒 | 산주

蒜酒〔粗人이 好用이라 如清高貴客이면 宜黃連・菉豆를 浸酒飲之요 養生者는 夏不宜飲이니라.〕

산주(蒜酒)〔거친 사람들이 잘 쓰는 방법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황련(黃連)과 녹두(菉豆)를 술에 가라앉혀 마시는 것이 마땅하다. 양생(養生)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여름에 마시는 것은 마땅치 않다.〕

桂漿 | 계장

桂漿(夏月에 飲之니 解煩渴하며 益氣、消痰하니 上燥下寒者라야 乃宜라 桂末 一兩、白蜜 一升을 先以水二斗를 煎取一斗하야 待冷하야 入新磁瓶內하고 後下二物하야 攪令極勻하고 先用油單紙의 一重으로 覆上하고 再加紙七重하야 以繩封之하고 每日去紙一重하야 七일에 開之하면 藥成하야 氣香味美하며 格韻이 絶高니라.)

계장(桂漿) (여름철에 마시는 것으로, 번갈(煩渴)을 풀어주며, 기(氣)를 보익하고, 담(痰)을 삭인다. 상체(上體)는 건조하고 하체(下體)는 차가운 사람이라야 적당하다. 계피(桂皮) 가루 1냥과 흰 꿀 1되를 준비한다. 우선 물 2말을 1말이 되도록 끓여서, 식으면 새로운 자기(磁器) 병에 넣고, 여기에 미리 준비한 계피 가루와 꿀을 넣고 아주 고르게 섞는다. 그 후에 이것을 먼저 기름종이로 한 겹 덮고, 다시 종이를 7겹으로 덮은 다음, 노끈으로 봉해서, 하루에 종이 한 겹씩을 제거하여 7일 만에 열게 되면 약이 완성된다. 향기롭고 맛이 좋아서 격조(格調)와 운치(韻致)가 아주 높다.)

1.3.4. 濕 | 습

薏苡仁粥 | 의이인죽

薏苡仁粥(和米하야 煮粥食之니 去濕에 極効요 功勝諸藥이니라.)

의이인죽(薏苡仁粥)〔쌀과 같이 죽을 쑤어서 먹는 것이니, 습(濕)을 없애는 데
에 아주 효과적이어서, 효능이 온갖 약보다 낫다.〕

麻子粥 | 마자죽

麻子粥(治水氣로 腫滿、身體疼痛、不能飲食이라 用麻子 一升取汁에 下米 四合、
鯉魚肉 七兩하야 煮粥하야 入塩、豉、蔥、椒하고 和勻하야 空心에 食之요 或用
鯉魚腦髓 二兩、粳米 三合을 和塩豉하야 煮粥食이니 兼治耳聾이니라.)

마자죽(麻子粥)〔수기(水氣)로 붓고, 몸이 아프며, 먹고 마시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마자(麻子) 1되를 즙을 낸 것에, 쌀 4홉과 잉어고기 7냥을 넣어서 죽
을 끓인다. 여기에 소금, 두시(豆豉), 파, 산초(山椒)를 넣고 잘 섞어서 공복에
먹는다. 혹은 여기에 잉어의 뇌수(腦髓) 2냥과 멍쌀 3홉을 넣어, 소금과 두시를
넣고 죽을 끓여 먹으면, 이롱(耳聾)도 아울러 치료한다.〕

郁李仁粥 | 옥리인죽

郁李仁粥(治水腫으로 腹脹、喘急、二便不通、體重疼痛하야 轉動不安이라 用郁
李仁 二兩研汁에 和薏苡仁 五合하야 煮粥食之니 腳氣에도 亦宜니라.)

옥리인죽(郁李仁粥)〔수종(水腫)으로 인한 복창(腹脹), 천급(喘急), 대소변(大
小便) 불통(不通), 몸이 무겁고 아파서 움직이기 불편한 증상 등을 치료한다.
옥리인(郁李仁) 2냥을 갈아서 즙을 낸 것에, 의이인(薏苡仁)을 5홉 넣어서 죽

을 끓여 먹을 것이니, 각기(脚氣)에도 적합하다.)

蒼朮酒 | 창출주

蒼朮酒〔除萬病・潤皮膚하고 久服이면 延年 益壽라 用蒼朮 卅斤을 洗淨搗碎하여 以東流水 三石에 漬廿日이라가 去渣하고 以汁으로 浸麴을 如家醞 酒法하여 酒熟에 任意飲之요 忌桃李니라.〕

창출주(蒼朮酒)〔온갖 질병을 없애고,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 장복하면 수명이 길어지고 오래 살게 된다. 창출(蒼朮) 30근을 깨끗이 씻어서 찢어 동쪽으로 흐르는 물 3석에 20일 동안 담갔다가 찌꺼기를 없애고 그 즙에 누룩을 넣어서 집에서 술을 담그는 법대로 하여 술이 익으면 수시로 마신다. 복숭아와 자두를 꺼린다.〕

- 〔桑白皮飲〕

〔상백피음(桑白皮飲)〕

- 〔治水腫으로 腹脹・喘急이라 用桑皮 四兩搗汁에 和靑梁米 四合하여 研爛하여 煮飲이니 空心에 漸食이니라.〕

〔수종(水腫)으로 배가 차오르고 숨이 찬 증상을 치료한다. 상백피(桑白皮) 4냥을 찢은 즙에, 청량미(靑梁米) 4홉을 섞어서 곱게 갈아 달여서 마신다. 공복에 점진적으로 먹는다.〕

赤小豆方 | 적소두방

赤小豆方〔治水氣로 腹悶・手足浮腫・氣急・煩滿이라 用赤小豆 三升・樟柳枝 一升을 同煮爛하여 空心에 取豆食之호대 渴卽飲汁하고 勿食別物이라야 効니라.〕

적소두방(赤小豆方)〔수기(水氣)로 인한 창민(脹悶), 손발의 부종(浮腫), 기급(氣急), 번만(煩滿)을 치료한다. 적소두(赤小豆) 3되, 장류(樟柳) 가지 1되를 같이 푹 끓여서 공복에 적소두만을 취하여 먹되, 갈증이 나면 그 즙을 마시고, 다른 것은 먹지 말아야 효과가 날 것이다.〕

鯉魚臙 | 이어학

鯉魚臙〔治水腫으로 滿悶、氣急、不能食하며 皮膚欲裂、四肢常疼하며 不可屈伸이라 用鯉魚 十兩、蔥白 一握을 麻子 一升取汁으로 煮作羹臙하여 入塩、豉、姜、椒調和하여 空心에 漸食이니라.〕

이어학(鯉魚臙)〔수종(水腫)으로 그득하고 답답하며, 숨이 차고, 먹지 못하며, 피부가 갈라지고, 사지(四肢)가 늘 아프면서 굴신(屈伸)하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잉어 10냥, 총백(蔥白) 1웅큼을, 마자(麻子) 1되로 즙을 낸 것으로 끓여서 국을 만들어, 소금, 두시(豆豉), 생강(生薑), 산초(山椒)로 조미하여 공복에 점진적으로 먹는다.〕

鯉魚湯 | 이어탕

鯉魚湯〔治妊娠五六月에 胎水로 腹大異常하여 高過心胷이라 當歸、白芍 各一錢半 茯苓、白朮 各二錢을 用鯉魚 一箇의 水煮淸汁一盞半에 入生姜 七片 陳皮 少許하고 同煎至一盞하여 空心服이니 未愈어든 再服이니라.〕

이어탕(鯉魚湯)〔임신 5~6개월에 태수(胎水)로 인하여 배가 이상하게 커지게 되어 그 높이가 심흉(心胸)보다 높아지는 증상을 치료한다. 당귀(當歸)와 작약(芍藥) 각 1.5돈, 복령(茯苓)과 백출(白朮) 각 2돈 등을 잉어 한 마리를 물로 달인 맑은 즙 1잔반에다, 생강 7조각과 진피(陳皮)를 약간 넣고 1잔이 되도록 함께 달여서 공복에 먹는다. 낫지 않으면 다시 복용한다.〕

水牛肉方 | 수우육방

水牛肉方(治水氣로 四肢가 腫悶 沈重、喘息不安이라 用牛肉을 蒸爛하야 以鹽豉 姜醋와 拌勻하야 空心에 任意食之니라.)

수우육방(水牛肉方)〔수기(水氣)로 사지(四肢)가 붓고 답답하며 무겁고, 천식(喘息)으로 불안한 증상을 치료한다. 수우육(水牛肉)을 푹 찌고, 소금, 두시(豆豉), 생강(生薑), 식초를 고루 섞어서 공복에 임의로 먹는다.)

- 〔○ 治虛腫、虛脹이라 用水牛皮 二斤去毛、橘皮 一兩과 同煮爛하야 以姜、醋、五味로 拌食之니라.)

〔○ 허종(虛腫)과 허창(虛脹)을 치료하는 처방은 다음과 같다. 털을 제거한 수우(水牛)의 가죽 2근을 귤피(橘皮) 1냥과 같이 푹 끓여서, 생강(生薑), 식초, 오미(五味)의 양념을 섞어 먹는다.)

- 〔○ 治心腹脹滿、四肢煩疼無力이라 用鯉魚 二斤、陳皮 二兩을 煮令爛에 入 靑鹽 少許하야 拌和하야 空心에 食之니라.)

〔○ 심복(心腹)이 창만(脹滿)하고 사지(四肢)가 답답하고 아프며 무력(無力)한 증상을 치료한다. 잉어 2근과 진피(陳皮) 2냥을 푹 끓여서 뭉갠 후, 청염(靑鹽)을 조금 넣고 고루 섞어서 공복에 먹는다.)

1.3.5. 燥 | 조

生地黃粥 | 생지황죽

生地黃粥〔治妊娠下血、漏胎라 用糯米 二合을 煮粥하여 臨熟에 入生地汁 一合調勻하여 空心에 食之니라.〕

생지황죽(生地黃粥)〔임신 중 하혈(下血)과 태루(胎漏)를 치료한다. 찹쌀 2홉으로 죽을 쑂고, 다 익을 무렵 생지황즙(生地黃汁) 1홉을 넣고 고루 섞어서, 공복에 먹는다.〕

蘇麻粥 | 소마죽

蘇麻粥〔治産後의 血暈、汗多、便閉라 用蘇子、麻子仁 二味를 搗爛하여 水濾取汁하여 煮粥食之니라.〕

소마죽(蘇麻粥)〔산후 혈훈(血暈), 다한(多汗), 변폐(便閉)를 치료한다. 소자(蘇子)와 마자인(麻子仁) 두 가지를 찧어 멍개고 물로 걸러 즙을 취한 것으로 죽을 끓여서 먹는다.〕

- 〔膾肉粥〕러

〔여육죽(膾肉粥)〕

- 〔用粳米로 煮粥호대 以膾肉 切碎로하여 入塩 少許와 及香油、川椒、茴香하여 調和食之니 以此養腎則水有所司리라.〕

〔멥쌀로 죽을 쑂되, 여육(膾肉)을 잘게 부순 것으로 쑂어서, 소금 조금과 향유(香油), 산초(山椒), 회향(茴香)으로 조미하여 먹는다. 이것으로 신장(腎腸)을 보양하면 수분(水分)이 잘 관장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다.〕

天門冬酒 | 천문동주

天門冬酒〔用天門冬 浸汁으로 拌麴하야 如常釀酒거나 或爲末하야 和麴이오 或用 生地、枸杞、火麻子라도 俱可니 或釀或浸하야 飲之니라.〕

천문동주(天門冬酒)〔천문동(天門冬)을 담갔던 즙으로 누룩을 섞어 일반적인 방법대로 술을 빚거나, 분말로 만들어 누룩을 섞어서 빚는다. 혹은 생지황(生地黃), 구기자(枸杞子), 화마자(火麻子)를 함께 넣어도 괜찮고, 혹은 술을 빚거나 담갔던 물로 마신다.〕

四汁膏 | 사즙고

四汁膏〔清痰、降火、下氣、止血이라 用雪梨、甘蔗泥、藕、蘿蔔、薄荷 各等分을 搗碎濾汁하야 入銅鍋內하고 慢火로 熬膏하야 飲之니라.〕

사즙고(四汁膏)〔담(痰)을 식히고, 화(火)를 내리며, 기(氣)를 내리고, 지혈(止血)한다. 설리(雪梨), 감자니(甘蔗泥), 우(藕), 나복(蘿蔔), 박하(薄荷) 등을 같은 양으로 찢고 걸러서 즙을 내고, 구리 솥에 넣고 약한 불로 졸여 고약을 만들어 마신다.〕

靑豆飲 | 청두음

靑豆飲〔治消渴、熱中으로 飲水無度호대 常苦不足이라 用靑豆를 煮爛하야 饑則食豆하고 溫卽飲汁이오 或煮粥 食이니라.〕

청두음(靑豆飲)〔소갈(消渴)과 중초(中焦)의 열증(熱症)으로 물을 한없이 마셔도 늘 부족한 듯한 증상을 치료한다. 청두(靑豆)를 푹 삶아서, 배가 고프면 콩을 먹고, 갈증이 있으면 그 즙을 마신다. 혹은 죽을 쑤어서 먹기도 한다.〕

消渴方 | 소갈방

消渴方〔用出子蘿蔔을 薄切하여 晒爲末하여 每二錢을 猪肉湯의 澄清으로 調下호
대 食後에 日三服이면 而瘥니라.〕

소갈방(消渴方)〔종자를 맺은 나복(蘿蔔)을 얇게 썰어서 햇볕에 말려 분말로
만들어 매번 2돈씩 돼지고기 탕의 맑은 국물에 타서 먹되, 식후마다 하루 세 번
씩 먹으면 낫는다.〕

1.3.6. 火 | 화

- 〔與熱門으로 參用이니라〕

〔열문(熱門)과 함께 참고하여 쓴다.〕

地黃粥 | 지황죽

地黃粥〔生地の 不拘多少를 搗하여 自澁汁으로 浸粳米하여 滲透어든 晒極乾하고 再浸再晒을 三次하고 每用磁器로 煎湯一升하여 令沸어든 入前米一合하여 熬成稀粥하여 食遠에 食之日久면 心火自降하며 肝血이 淸凉하여 專治睡覺에 目赤腫이 라가 良久則無라 蓋人臥則血歸於肝하나니 因血熱이 到肝 故로 睡起而目赤이오 良久無事者는 血復散於四肢也(엘)새니 宜食此粥하여 以凉肝血이니라.〕

지황죽(地黃粥)〔생지황(生地黃)을 양의 다소에 상관없이 찢어서 즙을 낸 것에, 찹쌀을 넣어 배어 나오게 되면, 햇볕에 바짝 말린다. 이것을 다시 담갔다가 햇볕에 말리기를 3차례 되풀이 하고, 매번 자기(磁器) 그릇으로 1되만을 달여서 끓여오르면, 앞서 만들어 둔 쌀을 1홉 넣어 달여서 뭍은 죽을 쑤어 식사를 한 지 한참 후 먹는다. 이렇게 오랫동안 복용하면 심화(心火)가 저절로 내려가며, 간혈(肝血)이 맑고 서늘하게 되어, 잠을 깨었을 때, 눈이 붉게 되고 부었다가, 오래되면 없어지는 증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한다. 대개 사람이 잘 때 누우면 피가 간(肝)으로 돌아가는데, 피의 열이 간에 도달하므로, 잠에서 깨면 눈이 붉어지는 것이고, 한참 후에 없어지는 것은 피가 다시 사지(四肢)로 흩어지기 때문이니, 마땅히 이 죽을 먹고서 간의 피를 식혀야 한다.〕

薄荷茶 | 박하차

薄荷茶〔治火動으로 咳嗽、便閉와 及婦人經水不調라 細茶 薄荷 各四兩을 用水七碗으로 煎至二碗하야 去渣하고 入蜂蜜 四兩하야 冷하야 入童便 二茶鍾하고 露一宿이라가 每空心에 溫服一鍾이라 童子勞엔 加姜汁 少許니라.〕

박하차(薄荷茶)〔화기(火氣)가 동하여 발생한 해수(咳嗽), 변폐(便閉), 여성의 생리불순(生理不順)을 치료한다. 세차(細茶)와 박하(薄荷) 각 4냥에 물 7그릇을 넣어 2그릇이 되도록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벌꿀 4냥을 넣어서 식힌 뒤, 아이 오줌 2찻잔을 넣어서 하룻밤 동안 이슬을 맞혔다가, 매번 공복에 1찻잔씩 따뜻하게 마신다. 동자로(童子勞)에는 생강즙을 조금 넣어서 먹는다.〕

黃連酒 | 황련주

黃連酒〔有火證及發熱에 絕不宜飲酒는 蓋酒性이 大熱하야 因而發熱이면 多致不治니 或因喜慶하야 欲飲인댄 用黃連、枸杞 各五錢、菉豆 一錢을 浸酒飲之거나 或以釀酒면 尤妙니라.〕

황련주(黃連酒)〔화증(火證)과 발열(發熱)이 있는 경우 술이 절대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대개 술은 성질이 아주 뜨거워서, 열이 오르면 대부분 치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혹은 즐겁고 경사스러운 일로 인해 마시고자 한다면, 황련(黃連)과 구기자(枸杞子) 각 5돈 및 녹두(菉豆) 1돈을 술에 담가서 마시거나 술을 빚어 먹으면 더욱 좋다.〕

黃柏酒 | 황백주

黃柏酒〔有相火而好飲者에 宜하니 如生瘡이어든 用黃柏、猪 各四兩을 生浸飲之면 潤臟、滑肌니라.〕

황백주(黃柏酒)〔상화(相火)가 있어서 술을 즐기는 자에게 적합하다. 만약 창(瘡)이 생긴 환자라면, 황백(黃柏)과 돼지의 이자(胰子)를 각 4냥을 날것으로 담아서 마시면, 장부(臟腑)를 윤택하게 하고, 살결을 매끄럽게 한다.〕

菉豆酒 | 녹두주

菉豆酒〔治陰虛와 痰火의 諸疾이라 用菉豆、山藥 各二兩、黃柏、牛膝、玄參、沙參、白芍、山梔、天門冬、黃芩、天花粉、蜂蜜 各一兩、當歸 一兩二錢、麥門冬 一兩半、甘草 三錢을 以好酒로 浸服之니라.〕

녹두주(菉豆酒)〔음허(陰虛)와 담화(痰火)로 생기는 각종 질환을 치료한다. 녹두(菉豆)와 산약(山藥) 각 2냥, 황백(黃柏), 우슬(牛膝), 현삼(玄參), 사삼(沙參), 백작(白芍), 산치(山梔), 천문동(天門冬), 황금(黃芩), 천화분(天花粉), 붕밀(蜂蜜) 각 1냥, 당귀(當歸) 1냥 2돈, 맥문동(麥門冬) 1냥 반, 감초(甘草) 3돈을 좋은 술에 담갔다가 먹는다.〕

1.3.7. 內傷脾胃 | 내상비위

人參粥 | 인삼죽

人參粥〔治飢胃、吐酸이라 用人參末、姜汁 各五錢、粟米 一合을 煮粥하여 空心에 食之니라.〕

인삼죽(人參粥)〔번위(飢胃)와 신물을 토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인삼(人蔘) 분말과 생강즙(生薑汁) 각 5돈을 좁쌀 1홉과 끓여서 죽을 쑀어 공복에 먹는다.〕

麥門冬粥 | 맥문동죽

麥門冬粥〔治飢胃라 用麥門冬浸汁으로 和米하여 煮粥食之니 妊娠이라도 亦宜라.〕

맥문동죽(麥門冬粥)〔번위(飢胃)를 치료한다. 맥문동(麥門冬)을 담은 즙과 쌀을 섞어서 죽을 쑀어 먹는다. 임신 중에도 적당하다.〕

粟米粥 | 속미죽

粟米粥〔治脾胃虛弱으로 嘔吐、不食하여 漸加羸瘦라 用粟米、白麴等分으로 煮粥하여 空心에 食之니 極 和養胃氣니라.〕

속미죽(粟米粥)〔비위(脾胃)가 허약해서 구토(嘔吐)하고 먹지 못하여서 점점 더 빨리 몸이 수척해지는 증상을 치료한다. 좁쌀과 백국(白麴)을 같은 양으로 해서 죽을 쑀어 공복에 먹을 것이니, 위기(胃氣)를 매우 고르게 하고 보양한다.〕

理脾糕 | 이비고

理脾糕〔百合、蓮肉、山藥、薏苡仁、芡實、白茯苓 各末一升、粳米粉 一斗二升、糯米粉 三升을 用砂糖 一斤으로 調勻蒸糕하야 曬乾常食이니라.〕

이비고(理脾糕)〔백합(百合), 연육(蓮肉), 산약(山藥), 의이인(薏苡仁), 검실(芡實), 백질려(白茯苓) 등의 분말 각 1되, 멍쌀가루 1말 2되, 찹쌀가루 3되 등을 사당(砂糖) 1근과 고르게 섞어 찌서 떡을 만들어, 햇볕에 말려서 늘 먹는다.〕

參苓造化糕 | 삼령조화고

參苓造化糕〔人參、白茯苓 各四兩、白朮、蓮肉、山藥、芡實 各三兩을 爲末과 粳米粉 一斗를 用砂糖으로 調勻하야 如法蒸糕하야 食之니라.〕

삼령조화고(參苓造化糕)〔인삼(人蔘)과 백복령(白茯苓) 각 4냥, 백출(白朮), 연육(蓮肉), 산약(山藥), 검실(芡實) 각 3냥 등을 분말하고, 멍쌀가루 1말을 사당(砂糖)과 섞어서 일상적인 방법대로 찌서 떡을 만들어 먹는다.〕

蘇蜜煎 | 소밀전

蘇蜜煎〔治噎病으로 吐逆、飲食不通이라 用紫蘇 二兩、白蜜、姜汁 各五合을 和勻하야 微火로 煎沸어든 每半匙를 空心에 細細服之니라.〕

소밀전(蘇蜜煎)〔얼병(噎病)으로 토하고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자소(紫蘇) 2냥, 백밀(白蜜)과 생강즙(生薑汁) 각 5홉을 고르게 섞고, 약한 불로 달여서 끓이면, 한 번에 반 숟가락씩 공복에 조금씩 먹는다.〕

姜橘湯 | 강귤탕

姜橘湯〔治胸滿塞悶으로 飲食不下라 生姜 二兩、陳皮 一兩을 空心에 水煎服이니라.〕

강굴탕(姜橘湯)〔가슴이 그득하고 막혀서 답답한 것으로 인해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생강(生薑) 2냥과 진피(陳皮) 1냥을 물에 달여서 공복에 먹는다.〕

脾瀉飯匙丸 | 비사반시환

脾瀉飯匙丸〔薑飯鍋焦 三兩、蓮肉、山藥 各炒香 二兩을 爲末하야 用前鍋焦末로 煮糊하야 爲丸梧子大하야 每服百丸호대 濕熱이 甚이면 靑皮湯下요 脾虛면 白朮湯下니 空心과 食遠에 服이니라.〕

비사반시환(脾瀉飯匙丸)〔술에서 눌린 누룽지 3냥, 연육(蓮肉)과 산약(山藥)을 향기 나게 볶은 것 각 2냥을 분말하고, 앞서 준비한 누룽지를 분말로 만들어 물을 섞어 오동나무의 씨만 한 크기로 제환(製丸)해두고서, 매번 100알씩 먹는다. 습열(濕熱)이 심하면 청피탕(靑皮湯)으로 먹고, 비허(脾虛)하면 백출탕(白朮湯)으로 먹을 것이니, 공복(空腹)이나 식사한 지 오래 되었을 때 먹는다.〕

太和羹 | 태화갱

太和羹〔最補脾胃하나니 久服이면 益精神、悅顏色이라 山藥、芡實、蓮肉、茯苓 各二兩、早米、糯米 各半升을 俱炒爲末하야 茶、湯、酒로 任調服이오 或入砂糖 하야 蒸糕食이면 尤妙니라.〕

태화갱(太和羹)〔비위(脾胃)를 가장 잘 보한다. 장복하면 정신(精神)을 보익하고, 안색(顏色)을 좋게 한다. 산약(山藥), 검실(芡實), 연육(蓮肉), 복령(茯苓) 각 2냥, 조미(早米)와 찹쌀 각 반 되 등을 모두 볶아서 분말로 만들고, 차(茶)나 탕(湯)이나 술에 임의로 타서 먹는다. 혹은 사당(砂糖)을 넣고 찌서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더욱 좋다.〕

蓮肉膏 | 연육고

蓮肉膏〔治病後胃弱으로 不能飲食이라 用蓮肉、粳米 各炒四兩、茯苓 二兩을 爲末하여 砂糖으로 調膏하여 每五六匙를 白滾湯으로 下니라.〕

연육고(蓮肉膏)〔질병을 겪은 후, 위(胃)가 약해져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연육(蓮肉)과 멥쌀 볶은 것 각 4냥에 복령(茯苓) 2냥을 분말하여 사당(砂糖)으로 고약을 만들어 매번 5~6숟가락씩 백곤탕(白滾湯)으로 먹는다.〕

豆麥粉 | 두맥분

豆麥粉〔治飲食이 不佳口로대 仍易饑餓라 用菉豆、糯米、小麥 各一升을 炒熟爲末하여 每一盃 滾湯으로 調服이니라.〕

두맥분(豆麥粉)〔입맛이 없어서 쉽게 배가 고파지는 증상을 치료한다. 녹두(菉豆), 찹쌀, 소맥(小麥) 등을 각 1되씩 볶아 익혀서 분말로 만들어, 한 번에 1잔씩 곤탕(滾湯)에 타서 먹는다.〕

糯米糊 | 나미호

糯米糊〔治泄瀉로 少進飲食에 大有滋補요 精冷者는 服之有孕이라 用糯米 一升을 水浸一宿이라가 慢火로 炒乾하여 入山藥 一兩하고 爲末하여 每半鍾에 加砂糖 二匙와 胡椒末 少許하여 侵晨에 極滾湯으로 調服이니라.〕

나미호(糯米糊)〔설사로 인해 음식을 조금 밖에 먹지 못할 때, 크게 자양(滋養)하고 보한다. 정(精)이 찬 환자가 복용하면 임신을 하게 한다. 찹쌀 1되를 하룻밤 동안 물에 담가 두었다가, 약한 불로 볶아서 말리고, 산약(山藥) 1냥을 넣고 분말로 만들어, 이것 반 종(鍾)에 사당(砂糖) 2숟가락과 호초말(胡椒末)을 약간 넣고 새벽에 극곤탕(極滾湯)에 타서 먹는다.〕

雌鷄餛飩 | 자계 혼돈

雌鷄餛飩(治脾胃虛弱으로 少食하야 痿黃하며 益臟腑、悅顏色이라 用黃鷄肉 五兩、白麪 七兩、葱白 二슴을 如法切作餛飩하야 入醬、塩、椒、豉하고 調和하야 煮熟이어든 空心에 食之니라.)

자계혼돈(雌鷄餛飩)〔비위(脾胃)가 허약하여 식사량이 적어서 누렇게 뜨는 증상을 치료하고, 장부(臟腑)를 보익하며, 안색(顏色)을 좋게 한다. 황계육(黃鷄肉) 5냥, 백면(白麪) 7냥, 총백(蔥白) 2슴 등을, 법대로 썰어서 혼돈(餛飩)을 만 들어서, 간장, 소금, 산초(山椒), 두시(豆豉)를 넣고 조미하여 익으면 공복에 먹는다.〕

赤石餹飩 | 적석박탁

赤石餹飩(治脾胃冷氣로 痢下不止라 用赤石脂 五兩、白麪 七兩을 煮作羹하야 臨熟에 加葱、醬、塩、豉하고 調勻하야 空心에 食之니라.)

적석박탁(赤石餹飩)〔비위(脾胃)의 냉기(冷氣)로 인해 이질(痢疾)이 멎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적석지(赤石脂) 5냥과 백면(白麪) 7냥을 끓여서 국을 만들고, 다 익을 무렵에 파, 간장, 소금, 두시(豆豉)를 넣고 조미하여 공복에 먹는다.〕

白米飲 | 백미음

白米飲(治嚥食入口에 卽氣壅塞澁하야 不下라 用白米研、杵頭糠塵 一兩을 煮하야 熱飲에 調勻하야 空心에 食之니라.)

백미음(白米飲)〔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 기(氣)가 막혀서 잘 내려가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흰쌀의 가루와 저두강(杵頭糠)을 먼지처럼 갈아 놓은 것 1냥을 끓여서 뜨거울 때 고르게 섞어서 공복에 먹는다.〕

醉鄉寶屑 | 취향보설

醉鄉寶屑〔健脾進食하며 飲酒不醉라 用乾葛、白豆蔻、砂仁、丁香 各五錢、甘草、百藥煎 各一分、木瓜 四兩、炒塩 一兩을 爲末하야 不能飲酒者라도 溫酒로 調服一錢이면 卽能飲하리라.〕

취향보설(醉鄉寶屑)〔비(脾)를 튼튼하게 하여 음식을 받아들이게 하며,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게 한다. 마른 갈근(葛根), 백두구(白豆蔻), 사인(砂仁), 정향(丁香) 각 5돈, 감초(甘草), 백약전(百藥煎) 각 1푼, 목과(木瓜) 4냥, 볶은 소금 1냥을 분말로 만들어,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따듯한 술에 1돈씩 타서 먹으면 곧장 잘 마실 수 있다.〕

助元散 | 조원산

助元散〔白朮 三兩、白茯苓、陳皮 各一兩、蓮肉 一兩半、麥芽 五錢을 爲末하야 入白糖 二錢하고 磁器에 收貯하야 常安火邊이라가 空心或食遠에 滾白湯으로 調服三錢이니 大補元氣脾胃하야 令人으로 能食이니 年老之人은 最宜常服이니라.〕

조원산(助元散)〔백출(白朮) 3냥, 백복령(白茯苓)과 진피(陳皮) 각 1냥, 연육(蓮肉) 1냥 반, 맥아(麥芽) 5돈을 분말로 만들어, 백당(白糖) 2돈을 넣고 자기(磁器) 그릇에 넣어서 항상 불 가에 놓아두었다가, 공복이나 식사한 지 한참 후 곤백탕(滾白湯)으로 3돈씩을 타서 먹는다. 원기(元氣)와 비위(脾胃)를 크게 보하여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노인들은 항상 먹는 것이 아주 좋다.〕

助胃膏 | 조위고

助胃膏〔治小兒吐瀉하며 大和脾胃하야 進飲食이라 人參、白朮、茯苓、甘草 各二錢半、白豆蔻 七箇、肉豆蔻二箇、木香 一錢、山藥 五錢、砂仁 廿箇를 爲末하야 蜜丸梔子大하야 每一丸을 空心에 米湯으로 下니라.〕

조위고(助胃膏)〔소아의 구토(嘔吐)와 설사(泄瀉)를 치료하며, 비위(脾胃)를 크게 고르게 하여 음식을 먹게 한다. 인삼(人蔘), 백출(白朮), 복령(茯苓), 감초(甘草) 각 2돈 반, 백두구(白豆蔻) 7개, 육두구(肉豆蔻) 2개, 목향(木香) 1돈, 산약(山藥) 5돈, 사인(砂仁) 20개를 분말로 만들어서, 주엽나무의 씨만 한 크기로 꿀로 제환(製丸)하여, 1환씩을 공복에 미탕(米湯)으로 먹는다.〕

米湯 | 미탕

米湯〔治泄瀉라 用梁米、糯米、黍米 各二合、黃蠟 一錢을 空心에 炊服이니라.〕

미탕(米湯)〔설사(泄瀉)를 치료한다. 양미(梁米), 나미(糯米), 서미(黍米) 각 2홉과 황랍(黃蠟) 1돈을 공복에 익혀서 먹는다.〕

- 〔○ 一方에 只用早米 半升을 以東壁土 一兩、吳茱 三錢과 同炒하여 香熟커든 去土茱하고 取米하여 煎湯服之하니라.〕

〔○ 어떤 한 처방에서는 오직 조미(早米) 반 되를, 동쪽 벽의 흙 1냥, 오수유(吳茱萸) 3돈 등과 같이 볶다가, 향기가 나면서 익으면 흙과 오수유를 빼고, 조미만 끓여서 탕으로 만들어 먹는다고도 한다.〕

1.3.8. 氣 | 기

- 〔鬱도 同이라〕
〔울(鬱)도 같다.〕

杏仁粥 | 행인죽

杏仁粥〔治上氣、喘嗽라 用杏仁去皮尖 二兩을 研爛하야 或加猪肺니 和粳米 三合 하야 煮粥食之니라.〕

행인죽(杏仁粥)〔상기(上氣)와 천수(喘嗽)를 치료한다. 껍질과 끝을 제거한 행인(杏仁) 2냥을 곱게 갈거나, 혹은 돼지의 폐(肺)를 넣을 것이니, 이것과 멥쌀 3홉을 섞어 죽을 쑙아서 먹는다.〕

桃仁粥 | 도인죽

桃仁粥〔治上氣、咳嗽及冷心氣痛이라 和米하야 煮粥食之니라.〕

도인죽(桃仁粥)〔상기(上氣), 해수(咳嗽), 냉기(冷氣)로 인한 기통(氣痛)을 치료한다. 쌀과 섞어 죽을 쑙아서 먹는다.〕

蘿蔔子粥 | 나복자죽

蘿蔔子粥〔治氣喘이라 用子 三合에 和糯米하야 煮粥食之니라.〕

나복자죽(蘿蔔子粥)〔기천(氣喘)을 치료한다. 나복자(蘿蔔子) 3홉을 찹쌀과 섞어 죽을 쑙아서 먹는다.〕

紫蘇子粥 | 자소자죽

紫蘇子粥〔治脚氣의 毒悶으로 身體不任行履、不便하며 下一切痰食及冷心氣痛하며 明目、利小便이라 用蘇子の 搗汁으로 和粳米하야 煮粥食之니라.〕

자소자죽(紫蘇子粥)〔각기(脚氣)의 독으로 인한 번민(煩悶)으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보행이 불편한 증상을 치료한다. 모든 담음(痰飲), 식적(食積), 냉심기통(冷心氣痛)을 치료하고, 눈을 밝게 하며, 이뇨(利尿) 작용을 한다. 소자(蘇子)를 찢어서 즙을 내고 찹쌀과 섞어 죽을 쑙아서 먹는다.〕

麻子仁粥 | 마자인죽

麻子仁粥〔治脚氣로 痺弱、煩悶、吐逆 不下食이라 用麻子 一斤의 取汁으로 和粳米四合하야 煮粥하야 空心에 食之니라.〕

마자인죽(麻子仁粥)〔각기(脚氣)로 인해 비약(痺弱)하고 번민(煩悶)하며, 토역(吐逆)으로 먹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마자(麻子) 1근에서 즙을 내어, 멍쌀 4홉과 섞어서 죽을 쑙어 공복에 먹는다.〕

葦撥粥 | 필발죽

葦撥粥〔治冷氣라 葦撥末 二合、胡椒 一分을 和米 四合하야 煮粥하야 空心에 食之니라.〕

필발죽(葦撥粥)〔냉기(冷氣)를 치료한다. 필발(葦撥) 분말 2홉과 호초(胡椒) 1푼을 쌀 4홉과 섞어 죽을 쑙아서 공복에 먹는다.〕

猪腰粥 | 저요죽

猪腰粥〔治脚氣로 煩、痺、緩弱하야 行履不能用이라 猪腰 一對、粳米四合、葱白 半握을 和煮粥하야 臨熟에 入椒、塩、姜、豉하야 空心에 食之니라.〕

저요죽(猪腰粥)〔각기(脚氣)로 인한 번민(煩悶)과 마비(麻痺) 및 완약(緩弱)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저요(猪腰) 1대, 멍쌀 4홉, 총백(蔥白) 반 움큼을 섞어 죽을 쑀어, 익을 무렵 산초(山椒), 소금, 생강(生薑), 두시(豆豉)를 넣어 공복에 먹는다.)

猪肪湯 | 저방탕

猪肪湯〔治上氣、喘嗽、身體壯熱、口乾、渴燥라 用猪肪膏 一斤을 切碎 入沸湯中 하고 煮하야 臨熟에 入塩、鼓하야 調和食之니라.)

저방탕(猪肪湯)〔상기(上氣), 해수(咳嗽), 신체의 고열(高熱), 구건(口乾), 갈조(渴燥)를 치료한다. 돼지비계 1근을 자르고 조각내어 끓는 물에 넣어 삶고서, 익을 무렵에 소금과 두시(豆豉)로 양념해서 먹는다.)

猪 酒 | 저이주

猪 酒〔治上氣、喘急하야 坐臥不安이라 用猪 三具細切과 靑州棗卅枚를 以好酒 三升으로 浸호대 春夏엔 一二日、秋冬엔 三五日을 密封이라가 以布絞汁하야 空心에 溫酒로 任性漸服이니라.)

저이주(猪 酒)〔상기(上氣)와 천급(喘急)으로 인해 앉아도 누워도 편하지 않은 증상을 치료한다. 돼지의 이자(胰子) 3개를 잘게 썬 것과 청주(靑州)에서 나는 대추 30개를 좋은 술 3되에 담그되, 봄과 여름에는 1~2일, 가을과 겨울에는 3~5일을 밀봉하였다가 베로 짜서 즙을 내서, 따뜻한 술로 적당히 점차 먹는다.)

玄 散 | 현이산

玄 散〔治膜外氣와 及氣塊라 用猪 를 切片炙熟하야 蘸玄胡索末하야 食之니라.)

현이산(玄散) (막외기(膜外氣)와 기괴(氣塊)를 치료한다. 돼지의 이자(胰子)를 절편하고 구워서 익히고, 현호색(玄胡索)의 분말을 찍어서 먹는다.)

平鯽丸 | 평즉환

平鯽丸〔治隔氣로 不食이라 用大鯽魚 一箇를 去腸 雷鱗하고 以大蒜去皮切片을 填魚腹內하고 濕紙로 包하여 黃泥로 固濟하고 慢火煨熟이어든 去鱗骨하고 入平胃散末하여 杵丸梧子大하여 每卅丸을 空心에 米飲으로 送下니라.〕

평즉환(平鯽丸) (격기(隔氣)로 먹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큰 붕어 1마리를 창자는 제거하고 비늘은 남겨 둔 채, 껍질을 벗기고 절편한 마늘로 생선의 뱃속을 채우고 습지로 싸서 황토진흙으로 튼튼하게 막는다. 이것을 약한 불로 찌어 익힌 뒤, 비늘과 뼈를 제거하고, 평위산(平胃散)의 분말을 넣고 절구로 찧어서 오동나무 씨의 크기로 제한(製丸)하여, 한 번에 30환씩 공복에 미음(米飲)으로 먹는다.)

翻鷄湯 | 번계탕

翻鷄湯〔治轉食이라 用翻翅鷄 一隻을 煮熟去骨하고 入人參、當歸、塩末 各五錢하여 再煮取食거나 或爲丸服이라도 亦好니라.〕

번계탕(翻鷄湯) (전식증(轉食症)을 치료한다. 번시계(翻翅鷄) 한 마리를 삶아 익히고 뼈를 제거한다. 여기에 인삼(人蔘), 당귀(當歸), 소금가루 각 5돈을 넣고, 다시 끓여서 먹거나, 혹 제한(製丸)해서 먹어도 좋다.)

1.3.9. 血 | 혈

阿膠粥 | 아교죽

阿膠粥〔止血、補虛、厚腸胃하며 兼治胎動不安이라 用糯米로 煮粥하야 臨熟에 入阿膠末 一兩하야 和勻食之니라.〕

아교죽(阿膠粥)〔지혈(止血)하고, 허(虛)를 보하며, 장위(腸胃)를 두텁게 하고, 아울러 태동불안(胎動不安)을 치료한다. 찹쌀로 죽을 쑤고, 익을 무렵 아교(阿膠) 분말 1냥을 넣어서 고루 섞어 먹는다.〕

桑耳粥 | 상이죽

桑耳粥〔治五痔、下血로 常煩熱、羸瘦라 用桑耳 二兩을 取汁하야 和粳米 三合하야 煮粥하야 空心에 食之니라.〕

상이죽(桑耳粥)〔다섯 가지 치질(痔疾)과 하혈(下血)로 인하여 항상 번열(煩熱) 증상이 있고 몸이 마르는 증상을 치료한다. 상이(桑耳) 2냥에서 즙을 채취해서 멍쌀 3홉과 섞어서 죽을 쑤어 공복에 먹는다.〕

蘿蔔菜 | 나복채

蘿蔔菜〔治酒疾로 下血이 旬日不止라 用蘿蔔 升枚를 畱葉寸餘와 及根을 入罐 內水하고 炊極爛이어든 以姜、塩、醋로 淹하야 空心에 食之면 立止니라.〕

나복채(蘿蔔菜)〔술병으로 인하여 하혈(下血)이 열흘 넘게 그치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나복(蘿蔔) 20개를 잎이 1촌 남짓 붙은 채로 뿌리와 함께 항아리에 넣고, 물을 부어 무르게 되도록 끓인 뒤, 생강(生薑), 소금, 식초에 절여서 공복에 먹으면, 바로 낫는다.〕

槐茶 | 괴다

槐茶〔治熱風下血하며明目、益氣하며除邪、止齒癢하며利臟腑、順氣라採嫩槐葉하야蒸熟曬乾하야每日煎如茶하야食이니라.〕

괴다(槐茶)〔열풍(熱風)으로 인한 하혈(下血)을 치료하며, 눈을 밝게 하고, 기(氣)를 보익하며, 사기(邪氣)를 없애고, 치통(齒痛)을 멎게 하며, 장부(臟腑)를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기를 순조롭게 한다. 어린 괴엽(槐葉)을 찌서 익히고 햇볕에 말린 뒤, 매일 달여서 차(茶)처럼 먹는다.〕

栢茶 | 백다

栢茶〔採側栢葉하야曬乾煎湯하야代茶니止血、滋陰이니라.〕

백다(栢茶)〔측백엽(側栢葉)을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 뒤 달여서 차(茶)를 대용하는 것이니, 지혈(止血)하고 음(飮)을 자양(滋養)한다.〕

醍醐酒 | 제호주

醍醐酒〔治鼻衄이라蘿蔔自然汁에入好酒一半하야和勻溫過하야熱服이니라.〕

제호주(醍醐酒)〔코피를 치료한다. 무무나복(蘿蔔)의 자연즙(自然汁)에 좋은 술 1.5배를 넣고 잘 섞은 뒤, 데워서 뜨겁게 먹는다.〕

猪片 | 저이편

猪片〔治肺損으로嗽血、咯血이라用煮熟猪의切片으로蘸薏苡末하야微空心에食之니盖薏苡는能補肺하고猪는引入經絡耳라如肺癰이면用米飮으로調服커나或水煎服이니라.〕

저이편(猪片) (폐손(肺損)으로 인한 해혈(咳血)과 각혈(咯血)을 치료한다. 삶아 익힌 돼지의 이자(胰子)를 잘게 썰고, 의이인(薏苡仁) 분말을 찍어서 약간 시장기가 돌 때에 먹는다. 대개 의이인은 폐를 보하고, 돼지의 이자는 경락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폐옹(肺癰)의 경우에는 의이(薏苡)를 미음(米飮)에 타서 먹거나 물에 달여서 먹는다.)

猪肝脯 | 저간포

猪肝脯(治氣虛下痢로 瘦乏無力하나니 常服이면 明目・溫中하며 除冷氣라 用猪肝一具 切片에 入醋 一升하고 煮至醋乾하야 空心에 食之면 甚妙니라.)

저간포(猪肝脯) (기허하리(氣虛下痢)로 인해 몸이 마르고 힘이 없는 증상을 치료한다. 항상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속이 데워지며 냉기(冷氣)가 없어진다. 돼지의 간(肝) 하나를 잘게 썰고, 식초를 1되 넣어 식초가 없어질 때까지 달인 뒤, 공복에 먹으면 아주 좋다.)

韭汁 | 구즙

韭汁(治赤痢라 用連白韭菜의 一大把 搗汁에 和酒 一盞하야 溫飲之니라 又治心痛 하나니 散氣 行血 故也니라.)

구즙(韭汁) (적리(赤痢)를 치료한다. 흰 부분을 그대로 둔 부추를 큰 한 움큼 찢어서 즙을 내고, 술 한 잔에 타서 따뜻하게 먹는다. 또 이것은 심통(心痛)을 치료하니, 기(氣)를 흘리고 피를 순환시키기 때문이다.)

馬齒莧方 | 마치현방

馬齒莧方(治下痢赤白・水穀不度・腹痛이라 用馬齒莧菜를 煮熟이어든 入塩・豉 커나 或姜・醋로 拌勻하야 食之니라.)

마치현방(馬齒莧方)〔하리적백(下痢赤白), 수곡리(水穀痢), 복통(腹痛)을 치료한다. 마치현채(馬齒莧菜)를 삶아 익힌 뒤, 소금과 두시(豆豉)를 넣거나 생강(生薑)과 식초를 넣고 고루 섞어서 먹는다.〕

鷄子煎 | 계자전

鷄子煎〔治久瀉、久痢及小兒疳瀉不止라 用黃蠟 一錢을 鎔化하여 入鷄子 一枚를 打破於內하고 拌和炒熟하여 空心에 常食이니라.〕

계자전(鷄子煎)〔만성 설사와 이질 및 몇지 않는 소아의 감사(疳瀉)를 치료한다. 황랍(黃蠟) 1돈을 녹이고, 달걀 하나를 넣어서 깨뜨린 뒤, 고루 섞고 볶아서 익혀 공복에 항상 먹는다.〕

鴨子煎 | 압자전

鴨子煎〔治胎前、産後의 痢下赤白이라 用生姜汁 一碗호대 虛者면 二碗에 入鴨子 一枚를 打破於內하고 煎至八分이어든 又入蒲黃 三錢하여 空心에 調服이니라.〕

압자전(鴨子煎)〔임신 중과 산후(産後)의 이하적백(痢下赤白)을 치료한다. 생강즙(生薑汁) 1그릇을 쓰되, 허한 사람이라면 2그릇을 쓰는데, 여기에 오리알 1개를 넣어서 깨뜨리고 8할 정도 달인 뒤, 포황(蒲黃) 3돈을 넣어서 공복에 먹는다.〕

1.3.10. 痰 | 담

茯苓粥 | 복령죽

茯苓粥〔粳米를 煮粥하여 半熟이어든 入茯苓末하고 和勻煮熟하여 空心에 食之니라.〕

복령죽(茯苓粥)〔멥쌀로 죽을 쑀어 반쯤 익으면 복령(茯苓) 분말을 넣고 고르게 섞어서 익힌 뒤, 공복에 먹는다.〕

茯苓麪 | 복령면

茯苓麪〔茯苓、麻子를 各去皮하고 和勻하여 九蒸九晒하고 入蜜 少許하여 食之라 能斷酒肉及塩、酪、醬菜면 可治久痔니라.〕

복령면(茯苓麪)〔복령(茯苓)과 마자(麻子)의 껍질을 제거하고 고르게 섞어서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햇볕에 말려서, 꿀을 조금 넣고 먹는다. 술, 고기, 소금, 진한 유즙, 절인 채소를 끓으면 만성 치질(痔疾)을 치료할 수 있다.〕

謝傳飯後丸 | 사전반후환

謝傳飯後丸〔細茶 一兩、薄荷 五錢、兒茶 二錢半을 爲末蜜丸하여 飯後含化거나 或和百藥煎이면 尤妙니 善能消痰、降火니라.〕

사전반후환(謝傳飯後丸)〔작설차(雀舌茶) 1냥, 박하(薄荷) 5돈, 아다(兒茶) 2돈 반을 분말로 만들어 꿀로 제환(製丸)하여, 식사 후 입에서 녹여 먹거나 백약전(百藥煎)과 섞어서 먹으면 더 좋으니, 담(痰)을 삭이고, 화(火)를 내린다.〕

桂花餅 | 계화병

桂花餅〔桂花 一兩、兒茶 五錢、訶子 七箇、甘草 五分을 爲末하야 桂花水를 調하야 爲丸餅이라가 每嚼一丸하야 滾水로 下니 淸痰、降火、止嗽、生津이니라.〕

계화병(桂花餅)〔계화(桂花) 1냥, 아다(兒茶) 5돈, 가자(訶子) 7개, 감초(甘草) 5푼을 분말로 만들어 계화수(桂花水)로 환(丸)이나 떡을 만들어, 한 번에 1환씩 씹어서 끓인 물로 먹을 것이니, 담(痰)을 삭이고, 화(火)를 내리며, 기침을 멎게 하고, 진(津)을 생성한다.〕

蒸梨法 | 증이법

蒸梨法〔治咳嗽、胸膈痞結이라 用雪梨를 去心納蜜하야 蒸熟커나 或煨熟하야 停溫食之니 熱食이면 反令咳甚이라 肺寒者는 去心하고 納椒 五七粒하야 以麪裹煨熟이어든 停冷去椒하고 食之라 又は 搗汁에 和地黃、蜜하야 煎膏하야 含嚥이니 皆治嗽喘이라 傷梨者는 作羊肉湯餅하야 飽食之면 卽安이니라.〕

증이법(蒸梨法)〔해수(咳嗽)와 흉복(胸膈)의 비결(痞結)을 치료한다. 설리(雪梨)에서 속을 제거하고, 꿀을 넣어 찌서 익히거나 불에 찌어 익힌 뒤, 따뜻해지면 먹을 것이니, 뜨겁게 먹으면 도리어 기침이 심해진다. 폐(肺)가 찬 환자의 경우는, 속을 없애고 산초(山椒)를 5~7알 넣어, 밀가루로 싸서 불에 찌어 익힌 뒤, 식혀서 산초를 제거하고 먹는다. 또 흰 배를 찢어서 낸 즙에, 지황(地黃)과 꿀을 섞고 졸여서 목에 머금으면, 온갖 해수(咳嗽)와 천식(喘息)을 치료한다. 배에 손상된 환자는 양육탕병(羊肉湯餅)을 만들어 포식하면 바로 안정된다.〕

煨梨法 | 외이법

煨梨法〔用雪梨 一枚를 去心하야 入白蠟末 一錢하고 以濕綿紙 九重으로 包裹하야 火內煨熟하야 食之니 潤膈、下氣니라.〕

외이법(煨梨法)〔설리(雪梨) 1개에서 속을 없애고, 백랍(白蠟) 분말 1돈을 넣고, 젖은 면 종이로 9겹 싸서, 불에 찌어 익혀 먹을 것이니, 흉격(胸膈)을 윤택하게 하고, 기(氣)를 내린다.〕

蘇子酒 | 소자주

蘇子酒〔主消痰、下氣、調中、補虛하며 益五臟、肥肌膚、潤心肺라 用紫蘇子를 微炒 搗碎하여 以絹袋盛하여 納清酒中하여 浸三日이라가 少少飲之니라.〕

소자주(蘇子酒)〔담(痰)을 삭이고, 기(氣)를 내리며, 중초(中焦)를 고르게 하고, 허(虛)를 보하며, 오장(五臟)을 보익하고, 살을 찌워 주며, 심폐(心肺)를 윤택하게 한다. 자소자(紫蘇子)를 약간 볶아 찢어 부순 것을 비단 주머니에 담아서 청주(淸酒)에 3일 담갔다가 조금씩 마신다.〕

麻仁湯 | 마인탕

麻仁湯〔治癲風이라 用麻仁 四盞을 以水六盞으로 猛火로 煮至一盞하여 去渣하고 空心에 溫服이면 或發或不發커나 或多言語하리니 勿怪之하고 但以人으로 爲摩手足이면 須定이라 凡進二三劑면 卽愈호리라.〕

마인탕(麻仁湯)〔전풍(癲風)을 치료한다. 마인(麻仁) 4잔에 물 6잔을 붓고, 강한 불로 1잔이 될 때까지 졸인 뒤, 찌꺼기를 없애고 공복에 따뜻하게 먹으면, 발작하거나, 발작하지 않거나, 말이 많아질 것인데,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 그저 다른 사람들이 손발을 문지르면 안정될 것이다. 2~3회 먹으면 바로 나을 것이다.〕

牛車肉 | 우거육

牛車肉〔治失心癲狂이라 用紫河車를 洗淨煮爛이어든 同熟牛肚의 切碎와 和一處하고 隨便食之면 最妙니라.〕

우거육(牛車肉)〔정신을 잃는 전광증(癲狂症)을 치료한다. 자하거(紫河車)를 잘 씻어서 삶아 뭉개고, 함께 익힌 소의 위(胃)를 익혀 자른 뒤, 둘을 섞어서 한 곳에 두었다가, 편의대로 먹으면 효과가 가장 좋다.〕

1.3.11. 熱 | 열

- 〔忌酒니라〕

〔술을 금한다.〕

梔子粥 | 치자죽

梔子粥〔治熱眼赤痛이라 用米 三合을 煮粥하여 臨熟에 入梔子仁末一錢하여 調勻食之니라.〕

치자죽(梔子粥)〔눈에 열이 나고 충혈되어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쌀 3홉으로 죽을 쑀어 익을 무렵 치자인(梔子仁) 분말 1돈을 넣어서 고르게 섞어 먹는다.〕

甘蔗粥 | 감자죽

甘蔗粥〔主虛熱로 口燥、咽乾、鼻涕稠粘하며 止咳嗽、潤心肺라 用甘蔗의 搗汁一升을 和米 三合하여 煮粥하여 空心에 食之니라.〕

감자죽(甘蔗粥)〔허열(虛熱)로 인한 구조(口燥), 인건(咽乾), 콧물이 끈끈해지는 증상을 치료하고, 해수(咳嗽)를 멎게 하며, 심폐(心肺)를 윤택하게 한다. 감자(甘蔗)를 찧어서 낸 즙 1되에 쌀 3홉을 넣어 죽을 쑀어 공복에 먹는다.〕

麻子粥 | 마자죽

麻子粥〔治小便澀痛、煩熱하니 方見前하니라.〕

마자죽(麻子粥)〔소변이 시원치 않게 나오며 아픈 증상과 번열(煩熱)을 치료한다. 처방은 앞에 보인다.〕

冬瓜羹 | 동과羹

冬瓜羹〔治消渴로 煩熱、心神狂亂、躁悶不安이라 用冬瓜 半斤、豉二合、葱白 半握에 和米粉 煮羹하야 入鹽味하고 空心에 食이니라.〕

동과羹(冬瓜羹)〔소갈(消渴)로 인한 번열(煩熱), 심신광란(心神狂亂), 조민불안(躁悶不安)을 치료한다. 동과(冬瓜) 반 근, 두시(豆豉) 2홉, 총백(蔥白) 반 움큼 등에 쌀가루를 넣어 국을 끓이고, 소금으로 조미(調味)하여 공복에 먹는다.〕

梔子茶、黃連茶、瓜薑穰茶 | 치자차、황련차、조루양차

梔子茶、黃連茶、瓜薑穰茶〔俱可煎湯하야 代茶服之니라.〕

치자차(梔子茶)、황련차(黃連茶)、조루양차(瓜薑穰茶)〔모두 끓여서 탕(湯)을 만들어 차를 대용하여 마실 수 있다.〕

小麥湯 | 소맥탕

小麥湯〔治五淋不止로 身體壯熱、小便滿悶이라 用小麥 一升、通草二兩을 水煎하야 漸漸飲之면 須臾에 當瘥니라.〕

소맥탕(小麥湯)〔멧지 않는 오림(五淋)으로 인하여 몸에 열이 심하게 나는 증상과 소변(小便)이 그득하여 답답한 증상을 치료한다. 소맥(小麥) 1되와 통초(通草) 2냥을 물에 달여서 점진적으로 마시면, 금방 낫는다.〕

甘豆湯 | 감두탕

甘豆湯〔治諸熱로 煩渴、大小便澁과 及風熱이 入腎하야 腰痛이라 用黑豆 二合、甘草 二錢、生姜 七片을 水煎服이니라.〕

감두탕(甘豆湯)〔각종 열로 인한 번갈(煩渴), 대소변(大小便)이 시원치 못한 증상, 풍열(風熱)이 신장으로 들어가서 생긴 요통(腰痛) 등을 치료한다. 검은 콩 2홉, 감초(甘草) 2돈, 생강(生薑) 7조각을 물에 달여서 먹는다.〕

藕蜜膏 | 우밀고

藕蜜膏〔治小便이 長澁하야 痛悶之極이라 用藕汁、白蜜 各五合、生地汁 一升을 和勻하야 微火로 煎成膏하야 每半匙를 空心엔 漸漸呑化하고 食後에 又服이오 忌 煎炙니라.〕

우밀고(藕蜜膏)〔소변이 오랫동안 시원치 못하여 극도로 아프고 답답한 증상을 치료한다. 연근즙(蓮根汁)과 흰 꿀 각 5홉에 생지황즙(生地黃汁) 1되를 고르게 섞어서, 약한 불로 달여서 고약을 만들어, 한 번에 반 숟가락씩 공복에 점진적으로 녹여서 먹고, 식후에 또 먹는다. 달이고 구운 음식을 금한다.〕

1.3.12. 陰虛 | 음허

- 〔忌多飲酒니라〕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금한다〕

枸杞粥 | 구기죽

枸杞粥〔採葉하야 如常煮粥호대 量用塩味하야 空心에 食之니라.〕

구기죽(枸杞粥)〔잎을 채취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 끓여서 죽을 쑀어 소금으로 간을 해서 공복에 먹는다.〕

芡實粥 | 검실죽

芡實粥〔液에 云 鷄頭實을 和米作粥하야 空心에 食之면 可以益精、強志하며 聰明耳目이라하니라 用粳米 一合에 入芡實 三合거나 或蓮肉、山藥하야 俱可煮粥이라 盖晨起하야 食粥이면 推陳致新하며 利膈、養胃、生津液하야 令人으로 一日清爽이니 所補 不小하리라.〕

검실죽(芡實粥)〔《탕액본초(湯液本草)》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계두실(鷄頭實)을 쌀과 섞어 죽을 쑀어 공복에 먹으면, 정(精)을 보익하고, 뜻을 강화하며, 눈과 귀를 밝게 할 수 있다. 멍쌀 1홉에 검실(芡實) 3홉을 넣거나, 혹은 연육(蓮肉)과 산약(山藥)을 넣어 죽을 끓일 수 있다. 대개 아침에 일어나서 죽을 먹으면, 묵은 것을 몰아내어 새 것을 이르게 하고, 흉격(胸膈)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며, 위(胃)를 보양하고, 진액(津液)을 생성시켜서, 사람이 하루 종일 상쾌하게 되니, 보익하는 것이 적지 않다.〕

豬肝羹 | 저간羹

猪肝羹〔治肝臟虛弱으로 遠視無力이라 用猪肝 一具를 細切·葱白 一握을 以豉汁으로 煮羹하야 臨熟에 打破鷄子 投入하야 食之니라.〕

저간羹(猪肝羹)〔간장(肝臟)이 허약하여 먼 곳을 보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돼지의 간 하나를 잘게 썬 것과 총백(葱白) 한 움큼을 섞고, 두시즙(豆豉汁)으로 국을 끓여, 익을 무렵에 계란을 깨뜨려 넣어 먹는다.〕

鰻鱺臠 | 만려학

鰻鱺臠〔能補虛勞·殺蟲하며 治肛門腫痛·痔久不愈라 用鰻鱺를 細切하야 煮作臠하야 入塩·豉·姜·椒하고 空心에 漸食이라 多食이면 令人으로 作泄이니라.〕

만려학(鰻鱺臠)〔허로(虛勞)를 보하고, 벌레를 죽이며, 항문종통(肛門腫痛)과 오랫동안 낫지 않는 치질을 치료한다. 뱀장어를 잘게 썰어서 국을 끓이고, 소금, 두시(豆豉), 생강(生薑), 산초(山椒)로 양념하여 공복에 점진적으로 먹을 것이다. 많이 먹으면 설사를 유발한다.〕

兔絲子酒 | 토사자주

兔絲子酒〔不拘多少하고 淘淨酒浸하야 九蒸九曬하야 爲末이니 緊急이어든 只用酒炒爲末하야 貯磁器中하고 每日空心에 溫酒로 調服一錢이라 專治氣血未定時에 失調護하야 以致諸虛에 服此면 大進飲食하며 且耐勞하며 能令肥健이라 如覺氣壅이어든 少服麻仁丸하야 潤之니 此는 黃山谷의 方也니라.〕

토사자주(兔絲子酒)〔토사자(兔絲子)의 다소에 상관없이 일어서 깨끗이 물에 씻어 술에 담가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려서 분말로 만든다. 급한 경우에는 그냥 술로 볶아서 분말로 만들어 자기(磁器) 그릇에 넣고 매일 공복에 따듯한 술에 1돈씩 타서 먹는다. 기혈(氣血)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 제대로 조양(調養)하지도 보호(保護)하지도 못해서 각종 허증(虛症)이 나타난 경우, 이것을 먹으면

음식량이 늘고 노고(勞苦)를 잘 견디게 되어서 살찌고 튼튼해지게 된다. 만약 기(氣)가 막힌 느낌이 있으면 마인환(麻仁丸)을 조금 먹어서 윤택하게 할 것이니, 이것은 황산곡(黃山谷)의 처방이다.)

固本酒 | 고본주

固本酒〔見七卷의 六三葉하나라.〕

고본주(固本酒)〔7권 63엽(葉)에 보인다.〕

1.3.13. 陽虛 | 양허

羊肉羹 | 양육갱

羊肉羹〔治下焦虛冷으로 小便頻數이라 用羊肉 四兩、羊肺 一具를 細切하여 入塩、鼓하고 煮作羹하여 空心에 食之니라.〕

양육갱(羊肉羹)〔하초(下焦)가 허하고 차서 생긴 소변빈삭(小便頻數)을 치료한다. 양고기 4냥과 양의 폐(肺) 하나를 잘게 썰어, 소금과 두시(豆豉)를 넣고 국을 끓여서 공복에 먹는다.〕

桂花酒 | 계화주

桂花酒〔釀成에 玉色으로 香味 超然하니 非世間之物也로다.〕

계화주(桂花酒)〔술을 다 빚으면 옥색(玉色)으로 향기와 맛이 뛰어나니, 인간 세상의 물건이 아니다.〕

戊戌酒 | 무술주

戊戌酒〔冬至後에 用黃犬一頭를 煮至極爛커든 去渣取汁하여 和麴造酒호대 隨病入藥이면 有大補益하리라.〕

무술주(戊戌酒)〔동지 후에 황구(黃狗)를 한 마리 완전히 문드러지게 삶아서, 찌꺼기를 없애고 즙을 걸러 모은 뒤, 누룩을 넣어서 술을 빚되, 병에 따라 적절 한 약을 넣으면 크게 보익(補益)할 것이다.〕

胡桃粥 | 호도죽

胡桃粥〔治陽虛腰痛과 及石淋、五痔라 取胡桃肉하야 和米하야 煮粥食之니라.〕

호도죽(胡桃粥)〔양허(陽虛)한 요통(腰痛)과 석림(石淋) 및 다섯 가지 치질(痔疾)을 치료한다. 호도육(胡桃肉)과 쌀로 죽을 쑌어서 먹는다.〕

1.3.14. 諸虛 | 제허

- 〔通用이니라〕

〔두루 통용한다〕

參歸腰子 | 삼귀요자

參歸腰子〔治心氣虛損으로 自汗이라 用猪腰 一枚細切에 入人參 五錢、當歸 四兩
하야 同煮熟하야 食之호대 以汁送下거나 或用山藥으로 搗丸如梧子大하야 每卅丸
을 空心에 溫酒로 下니 多服이면 尤佳니라.〕

삼귀요자(參歸腰子)〔심기(心氣)의 허손(虛損)으로 인한 자한(自汗)을 치료한
다. 돼지의 허리 1매를 잘게 썬 것에, 인삼(人蔘) 5돈과 당귀(當歸) 4냥을 넣고
같이 끓여서 익혀 먹되, 그 즙으로 먹거나, 산약(山藥)을 찧어서 오동나무 씨의
크기로 제한(製丸)하여 한 번에 30환씩 공복에 따뜻한 술로 먹는다. 많이 먹으
면 더욱 좋다.〕

煨腎丸 | 외신환

煨腎丸〔治腎虛腰痛이라 用猪腰子 一枚를 薄批五七片하야 以椒塩으로 淹去腥水
하고 糝杜仲末 三錢하야 在內하고 包以薄荷하며 外加濕紙하야 置火內煨熟하야
酒下니 如脾虛면 加白朮하고 精虛면 加枸杞子니라.〕

외신환(煨腎丸)〔신허(腎虛)한 요통(腰痛)을 치료한다. 돼지의 허리 1매를 5~6
조각으로 얇게 잘라서, 산초(山椒)와 소금을 넣고 절여서 비린 물을 버리고, 두
중(杜仲) 분말 3돈을 그 속에 넣고 박하잎으로 싸 뒤, 겉을 젖은 종이로 더 싸서
불 속에 넣고 구어 익히고, 술로 먹는다. 비허(脾虛)한 경우에는 백출(白朮)을
더하고, 정허(精虛)한 경우에는 구기자(枸杞子)를 더한다.〕

猪腎酒 | 저신주

猪腎酒〔治腎虛腰痛이라 用童便 二盞、好酒 一盞을 以新磁瓶으로 貯之하야 取全猪腰子 一對를 在內하고 黃泥로 密封하야 日晩時에 以慢火로 養熟하야 至中夜 止라가 待五更初하야 以火溫之하고 發瓶하야 飲酒하며 食腰子니 病篤者라도 只一月에 効요 平日瘦怯者도 亦可服此니 蓋以血養血은 絶勝金石草木之藥也(앨)새니라.)

저신주(猪腎酒)〔신허(腎虛)한 요통(腰痛)을 치료한다. 아이의 오줌 2잔과 좋은 술 1잔을 새로 만든 자기(磁器) 병에 넣고, 온전한 돼지의 신장 한 쌍을 그 속에 넣어 황토진흙으로 밀봉한다. 이것을 저녁 무렵부터 약한 불로 데우는데, 한 밤중에 잠시 그쳤다가, 오경(五更)의 초에 다시 불로 데우고서, 병을 열고 술과 신장을 먹는다. 병이 심한 환자도 1개월 안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평소 몸이 마른 환자도 역시 먹을 수 있는 것이니, 대개 피로써 피를 보양하는 것이 금석(金石)과 초목(草木)의 약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다.)

猪腎羹 | 저신갱

猪腎羹〔治陰痿、羸瘦라 用猪腎을 和枸杞葉하야 五味로 煮羹食之니라.)

저신갱(猪腎羹)〔발기부전(勃起不全)과 몸이 수척해진 증상을 치료한다. 돼지의 신장을 구기자(枸杞子)의 잎과 섞어서 온갖 양념을 넣고 국을 끓여서 먹는다.)

腰子湯 | 요자탕

腰子湯〔治産後蓐勞로 虛羸、喘促、寒熱如瘧、肢痛、面黃이라 用猪腰子 一枚、香薷、葱白、芍藥 各 一兩을 水煎溫服이니라.)

요자탕(腰子湯)〔출산 후 육노(蓐勞)로 인해 몸이 허하고 마르며, 숨이 차고, 학질(瘧疾)처럼 한열(寒熱)하고, 사지가 아프며, 얼굴이 누렇게 된 증상을 치료한다. 돼지의 신장 1매, 향담(香蕈), 총백(蔥白), 작약(芍藥) 각 1냥 등을 물에 달여서 따뜻하게 먹는다.)

猪肚方 | 저두방

猪肚方〔治虚羸、乏氣라 用人參 五錢、乾姜、胡椒 各二錢、葱白 七莖、糯米 三合을 爲末하야 入猪肚內 緊札하야 勿令泄氣하고 以水로 煮令爛熟하야 空心에 食之하고 次煖好酒 一二盞하야 飲之면 効니라.)

저두방(猪肚方)〔허하여 몸이 야위고 기운이 없는 증상을 치료한다. 인삼(人參) 5돈, 건강(乾薑)과 호초(胡椒) 각 2돈, 총백(蔥白) 7줄기, 찹쌀 3홉을 분말로 만들어 돼지 위(胃) 속에 넣고 단단히 묶어서 기(氣)가 새지 않게 하고는, 물로 흐물흐물하게 될 때까지 완전히 익혀서, 공복에 먹은 뒤, 좋은 술 1~2잔을 데워서 마시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益氣牛乳方 | 익기우유방

益氣牛乳方〔老人에 最宜하니 補血脉、安心神、長肌肉하야 令人으로 身體康強、面目光悅、志意不衰라 故로 爲人子者는 常須供之하야 以爲常食이니 或爲乳餅거나 或作乳腐 等하야 恒使恣意充足으로 爲度니 此物은 勝肉이 遠矣裏라.)

익기우유방(益氣牛乳方)〔노인들에게 가장 적합하다. 혈맥(血脈)을 보하고, 심신(心神)을 안정시키며, 살이 찌게 하여,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얼굴과 눈이 빛나게 하며, 의지(意志)가 쇠퇴하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자식들은 항상 부모님께 드려서 늘 드시게 해야 하니, 혹 유병(乳餅)으로 만들거나 유부(乳腐)로 만들어 항상 임의로 충족될 정도로 해야 한다. 이것은 고기보다 훨씬 낫다.)

山藥酒 | 산약주

山藥酒〔補虛損、益顏色하며 又治下焦虛冷으로 小便頻數、瘦損無力이라 用酥一匙를 於銚中에 鎔化하고 入山藥末 熬令香이어든 方入酒 一盞하야 攪勻하야 空心에 服之니라.〕

산약주(山藥酒)〔허손(虛損)을 보하고, 안색(顏色)을 좋게 하며, 또 하초(下焦)의 허냉(虛冷)으로 인하여 소변이 잦고 몸이 마르며 무력한 증상을 치료한다. 연유(煉乳) 1숟가락을 냄비에 넣어 녹이고, 산약(山藥) 분말을 넣고 볶아서 향기가 나면, 거기에 술 1잔을 넣고 고르게 저어 공복에 먹는다.〕

生栗方 | 생울방

生栗方〔治脚氣及腎虛氣損으로 脚膝無力이라 用生栗을 蒸熟風乾하야 每須空心에 常多食十枚면 極治脚氣의 不測이니라.〕

생울방(生栗方)〔각기(脚氣)와 신허기손(腎虛氣損)으로 인하여 종아리와 무릎이 무력한 증상을 치료한다. 생밤을 찌서 익혀 바람에 말린 뒤, 공복에 항상 10여 개씩 먹으면 예후를 알 수 없는 각기(脚氣)를 매우 잘 치료한다.〕

水芝丸 | 수지환

水芝丸〔能補五臟諸虛라 用蓮肉 一斤을 去皮心하고 入猪肚內 緊扎하고 煮至極爛이어든 搗丸梧子大하야 每三四十丸을 空心에 酒下니라.〕

수지환(水芝丸)〔오장(五臟)의 각종 허(虛)를 보한다. 연육(蓮肉) 1근을 껍질과 심을 제거하고, 돼지 뱃속에 넣고 단단히 묶어서, 완전히 뭉개지게 끓이고 찢어서 오동나무 씨의 크기로 제한(製丸)한 뒤, 한 번에 30~40환씩 공복에 술로 먹는다.〕

糯米糕 | 나미고

糯米糕〔治小便數이라 用純糯米糕 一掌大를 臨臥에 炙令軟熟하야 啖之호대 溫酒
或熱湯으로 下하고 待食消化하야 卽睡니라.〕

나미고(糯米糕)〔소변(小便)이 자주 나오는 증상을 치료한다. 손바닥만 한 손
수한 찹쌀떡을 자기 전에 부드럽게 구워 먹되, 따듯한 술이나 뜨거운 탕으로
먹고, 소화가 되면 바로 잔다.〕

服硫鷄 | 복류계

服硫鷄〔溫中、壯陽하나니 男用雌하고 女用雄이라 鷄餓一日하야 以溶化硫黃으로
拌飯하야 餒七日이라가 宰之하야 以米粉으로 糝蒸이니 每鷄 一隻을 分作五하야
早晨에 嚙이니라.〕

복류계(服硫鷄)〔중초(中焦)를 데우고, 양기(陽氣) 강화한다. 남자는 암탉을,
여자는 수탉을 쓴다. 닭을 하루 굶긴 뒤, 유황(硫黃)을 녹여서 밥과 섞어 7일 먹
이고, 잡아서 쌀가루를 뿌려 찢 것이니, 한 마리를 5회에 나누어 새벽마다 먹는
다.〕

胡桃酒 | 호도주

胡桃酒〔善治虛損腰疼이라 用胡桃肉、杜仲、小茴를 如法浸酒하야 服之니라.〕

호도주(胡桃酒)〔허손(虛損)한 요통(腰痛)을 잘 치료한다. 호도육(胡桃肉), 두
중(杜仲), 소회향(小茴香)을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술에 담가서 먹는다.〕

服椒法 | 복초법

服椒法〔擇淨蜀椒 二斤하야 去閉目者 不用하고 以塩으로 糝椒上하고 將滾湯하야 泡호대 過椒의 五寸許하고 以磁器로 慢火 煮乾호대 止留椒汁 半盞하고 將椒하야 傾在地下紙上하야 覆以新盆하고 封以黃土하야 經宿하야 置盆內니 將乾에 入甘菊花末 六兩하야 拌勻호대 更以前汁으로 灑之니 然後에 曬乾 服之호대 初服之月엔 早晚 各十五粒하고 次月엔 早晚 各卅粒하고 第三月엔 又增十粒하야 至二百粒이 어든 乃止니 每用塩酒、塩湯으로 任下라 服至半年後에 覺胃膈間에 如有物碍어든 卽每月 退十粒호대 退至十五粒에 止하야 俟其無碍하야 一如前服이니 終始行之하야 令椒氣로 早晚蒸薰이니 如一日이라도 不服則前功을 俱廢矣裏라 飲食蔬果는 並無所忌니라 凡四十歲를 過라야 方可服이니 至老히 顔容이 不衰하리니 此其驗也니라.〕

복초법(服椒法)〔깨끗한 촉초(蜀椒) 2근을 고르되, 입구가 닫힌 것은 버리고 쓰지 않는다. 소금을 촉초 위에 뿌리고, 곤탕(滾湯)을 가지고 달이되 촉초보다 5촌정도 더 많이 붓고 자기(磁器) 그릇에 넣어 약한 불에 끓여서 말리기를, 촉초의 즙이 반 잔만 남을 때까지 한다. 그리고 나서 촉초를 꺼내 지하에 깔아 놓은 종이에 쏟고, 새 동이로 덮어서 황토(黃土)로 봉하고 하룻밤이 지나면 동이 속으로 옮긴다. 이것이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감국화(甘菊花) 분말을 6냥 넣어 잘 섞고 나서 다시 앞에 남겨 둔 촉초의 즙을 뿌리고 햇볕에 말려서 복용한다. 복용하는 첫 달에는 아침저녁으로 15알씩 먹고, 그 다음 달에는 아침저녁으로 20알씩 먹으며, 석 달째에는 또 여기에 10알을 늘려 먹되, 이렇게 늘려 먹다가 200알이 되면 그친다. 매번 염주(鹽酒)과 염탕(鹽湯)과 함께 임의대로 먹는다. 복용한 지 반 년 후에 흉격(胸膈) 사이에 걸리는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매 달마다 10알씩 줄이되, 이렇게 줄여서 먹는 것이 15알이 되면 멈추고, 걸리는 것이 없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앞서와 같이 먹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일관 이렇게 실행하여 초(椒)의 기운이 아침저녁으로 훈증(薰蒸)하게 만들어 야지, 만약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앞의 노력이 모두 소용없게 될 것이다. 음식 물과 채소 및 과일 중에 꺼리는 것은 없다. 대개 40세가 되어야 비로소 먹을 수 있는 것으로서, 늙어도 외모가 노쇠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이것의 효험이다.〕

- (○ 又法은 用川椒 一斤、玄參 半斤을 爲末하야 蜜丸梧子大하야 每三十丸을 食後와 臨臥에 鹽湯으로 下니라.)

(○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천초(川椒) 1근과 현삼(玄蔘) 반근을 분말로 만들어 꿀로 오동나무 씨의 크기로 제한(製丸)하여, 매번 30알씩을 식후와 잠들기 전에 염탕(鹽湯)으로 먹는다.)

八仙茶 | 팔선다

八仙茶〔粳米、黃粟米、赤小豆、菉豆、黃豆의五味를 炒香熟 各一斤、細茶 一斤、芝麻 五合、小茴 二合、花椒、乾姜、白鹽炒 各一兩을 共爲末하고 外用麥麩의 炒黃熟을 與前藥으로 等分拌勻하고 隨意로 加入胡桃肉、棗、松子、瓜仁、白糖之類하야 磁罐收貯하고 每用二三匙를 白湯에 點服이라 此方은 乃韓飛霞의 所著로 甚有意味라 蓋茶는 冷不益人이나 然이나 高賢、雅士、文人、酒客이 未有不喜其爽神하며 去垢膩하야 而樂飲之者니 今兼炒米하야 以養胃氣하고 椒姜으로 不致中寒이라 用者는 不必全方이오 但摘二三味라도 可也나 惟鹽은 須斟酌入茶니 古에 云 慎勿將鹽 去點茶니 分明引賊 入人家라하니라.)

팔선다(八仙茶)〔갯미(粳米), 황속미(黃粟米), 적소두(赤小豆), 녹두(菉豆), 황두(黃豆) 5가지를 향기가 나도록 볶은 것 각각 1근, 작설차(雀舌茶) 1근, 지마(芝麻) 5홉, 소회(小茴) 2홉, 화초(花椒), 건강(乾薑), 백염초(白鹽炒) 각각 1냥을 분말로 만들고, 별도로 노랗게 볶은 맥면(麥麵)을 앞의 약과 같은 양으로 곁들여 섞는다. 여기에 호도육(胡桃肉), 대추, 송자(松子), 과인(瓜仁), 백당(白糖) 등을 적당히 넣고, 자기(磁器)항아리에 담아 저장하여, 매번 2~3숟가락씩 백탕(白湯)에 넣어서 먹는다. 이 처방은 한비하(韓飛霞)가 지은 것으로 매우 의미가 깊다. 대개 차(茶)는 차서 인체에 이롭지 못하나 고현(高賢), 아사(雅士), 문인(文人), 주객(酒客) 등이 모두 정신을 상쾌하게 하고 때를 제거한다고 하여 즐겨 마시는 것이다. 여기에다 볶은 쌀을 겸용(兼用)하여 위기(胃氣)를 보양(保養)하고, 산초(山椒)와 생강(生薑)을 겸용하여 속이 차게 되지 않게 한

다. 쓰는 사람은 전방(全方) 그대로만 할 필요는 없고, 다만 두세 가지만 써도 되나, 소금만은 반드시 짐작해서 차에 넣어야 한다. 옛날사람들은 다음처럼 말했다. 소금을 차에 넣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적을 집에 끌어넣는 것과 같다.)

右는 食治方이라 或이 曰萬病은 皆從口入이어늘 如何食治로 反安平耶아!? 盖飮養陽氣하고 食養陰氣하나니 飮食을 無過則入於口하야 達於脾胃하며 入於鼻하야 藏於心肺하나니 氣味相承에 陰陽이 和調하야 神乃自生일새라 盖精順五氣라야 以爲靈하나니 若食氣相惡則傷其精神이오 受五味하야 以成體하나니 若食味不調則傷其形이라 陰勝則陽病하고 陽勝則陰病이어늘 常怪 人於飮食에 鮮有得中하노니 其所以然者는 起於一點貪心이로다 或은 貪其補益하고 或은 貪其治病하야 卒致強食脾勞하며 強飮胃脹하야 脾傷胃滯而病反加劇하니 則又大失乎古人立治之本旨로 다 凡冬朝空腹거나 夏夜飽食거나 食雜有犯이면 皆令人으로 疾하리니 衛生者는 慎之어다.

위에서 기록한 것은 식치방(食治方)이다. 어떤 사람은 다음처럼 말했다. 만병(萬病)은 모두 입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식치(食治)로 도리어 평안하게 할 수 있는가? 대개 마시는 것은 양기(陽氣)를 보양하고, 먹는 것은 음기(陰氣)를 보양하는 것이니, 음식을 과하게 먹지 않으면, 입으로 들어가 비위(脾胃)에 도달하고, 코로 들어가서 심폐(心肺)에 저장된다. 이와 같이 기미(氣味)가 서로 계승하여 음양(陰陽)이 조화롭게 되면 신기(神氣)가 곧 저절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오기(五氣)를 정순(精順)하게 하여야 신령(神靈)하게 되는데, 만약 먹는 것과 기(氣)가 서로 거스르게 되면 정신을 손상시킬 것이다. 또 오미(五味)를 받아서 몸을 완성하므로, 만약 먹는 것이 고르지 못하면 형체를 손상시킬 것이니, 음(飮)이 우세하면 양(陽)이 병들고, 양이 우세하면 음이 병들게 될 것이다. 이런데도 사람들 중, 음식에 있어 중도(中道)를 얻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항상 이상하게 생각하였는데, 그 까닭은 한 점 탐욕스러운 마

음에서 기인한다. 어떤 사람은 보익(補益)을 탐내고, 어떤 사람은 질병치료를 탐내어서, 끝내 억지로 먹어서 비(脾)를 과로하게 하고, 억지로 마셔서 위(胃)를 팽창하게 하여, 그 결과 비가 상하고 위가 정체하여 도리어 키워서 심하게 만드니, 이것 역시 옛사람들이 치료법을 세운 본래 뜻을 크게 잃은 것이다. 대개 겨울철 아침에 공복으로 있거나, 여름철 밤에 포식하거나, 온갖 것을 다 먹고 금기를 어기는 일 등은 모두 사람을 병들게 할 것이니, 생명을 보전하려는 사람들은 이 점을 삼가야 한다.

2.1. 해제

2.1.1. 개요

《의학입문(醫學入門)》은 중국 명대(明代) 이천(李梴, 16세기)이 1580년 경 저술한 의학서적이다. 이 책은 모두 7권 19책으로 되어 있는데, 권1 앞에 권수(卷首)가 있고 권2는 두 번 반복되게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두 9권이 된다. 각 권은 다시 상중하(上中下, 혹은 上下)로 나누어져 있어 모두 19책에 이른다.

2.1.2. 저자사항

《의학입문》의 저자 이천의 명대 활동했던 의학자로 자(字)는 건재(健齋 혹은 健齋)이며 강서(江西) 남풍현(南豐縣) 사람이다. 그는 1500년대에 강서성 및 복건성 등에서 활동한 유의(儒醫)라는 사실 이외에 정확한 생몰연대와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남풍현지(南豐縣誌)》와 《의학입문》의 서문 격인 인(引) 등을 통해 대략적인 행적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남풍현지》와 《의학입문》인(引)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천은 자가 건재이며 읍상에서 태어났는데 재주가 뛰어났다. 용경(隆慶, 1567-1572)과 만력(萬曆, 1572-1615) 한창 때에 병이 난 것을 계기로 의학 속으로 은거하였으며 《의학입문》 8권을 저술하였다.〔李梴, 字健齋, 邑庠生, 負奇才, 當隆萬盛時以病隱于醫, 輯醫學入門八卷.〕

몸에 병이 많아서 많은 약을 두루 사용하였으나 끝내 낫지 못하였고, 탕약을 맛보는 것은 하였으나 그렇게 약을 쓴 이유는 알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문득 문을 닫고 4년 동안 고금(古今)의 방론들을 살피며 중요한 것을 가리고 적당한 말을 추리며 숨은 뜻을 밝혔다. 그런 뒤에 주제별로 묶고 각각 주석을 달았다. 사람들이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깨달도록 하고, 증상에 따라 치료해도 시행착오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으니,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애매한 병도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身病多矣，遍百藥而不竟痊，必所嘗湯液而猶未達其所以。條爾閉戶四棋，寓目古今方論，掄其要，括其詞，發其隱而類編之，分註之，令人可讀而悟於心，臨證應手而不苦於折肱，沈潛之下，因以洞察纖疴.〕

위의 기록처럼 이천은 어려서부터 유학(儒學)을 공부하였고, 젊어서 병을 얻은 것을 계기로 의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여러 의서들을 모아 읽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일대에 명성을 떨쳤다. 말년에 의학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의서를 집필하기 시작하여 10년 만에 마침내 《의학입문》을 펴냈다. 책 곳곳에서 의학을 유학의 이론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은 그의 사상적 기반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2.1.3. 구성 및 내용

2.1.3.1. 책 전반의 구성과 내용

《의학입문》은 가부(歌賦)와 주석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빌려 서술되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은 독송하기 편리하도록 모두 가부로 만들어져 있는데 《의경소학(醫經小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결과이다. 또 자세한 설명들은 해당 부위에 소자(小字)로 주석해 놓았는데 기존 의학지식을 정리하고 여기에 자신이 임상에서 얻은 견해를 융합한 것이다.

이천은 자신의 책을 내집(內集)과 외집(外集)으로 구분하였다. 내집은 권수에서 권2까지로 책의 목차와 구성 및 의학의 기초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학의 총론에 해당하는 기초이론 부분은 다시 수양(修養)이나 의학역사 같이 임상과 거리가 있는 전반부 내용과 운기(運氣)·경락(經絡)·장부(臟腑)·진단(診斷)·침구(鍼灸)·본초(本草) 등 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후반부 내용으로 구분된다. 외집은 권3에서 권7까지의 부분으로 질병 치료의 기술적인 부분을 서술해 놓았다.

외감(外感)·내상(內傷)·잡병(雜病)·부인(婦人)·소아(小兒)·외과(外科)·괴질(怪疾)·구급(救急)의 내용과 이에 해당하는 처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권차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 * 卷首 : 集例、先天圖、天地人物氣候圖、明堂仰伏圖、臟腑圖、用藥檢方總目、釋方、音字、歷代醫學姓氏、原道統、陰鷺、保養、運氣。
- * 卷一 : 經絡、臟腑、觀形察色、聽聲審音、問證、診脈、鍼灸。
- * 卷二 : 本草。
- * 卷三 : 溫暑、傷寒、傷寒用藥賦、傷寒總方、內傷、內傷總方。
- * 卷四 : 雜病提綱、雜病分類。
- * 卷五 : 婦人門、小兒門、外科。
- * 卷六 : 雜病用藥賦。
- * 卷七 : 婦人小兒外科用藥賦、雜病婦人小兒外科總方、通用古方詩括、急救方、怪疾、治方、習醫規格。

2.1.3.2. 식치문(食治門)의 구성과 내용

권우이(卷又二) 본초(本草) 마지막에 수록된 <식치문(食治門)>은 《식감본초(食鑑本草)》·《대관본초(大觀本草)》·《집운(集韻)》 등에서 식치에 활용할 수 있는 본초 지식을 채록하여 정리한 것이다. 미곡부(米穀部)·채부(菜部)·과부(果部)·수부(獸部)·금부(禽部)·충어부(蟲魚部) 등 6가지 분류로 191종의 약재를 설명해 놓았다. 이를 분류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 미곡부(米穀部) : 갱미(粳米), 진창미(陳倉米), 나미(糯米) 등 21개 약재
- * 채부(菜部) : 총백(葱白), 대산(大蒜), 소산(小蒜) 등 35개 약재
- * 과부(果部) : 다명(茶茗), 대조(大棗), 호도(胡桃) 등 29개 약재
- * 수부(獸部) : 저육(猪肉), 야저육(野猪肉), 우육(牛肉) 등 24개 약재
- * 금부(禽部) : 단웅계(丹雄鷄), 오웅계(烏雄鷄), 오자계(烏雌鷄) 등 41개 약재

* 충어부(蟲魚部) : 이어(鯉魚), 여어(蠡魚), 즉어(鯽魚) 등 41종 약재

〈식치문〉 말미에는 치료 처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음식, 즉 ‘식치방(食治方)’이 실려 있다. 그 내용은 《안로서(安老書)》·《식의심경(食醫心鏡)》·《식료본초(食療本草)》·《양생잡찬(養生雜纂)》등에서 음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내용을 모아 적은 것으로서, 직접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식치 처방 127종이 실려 있다. 세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 창이자죽(蒼耳子粥), 총죽(蔥粥), 오두죽(烏頭粥) 등 풍(風)과 처방 13개
- * 건강죽(乾姜粥), 수유죽(茱萸粥), 천초죽(川椒茶) 등 한(寒)과 관련된 처방 4개
- * 녹두죽(菽豆粥), 면죽(麪粥), 산주(蒜酒) 등 서(暑)와 관련된 처방 4개
- * 의이인죽(薏苡仁粥), 마자죽(麻子粥), 옥리인죽(郁李仁粥) 등 습(濕)과 관련된 처방 9개
- * 생지황죽(生地黃粥), 소마죽(蘇麻粥), 여육죽(膂肉粥) 등 조(燥)와 관련된 처방 7개
- * 지황죽(地黃粥), 박하차(薄荷茶), 황련주(黃連酒) 등 화(火)와 관련된 처방 5개
- * 인삼죽(人參粥), 맥문동죽(麥門冬粥), 속미죽(粟米粥) 등 내상비위(內傷脾胃)와 관련된 처방 19개
- * 행인죽(杏仁粥), 도인죽(桃仁粥), 나복자죽(蘿蔔子粥) 등 기(氣)와 관련된 처방 12개
- * 아교죽(阿膠粥), 상이죽(桑耳粥), 나복채(蘿蔔菜) 등 혈(血)과 관련된 처방 12개
- * 복령죽(茯苓粥), 복령면(茯苓麪), 사전반후환(謝傳飯後丸) 등 담(痰)과 관련된 처방 9개
- * 치자죽(梔子粥), 감자죽(甘蔗粥), 마자죽(麻子粥) 등 열(熱)과 관련된 처방 8개
- * 구기죽(枸杞粥), 검실죽(芡實粥), 저간갱(豬肝羹) 등 음허(陰虛)와 관련된 처방 6개
- * 양육갱(羊肉羹), 계화주(桂花酒), 무술주(戊戌酒) 등 양허(陽虛)와 관련된 처방 4개
- * 삼귀요자(參歸腰子), 외신환(煨腎丸), 저신주(豬腎酒) 등 제허(諸虛)와 관련된 처방 15개

2.1.4. 의학적 의의

《의학입문》에 실려 있는 식치문(食治門)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음식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식치(食治) 사상의 발로이다. 음식으로 질병을 치료한다는 ‘식치’에 대한 인식은 동아시아 전통의학 초기부터 존재하였으나 임상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 된 것은 당대(唐代)에 이르러서이다. 당대 대표적인 의학자 손사막(孫思邈, 약581-682)은 그의 저서 《천금요방(千金要方)》(7세기 초) 권22에 〈식치편(食治篇)〉을 따로 두어 식치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질병 치료에 있어 음식으로 먼저 치료하고, 음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약을 복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학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병의 원인을 밝게 알고 (환자가) 무엇을 범했는지를 알아 음식으로 그것을 치료해야 한다. 음식치료로 낫지 않은 뒤에야 약을 복용시킨다.〔夫爲醫者，須先洞曉病源，知其所犯，以食治之，食療不愈，然後命藥。〕

손사막의 제자 맹선(孟詵, 621-713)은 8세기 초에 최초의 식치를 전문적으로 다룬 《식료본초(食療本草)》를 저술하였다. 이 책에는 최초로 약 114종의 약재가 수록되어 있었는데, 후에 장정(張鼎)이 여기에 89종의 약재를 보충하여 모두 227종의 본초를 3권에 나누어 적어 놓았다. 현재 이 책은 실전된 상태이지만 둔황(敦煌)에서 26종의 본초가 적혀 있는 잔권본(殘卷本)이 발견되었고, 후대에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한 《의심방(醫心方)》, 《증류본초(證類本草)》 등을 통해 그 면모를 알 수 있다.

《의학입문》의 〈식치문〉은 《천금요방》의 〈식치편〉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천이 손사막과 맹선의 인식을 계승하였다는 점을 방증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손사막의 주장을 직접 인용하였다.

손진인(孫眞人)이 다음처럼 말했다. 의사는 먼저 질병의 근원을 명확하게 밝혀서 그 침범한 원인을 알게 되면, 음식으로 치료해 보아야 한다. 음식으로 치료해도 낫지 않은 다음에야 약 쓰기를 명해야 한다. 이는 노인과 소아에게만

적합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 만성 질환자로서 약을 혐오하는 사람, 그리고 가난해서 약을 살 돈이 없는 사람 모두가 음식으로 조리하여 치료하는 것이 적당하기 때문이다.〔孫真人이 謂 醫者는 先曉病源하야 知其所犯이어든 以食治之하고 食療不愈 然後에 命藥이니 不特老人小兒에 相宜라 凡驕養과 及久病厭藥과 窮乏하야 無資貨藥者도 俱宜以飲食으로 調治라〕

이처럼 그는 손사막의 주장에 동의하여 적극적인 치료 이전에 음식을 통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식치의 활용 범위를 노인과 소아, 귀하게 자란 사람, 만성질환의 환자, 약을 구하기 어려운 가난한 환자 등으로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손사막의 〈식치편〉 등 초기 식치 문헌에는 어떤 질병을 어떤 음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못지않게 어떤 질병에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것을 금해야 하는지에 내용도 상당히 큰 비중으로 실려 있다. 이천은 식치의 정신을 계승하기는 하였지만 이런 내용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을 필요는 없다고 다 음과 같이 완곡하게 이를 비판하였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에는 어떤 물질을 금해야 한다는 말은 양생가(養生家)의 방법을 말한 것이니, 만약 비위(脾胃)가 강성하여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라면 구애받지 않는다.〔凡言食某物에 忌某物者는 養生家 法也니 脾盛善食者라면 不拘니라.〕

이천은 식치를 제시하면서 그 오남용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경계를 잊지 않았다.

사람들 중, 음식에 있어 중도(中道)를 얻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항상 이상하게 생각하였는데, 그 까닭은 한 점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기인한다. 어떤 사람은 보익(補益)을 탐내고, 어떤 사람은 질병치료를 탐내어서, 끝내 억지로 먹어서 비(脾)를 과로하게 하고, 억지로 마셔서 위(胃)를 팽창하게 하여, 그 결과 비가 상하고 위가 정체하여 도리어 키워서 심하게 만드니, 이것 역시 옛사람들이 치료법을 세운 본래 뜻을 크게 잃은 것이다. 대개 겨울철 아침에 공복

으로 있거나, 여름철 밤에 포식하거나, 온갖 것을 다 먹고 금기를 어기는 일 등은 모두 사람을 병들게 할 것이니, 생명을 보전하려는 사람들은 이 점을 삼가야 한다.〔常怪 人於飲食에 鮮有得中하노니 其所以然者는 起於一點貪心이로다 或은 貪其補益하고 或은 貪其治病하야 卒致強食脾勞하며 強飲胃脹하야 脾傷胃滯而病反加劇하니 則又大失乎古人立治之本旨로다 凡冬朝空腹거나 夏夜飽食거나 食雜有犯이면 皆令人으로 疾하리니 衛生者는 慎之어다.〕

음식은 탐욕으로 과해지기 마련이다. 보약이나 질병치료를 핑계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비위(脾胃)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식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천이 제시한 식치의 정신은 물질적인 풍요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1.5. 서지 특성

《의학입문》은 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학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을 염두하고 지어졌다. 하지만 그 내용은 총론에서 각론까지, 쉬운 부분에서 심오한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다. 때문에 간행 이후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애독되었다. 특히 조선에서는 문장의 유려함과 저자의 유학적 식견 덕분에 많은 유익들의 필독서였으며 1610년 이후에는 의학이론은 《의학입문》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실제임상은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풍토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순조 31년에는 의과시험의 강서(講書)로 채택되었으며, 일제강점기 의생(醫生)들 사이에서도 널리 애독되었다.

《의학입문》은 처음 출간된 이후에 중국과 한국, 일본 등지에서 수 십 차례 간행되었으며 현존하는 판본만도 약 20여 종에 이른다. 한국에서 간행된 것을 살펴보면 대략 5-6차례가 확인된다. ①조선 초간본으로 보이는 훈련도감활자 초간본(訓鍊都監活字 初刊本), ②17세기 전반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초기정판본(初起整版本), ③《고사촬요(攷事撮要)》에 전주(全州)에서 간행되었다고 기록된 보각중간본(補刻重刊

本), ④순조(純祖) 18년(1818) 간행된 판본으로 현재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무인내국
중교개간본(戊寅內局重校改刊本), ⑤융희(隆熙) 3년(1909)에 간행된 활자간본(活
字刊本)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무인내국중교개간본은 글씨와 판각이 아름다워
현재도 영인본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융희 3년 활자간본은 구한말의 간본으로 비교
적 다수가 현전하고 있다.

※ 참고문헌

- 三木榮. 朝鮮醫書誌. 學術圖書刊行會, 1973
- 谢海洲, 马继兴. 《食疗本草》. 人民卫生出版社. 1984:158-170.
- 孫思邈. 《孫真人千金方》. 人民卫生出版社. 1996.
- 曹瑛. 〈中医食疗发展史简介〉. 中国民间疗法. 2001;9(3):46-47.
- 이천(진주표 역). (신대역편주)의학입문. 법인문화사:2009.
- 오준호. 여말선초의 식치의학과 식의심감. 오준호 한국 의사학회지.
2012;25(2):1-10.

2.2. 일러두기

○《의학입문 식치문》 본문은 《의학입문(醫學入門)》 권우이(卷又二)·본초(本草)》 마지막에 수록된 〈식치문(食治門)〉과 〈부.식치방(附.食治方)〉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의학입문 식치문》의 원문은 채인식·안병국·이병행 본의 현토를 따랐다.

○ 본문의 내용이 긴 경우 가독성을 위해 표시없이 임의로 개행하였다.

○ 소주(小註)는 다음과 같이 들여쓰기 하였다.

예시)

- 〔麴、紅麴、麥芽、油麻、食塩、扁豆、赤小豆 已上은 俱見前卷하니라.〕
〔신국(神麴), 홍국(紅麴), 맥아(麥芽), 유마(油麻), 식염(食塩), 편두(扁豆), 적소두(赤小豆). 이상은 모두 전권(前卷)에 나와 있다.〕

○ 열람의 편의를 위해 속자나 이체자는 가능한 정자로 입력하였다.

예시) 湿 → 濕

○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기호가 사용되었다.

【】：음각

예시) 【大豆黃卷】味甘平하니

출판사항

<참고> 글꼴 설정을 "원본"으로 지정해야 글자가 제대로 보입니다.

글꼴 적용 로딩시간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명 : 국역 의학입문 식치문 / 醫學入門 內集卷又二上下 食治門·附食治方

원저자 : 이천(李樾)

국역 : 임진석

해제 : 임진석

발행인 : 권오민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18년 1월 15일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고 판본을 조사·수집한 이는 오준호이고,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들고 역자와 책의 방향을 논의한 이는 이정현이고,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 2018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번역서 e-book[식치편] @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과제 : 《K18201》한의 고문헌 데이터 구축 및 분석 도구 개발

